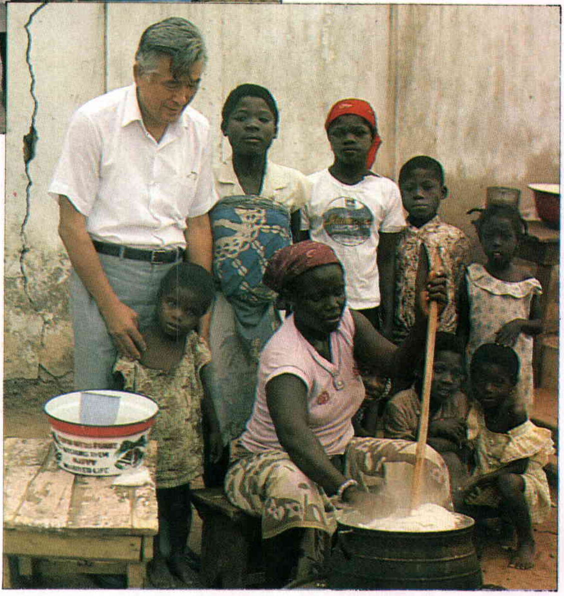
스스로 개척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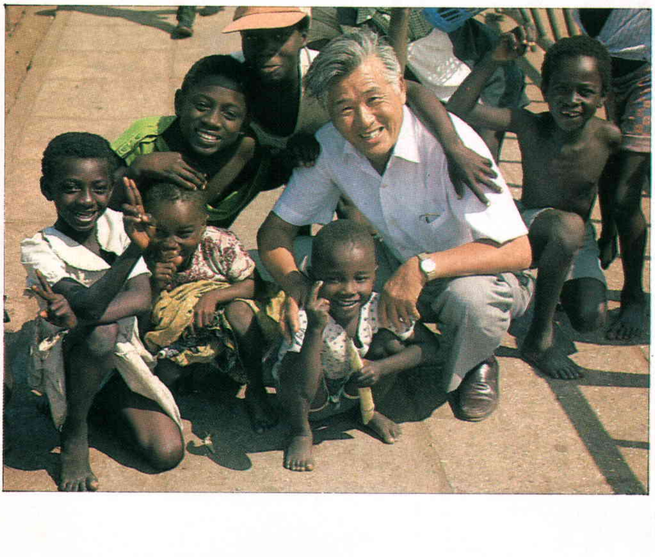




가나의 원주민들.
그들은 한국인 목사의 설교에 귀를 귀울였다. 예배가 끝났을 때는 몹시도 나를 반겨 주었다. 생면부지의 사람들이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빨리 친교할 수 있었다.



가나의 수도인 아크라 거리의 떡 장사. 사회주의로 전환한 후 생활 필수품이 부족해 국민들은 고통을 많이 겪고 있다.



가나의 어린이들.
가나는 아프리카의 사회주의 국가로서 문화 수준이 높은 편이다. 청년들은 유학시키고 있는데 주로 공산국으로 보내고 있다.

불란서 말이 공용어이기 때문에 불란서 말로 배우는 가봉교회 주일학교 학생들. 물론 한글 학교도 있어 한글을 익히는데도 게을리하지 아니한다.



가봉의 한인 교회.
가봉 교포들은 '목사를 처음 만났다' 면서 하루에 세 번 집회하는 즉흥 부흥회를 열흘간 해달라고 부탁해 왔다.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목이 말랐으랴! 목자없이 유리하는 양떼들 같았다.



아이보리 코스트의 수도 아비장의 유일한 한국 식당.
이 서울 식당에는 한국인, 불란서인, 원주민, 각국 관광객들이 즐겨 찾아 오고 있다. 이 곳 아비장에서는 한국산 자동차(포니)를 많이 볼 수 있다.



가봉 한인 교회의 성가대.
풍금과 기타가 몰만하다. 쌍용 회사가 지은 건물에 교회가 입주하여 40여명 정도의 신자가 정기 예배를 드린다. 목사가 없어 본국으로 부터 수송되는 설교 테이프로 매주일 예배를 드린다.



가봉의 황토색의 원시적 마을.
오고이 강가에 사는 원주민들의 주업은
고기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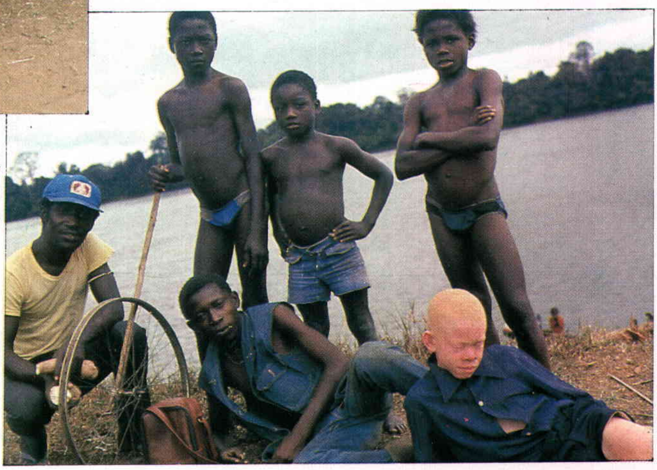
가봉의 오고이 강가에 있는 원주민의 집.
가봉에는 한국 교포가 약 3백명이 살고 있는데
그 중 약 3백명이 어업 종사자들이다.





에디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 거리의 붉은 깃발.
사회주의로 변모된 에디오피아는 왕정 시대보다
더 사회적 불안과 경제적 빈곤이 팽배해 있다.
아프리카 방문 국가 중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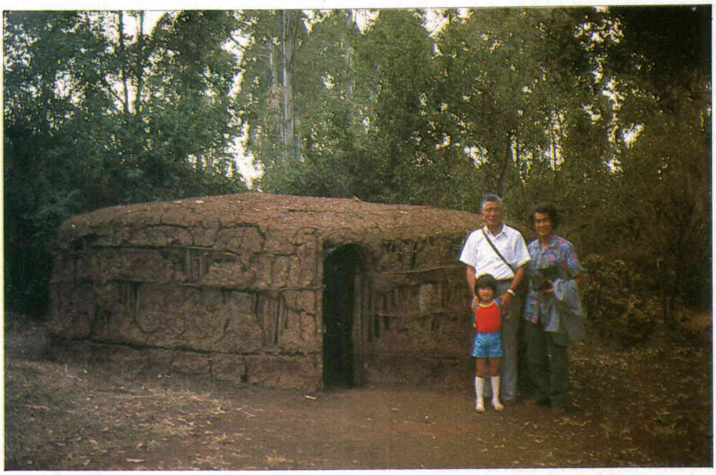
가봉의 어린이와 불란서에서 온 나병든 소년.
슈바이처 박사의 병원 밖에는
나환자들의 수용소들이 무수히 있다.



케냐의 원주민의 집.
케냐를 비롯하여 아프리카의 각국 수도는 20세기의 서구 도시의 분위기와 거의 동일하지만 교외 또는 농촌은 문명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누가 이들에게 복음의 빛을 가지고 가랴?



케냐의 원주민의 집.
나무와 진흙으로 만들어졌다. 아프리카의 땅은 비옥하여 식물이 무성하며 농사도 잘된다. 이들이 농사를 하려고 노력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만…



케냐의 원주민의 집.
한국 선교사가 이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치려 해도 이들은 놀고 먹는 것이 자기들의 생태이기 때문에 배우려 하지 않는다고 한다.





슈바이처 박사와 평생을 같이 봉사한 노간호원과 유럽에 온 젊은 백인의 천사들. 슈바이처 박사가 세운 가봉의 랑바레의 병원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은 이 산증인을 만나게 된다.



슈바이처 박사 내외는 평생 봉사하던 이 병원 옆에서 잠들어 있다. 함께 일하던 간호원들과 함께…



슈바이처 부부가 평생 사용하던 침대. 그는 백인들의 속죄를 위하여 젊은 시절 암흑의 땅에 와 온갖 고난을 감수하면서 일생을 흑인들을 위하여 계몽하고 치료하며 봉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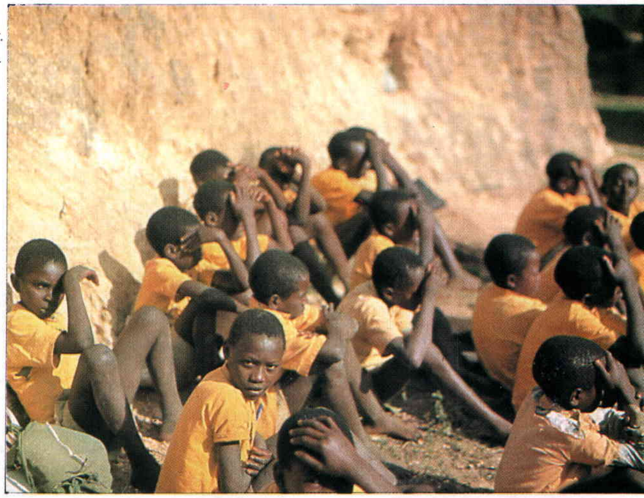


케냐에서 옥외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의 젊은 여선교사들. 이들은 케냐 말을 배워서 이 나라 말로 선교하며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는데 원주민들의 박수 갈채가 끊일 줄 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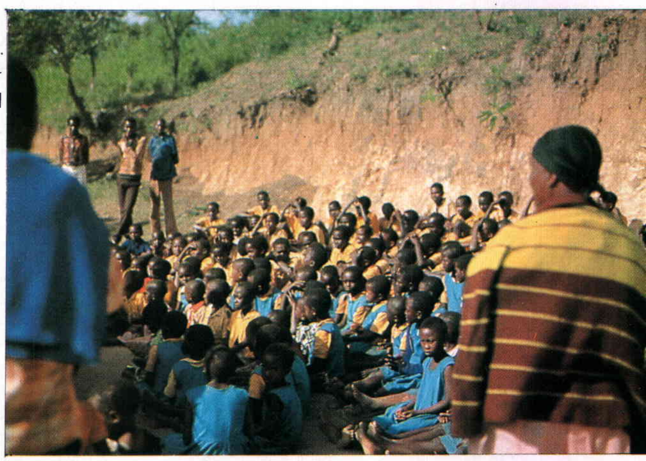


케냐 한인 교회 신자들. 한국 선교사들이 많이 이 곳에서 일하고 있다. 이 곳에는 한인 교포가 약 1백명이 살고 있는데 그 중 약 40명이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케냐의 어린이들.
교육 기회의 부족과 무지는 아프리카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누가 이들을 교육할 것인가?



케냐의 어린이들을 위한 옥외 전도 집회.
불안한 사회 구조 속에서도 선교 활동은 비교적 괜찮은 편이다. 아프리카의 미래는 이 어린이들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랑바네 거리에서 말린 고기를 파는 여인.
슈바이처의 생존 시보다는 관광객들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은 관광객들이 이 곳 랑바네를 찾아 온다



스스로 개척하라

모든 정직한 기독교 지성인들에게 이 진실한 고백의 설교를

(추천사)

이상훈/서울신대 학장

평범한 나의 의식세계에서 쉬지 않고 순환하며 되 돌아오는 인물이 몇 분 있다. 그런 분들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좀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그런 분들은 나에게 없는 어떤 특정적인 강열한 개성이 있어서 나의 관심을 사로 잡기 때문이다.

그런 특수한 인물 중의 한 분이 임 동선 목사님이시다. 그 분은 나의 의식세계 속에서 특이한 광채를 발산하는 존재이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문득 생각에 떠올라 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여 나의 의식세계 속에 언제나 자리잡고 군림하는 분이다.

내가 처음 임 동선 목사님을 알게 된 출발점은 아주 예사롭지 않은 나만의 사건이었다. 그러니까 6. 25직전 한 해 전인가, 두 해 전인가, 그런 이른 봄이었다. 내가 내 집보다 더 애정을 느끼면서 출석한 초라한 원주의 성결교회에서였다. 당시 이 교회는 너무나 보잘 것 없는 평범한 교회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평화로운 안정감 같은 것을 주는 곳이었다. 그런데 하루는 주일 아침에 일찌기 출석을 하고보니 분위기가 생동하는 느낌이었다. 내게는 파문이 일고 출렁거리는 것이었다. 교회 건물 앞에 낯선 말쑥한 신사 한분이 뒷짐을 지고 왔다갔다 하면서 무엇인가 교훈하고 있으며 그 앞에는 붉은 색이 있는 온 가죽 성경을 가슴팍에 끼고 차렷 자세로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건장한 대학생 풍의 청년이 눈에 띄었다. 심히 엄숙하다. 순간적으로 서울에서 내려온 교수와 신학생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방 교회에서의 전도와 실습을 하던 한 신학생에게 매섭게 무엇인가 지적을 하고 있는 그 교수의 인상이 내 눈에 따가왔다. 후에 예배시에

그 교수는 미국인 선교사를 통역하는 최 석모 목사님이고 그리고 그 후 현장에서는 직접 만날 수 없었으나, 그 청년 신학생은 유명한 임 동선 전도사이었다. 이 기이한 첫번째의 해후는 나에게 강열한 음화처럼 뇌리에 양각되어 조용한 흥분을 주었다. 최 석모 목사님의 영어 실력은 그의 통역에서 유감이 없었으며, 나에게는 그가 그 때 이미 나의 작은 영웅이 되었다. 그 젊은, 서울 신학교를 갓 나온 검은 대학생복의 청년의 뒷 모습의 인상이 더욱 강렬하였다.

그후 임 동선 전도사, 그리고 즉시 목사가 된 그의 소식은 계속 명확한 줄을 그어 가며 나의 깊은 관심에 와 부딛혔다. 그의 이북에서의 극적인 탈출, 정열적인 웅변, 여주교회에서의 목회, 그러다가 내가 서울 신학교의 3학년 시절에는 그 분은 부산시 온천동 성결교회에서 목회를, 그리고 나는 그 분 밑에서 교육 전도사로 있다가 역시 그분의 권면과 중매로 나의 아내를 맞이 하게 되었다. 그 때 그 분의 나의 빙모 한 도숙전도사님과 빙부이신 김 기산 목사님께 대한 소개와 나를 대담하게 그 분들에게 가정예배로 이끌어 주신 배려가 없었다면, 생면부지로 어찌 성혼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임 동선 목사님은 나의 의식세계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역사 속에 깊이 동참하는 어른이 되었다.

내가 그 분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그 분의 열화같은 설교이다. 본래 설교는 기술 이상이다. 설교는 결코 우연의 소치가 아니다. 설교는 인격이기 때문이다. 그 분의 설교에는 소위 '프로' 라고 하는 반감이 일지 않는다. 언제나 간절하다. 언제나 눈물과 한숨을 그의 설교에서 윤기처럼 전도받게 한다. 그의 소명과 그의 감격과 그의 파란과 그의 우여곡절과 그의 헌신이 '땀과 눈물과 기도' 와 함께 그의 정직한 호소에 실려 있기 때문이다.

그 후에 임 목사님이 공군 군종감이었던 시절에 나는 병과가 다른 육군군목으로 군종감실에서 복무하였다. 그 때에 사실은 차치하고라도 이런 전설이 있었다. 주일 아침이면 삼각지 모퉁이에 전령이 대기하고 있어서 당시의 이승만 대통령이 한강쪽으로 방향을 잡느냐, 아니면 육군본부교회로 우회하느냐, 예령을 통보하게 하였

으며 많은 경우에 한강을 건너 갔다는 내용이다. 물론 임 동선 군종감의 설교 때문이었다. 나는 사실의 객관성을 중시하지 않는다. 나는 전설을 좋아한다. 그리고 임 동선 목사님은 나에게 있어서는 전설적 인물이요, 나의 영웅이시다.

금번 그 분은 그 동안의 강단 사역을 엮어 설교 제2집. '스스로 개척하라' 를 내놓으셨다. 수식없는 간절함이 흐르는 이 설교들을 대하는 만 천하의 기독교인들과 그리고 정직한 웅지를 품고 있는 모든 젊은 지성인들에게 일관하는 존경과 감사로 추천하는 바이다.

1985. 4. 16 서울신학대학 집무실에서

이민 생활의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면서
(머리말)

공군 특수 목장에서 11년 만에 예편을 한 후 자기 충실을 위하여 미국 유학의 길에 오른 지 벌써 20년이 되었읍니다. 소정의 과정 공부를 마치면 모국으로 돌아갈 계획으로 왔으나, 공부하는 동안 주변 성도들의 간청에 의하여 동양선교교회를 시작한 것이 금년 7월, 만 15주년이 되었읍니다. 교회 창립 15주년 기념 행사 준비 위원들이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설교집을 내기로 결정을 보았기 때문에 두번째 설교집(첫번째는 모국에서 출간한 '절망의 극복')을 내게 되었읍니다.

이 설교집은 이민 교회 강단에서 설교한 것들 중에 몇 개의 제목을 간출하여 엮은 것입니다. 제목은 '스스로 개척하라'로 정했읍니다. 이민의 역사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민의 선구자요, 야곱도 이민자요, 모세는 이민의 후손이라고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도 이민자의 한분이었다고 볼 수 있읍니다.

이민생활이란 고달픈 생활입니다. 영토와 언어와 가치와 풍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 이민생활이란 문제성이 많이 있읍니다. 미국은 광활하고 풍요한 땅, 물질 문명과 기계 만능의 땅, 자유와 방종의 땅, 세계 인종이 집합된 땅이기에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범인인가 합니다. 또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로 2세 교육문제, 결혼문제, 가정문제, 노인문제, 인종문제, 주류 사회 진출 문제 등이 있읍니다.

이러한 특수 목장에서의 목회란 모국 교회 목회보다는 더 많은 신경과 인내와 노력이 요청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설교집의 내용들은 이민 정착 과정에 있어서의 필요한 정신적, 신앙적 자세를 다루는 내용들입니다.

이 설교집을 통하여 이민 목회에 수고하는 동역자들에게 일고가 되고 이민 정착 생활에 분망하느라 고달픈 성도들과 교포들에게는 다소의 위로와 소망과 격려가 된다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원고를 교정해 주신 동문 이 정근 목사와 이 설교집이 나오기까지 모든 것을 지원해 주신 본 교회 창립 15주년 행사위원들에게 중심으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1985. 6. 25. 한국동란 35주년을 회상하면서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임 동 선

목 차

새로운 개척

절기 설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프리카선교기행 -

제1부
선교교육봉사

전하라, 가르치라, 섬기라
(사명의 재확인)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군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군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장 35－38절)

새해 첫주일을 맞이한 우리들은 또 한 해 동안 허락된 우리 생명의 존재 의미를 다시 한 번 찾아봐야 하겠읍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부과된 시대적이고도 역사적인 사명 의식이 무엇임을 다시 한 번 밝히고 새해를 출발하는 것이 가장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일찌기 하나님께서 유대 소년 요셉을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 보내게 한 것은 장차 그 민족을 흉년에서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읍니다. 또한 어린 유대 소녀가 페르시아 나라 왕후가 된 것은 하만의 손에서 그 동족을 구원하고 예루살렘 재건과 장차 그 민족 속에서 메시야를 탄생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기 때문이었읍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일찌기 유대땅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라는 국제 도시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국제 문화로 목욕을 하고 자라난 것은 세계 전도자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을 이 미국땅에 보내시고 이 곳에 와서 살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만 육신의 배나 불리고 우리만 평안히 안전하게 잘 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보다 더 깊고 넓은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어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살게 된 줄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예수님 생애의 사업의 요약을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셨고 그 중에 삼 년 동

안은 공생활을 하셨읍니다. 그 분은 짧게 살았지만 굵게 사셨고 아주 깊게 사셨기 때문에 그 업적을 다 기록 하려면 요한복음의 말씀과 같이 그 책을 쌓아 둘 곳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 많은 업적은 마태복음 9장 35절 한 절의 말씀으로 요약되고 있읍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즉 다시 말하면 선교하시고 교육하시고 또 봉사하신 것이 예수님의 생애의 전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동양 선교 교회를 세운 것도 이 말씀을 근거한 것이고 우리 교회 설립 목적인 선교, 교육, 봉사, 3대 사명도 이 구절을 근거해서 세운 것입니다.

1983년도의 우리 교회 표어가 '교육하는 교회' 입니다. 교육을 잘 시켜서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선교사의 자격을 갖추게 하여 그들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회를 정화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게 하기 위해서, '교육의 해' 라는 표어를 가지고 금년은 우리가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첫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의 의미와 사명 의식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찾기 위해서 '전하라, 가르치라, 섬기라' 는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의 말씀을 피차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선교적 사명을 가졌읍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와서 말씀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고 했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제자를 삼으라"고 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읍니다. "성신을 받아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지상명령, 유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 드리는 것과 같이 오늘날 세계는 여러 가지 불안과 공포와 초긴장 속에 있읍니다. 그 문제는 모두가 다 군사적인 문제보다도, 사상적인 문제보다도, 과학적인 문제보다도, 도덕적인 문제보다도, 더 근본적인 영토 문제입니다. 의식주 문제입니다. 보다 더 우리나라가 잘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문제는 영토 문제, 의식주 문제가 아니라 인간 문제입니다. 윤리적인 문제요, 윤리적인 문제는 교육적인 문제요, 교육적인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요, 종교적인 문제는 복음적인 문제입니다. 이 복음으로 인간 개혁, 인간 혁명, 새로운 창조물이 될 때 이 사회는 좀 더 안정되고 희망이 있고 또 우리에게 행복을 안겨다 줄 수 있읍니다. 그러나 이대로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동물학적으로 타락해 나가다가는 동물과 같이 피 흘리는, 피 비린내 나는 송장의 산골짜기 밖에는 될 것이 아무 것도 없고 잿가루로 화할 수 밖에 없는 이 현실에 입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목적이 뭐냐고 생각할 때, 선교라는 것은 그저 내 이웃 사랑, 내 동족에게만 전도해서 우리만이 잘 살고 우리 민족만 잘 살겠다는 그런 편협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동족은 그만 두고, 우리 나오는 요 식구만, 주일에 예배 드리고, 끝나면 도나스 먹고, 커피 마시고 좀 하면 비빔밥, 그 다음에 냉면 삶아먹고… 그게 전부인 사람들에게는 교회 존립의 의미가 없읍니다. 교회라는 것은 선교할 때만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한 것처럼 선교의 범위는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온 인류 지구 구석 구석까지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교의 지역입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 간판이 잘못됐다고 그럽니다. '동양 선교 교회'라고 그러면서 왜 저 독일에도 선교사를 보내고, 이태리도 선교사를 보내고 파라과이에도 병원을 짓고, 브라질에다도 지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것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 말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읍니다. 요한 웨슬레가 "세계가 나의 교구"라고 일찌기 갈파한 것은 정말 큰 하나님의 사람의 포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읍니다. 세계가 우리의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이웃이나, 공장이나 회사나, 학원이나, 군대나, 병원이나, 감옥이나, 우리 모국이나, 저 구라파, 남미 몇 나라만 우리 교회 선교지가 아니라 전 세계가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외 교포 교회로는 처음으로 저에게 금년을 안식년으로 당회와 제직과 여러 교우들이 허락해 주셨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 안식년에 낚시질이나 하러 다니고 명승지 관광이나 다니고, 독서나 하는 낭만은 저에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년을, 물론 절반은 이 교회에서 여러분과 같이 여전히 예배를 드리겠지만 나머지 절반은 이제 이달 하순에 동남 아시아에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인도, 태국, 홍콩, 대만을 우선 들려 선교의 현장에 가서 한 번 시찰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직접으로, 간접으로 그 곳에 선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 번 찾아보고 와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가을철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일찌기 100여 년 전에 그 땅을 다 샅샅이 우리에게 알려 주었던 위대한 선교사 리빙스턴이 밟았던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의 현장을 둘러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범위는 이 지구 땅덩어리가 다 우리선교 현장이고, 앞으로 더 가야만 할 그런 시점이 언젠가는 올 날이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는 곳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 교회가 필요합니다. 선교의 방법 곧 "어떻게 선교하느냐"는 물음에는 개인 선교, 가정 선교, 대중 선교, 매스콤 선교, 문서 선교, 또한 시청각 선교, 학원 선교, 국내 선교, 국외 선교로 나누어 대답할 수 있읍니다.

우리는 교육적 사명을 가졌읍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가르치시며…"라고 했읍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복음만 전파하지 아니하시고 윤리, 도덕을 가르치셨읍니다. 참 사람이 무엇이냐, 어떤 것이 참 가치가 있느냐, 어떤 것이 본질적이냐,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이냐, 어떤 것을 먼저 해

교회 교육의 목적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도록, 예수의 정신, 예수의 사상, 예수의 인격,예수의 생활,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이 교회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예수님과 같이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 남이 나를 사랑했으니 그 사람만 사랑한다는 타산적인, 합리적인 사람이 아니라 조건없이 봉사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교회 교육의 목적인 것입니다.

야 하느냐, 이 문제를 가르치셨읍니다. 여러분, 희랍 나라가 오늘도 문화적, 철학적, 예술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나라의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일찌기 그 나라는 문화의 발상지이었기 때문입니다. 인도나 애굽의 문화를 지금도 우리가 무시하지 못합니다. 역사가 있는 나라입니다. 전통이 있는 나라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는대로 이 현대에 있어서도 독일이나 일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에서 그래도 어깨를 펴고 다닐 수 있는 것은 독일, 일본, 유대사람들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계는 그들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교육입니다.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유대 사람들이 미국에 올 때는 거지 모양이었읍니다. 그들은 거기서 쫓겨 다니다가, 그저 추방당해 가지고 마지막 종착지로 여기 왔을 때는 정말 거리에서 잠을 자고 깡통에서 부스러기를 먹던 사람들이었읍니다. 그러던 그들이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철저히 시켰더니 오늘은 양상이 달라지지 않았읍니까?

교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국은 홍익 인간, 덴마크는 성실한 인간, 영국은 신사적 인간, 독일은 능력의 인간, 미국은 실용적 인간이라고 그러지만 우리 교회 교육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말입니다. 교회 교육의 목적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도록, 예수의 정신, 예수의 사랑, 예수의 인격, 예수의 생활,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 가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이 교회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예수님과 같이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 남이 나를 사랑했으니 그 사람만 사랑한다는 타산적인

합리적인 사람이 아니라 조건없이 봉사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교회 교육의 목적인 것입니다.

교육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일반 학교에서는 그저 어린 아이들만 가르칩니다. 젊은 아이만 가르칩니다. 그러나 태중에 있는 어린 아이부터 오늘 무덤에다가 발 하나를 넣어둔 사람까지 가르치는 것이 교회 교육입니다. 돈이 없어도 좋습니다. 문벌이 없어도 좋습니다. 계통적인 기초 교육을 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입학 원서도 필요없읍니다. 신체 검사도 필요없읍니다. 돈이 없어도 누구든지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전인적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인간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이 태중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그 애기를 가졌을 때 그 어머니가 건강해야 그 애기가 건강한 애로 태어납니다. 그 애기를 가졌을 때 어머니가 편안하고 기쁘고 행복해야 명랑해야 그 아이가 아주 명랑한 성격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 교육의 대상은 광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태중 교육에서부터 유치부, 유·초등부, 대학부, 장년 그 다음에는 상락회의 칠십, 팔십 세 되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교육시킵니다. 이것이 교회 교육입니다.

교육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는 것입니다. 먼저는 좋은 교육자를 우리가 모셔야 합니다. 그 교육자에게는 우리가 돈에 대해서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슐러의 목회 철학입니다. 가장 우수한 사람을 모셔다가 사례하고 교회를 발전시켜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짜야 합니다. 내용이 충실해야 합니다. 좋은 교사를 확보하고 또한 학술 교육 및 세미나를 자주 가져야 합니다. 시설 강화, 교재 확보, 도서관 충실 및 효과적으로 장학금을 지불하는 인재 양성, 제직 및 구역장 교육과 훈련, 전 교인의 성경 읽기, 성경 연구 운동, 또한 그 교회의 부속 학교의 시설, 이런 것이 교육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보려고 시작했고 지금 여전히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아주사 대학도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우리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가 독자적으로 운영해야만 될

것입니다. 큰 교회가 운영할 때 좋은 신앙 교육을 그들에게 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해 제직들을 새로 임명해 가지고 오는 수요일부터 목요일 이틀 동안은 저녁마다 교회에서 제직 수련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은 산으로 올라 갑니다. 하룻밤과 이틀 동안 산에 가서 기도하며, 친목하며, 거기서도 교육과 훈련을 받습니다. 이런 훈련 때마다 부득이해서 빠진 우리 제직이 있거든 이번 제직회 수련회만은, 83년도 이 제직회만은, 1년에 한 번 있는 이 제직회는 제직들이 모두 것을 좀 중단하시고, 희생하시고,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자신이 변화가 되어야 믿는 사람에게 모범이 될 수가 있읍니다. 또 산에 올라갈 때 자녀가 있어서 염려가 되는 분은 이번에는 아기를 봐주는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또 가게문을 열어야 할 사람, 직장에 가야할 사람은 밤에 올라갔다가 새벽에 기도회하고 내려오면 됩니다. 우리가 동물원에 가 볼 것 같으면 그 짐승도 교육받은 짐승은 재주를 부리는 것을 볼수 있지요? 교육받은 동물이 재주를 부립니다.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봉사적 사명을 가졌읍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대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러 왔다고 하셨읍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몸까지 주어서 우리들을 구속하러 왔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말 구유간에 태어났으며, 노동을 하였고, 3년 동안 입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밤잠 못자고, 옷 두 벌도 없고, 주머니 용돈도 없고, 집 한 칸 없고, 죽어도 묻을 땅 석자도 없이, 일생을 봉사하다가 몸 전체를 통채로 다 주고 가신 봉사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전세계가 그 분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슈바이처를 왜 존경합니까? 간디를 왜 존경합니까? 그들은 봉사를 많이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봉사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새로 이민온 가족을 우리가 뒷바라지 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문제가 있는 가정을 돌봐 주는 것입니다. 자녀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혹은 자녀들이 세상을 떠난 가정들을 우리가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돌아 보는 일, 또한 노인 문제, 그리고 생계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교포들 가운데 끼니를 굶는 사람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신자 가운데도 한국에서 왔읍니다만 직장도 없읍니다. 사업도 돈이 없어 못합니다. 말이 통하지 못하니까 나라에서 주는 혜택도 못 받는 분이 계십니다. 굶고 산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집사님이 심방 목사님에게 쌀 열 포대를 사드리면서 "이것 그 집에 갖다 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해서 나를 심부름시키는 거니까 전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또 쌀 포대를 사다 놓고서는 굶는 분이 있으면 몇 포대씩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서 보세요. 얼굴 보시고 조반 잡숫지 못하고 오신 분, 굶는 사람이 있거든 얘기해 주세요. 쌀 몇 포대씩은 줄 수 있읍니다. 우리 교회 마켓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한 열 포대씩 가져 오라면 아마 잠깐 만에 오십 포대는 가져 올 테니까 전부 보고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봉사의 사명입니다. 또한 질병으로 오랫동안 누워있는 사람이 있읍니까? 여기 안 우경 권사님이 지금 오랫 동안 누워 계시는데 정월 초하루날 0시에 그 아들 성국 군이, "주여 새해에는 어머님 병이 완쾌되어 간증할 수 있는 날을 갖게 해 주옵소서" 하며 적은 물질이지만 소원의 헌금을 바쳤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새벽 기도에 합심해서 기도했읍니다. 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이 분을 찾아가서 격려해 주는 이것도 우리의 봉사인 것입니다. 또한 어려움을 당하는 소수 민족을 도와 줍니다. 멕시코 국경을 넘어 온 고아들을 도와 줍니다. 불법에 옥중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 줍니다. 모국과 전 세계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펴는 것이 봉사입니다. 방법은 몸으로 해야

합니다. 물질로 해야 합니다. 은사로 해야 합니다. 의술을 가진 사람은 의술 봉사, 법률을 가진 사람은 법률로 봉사, 돈받지 않고도 가서 고쳐주는 그런 봉사를 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희생으로, 충성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의 사명을 지니고 활동한 사람이었읍니다. 이사야는 조국의 망국의 수습을 위해서 사명을 걸머지고 일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일생 동안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희생적으로 봉사한 사람입니다. 리빙스톤은 스물 일곱살에 저 흑암 대륙에 들어 가서 그 대륙을 샅샅이 뒤지면서 의료 사업, 탐험 사업을 마치고 그 곳에서 마지막 늙어서 병들어 죽은 사명의 사람입니다. 페스탈로찌는 민주주의의 교육을 위해서, 고아들을 위해서, 농촌 아이들을 위해 일생을 바친 사명의 사람입니다. 나이팅게일은 그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아리따운 여성이지만 병자와 고아와 노인과 추악한 여인들을 위해서 일생 동안 결혼하지 아니하고 살다가 갔기 때문에 그를 기념해서 세계 적십자가 지금 탄생된 것입니다.

옛날 우리 한국 나라에 대하여 외국 사람들은 말하기를 고요한 아침의 나라, 군자의 나라, 동방 예의 지국의 나라라고도 했지만 은둔의 나라, 후진의 나라, 중국과 일본의 속국의 나라라고 얕잡아 보았읍니다. 1945년으로 우리나라는 양상이 바뀌어졌읍니다. 해방이 되었읍니다. 자유를 얻었읍니다. 독립 국가가 됐읍니다. 6·25 동란으로 말미암아 동족의 피 비린내 나는 쓴 잔을 마신 바 있지만 1970년대는 세계 속의 한국으로 등장했읍니다. 오늘날 한국은 경제력이 있읍니다. 중동에는 지금도 우리 한국 기술자들이 밤낮 가리지 않고 중동 개발을 위해 크게 공헌하고 아프리카도 그렇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한 것과 같이 독일에 가면 우리 3천 여명의 한국 간호원들이 독일 남자들과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들 가운데는 경찰 서장도 있고 고등 학교 선생, 아니 대학 교수, 거기에는 또한 상당한 법률가도 있고 의사도 있고 등등 상당한 사람들이 있읍니다. 오늘 미국에도 얼

마나 많은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80만 이라고그럽니다. 유명 대학에도 한국 교수들이 많습니다. 과학 분야에도 있습니다. 지금 유명 일류 대학에 우리 한국 학생들이 수 많이 들어 가서 공부하는데 십 년 후에는 우리 한국 이민의 위치가 달라질 것입니다. 경제적 위치, 정치적 위치, 모든 사회적 위치가 아주 달라질 것입니다. 교회는 오늘 세계에 가지 않은 곳이 없읍니다. 중국 사람이 가는 곳에는 요리집이 따라가고, 일본 사람이 가는 곳에는 혼다 자동차가 따라 가고, 한국 사람이 가는 곳에는 교회가 따라 간다는 말처럼 교회가 없는 곳이 없읍니다. 또 지금은 선교사가 세계 거의 모든 곳으로 나가 있읍니다. 그리고 백인 선교사보다 우리 한국 선교사가 매우 환영받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일본이나 중공에서는 우리 한국을 매우 경계하고 주시하고 있읍니다. 이 미국에서도 우리 한국 사람을 상당히 지금 경계하고 주목하고 있읍니다.

우리 동양 선교 교회는 로스엔젤레스 타임즈에도 기사가 한 번 났었읍니다. 뉴욕 타임즈에서도 기자가 다 취재해서 한번 기사를 냈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국에서 누구 초청할 때 뉴욕 타임즈 그 신문기사를 복사해서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으로 보내기만 하면 아주 수월하게 들어오는 것은 여기에 큰 원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양선교 교회는 로스엔젤레스 안에만 선교 교회가 아닙니다. 미국 안에서도 우리 교회를 압니다. 우리가 선전하지 안했는데도 중국·대만에서도 목사님들이 여기 오셔서 우리 교회 한 번 시찰하고 갑니다. 여기 가까운 신학교에서는 외국 학생들에게 이 교회 한 번 가보라고 해서 찾아오고 있읍니다. 그러나 소문난 것보다는 실지 들어와서 보면 제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별 것도 아닌데…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제부터 도약을 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전진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일할 기틀이 잡혀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이년 동안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이제는 인적 자원도 있읍니다. 주일에는 어린이까지 사천여 명이 나옵니다. 인적 자원이 있읍니다. 또 경제적인 실력도 있읍니다. 작년도에는 103 만불의 예산이었는데, 불경기, 또 이

민의 길도 이제는 좁혀졌고 해서 걱정이 됐지만 재정부의 보고를 들으니 이것이 다 해결됐다는 것을 볼 때,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관 비용 20만불때문에 당회에서는 이것 모자라면 은행에서 대부를 할까, 어떤 독지가에게 빌릴까 염려를 했었는데, 그것 다 갚고서도 오히려 지금은 몇 천 불이 남아 돌아가는 것을 보니 우리 교회가 좋은 뜻만 있고 하나님의 사업만 있다면 재정적인 저력이 있다고 저는 믿어집니다. 그 다음에 12 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것도 배웠읍니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말은 목적이 좋으니 우리가 시작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비추어 봐서 인적 자원도 있고, 물적 저력도 있고, 경험도 있고, 믿음도 생겨, 이제는 꿈도 생겼읍니다. 꿈이 생겼는 고로 우리 한국 사람은 미국에 와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과학적으로, 물질적으로, 군사적으로, 다른 면에서는 공헌하지 못하더라도, 예수 잘 믿음으로 복음 운동, 영적 운동을 일으키는 사명이 우리 한국 교포 교회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세계를 향하여 복음 전하는 사명이 한국에 있는 모 교회에는 없을는지 모르지만 이 국제적인 무대에 와서 있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갈 수 있는 우리 해외 교포 교회에는 있읍니다. 우리에게 세계적인 선교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12년 동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정말 못난 당회장을 중심하고 여러분들이 협력하심으로 이만큼 만한 교회로 성장했읍니다.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본격적으로 세계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이 국제 선교를 위해서 일해야 할 때가 금년에 돌아온 줄 믿는데 여러분들이 물심 양면을 다 합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다 합해서 선교 · 교육 · 봉사 · 국내·세계적인 사명 완수를 위해서 노력하심으로 금년은 우리 교회가 어느 해 보다도 일하는 해, 전진하는 해, 승리하는 해, 보다 더 찬란한 새 역사를 창조 하는 해가 되어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래로는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여러분 각자가 어느 때 보다도 금년은 보람을 느끼고 복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부흥하는 교회)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 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사도행전 11장19절－30절, 13장 1절－3절)

오늘은 안디옥 교회를 중심하여 "참되게 부흥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몇 가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피차에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는 부흥되어야 합니다. 초대 교회는 날마다 믿는 수가 더 하더라고 했는데, 이는 교회의 부흥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읍니다. 교회는 네 가지가 균형 잡혀서 부흥되어야만 올바르게 부흥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읍니다. 첫째는 개인적 부흥, 둘째는 교회적 부흥, 세째는 확장 부흥, 네째는 제 3세계 선교, 이 네 가지

가 고루고루 균형잡힌 교회라야 참되게 부흥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읍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네 가지를 고루 부흥시킨 가장 모범적인 칭찬 받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시작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읍니다.

개인적 부흥

참된 교회 부흥은 첫째, 개인석 부흥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것을 내적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이 개인의 부흥을 이룩하려면 세 가지를 꼭 갖추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곧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 우리 개인의 내적 부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없이 부흥되었다는 역사는 찾아 볼 수가 없었읍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세 가지를 고루고루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부흥되었읍니다.

첫째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둘이 교회에 일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라고 했읍니다. 이 말씀은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성경 학자들인 하나님의 종들이 안디옥 교회에 일년간 머물러 있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저들에게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3절에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라 했읍니다. 저들에게는 기도가 있었읍니다.

세째로 저들은 **전도**를 열심히 했읍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 "헬라 사람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 왔고"라고 했읍니다.

이와 같이 이 안디옥 교회 신자들이 내적 부흥을 이룩했던 것은 말씀, 기도, 전도 이 세 가지가 갖추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없이 부흥하겠다면 이것은 노력하지 않고 성공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공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만한 댓가를 치루고 응분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적을 믿는 종교지만 모든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이적의 배후를 예의

검토해 보면 이적이 나타날 만한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배웠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말씀을 열 네 가지로 비유하고 있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은 칼과 같고,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방망이와 같읍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는 불과 같다고 했고 야고보 1장 23절에는 거울과 같다고 했읍니다. 시편 119편 72절에 보면 금과 같다고 했고, 에베소서5장 26절에 보면 물과 같다고 했읍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책과 같다고도 했고,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양식과 같다고 했으며, 베드로 전서 2장 2절에 보면 젖과 같다고 했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생명,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꿀, 그리고 예레미야 5장 14절에 보면 나무와 같다고 했읍니다.

이렇게 말씀은 열 네 가지로 성경에 비유됐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면 성경은 칼과 같아서 우리 속의 암적인 요소 같은 것을 다 도려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빛과 같기 때문에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서 넘어지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녀들을 가진 부모님들, 어린 자녀, 십대 자녀들을 가진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내 아 들 딸들이 미국에서 탈선하지 아니하고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올바로 미국에 와서 공부를 잘하는 선량한 시민, 국제적인 시민으로 만들 수가 있겠읍니까? 많은 가 정의 자녀들이 순간적 실수로 말미암아 영영 돌이킬 수 없는 함정에 빠지는 일이 허다히 이곳 저곳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힘만 가지고는 그 자녀들을 바로 가르치기가 어렵습니다. 가정에서도 협력을 해야하고, 학교에서도 협력을 해야 합니다. 사회에서도 협력을 해야 하고, 특별히 그들이 교회에 보내지면 교회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럴 때에 그들이 실족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나쁜 친구를 사귀면 타락 합니다. 좋은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삼는 젊은이는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빛이 되는 말씀이 그들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씨'이기 때문에 이 좋은 씨가 우리 마음 밭

에 떨어지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망이 같기 때문에 돌 같이 완악하고 고집된 마음을 때려 부셔서 가루로 만듭니다. 거울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속에 비뚤어지고 잘못된 것을 찾아서 고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부유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책이기 때문에 만사 형통하는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양식이기 때문에 먹으면 영혼이 배부르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젖이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나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어린애가 젖먹고 자라 납니다. 우유먹고 자라 납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인격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장,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 새 생명이 약동하고 영원한 생명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꿀이기 때문에 먹으면 먹을수록 더 달고,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맛이 나는 것입니다. 나무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불을 붙이면 불이 타는 것 모양 말씀이 있어야 우리 마음에 성령의 불꽃이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디옥 교회는 말씀을 가르쳤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배웠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내적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두번째로 **저들은 기도했읍니다**. 보통의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보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라고 했읍니다. 금식한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금식하다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모세는 사십 일씩 시내산에 올라가 두 번씩이나 금식 기도했기 때문에 큰 능력을 받아 얼굴에 광채가 나고 사람들이 감히 그 얼굴을 쳐다 보지 못했읍니다. 그가 바로 왕 앞에 가 서니, 사람들이 모세가 신과 같다고 그랬읍니다. 모세가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손을 들면 전쟁에 이기고 내리면 졌다는 것은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겼다는 기도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분이 하나님이면서도 사십 일 동안 광야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가장 큰 대접은 무엇이겠읍니까? 음악회에 감상하러 데리고 가는 것입니까? 배불리 점심을 대접하는 겁니까? 자동차 한 대 사주는 겁니까? 장사 밑천을 주는 겁니까? 그것도 사랑일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사랑, 값진 사랑, 완전한 사랑은 아닙니다.
참 사랑은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식음을 전폐하시고 금수들 속에서 생명을 바치고 기도했기 때문에 능력을 더 얻어서 인류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저의 개인의 체험에 있어서도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위험성이 많이 따르지만 생명을 내놓고 기도 하다가 은혜의 체험을 몇 번 했읍니다. 마틴 루터는 하루 아침에 네 시간 씩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 얘기를 듣고 고개가 수그러집니다. 여러 어른들이 이민 생활에 너무나 바쁘고 고달프더라도 주 앞에 무릎 꿇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야 될 것입니다.

세째로 **이들은 열심히 전도했읍니다.** 희랍 사람에게도 예수를 전파하니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 오더라고 했읍니다. 이 안디옥 교회 신자들은 전도를 많이 했읍니다. 전도는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 나가서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 이것이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되라고 주님께서 부르셨읍니다.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맡기고 주인이 멀리 갔다가 돌아 와서 계수 할 때에 배를 남긴 사람들은 칭찬을 받고 대접을 받았읍니다만, 땅에다 파 묻었던 녹슬은 돈을 가져온 사람은 그 가진 돈까지 빼앗기고 내어 쫓겼다고 했읍니다. 그 사람은 이를 갈고 슬피 울었다고 그랬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전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생애에 가장 중대한 사건이 뭡니까? 예수를 믿었

다는 사실이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가장 큰 대접은 무엇이겠습니까? 음악회에 감상하러 데리고 가는 것입니까? 배불리 점심을 대접하는 겁니까? 자동차 한 대 사주는 겁니까? 장사 밑천을 주는 겁니까? 그것도 사랑일는지 모르지만 영원한 사랑, 값진 사랑, 완전한 사랑은 아닙니다. 시간이 가면 그것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참 사랑은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사랑이고 값진 대접인 줄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전도를 할 수 있읍니까? 전도의 방법을 여섯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먼저 가능성있는 한 사람을 꼭 우리가 지목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매일 3분 이상 씩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만들어서 참 사랑과 봉사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과 종교 서적 같은 것을 가끔 그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부족하면 원조를 받아서 목사나 장로님, 권사님 혹은 전도사님이나 집사님들을 동원시켜 나 혼자로는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하기 힘드니 같이 좀 도와 달라고 도움을 요청해서 같이 가서 전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일 년 거의 갈 때 기회가 좋은 때 한 번 교회를 가자고 해서 데리고 나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전도의 방법입니다. 전도는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물론 학습 세례까지 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만 우선 교회까지만 한 번 데리고 나와 보세요. 그래서 금년에는 한 사람 만을 위해서 그렇게 정성을 쏟고 정말 사랑과 봉사와 희생을 한다면 목석이 아닌 다음에는 한 번 교회 나와 줄 것입니다. 나와 주면 성령이 역사 할 때 그가 그냥 한 번 나와 줄까 하다가 결국은 믿게 되는데 금년에는 꼭 한 분들이 여러 사람 전도하면 더 좋지만, 내가 꼭 한 사람만이라도 인도해야겠다고 오늘 꼭 마음속으로 결심하시고 이런 방법으로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금년에 한 사람은 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부흥

두번째는 교회의 부흥입니다. 이것은 외적인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이 개인의 부흥이 이루어질 때 이 교회의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부흥에는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첫째, 작은 그룹, 곧 작은 부서 조직, 둘째, 은혜의 분배, 세째, 상부 상조, 이 세 가지가 갖추어져 있을 때에 교회는 꼭 부흥됩니다.

작은 그룹(Small Group) 조직이란 교회 식구가 너무나 많으면 그늘에 앉은 사람도 많고 구경꾼도 많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끼리끼리 연령에 따라서, 성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전부 이것을 묶어서 작은 그룹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흥이 있읍니다. 감리교회 부흥은 속회를 잘 운영하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그럽니다. 또한 남침례교 부흥은 주일 학교를 자꾸 쪼개서 독립을 시켜 반을 넓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 남쪽 텍사스, 달라스에 있는 큰 교회는 너무나 숫자가 많으니까 은행에 다니는 사람은 은행원끼리, 조종사들은 조종사끼리, 의사들은 의사끼리 묶어 놓았읍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그늘에 앉은 사람도 없고, 구경꾼도 없고, 전부가 다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하나로 뭉쳐지게 되었읍니다. 이렇게 될 때 교회가 크지만 제대로 돌아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나오는 분들 가운데 몇 해가 되어도 그냥 왔다만 가는 그런 사람들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든 자진해서 어느 부서에 들어 가셔서 그 속에서 친교를 도모하고 서로 힘을 합해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봉사할 때 신앙은 자라납니다. 그러므로 작은 그룹을 우리가 더 만들어야 합니다. 모세를 본다 하더라도 애굽에서 나올 때 이백 만 대중을 끌고 광야에 와서 혼자는 도저히 그 사람들을 통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십부장, 백부장, 천부장을 만들어 그들을 통솔해 간 것 모양, 작은 그룹이 필요합니다.

두번째는 **은혜 분배**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나만 기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 간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간증이라는 것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심방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새로 나온 교

우들의 가정에 가서 성경 얘기를 하니까 잘 이해를 못하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을 했더니만 아주 속히 깨닫게 되고 반응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평신도들이 신학적으로, 성서학적으로 설교는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 믿기 전에와 믿고 난 후에 받은 은혜를 사실대로 간증하면 이것이 훌륭한 설교이고 이것은 불신자라도 쉽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얼마 전에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더니만 강사님이 나오기 전에 부산에서 사업하는 장로님 한 분이 나오시더니 "저는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 돈으로 비행기 왕복표를 사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나누기 위해 왔읍니다." 그러면서 30분 동안 간증하고 그 비행기를 타고 돌아 갔다는 것입니다. 30분 간증하러 비행기 타고 여기 왔다 갑니다. 그 때에 30분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고 우리 교회 집사님도 4시에 여기서 오후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강사님의 설교에도 은혜 받았지만 장로님이 30분 동안 간증하는데 마음 가운데 은혜를 받았으므로 나도 돈 벌어서 간증하러 돌아 다녀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Share' 이것이 필요합니다. 은혜의 분배, 여기 본문에 바나바란 사람은 평신도입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니까 자기 혼자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안디옥에 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신자들이 은혜를 받은 것 같이 은혜를 분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번째로는 **상부 상조**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상부 상조했읍니다. 여기 보니까 선지자와 목사가, 왕족과 그 다음에 평민이, 백인과 흑인이, 자유인과 노예가, 남자와 여자가,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지식인과 배우지 못한 사람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 서로 도와 주었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는 자유인과 노예가 같이 앉아 있을 수 없는 때입니다. 왕족과 평민이 같이 앉기가 어려운 때입니

다.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는 모든 것을 타파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가족이 되고 한 형제와 자매가 되고 서로 도왔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주고"라고 했읍니다. 이것이 상부상조입니다.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줬다고 했읍니다. 또 사도행전 4장 34절과 35절에 보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고 했읍니다. 이것이 참 크리스챤들입니다. 없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 집도 팔았고, 밭도 팔았읍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주니까 사도들이 고루고루 나눠 준 것입니다. 물론 기회가 있는데도 일하지 아니하고 남의 것만 바라는 그러한 게으른 사람을 우리가 도와 줄 수 없지만 그러나 일을 하려고 하지만 기회가 없고, 일할 장소가 없어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도와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양 선교 교회도 지난 날 한국에서 갓 온 사람들 영어를 모르니 취직을 못 하겠고, 기술이 없으니 취직을 못 하겠고 그저 장사라도 할려고 할 때 자본도 없었읍니다. 이 때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자본을 좀 빌려 주었읍니다. 어떤 사람은 돌려 받지 않고 그냥 주기도 했읍니다. 우리가 돈 꿔 준다는 것은 아주 그냥 줄 생각해야지 받을 생각하다가는 잘못하면 돈 잃고, 사람 잃고 한다고 그랬는데, 그들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 사업체를 살렸읍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특별한 기술 있는 사람 외에는 장사하라, 장사하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비교적 사업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서로 도왔읍니다. 저도 처음에는 은행집이지만 그것 가지고 보증을 서 주고 그 다음에 싸인도 하고 또 내 돈도 좀 꿔 주고 남의 돈도 좀 꿔다 대 주었읍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는 여태까지 한 중에 모든 사람 다 성공했읍니다. 자리 잡았읍니다. 그렇지

만 꼭 한 번 실패해 그것이 아직도 지금 걸려 있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증을 서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떡합니까? 목사님한테 와서 돈 좀 꿔 달라고 그러고 보증 서 달라고 그러는 데 안 한다면 안되겠기에 해주었읍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집 팔고 땅 팔아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한국서 갓 와 직업도 없고 돈 가지고 온 것 다 까먹고 미국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하나 말도 모르고 때로는 굶는 분이 있다고 해서 그를 도왔읍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아기와 젊은 부인이 함께 살기 어려워 200불 몇 달 전에 주었더니만 어제 250불을 가져 왔답니다. "이거 하나님의 돈이기 때문에 50불 보태 가지고 왔읍니다. 이젠 제가 먹고 살만 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읍니다. 또 그저께 심방 갔을 때는 어떤 청년 집사가 요새 우리 교회 어려운 식구들 있다니까, "목사님 적지만 100불입니다. 이것 쌀 사다가 좀 나누어 주세요"라고 말하더군요. 굶고 오신 분 있거든 당장 얘기해 주세요. 쌀이 있읍니다. 여러분 주변에 우리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도 좋으니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힘껏 도와야 합니다. 여기 초대 교회 성도들은 집도 팔고 땅도 팔고 그래서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읍니다. 여기에 사회 정의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 그러면서도 자기만 잘 살려고 사고, 늘리고, 저축만 하면 공산주의가 들어와 사회 개혁이 일어나면, "그거 일찌기 좋은 일에 썼더라면 좋을걸"하게 됩니다. "그런 줄 알았더라면 좀 나누어 줄걸"합니다. 피난갈 때는 모두 껄껄 하더니 돌아 와서는 모두 코코 하더랍니다. 즉 집 한 채 사 놓고 피아노 하나 사 놓고……

사람의 욕심이라는 건 한이 없읍니다. 처음에 이민 와서는 새 자동차 그만 두고 3년 쓰던 것만이라도 하나 생겼으면 하더니 요새는 새 차동차는 그만 두고 두 대, 세 대씩 사가지고 또 좀 더 사놓고… 상부 상조하세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 후에 힘이 모자랄 때 하나님 앞에 손을 벌려야 하나님께서 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확장 부흥

세번째로는 교회 확장 부흥입니다. 교회 확장 부흥이라는 것은 '팽창 부흥'입니다. 개인이 부흥을 받고 교회가 부흥되어 이제는 더 수용할 수가 없을 때에 우리 교회 식구의 살림을 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자립 교회를 도와주고 지교회를 내는 것이 교회 확장 부흥입니다. 여기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1장 29절로 30절 말씀대로 가난한 교회를 도와 주었읍니다. **미자립 교회를 도와**주었읍니다. 어려운 교회를 도와 주었읍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했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고 가난하기 때문에 어려운 걸 알고 안디옥 교회가 연구해 먹을 것을 좀 덜 먹고 금식을 해 가면서 그 모든 것을 모아 사람을 시켜 보냈읍니다. 이것이 미자립 교회를 돕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미자립 교회를 한국에 140 교회를 돕습니다. 또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태국, 독일, 이태리, 중공, 에쿠아도르, 파라과이 등에 있는 교회를 돕고 있읍니다. 어려운 곳을 돕는 이것이 교회 부흥, 확장 부흥입니다.

두번째는 **지교회 설립**입니다. 자식이 태어나 성장하여 결혼하면 전부 세간 내줍니다. 엇그제 제 친구 목사님하고 둘이 이런 얘기를 나누었읍니다.

"목사님 자녀들이 사남매지요? 어떻게 됐읍니까?"

"전부 장가들고 시집가서 따로 살아요"

"그러면 집에 누구하고 사십니까?"

"안사람하고 둘이 살아요. 목사님은 어떻게 됐읍니까?"

"저희도 넷 결혼했는데 막내가 엄마가 몸이 좀 불편하다고 지금 들어와서 같이 삽니다"

"뭐 커지면 나가는 거지요"

청춘 과부지만 남편 세상 떠나 그 아들 하나 하늘과 같이 믿고 소망을 거기다만 두고 젊은 그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이라도 그 아들이 커가지고 결혼해서 직장을 수도 워싱턴에서 얻게 되거나 사업체를 샌프란시스코로 옮긴다면 보내야 합니다.

"어머니, 부득이 사업때문에, 직장때문에 저희들 가니 과히 섭섭히 생각하지 마세요"

"알았다. 오늘까지 너 바라고 살았니? 예수님 바라고 살았지"

이래야 신앙의 어머니지.

"얘야, 어디로 가니? 기껏 먹여 놓고 길러 놓았더니 그게 마지막 인사냐?"

그러면 안됩니다. 내 보낼 때는 내 보내야 합니다. 교회가 부흥돼서 이제는 더 수용할 수가 없을 때 세간 내주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시켜서 소아시아에 여러 지교회를 세웠읍니다. 마케도니아, 구라파에도 여러 지교회를 세웠읍니다. 우리 동양 선교 교회 당회에서도 장로님들이 먼 데를 내다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는 지교회를 세워야겠읍니다. 교회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서 영혼을 건져야겠읍니다. 이것을 믿는 교회가 독립 교회로서 우리 영적 유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지교회를 설립하기를 바랐읍니다. 이제는 브라질, 호주, 독일, 이태리에 지교회가 있읍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지금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있고, 지금 다니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도 젊은이들이 한 20명 신학교를 간다는 데 그들이 이제 졸업하고 나면 일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라도 우리 지교회를 세우기로 당회에서 결정을 하고 이것이 공동 총회에서도 통과되었기 때문에 금년부터 지교회가 여기 저기 생길 것을 내다 보니 마음이 흐뭇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학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조급하게 생각말고 동양 선교 교회의 지교회에 가서 일하든가 선교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제3세계 선교

"제3세계 청년들이 미국 선교사들을 볼 때 초록색의 달라를 본다. 서양 제국주의와 인종 차별주의를 본다. 기술과 기계장치를 본다. 억지로 너그러운 척하는 괴물을 본다. 그들의 정부의 끄나풀을 본다. 성의를 걸친 파쇼주의자를 본다.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아편과 총과 대포를 든 사람들을 본다. 이제 백인 선교 시대는 막을 내리기 시작했다"

네째로는 제3세계 선교입니다. 이것이 따르는 교회가 진정하게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자기나 은혜 받고, 자기 교회나 여유있게 살고, 자기 동족끼리나 동정하는 그것만 가지고는 참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없읍니다. 제 3세계, 언어와 문화가 전혀 다른 이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제 3세계 선교라고 말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저 소아시아, 저 구라파의 전혀 언어가 다르고 또한 모든 문화가 다른 3세계의 선교를 제일 처음으로 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동양 선교 교회가 지금 역사 13년째 들어가는데 그 동안 우리가 좀 선교했다고 그럽니다만 전부가 그저 동질 문화인 우리 동족에게 선교한 것입니다. 한국을 도와준 것도 우리 동족, 일본 동경도 우리 동족, 중공에도 연길, 흑룡, 여룡사도 우리 동족, 독일도 간호원들, 유학생 우리 동족, 이태리도 음악하는 유학생들, 상사 지사 우리 동족입니다. 그러고 보니 뭐 자랑할 것 없읍니다. 여태까지 제 3세계는 우리가 전도하지 못했는데, 금년에 우리 당회에서 여러 장로님들과 제직과 교회가 임 목사 12년 동안 여기서 일했으니 일 년 안식년 좀 주자해서 아마 해외 교포 교회 가운데는 제가 처음으로 안식년을 받는 것 같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읍니다. 여러 교회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제직들, 우리 교회를 칭찬한답니다. 이제 저는 이 안식년을 어떻게 보낼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개인 부흥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교회 부흥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이제 우리가 미자립교회도 도와 주고, 또 우리가 지교회도 이제 세우는데 제 3세계에 우리가 선

교를 뻗쳐야겠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3세계라고 하면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남미를 가리킵니다. 백인 선교는 이제부터 막을 내리게 됐읍니다. 유명한 한국 선교사로 간 나 일선 박사는 세계 젊은이들의 미국 선교사에 대한 반응을 이렇게 책에다 썼읍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미국 선교사 자신이 쓴 책에서 하는 말입니다.

> "많은 제 3세계 청년들이 미국 선교사들을 볼 때 초록색의 달라를 본다. 서양 제국주의와 인종 차별주의를 본다. 기술과 기계 장치를 본다. 억지로 너그러운 척하는 괴물을 본다. 그들의 정부의 끄나풀을 본다. 이제 백인 선교 시대는 막을 내리기 시작했다."

요 며칠 전에 엘머 길보른 선교사가 와서 미국 선교사들이 점점 숫자가 줄어들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했읍니다. 남에게 줄 때는 미국이 부흥됐지만 이제는 남에게 주는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늘 미국도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읍니다. 이제 제3세계에 복음을 들고 나갈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제는 유대 사람도 아닙니다. 이젠 로마 사람도 아닙니다. 독일 사람, 영국 사람, 불란서 사람도 아닙니다. 이젠 미국도 지났읍니다. 이제는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의 책임을 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땅은 좁습니다. 인구는 적습니다. 자본은 적습니다. 무기도 적습니다. 다른 것 가지고는 세계에 공헌할 것이 없지만 이 복음 전하는 선교 사명을 우리 한국 사람이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 교회 부흥상을 모두가 부러워합니다. 새벽 기도에 많이 모인다, 헌금도 많이 한다, 열심으로 전도한다, 철야기도, 금식기도 많이 한다고들 합니다. 놀라운 이 한국의 부흥을 세계에서 지금 다 부러워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에 젊은이들이 해외에 나가면 다 환영받고, 가서 제 3세계에서 토착민들에게 선교해서 짧지만 지금 성공하고 있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미국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들만 여기 와서 안전한 생활하라고, 평안히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이 국제적인 도시에 와서

또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전 세계 못 가는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미국에 보내서 이 경제력과 국가적인 배경을 이용하여 마지막 때의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함인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금년부터 동양 선교 교회는 세계적인 꿈을 가지고 제 3세계에 복음을 전하려고 저를 그 현장으로 파송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을 떠나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방글라데시, 태국, 홍콩, 대만을 돌아와서 그 다음엔 가을에 아프리카에까지 가 선교 현장을 답사한 후 제 3세계의 복음 선교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보고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와서 보고하거든 여러분이 물질로도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 선교사들 보내는데 그 교회들이 밀어 주는 것 보니까요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없는 사람들과 노동자들이 합니다. 할머니들이 합니다. 어떤이는 1불 보냅니다. 어떤이는 3불, 5불, 10불, 어떤이는 25전짜리 보냅니다. 그것을 합하니까 놀라운 일이 됩니다. 이 한 쿼터, 25전이 매달 하나씩 떨어지면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개미들 몇 마리가 큰 지렁이를 끌고 가는 것을 보았읍니다. 구더기 몇천 마리가 득실득실 하니까 닫아 놓은 철뚜껑이 굴러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읍니다. 작은 힘이 합쳐지면 위력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참 내 건강, 하나님이 주신 지성,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모은다면 제 3 세계에 이제 선교를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안디옥 교회가 개인 부흥, 교회 부흥, 교회 확장 부흥, 3세계 선교했으므로 역사에 남는 첫째 가는 모범적인 교회가 된 것 모양, 우리 동양 선교 교회는 개인 부흥과, 교회 부흥과, 교회 확장 부흥은 어느 정도 됐으나 이 3 세계 선교는 아직 못했는데, 금년에 3세계에 우리가 꿈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3세계 선교까지 함으로 20세기에 안디옥 교

회, 모범적 교회, 칭찬받는 교회, 소문난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도록 성도들이 다같이 기도하고 물심양면으로 협력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지역 사회와 인류에게 공헌하고 여러분 자신이 미국에서 고생하는 의미를 찾으시는 복된 한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선교는 우리의 사명
(선교적 사명)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20절)

선교적 사명

숯불은 불이 붙고 있을 때에만 숯불이라고 말하듯이 교회는 선교할 때에만 그 존립의 가치와 의미가 있읍니다.

선교의 동기

선교의 동기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읍니다. 이 말씀이 무리들에게 선교의 동기가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최후로 하신 말씀입니다. 즉 유언의 말씀이요,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선교란 낱말의 뜻

선교란 헬라 원어에는 다섯가지의 각기 다른 뜻이 있읍니다. 기쁜 소식, 선포, 가르침, 증인, 제자라는 다섯가지의 단어가 선교의 의미에 포함됩니다. 즉, 선교란 무엇입니까? 선교란 기쁜 소식을 세상에 선포하여 가르치며 예수의 증인이 되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제자로 삼는것을 말합니다.

"선교의 목적은 불신자의 회심과 교회 설립 확장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에 있다."

선교의 목적

선교의 목적이 무엇이냐 질문할 때 화란의 보에티우스 교수는, "선교의 목적은 불신자의 회심과 교회 설립 확장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에 있다"고 말했읍니다. 미국의 맥가브란 교수는, "선교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임을 선포하고, 회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며 그의 몸된 교회에 책임이 있는 회원을 만드는데에 있다"고 말했읍니다. 불란서의 오스카 쿨만 교수는 "선교의 목적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여 그의 몸된 교회에 충실하고 능동적이고 책임있는 제자가 되게하여 사귐과 성장으로 세계선교에 공헌하여 사도들을 본받아 교회설립과 성장에 힘쓰게 함에 있다"고 말했읍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제자를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오순절에 성령을 주어 선교하여 만민을 구원하여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에 있읍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부름받아 구원얻은 성도의 공동체로서 선교를 목적으로 삼는 곳입니다.

선교의 내용

선교에 있어서 내용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농사짓는데 밭보다 씨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초대 교회 사도들이나 초대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복음전도에 있어서 방법보다도 내용을 더 중요시했읍니다. 사도 바울이 철학과 문학과 예술의 도시인 헬라의 아테네에 가서 자기가 배웠던 철학을 열거하여 전도하다가 완전히 실패의 쓴 잔을 마신 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고린도전서 2:2) 라고 말했읍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1 6) 고 말했읍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는 작은 피지배국에서 출생하셨으나 장차 전 세계를 정복할 것이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제왕과 만민을 굴복시킬 것이고, 겸손과 사랑과 평화를 가르쳤으나 군마와 창, 칼을 꺾을 것이고, 왕과 장군과 부자도 죽어 썩을 것이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이후 사도들과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전도의 내용은 예수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였읍니다.

선교사의 자격

첫째, 소명의 사람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 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 라고 했읍니다.

둘째, 체험의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고 했읍니다.

세째, 권위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4장 30절에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 하더니"라고 했읍니다. 즉 선교사는 체력, 지력, 덕력, 영력의 권위를 갖추어야 합니다.

네째, 인류학과 선교학을 습득한 사람입니다. 문화인류학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의 삶의 형태, 문화, 행동, 습관, 언어를 연구하여 복음 선교에 효과적인 대화의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또 선교학은 선교 현장에 있어서 효율적인 구령을 위한 선교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피선교자의 언어를 습득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2장2절에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고 했읍니다. 바울이 당대에 위대한 선교사가 된 이유는 그가 유대말,

희랍말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순교적 각오를 가진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고 했읍니다. 선교사에게는 그 곳에서 죽어 그 곳에서 묻힐 각오가 필요 합니다.

선교의 방법

첫째, 선교지에 지교회를 설립합니다. 바울도 가는 곳 마다 교회를 설립했읍니다.

둘째, 교회 지도자를 양성합니다. 그 나라 선교는 그 나라 지도자를 양성해서 선교함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세째, 교회성장과 자립을 지향합니다. 네비우스 방법에 입각한 자립, 자치, 자전의 방침입니다.

네째, 본 교회의 선교회를 창립합니다. 조직을 통해서 선교회원을 확보하고, 매월 다소를 불문하고 정기 선교금을 바치고, 가급적 전체가 참여하는 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 1절–12절에는 그리스도인의 선교 방법이 잘 교훈되어 있읍니다. 이는 곧 관심, 사랑, 찾아감, 단결, 열성, 희생, 확신의 정신입니다.

세계 선교와 우리의 사명

하나님께서 일찌기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강한 민족이어서도 아니요, 선하거나 의로운 종교적 민족이어서도 아니요, 선택 받아야 할 어떤 공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신명기 7장 7절–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택함이다"고 말씀 했읍니다. 우리나라는 인접국인 일본, 중국, 소련보다 작은 나라입니다. 그 작은 나라가 또 38선으로 분단되어 더 작아졌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고전 1:27 – 28) 라고 말씀 했읍니다. 일찌기 미국 감리교 웰취 감독은 한국 교회를 평하여 말하기를 "보다 지정적인 일본인과, 보다 실제적인 중국인에 비해서, 한국인은 동방 아시아의 몽상가다. 즉, 꿈을 가진 사람들이다. 결실은 이미 기약대로 이루워져 한국은 문자 그대로 '현대의 성지'이다. 열국 사이에 끼여 항상 피해를 밥 먹듯 하면서도, 수시로 일어나는 심원 무쌍한 부흥운동은 저! 소아시아의 팔레스틴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고 말했읍니다. 또, 인도의 시성 타골은

"일찌기
아세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고 했읍니다. 아니, 한국은 동방의 빛만이 아니라, 세계의 빛이 되어야만 하겠읍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한국은 주권을 찾고 6·25동란 이후 하나님의 크신 경륜 중에 한민족은 세계로 진출하고 있읍니다. 이제는 전 세계 지구촌 구석구석에 한국 사람 없는 나라가 거의 없다시피 되었읍니다. 외국인들은 말합니다. 그들은 중국인이 이민가는 곳에는 요리집이 따라가고, 일본 이민이 가는 곳에는 전자제품과 자동차가 따라가고, 한국 이민이 가는 곳에는 성경과 교회가 따라 간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세계선교에 교두보를 확보해 놓았읍니다. 세계 각국은 저마다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고유의 특성을 자랑 합니다. 영국은 헌법을, 불란서는 문학을, 독일은 과학을, 희랍은 철학을, 이태리는 음악을, 스페인은 예술을, 벨기에는 간척을, 덴마크는 농업을, 스위스는 세공업을, 스웨덴은 노벨을,

노르웨이는 바이킹을, 브라질은 축구를, 이란은 석유를, 중공은 인구를, 소련은 육군을, 미국은 달라를, 일본은 자동차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자랑은 교회입니다. 물론 질적 문제는 재검토가 필요 합니다만은, 양적인 것과 열심은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세계 선교적 사명도 세월이 흐름에 따라 교체되어 가고 있읍니다. 하나님께서 최초 세계 복음은 전파 사명을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었으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임으로, 그 사명이 로마로 옮겨 갔고, 또 그것이 천주교의 부패로 인하여 영국으로 옮겨 가고, 그것은 또 영국 국교의 부패로 말미암아 신생국 미국으로 왔으나, 미국이 물질 만능과 향락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계 선교 사명이 아세아의 한국으로 넘어 왔다는 지론에 반대할 이유가 없읍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이제는 아세아 태평양 연안 시대가 되었다고 공언합니다. 아세아 여러나라 중에서 복음을 수출할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그래서 교황청에서 오랜 연구 분석 끝에 세계 구교 선교 지도자는 한국에서 길러야겠다는 결론을 얻어 1984년 한국 천주교 이백주년 기념행사의 때를 같이해서 교황이 방문했고 성자 추대식을 했다 합니다. 이제 많은 피선교지에서 백인 선교사를 배척하고 있읍니다. 인종적, 국가적 우월감, 의식주의 생활양식의 격차, 타의든 자의든 식민지 정책의 긍정 등으로 인해서 백인 선교사들이 배척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반면에 한국 선교사는 환영을 받고 있읍니다. 선입관념의 양호(비침략국), 예의 범절이 깍듯함, 현지 적응성 풍부, 재정적 확보, 소액의 선교비, 해외2세의 전도자 확보, 순교적 각오 등이 피선교지에서 대체로 환영을 받고 있읍니다. 오늘, 이 지구상의 아직도 무지 빈곤, 공산, 독재, 부패와 인류 전멸을 의미하는 핵 전쟁 준비에 광분하는 위기에서 인류의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뿐입니다.

오늘, 인류의 문제는 경제 문제라 하지만, 그것도 국제 문제이며, 국제 문제는 인간 문제요, 인간 문제는 윤리 문제요, 윤리 문제는 교육 문제이며, 교육 문제는 종교 문제요, 종교 문제는 복음

문제입니다. 복음만이 회개, 신생, 이해, 사랑, 협조 공존과 영원히 살 수 있음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보내심은 자기 나라와 이웃까지 살리시기 위함이며 바울을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게 하고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심은 세계 선교사로 쓰시기 위함인 것 같이, 우리를 이 자유스럽고 풍요한 땅에 보내심은 힘을 모아 세계 선교를 하게 하기 위함인 것을 명심하고 일어나 이 사명을 다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의 "와서 우리를 도와 달라" 는 환상을 보고 우리는 가야 합니다. 직접 가지 못하면 기도와 선교 헌금을 바쳐 간접 선교를 해야만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혜를 얻으라
(교육의 중요성)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로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네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니라"(잠언 4장 1절 – 13절)

6월은 교육의 달입니다. 6월 첫주일 '지혜를 얻으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받고자 합니다. 개인과 가정, 민족과 국가가 성공하려면 교육에 중점을 두고 교육에 성공해야 합니다. 모든 혼란이 그른 교육에서 야기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미국에 온 것도 근본적으로 자녀들의 교육을 목적으로 정든 고향 산천을 떠난 것입니다. 사업에 성공하고 지위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의 급선무는 우리의 자녀들을 잘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교육이 참된 교육인가를 생각할 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읍니다.

첫째는 조기 교육입니다.

유대인들은 태중에서부터 교육합니다.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합니다. 모세나 다니엘이나 디모데같은 이들은 태중에서부터 조물주를 기억하도록 가르침을 받았

읍니다. 신명기 28장 13절에도 머리가 되고 위에 앉도록 가르치라 하였읍니다. 1896년에 창설된 노벨상 수상자의 33%가 유대인이었고 미국에서는 노벨상 수상자 중 유대혈통을 받은 사람이 25%입니다.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큰 나라이면서 적은 인구로 세계적인 인물들을 키워낸 것은 조기 교육의 특징이랄 수 있읍니다. 정치가 지스렐리나, 심리학자 프로이드, 사회학자 맑스, 과학자 아인스타인, 정치가 키신저같은 이들의 배경에는 부모의 헌신적인 교육이 뒷바침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 세포는 만 3세까지 70~80%가 성장됩니다. 유치원, 학교 이전의 시기, 가정의 보호 안에서의 기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 교육이 학교, 교회교육보다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개성을 키워 줍니다. 어학을 가르칩니다. 보통 유대인 아이들은 5-6개 국어를 한다고 합니다. 공부는 어려서 배우는 것은 반석에 끌로 새기는 것과 같고 늙어서 배우는 것은 바닷가 모래사장에 손가락으로 쓰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또한 배움의 즐거움을 줍니다. 학교에 처음 가는 날 유대 알파벳 22자로 과자를 만들어 먹이면서 배우게 합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가정에 학습에 취미가 없어 학교 가기가 싫어 매도 맞고 꾸지람도 듣는 아이들이 상당수가 있읍니다. 유태인들은 탈무드라는 책으로 모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다니엘과 사자굴의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가르칩니다. 또 수수께기로도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세계 어느 나라 말이나 알아듣고 척척 받아 말하는 게 뭐니?"하면 "산울림"하고 대답한답니다. 또 미지의 세계를 탐구시켜 줍니다. 즉 살아 계신 하나님을 교육시킵니다. 철저한 유일신 교육을 시킵니다. 창조주이고 역사의 주관자시며 의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미신과 제사 등을 은연 중에 가르칩니다. 내세관을 통해 영원한 피안의 세계의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영원한 나라를 가르칩니다. 또 아이들은 자주 질문을 하며 부모들은 성의껏 대답해 줍니다. 학교 첫날 때 유태인들은 자녀들에게 "이제까지 몰랐던 것 중에 내가 대답해 주지 못한 것이 있으면 오늘 학교 선생님에게 꼭 여쭈어야 한다"고 합니다. 심리

학자의 말을 빌리면 자유 환경에서의 교육이 성장이 빠르고 정확성이 많다고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전 12:1) 고 말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 9:10)고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5절에 "지혜를 얻으라," 6절엔 "지혜를 버리지 말라," 7절엔 "지혜가 제일이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지식보다는 지혜를 배우라. 지혜가 너를 지키리라. 인도하리라, 네 생명이 되리라"고 가르칩니다. 지혜는 금·은보다 귀합니다. 지식은 교만을 자초합니다. 지식이 문제 발생 후 처리하는 방법이라면 지혜는 문제 발생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식은 학교 교육이라면 지혜는 가정 교육의 소산입니다.

유대인에게는 2가지 책이 있습니다. 토라(Torah)라는 구약 성경이고 또 다른 하나는 4천년 간의 유대 선조들의 삶의 지혜를 엮은 1만2천페이지의 생활규범인 탈무드입니다. 거기엔 많은 지혜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두 개의 귀와 한개의 입이 생긴 이유는 말하기보다 많이 듣게 하려 함이라고 그 책은 소개합니다. 또 이쪽 사람의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저쪽 사람의 말도 듣게 하려고 양쪽으로 달렸다는 것입니다. 역사학자 맨 루는 유대인은 첫째 토라, 둘째 탈무드, 세째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 살아간다고 피력했읍니다. 유태인들은 성전과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철저합니다. 그들은 금요일 오후 해가 떨어진 뒤부터는 벌써 조용합니다. 토요일 날이 밝으면 차도 운전하지 않습니다. 걸어서 온 가족이 정장하여 성전에 갑니다. 절대로 안식일에는 놀러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의 생활을 보십시오. 연휴가 되면 식구들과 그랜드 캐년을 갑니다. 주일을 빼 먹습니다. 돌아 오는 길에 라스 베가스(Las Vegas)에서 오락 삼아 식구들과 함께 구경도 하고 가벼운 도박도 해 봅니다. 그것 자체가 나쁘다기 보다는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웁니다. 일이십년 후에

자녀들은 그것에 빠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육의 중요성을 말해 줍니다. 부모들의 일거수 일투족이, 일거 일동이 모두 교육입니다. 토라와 탈무드,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 사는 유태인은 어떠 합니까? 솔로몬은 외아들인 자기에게 지혜를 가르쳐 준 아버지를 기억하며 "지혜를 배우라. 이성과 정당성을 배우라. 생명과 행복을 배우라. 인생을 실족치 않게 하라. 명예와 명성의 근본인 지혜를 배우라"고 합니다.

탈무드의 이야기 한 토막을 소개합니다. 어느날 임금이 갑자기 한 신하에게 입궐할 것을 명령합니다. 갑자기 당한 일인지라 겁이 났던 이 신하는 세 친구를 찾아가 같이 동행할 것을 부탁 합니다. 첫째 친구는 일언지하에 거절 합니다. 둘째 친구는 대궐 문밖 까지만 동행하겠다고 합니다. 세째 친구는 두 말 없이 따라 나서면서 동행을 자처합니다. 첫째 친구는 돈입니다. 둘째는 친구 가족입니다. 세째는 선행입니다. 즉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첫째 친구 돈은 같이 갈 수 없읍니다. 둘째 친구 가족, 처나 자녀 등은 무덤 앞까지는 같이 가 줍니다만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세째 친구 선행 즉 이웃 사랑, 봉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와 함께 있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돈이나 가족보다도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삶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서 보면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겉치레 보다는 내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값비싼 물건이 불티나게 팔리며 가구점이 제일 수지가 맞는다고 합니다. 새 직권에 등용된 사람은 낡은 가구를 전부 치우고 새 가구로 새 사무실을 단장한다는 것입니다. 외식을 일삼는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의 습성을 보여 줍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사랑하는 부녀자들아, 금과 은으로 단장하지 말고 없어지지 않는 속사람을 단장하라"고 합니다. 금요일부터는 생선만 먹고 명절에는 무교병만 먹고 광야 생활의 조상들을 기념하며 지내는 유대인의 생활을 보십시오. 값있게 벌어 값있게 쓰라고 가르칩니다. 부잣집에는 자녀가 없고 오직 상속자만 있다는 얘기가 있읍니다. 돈은 어떻게 버

느냐가 문제일뿐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도 문제인 것입니다.

세째는 강한 의지를 키우는 교육입니다.

의지는 성공의 원동력입니다. 하던 일을 계속하게 하는 힘입니다. 성취의욕을 키우는 힘입니다. 성경 열왕기상 18:21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판단을 요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의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 인물은 다니엘입니다. 미국 초대 심리학자 윌리암 제임스는 인간의 명예욕, 수집욕, 의지 등을 선천적이라고 했으나 현대 심리학자는 의지를 후천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협동 정신은 그 의지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성공의 원동력인 것입니다. 하던 일을 지속케하는 힘입니다. 좌절이나 체념을 하지 않는 힘입니다. 유대인은 집단 생활, 시온주의, 하루집운동, 키브츠운동 등을 통하여 나보다 우리, 우리보다 국가와 민족을 앞세우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완수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일의 끝장을 내야만 자신의 능력 완성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였읍니다. 여기서 강한 의지와 성취욕을 배울 수 있읍니다. 자신의 맡은 일을 책임지고 감당하여야 합니다. 전체를 위해서 자기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땅덩이에서 그것도 허리를 동강낸 우리 나라에서 영남은 영남대로, 호남은 호남대로 갈라져야 되겠읍니까? 협동, 단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취 의욕을 길러 주어야 하겠읍니다. 창조력, 진취력을 중요시하는 풍속을 가진 유대인들은 사원 채용에도 이 점을 중시하여 선택한답니다.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족할지라"고 한 공자의 사고 방식은 은둔주의로서의 어리석은 사고 방식이 아닙니까? 불교의 평온, 자비, 교화의 3종도 비성취주의의 또 하나 예입니다. 기독교의 근면, 개척, 절약, 인내가 유럽 문명의 근본입니다.

네째는 바른 인격을 형성하는 교육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

하라."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이는 올바른 인격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가정은 이 인격을 형성하는 온상입니다. 몸이 자라 성숙한 육체가 되고 머리가 자라 지혜가 되며 언행이 일치하는 것이 인격입니다. 습관, 태도, 성격, 자립심을 키워 주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의 인격 형성의 본보기이므로 가정 생활 자체에서 조심하여야 합니다. 자주성을 키우는 교육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가 13세가 되면 회당에 데리고 가 성인 문답을 합니다. 개척 정신을 가지고 사막을 개척 낙토로 만드는 노동의 숭고함으로 사대주의, 의타주의, 식민지주의, 노예 정신을 배척하고 자립 정신을 키우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인간의 덕중 가장 최선의 것이 겸손입니다. 모세도, 사도 바울도 겸손한 사람의 예입니다. 예수님은 그중 가장 대표적 겸손의 인물입니다.

키브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의 모 지도급 인사가 이스라엘 키브츠를 방문하여 공동 식당에서 식사 순번을 기다리고 있을 때입니다. 허수룩하게 차려입은 어떤 노인 하나가 계란을 갖고 와 그의 식판에 깨어 넣어 주면서 "한국에서 오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하며 인사를 하더랍니다. 그래 그 한국 지도자 양반이 "어떻게 내가 한국인인 것을 알았소?"하고 물었더니 "제가 이 나라 국방차관입니다. 그 때 국방부에 오셨을 때 뵈었지요" 하더랍니다. 그 때 그 한국 사람은 키브츠 공동 식당 아침 식사당번을 하고 있는 그 나라 국방 차관을 보고 새삼스럽게 겸손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안내, 주차, 헌금 위원하시는 분들 겸손으로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카터 대통령이 한국 주둔 미군들을 방문할 때 아침에 군인들과 함께 구보하고 군인 식당에서 사병들과 함께 식판을 들고 배급식을 먹는 것을 보십시오. 이게 겸손입니다.

성경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와서 열심히 노력하여 좋은 집에서 살며, 은행 예금고가 올라가며, 좋은 차로 댓가를 받기를 기대 합니까? 자녀 교육, 교회 사업(하나님을 위한)에 많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원한 자본이며, 보상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삶의 지혜와 강한 의지와 인격적인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하나님께로 부터 받은 사명임을 알고 열심히 기도하며 철저한 말씀 연구와 교육을 통해 성공적인 교육의 사명을 완수하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나라에서 기다릴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삶의 지혜와 강한 의지와 인격적인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임을 알고 열심히 기도하며 철저한 말씀 연구와 교육을 통해 성공적인 교육의 사명을 완수하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 합니다. 우리들을 이 미국이라는 청교도의 땅, 인권이 보장되고 자유가 있고 평등이 있는 편안한 이 땅에 와서 자녀들을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서로 협동하여 선교하고, 교포사회, 미국사회를 위해 적은 부분이나마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고 저희 교회로 삼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교육의 달을 맞이하여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교육을 시켜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로 양성하고 참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부모로서 값진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느냐하는 이 교육에 대해서 이 부족한 종이 잠시 동안 말씀하는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었거든 용서하시고 마음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저들의 옥토에 떨어져 씨가 되고 참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 그대로 자녀들을 교육하여 우리 자녀들은 이 시대가 진정으로 필요한 인물들이 다 되어 우리 교포 사회와 미국 사회와 조국과 이 시대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역군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자되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 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시편 23편 1절－6절)

옛날 유대 땅에 다윗이라는 유명한 임금이 있었읍니다. 그는 목자의 집에서 목동으로 자라 났읍니다. 그러므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읍니다. 그가 목동에서 군인으로, 군인에서 왕으로 등위했읍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유대 나라를 통치하여 크게 부흥시킨 인물이었읍니다. 그러나 그의 일생은 결코 평탄하지만은 아니했읍니다. 큰일을 했기에 그만큼 어려운 큰 일들도 많았읍니다. 즉 그의 생애는 파란만장한 피눈물 나는 생애이었읍니다.

이 시편 23편은 이 성군 다윗이 늙어서 머리에는 백발이 휘날리고, 기력은 쇠잔하여 이제는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아 세상 떠날 것을 내다 보고, 지난 날 걸어 온 발자취를 회상하면서 그 때 그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고 도와 주시고 축복해 주신 은총에 감격하면서 지은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어 분석해 보면 다윗은 그 선한 목자되신 하나님을 자기에게 여섯 가지 은총을 베푸신 분으로 찬양하며 간증했읍니다.

첫째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했읍니다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했읍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가 기르는 양의 필요를 잘 알아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것과 같이, 다윗은 이 세상에 올 때에 빈 손과

벌거벗은 몸으로 왔지만 오늘까지 긴 일생동안 내게 필요한 것, 먹을 것, 입을 것, 거처할 것, 태양 빛, 상쾌한 공기, 마실 물 등 일체의 부족함이 없이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읍니다. 우리도 빈 손과 벌거벗은 몸으로 이 세상에 왔으나, 긴 세월,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겠읍니다.

둘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했읍니다

2절과 3절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 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했읍니다. 선한 목자는 어린 양을 초장과 물가으로 인도하고, 영혼을 의로운 길로 인도한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다윗은 이 세상에는 갈림길이 많고 불의한 길, 위험한 길, 사망의 길이 많은 가운데서도 자비의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기둥이 되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바른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했읍니다. 오늘 우리들도 멀고도 험하고, 사특하고도 유혹 많은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곳까지 선도해 주신 일에 대하여 감사해야 하겠읍니다.

세째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읍니다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말했읍니다. 다윗은 목동 생활을 할 때에, 독사와 사자와 강도의 위험을 당했고, 군인 생활을 할 때에, 수 많은 전쟁에서 생명의 위험을 무수히 당했으며, 정치 생활을 할 때에는 많은 정적으로부터 여러 번 생명의 위험을 당했읍니다. 그러나 그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했읍니다. 우리들도, 오늘 이 시간까지 지내오는 동안 맹수와 질병, 혁명과 전쟁, 흉년과 천재 지변 등의 사망의 골짜기에서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겠읍니다.

네째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했읍니다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오늘까지 살아 왔고 앞으로도 살 것입니다.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말했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원수도 물리쳐 주시고, 그 원수들 앞에서 맛있고도 풍성한 음식을 차려,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친구까지 대접하고도 남음이 있는 잔치를 차려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했읍니다. 다윗은 천부의 미모와 재능, 용기와 무술, 정략과 명예, 부와 겸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서 오는 시기와 질투, 반발과 전쟁이 국내와 국외로부터 너무나 많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 때마다 하나님이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승리의 잔치를 항상 베풀어 주심에 대하여 감사를 했읍니다. 우리도 오늘까지 지내오는 동안, 많은 오해와 주목, 시기와 질투, 모략과 중상, 핍박과 역경 속에서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때때로 일용할 양식의 식탁을 주심을 감사해야 하겠읍니다.

끝으로 사랑의 하나님이라 했읍니다

6절에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라고 했읍니다. 이 말씀은 사랑의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난 그 날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보호, 인도, 축복해 주셨거니와, '나의 평생' 에, 즉 앞으로도 내가 이 세상 사는 끝 날, 그 날까지도 변치 않고 사랑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즉 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저 하늘 나라의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가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고 살게 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오늘까지 살아 왔고 앞으로도 살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더 좋은 천국에 가서 영원 복락을 누리고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친애하는 동포 여러분! 오늘날 삶이 아무리 제한되고 고난이 많다 하더라도, 옛날 다윗이 찬양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으시어 다윗의 축복을 여러분도 다 받으시어, 다윗의 간증이 여러분 자신의 간증이 되고 다윗의 찬양이 여러분들의 찬양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네 사람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새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람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 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마가복음 2장 1절－12절)

1985년도 제23회 올림픽 대회를 가리켜 너무나 지나친 상업주의이었으며, 대국답지 않게 미국만의 잔치이었다고 평하는 사람이 있읍니다만은 저는 이번 올림픽에서 이 미국 시민들의 봉사 정신과 협동 정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실제로 보게 되었읍니다. 물론 여기에는 치밀한 조직과 인적 자원의 폭 넓은 활용이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작용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만 명의 무급 자원 봉사자들의 시종 일관 기쁨으로 헌신한 봉사입니다.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시민들에게, "시민 여러분 역사적인 올림픽 행사에 일익을 담당하세요"라고 호소할 때, 시민들은 너도 나도 오만 명이 훨씬 넘도록 지원했읍니다. 또한 자원 봉사자들은 각 분야에서 일하면서, "내가 하고 싶어 이 일을 하고 있다. 남에게 봉사하는 일은 즐겁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깨끗한 일에서부터 청소에 이르

기까지 기쁜 마음으로 봉사했던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서 협동 정신의 위대함을 보았읍니다. 즉, 올림픽 개막 일주일째인 지난 8월 3일 금요일을 사전에 올림픽 위원회와 로스엔젤레스 시경과 교통국 관계 기관들은 '블랙 프라이데이' (공포의 금요일)라고 부르며 시민들의 협조를 호소했읍니다. 그 이유는 그날 금요일에 콜리시엄 메인 스타디움에서는 육상 경기가 시작되고 바로 그 주변 경기장에서는 수영과 권투 경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일대로 통하는 길에는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려올 것을 예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 날에는 예상 밖으로, 오히려 보통 때보다도 더 차의 혼잡이 적었읍니다. 그것은 시민들이 관계 당국자들의 협조 호소를 듣고 그 날 회사 출근을 두 시간 앞당기거나 시내 버스로 출근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차에 여러 사람이 편승하거나 아예 어떤 회사는 그 날을 휴무로 정하기도 하며 성심껏 협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나아가 활동하실 때에 어디로 가시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왔읍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갈릴리 해변가의 동리의 한 집에 들어 가셨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어 입추의 여지가 없이 안팎으로 꽉 찼읍니다. 그 때에 네 사람이 한 불쌍한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왔읍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데리고 들어 갈 수 없어 그들은 지붕 위에 올라가 구멍을 뚫고 환자를 들어 내렸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영혼과 육신을 아울러 깨끗하게 고쳐 주셨읍니다. 여기 네 사람은 먼저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 할 수 있겠읍니다. 그들의 믿음, 즉 그들의 봉사 정신은 어떤 것이었읍니까?

첫째는 사랑입니다.

이 네 사람은 중풍병자를 말로만 사랑하거나, 환자를 위하여 열심으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측은히 여겨 사랑하는 마음이 견딜 수 없어 먼 길을 직접 걸어가서 그를 찾아 들것에 메어 예수님 발 앞에 내려 놓으려 했읍니다. 결국 이러한 행동적인 사랑이 그 중풍병자로 하여금 병고침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

랑의 정신입니다.

1956년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사랑의 원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사랑은 배려와 관심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 그 대상에 대하여 깊은 배려와 관심을 갖습니다. 화초를 사랑하는 사람은 조석으로 물을 주고,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조석으로 먹이를 주고, 차를 사랑하는 사람은 시간날 때마다 닦고 기름을 갈고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는 밤에도 몇 번이고 깨어 돌아봅니다.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배려와 관심이 큰 것입니다.

둘째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제자를 사랑하면 제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고, 의사가 환자를 사랑하면 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며, 지도자가 부하를 사랑하면 부하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며,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면 자녀를 칭찬하며, 목자가 양을 사랑하면 양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며, 국민이 나라를 사랑하면 나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즉 이웃이 병 들었을 때에 그를 사랑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째 사랑은 상대방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남을 높이고 소중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면 부모님을 높이고 소중히 여겨야지요. 스승을 사랑한다면 스승을 존경하고 존중해야합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면 상대방의 생명을, 개성을, 은사를, 권리를, 자유를,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네째 사랑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의 질병과 불안과 고독과 아픔을 이해해야 그것이 참 사랑입니다. 깊이 사랑하면 깊이 이해하고, 깊이 이해하면 깊이 사랑합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에 상대방의 얼굴 표정, 눈매, 말, 행동을 통해서 그 마음의 상태를 곧 이해할 수 있읍니다.

다섯째 사랑은 주는 것이라 말했읍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주려고 합니다. 나의 시간을 주고, 돈을 주고, 정성을 주고, 애정을 주고, 나중에는 목숨까지 주려고 합니다. 무엇을 주느냐를 보고, 또 얼마나 주느냐를 보고, 그 사랑의 척도를 압니다. '하나님

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말해 줍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는 것이 아깝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까움이 없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사람의 사랑은 관심의 사랑, 존중의 사랑, 이해의 사랑, 그리고 주는 사랑이었읍니다. 실로 사랑의 완성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협동입니다.

이 네 사람은 함께 한 중풍병자를 메고 왔읍니다. 이들이 아무리 사랑이 있다 해도 이 네 사람의 협동 정신이 없었다면 이 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봉사 생활에는 이 협동 정신이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힘을 적절히 조절해야 하며,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일치시켜야 하며, 의사가 꼭 합일되어야 하는것이 이 네 사람이 실천했던 협동인 것입니다.

이번 올림픽에 있었던 여러 가지 행사 중에서 88년도 한국 올림픽에서는 도저히 따라 가지 못할 것이 하나 있읍니다. 50여 나라의 고유 의상을 입고 함께 손을 잡고 노래와 춤을 추는 것은 합중국에서만이 할 수 있는 특이한 순서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협동 정신입니까? 또 한 가지, 이번 올림픽의 축구 우승은 불란서이었읍니다. 불란서는 협동 정신을 발휘하여 이기고, 브라질은 개인기에 치중하고 협동 정신은 결여되어 졌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사회 단체의 협동의 비결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는 출석의 의무를 지키는 것이며, 둘째는 회비의 의무를 지키는 것이며, 세째는 소속 단체를 사랑할 의무를 지키는 것이며, 네째는 규율을 준수할 의무를 지키는 것이며, 다섯째는 지도자의 명령에 순종할 의무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만 지키면 그 사회 단체의 모든 회원들은 협동할 수 있읍니다.

교회 내에서 협동하며 봉사할 수 있는 비결 다섯 가지가 있읍니다. 첫째는 견고한 믿음이고, 둘째는 말씀 충만이며 세째는 기도 생활

이며, 네째는 성령 충만이며, 다섯째는 목적 분명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실천되면 교회 안에서의 협동은 아주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번 사라 여전도회원들의 협동 정신은 널리 전할 만합니다. 잔치를 하고 음식을 함께 장만하여 모은 돈으로 인도 교회의 교역자를 지원했읍니다. 앞으로는 아프리카의 교회의 교역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합니다.

페르시아에는 한 쪽 날개만 있는 이상한 새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새는 혼자는 날지 못하고 암컷과 숫컷이 함께만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숫컷은 바른 편에 갈고리가 있고 암컷은 왼 편에 고리가 있어 두 마리가 협력하여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인간도 협동해서만 살아 가라고 부부, 가정, 단체, 인류를 주신 것입니다.

세째로 인내입니다

이 네 사람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읍니다. 그렇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읍니다.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들것을 달아 내렸읍니다. 그 때의 지붕은 시멘트 콩크리트가 아니고 흙이었읍니다. 남의 지붕을 뚫는다는 것은 큰 실례입니다. 그러나 한 영혼, 한 생명을 살린다는 큰 목적을 위해서 감행했읍니다. 우리가 좋은 일에 봉사할 때 난관이 있을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모든 난관은 인내로써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일하다가 낙심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만 두겠다. 내가 돈을 받고 하나, 또 누가 알아주기나 하나, 칭찬은 그만 두고 잔소리와 욕을 먹는 짓 이제 그만 두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찌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고 했고, 야고보서 5장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고 했으며,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고 했읍니다.

우리가 찬송가 375장을 보면,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보이사 내 희망 되게 하시고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라고 했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참으셨읍니다. 바울도 온갖 고생을 끝까지 참았읍니다. 흑암의 대륙을 세 번씩이나 횡단하여 의료활동을 하며 구령 사업을 하며 탐험한 리빙스톤도 끝까지 인내한 사람입니다. 덴마크를 구출한 그룬드비는 온갖 오해와 핍박을 인내로써 승리했읍니다. 민주주의 교육의 선구자 페스탈로치도 핍박과 궁핍을 인내로써 승리했읍니다. 승리하고 성공한 사람은 순탄한 길을 걸은 사람이 아니라 온갖 고난의 길을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네 사람들도 인내를 가지고 그 환자를 끝까지 고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넷째로 희생입니다

이 네 사람은 그 하루에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희생을 감수했읍니다. 마음으로는 얼마나 애타는 심정이었으며, 더운 유대 나라에서 먼 곳까지 메고 지붕으로 올리고 지붕을 뚫고 달아 내리는데 육체적 희생이 컸으며, 그 하루를 일하지 못했으니 물질적 희생이 컸다는 것입니다. 봉사에는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근일에 있었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읍니다. 이번 중등부 수양회에 학생이 백 10명이 참가했는데 거기에 여러모로 희생적으로 봉사한 분들이 많이 있읍니다. 중등부 교사 중 회사원은 휴가를 얻어 처음부터 끝까지 산에서 학생들과 기거를 함께 하며 봉사했읍니다. 거기에다 학생들이 수영할 때 방울뱀이 덤벼들까 지켜야 하는 정신적 부담도 있었다 합니다. 어떤 회사 다니는 여 선생님과 남 선생님은 출근을 아예 그곳으로 한 분도 있읍니다. 또 어떤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선생님은 자기 사무실을 휴업하고 중등부 수양회를 위하여 봉사하시기도 했읍니다. 사업하시는 선생님은 그 주간에 휴업을 했

봉사는 인간의 행동 가운데 가장 높은 차원의 행동입니다. 위대한 인물이란 봉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나 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훌륭한 정신의 소유자라야 봉사할 수 있읍니다.

다 합니다. 장로님들의 사모님들도 같이 가서 하루 세끼 식사를 장만했읍니다. 여기에 또 많은 분들이 물질적으로 협력했읍니다. 여기에는 많은 분들의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희생이 뒤따랐던 것입니다.

유년부 여름 성경 학교에는 7백여명이 참가했읍니다. 여기에 많은 교사분들이 물심양면으로 봉사했읍니다. 그 외에 어떤 분은 어린이 7백여 명에 핫독 한개씩 매일 7백개를 기증하셨읍니다. 모 집사님은 가방 백15개를 기증하셨는데 대단한 값입니다. 또 한 집사님은 명찰 1천개를 기증하셨으며 또 어떤 분은 어린이들을 차로 태워 옮기는데 수고하셨읍니다. 뉴 서울 호텔의 주인 부부 집사님은 로마 교회 성가대의 로스엔젤레스 지역 선교 음악회 도중 열흘간 숙소를 무료로 제공하셨읍니다. 이 밖에도 아름다운 미담은 허다합니다. 이와 같이 봉사에는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네 사람은 이 사랑의 봉사와, 협동의 봉사와, 인내의 봉사와, 희생의 봉사로써 불쌍한 환자를 구원하였읍니다. 이같이 봉사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봉사란 무엇입니까? 보수를 바라지 않고 스스로 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남에게 주는 것입니다. 할 수 없어 남을 돕는 것은 진실한 봉사가 아닙니다. 자의와 자원에 의해서 남을 도울 때 그것을 봉사라고 합니다. 봉사에 있어서 그 봉사 자체가 보수요, 기쁨입니다. 봉사는 인간의 행동 가운데 가장 높은 차원의 행동입니다. 위대한 인물이란 위대한 봉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나 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훌륭한 정신의 소유자라야 봉사할 수 있읍니다. 나의 이익과 탐심만을 위하는 개인주의자, 이기주의자는 봉사를 할 수 없읍니다. 봉사를 하려면 여력이 있어야 합니다. 시간의 여유, 돈의 여유, 지식의 여유, 능력의 여유, 덕성의 여유, 사랑의 여유, 인격의 여유가 있어야 남에게 줄 수 있읍니다. 위대한 사람이

란 남에게 주는 사람입니다.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잔치집에서 포도주를 만들어 봉사했읍니다. 떡을 만들어 봉사했고 병을 고치시며 남을 가르치며 봉사했읍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으며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시며 마지막에는 몸 전체를 내어 주며 봉사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생이 위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남은 여생, 이 네 사람과 같이 봉사합시다.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이 사랑의 봉사, 협동의 봉사, 인내의 봉사, 희생의 봉사로써 병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합시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나 고쳐 주십니다. 이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각각 한 모퉁이를 담당하는 창의적이며 생동적인 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선용하자.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으므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 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지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은 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2장 1절－8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1980년도 벌써 일 개월이 지나게 되었읍니다. 오늘 신년 첫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읍니다.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전도서와 에베소서의 말씀을 근거하여 '시간을 선용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몇 가지를 생각하면서 신령한 교훈을 피차에 다시 한번 나눌까 합니다. 바울 사도가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한 곳은 로마 옥중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옥중 서간일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이 글을 쓰고 얼마 후에 로마에서 칼로 목을 짤리어 피를 뿌리고 순교하였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유언서라고도 말하는 글입니다. 때가 악하다. 이 말은 그 당시에 예수 믿는 것이 자유롭지가 못했음을 시사해 줍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이교도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었읍니다. 심지어 유대교인들조차도 같은 아브라

함 자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성도들을 핍박했읍니다. 경제적인 핍박이요, 정치적, 사상적 핍박입니다. 또 종교적 핍박이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집회를 가질 수가 절대로 없었읍니다.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숨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듣고, 심지어는 로마의 카르타곰이라는 지하 무덤 속에서 예배를 보던 그런 시대였읍니다. 그래서 신자들이라면 언제 누가 잡아서 죽일지 알 수 없는 생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내일을 약속할 수 없는 그러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그들에게 향하여 바울 사도는 너희들이 언제 핍박을 받아서 언제 지상을 떠날는지 아무도 모르니 이 황금과 같은 시간을 뜻없이 보내지 말고 정말 값있게 보내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지상 천국이라는 미국도 얼마나 죄가 많고 사고가 많으며 죽음이 많은 악한 때입니까? 오늘 밤에는 그만 두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젊고 약한 여자들이 돈이든, 귀중품이든, 가방을 들고 혼자 거리를 걸을 수 없는 것이 오늘의 미국 땅이라고 신문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가 악합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에서 지진이 나고 중동 땅에는 전쟁의 검은 구름이 감돌고 미소의 대립도 점점 평화보다도 무력전이 촉발하기 직전의 어려운 상태에 있읍니다. 3차 대전은 핵 전쟁이라고 말하는데 핵 전쟁이라면 오늘 지구가 일곱 번 잿가루가 되고도 남는다는 가공할 만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너무 여유 많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칫집에 있다고 말했으며, 잘 살고자 하는 자는 범인이요, 잘 죽고자 하는 자는 철인이라고 말했읍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직시하여 통찰하고 이 시간에 대한 관념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얼마나 우리가 더 살려는지는 모르지만 과거는 어떻게 살았던 남은 이 시간만은 값있게 살자는 말입니다. 선용하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셨는데 이 시간을 무엇하며 어떻게 쓸 것인가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여야 합니다. 우리들을 왜 이 시대에 태어나게 했읍니까? 왜 아직까

지 우리들의 이 땅 위의 생명을 살려 주셨읍니까? 우리들을 왜 많은 죄악 가운데서 먼저 구원시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읍니까? 우리들을 왜 지상 낙원이라고 불리는 이 미국 땅에 먼저 오게 했읍니까? 이 생명, 이 시간을 선물로 지금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써야만 할 것인가, 우리 오늘 무엇보다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여전히 이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고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안목의 정욕을 위하여 이성의 정욕을 위하여 황금과 같은 이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낸다면 하나님이 섭섭해하실 것입니다. 각자의 양심에도 부끄럽게 느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선용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우리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 둘째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세째는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시간을 선용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시간을 주셨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너가 믿음의 어린 아이가 되지 말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했읍니다. 바울은 "경성하여 믿음에 굳게 서서 장부가 되라" (구역:고전 16:13)고 말했고 예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했읍니다. 즉 우리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각자가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마태복음 5:48). 이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이룩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 사도가 나이 40에 세상을 떠났다면 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는 사람 밖에는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가 환란과 핍박과 고통과 역경 그리고 옥중 생활을 여러 번 치루면서 그의 신앙은 연단되어 갔고 은혜의 체험을 거듭하면서 그의 신앙은 성숙되어진 것입니다. 정말 바울은 발은 땅에 붙어 있었지만 그 마음은 수평선 위에 올라가 차원 높은 곳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도 세상에서 많은 비평을 받았읍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그에 대한 비평을 작은 것으로 여겼읍니다. 오직 그를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 밖에 없다고 생각했읍니다. 그는 부할 때 처할 줄도 알지만 빈할 때 처할 줄도 아는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했읍니다. 그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

거미의 인간이 되지 말고 개미의 인간도 되지 말고, 벌같은 이타적인 정신을 갖고 사는 봉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읍니다.

니하고 오히려 찬미하면서 세상을 떠났읍니다.

오늘 믿는 사람 중에는 조금만 이상한 말을 들으면 마음에 동요를 일으킵니다. 신앙의 흔들림을 받습니다. 얼굴 빛이 이상해지고 숨소리도 정상적이 아닙니다. 또 남의 말을 자꾸 옮겨서 이간질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신앙이 성숙치 못한 모습입니다. 성숙한 신앙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네가 지금 내 앞에 오면 부끄럽다. 너는 상을 받을 만한 가치도 되지 못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주신 것입니다. 더 좀 은혜를 받아 성숙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믿음의 장부가 되라고 시간을 주셨읍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40세에 데려갔다면 모세는 믿음의 장부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간 신앙의 훈련을 받아 믿음의 장부가 되어 애굽에 내려가 열가지 재앙의 이절을 행하며 홍해 바다를 가르는 놀라운 믿음의 장부가 되었읍니다. 우리의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은 믿음의 장부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민족과 인류를 위해서 더 큰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신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읍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분입니다.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믿는 아들, 딸로서 온전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아주 분명한 사람은 모든 것을 적당히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모든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상대적이나마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고 온전을 요구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불완전하여 좀 울퉁불퉁하고 온전치 못하지만 더 은혜를 받아서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의 여유를 주셨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라고 시간을 주셨읍니다.

미국에 와서도 나만 알고 내 식구만 알고 그저 나만 배부르고 나만 잘 입고 나만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지어서 나만 잘 살으라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만하면 먹고 살테니 남을 위해서 살아라. 거미의 인간이 되지 말고 개미의 인간도 되지 말고, 벌같은 이타적인 정신을 갖고 사는 봉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읍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 많은 사람, 학식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얼굴이 훤하게 생긴 남자, 인물이 고운 여자, 그것도 귀중하지만 나를 잊어버리기까지 하면서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정신을 가진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도의 간디가 얼마나 못생겼읍니까? 소크라테스가 또 얼마나 추남입니까? 바울이 얼마나 키가 작고 눈에는 안질이 있고 말도 웅변적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왜 그들이 위대합니까? 그들은 봉사하는 생활로 일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민족을 위하여 봉사했고 그 시대의 젊은이를 위해서 봉사하였고,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했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다는 것은 문벌이 좋고 학벌이 좋고 권력이 좋아서가 아니고 또 부자여서가 아닙니다. 일생 동안 남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와 몸 전체를 다 희생하여 봉사했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닙니까? 이 정신을 이어 받은 사람이 바울이요, 프란시스요, 슈바이처요, 또 손 양원 목사요, 테레사 여사가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지 않고 아직까지 이 땅 위에 두신 것도 이제는 남을 위해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시간을 주신 줄 알고 있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주셨읍니다.

이 생명이 살아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빌립보 1장 11절에 인생의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했읍니다. 칼빈이 이 말씀을 갖고 기독교 강요를 쓸 때에 인생의 최대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읍니다. 아버지께, 어머님께 효도하는 것, 아내를, 남편을,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계단 더 높이,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최대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자, 남편을 공경하고 순종하며, 체면세워 줍니다.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자,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소중히 생각하며 사랑하고 아끼고, 믿고, 도와주고, 견디고, 참고 또 자식들에게 정말 좋은 부모 노릇 합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애굽에서,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에스더는 파사 나라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읍니다. 비록 그들의 나이는 젊고 이방 나라에 잡혀온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믿음, 소망, 사랑, 겸손, 그리고 봉사가 곳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읍니다. 우리 동양 선교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은 미국 땅에서 우리들의 믿음, 소망, 사랑, 겸손, 그리고 봉사와 희생적인 정신으로써 실행하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시다. 손가락질 받는 한국인이 아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한국인이 되야 하지 않겠읍니까?

아, 글쎄 한국인들 보니까 돈 많은 유대인들 빰치며 지독해. 한국 사람 가까이 하면 손해 보니깐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짓밟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에스더 같은 믿음, 겸손, 사랑, 봉사 그리고 이타적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우리를 이땅에, 미국에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또 생명을 거두지 않고 많은 시간을 선물로 주신 줄 압니다. 또 "너희가 늙기 전에 아무런 낙이 없다기 전에 젊은이들아, 조물주를 생각해보라" 이 말은 누구보다도 인생을 호화찬란하게 살았던 위대한 솔로몬 왕의 말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젊은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젊은이들의 욕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볼 때는 공부 많이 해서 높은 지위에 앉아서, 돈을 많이 벌어 좋은 집을 짓고 살며, 내 육체적 향락에 한 번 부족함 없이 만족을 취해 보겠다는 것이 그들의 욕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 많고, 부귀, 영화를 죽도록 누렸던 훌륭한 임금인데 말년에 와서 백발이 되어 죽기 전에 "이 모든 것은 나에게 만족을 주지 않았으며 행복이 없으면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라고 했읍니다. 그래

서 그는 "헛되고 헛되고 또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전 1:2)라고 다섯번이나 헛되다라고 되풀이했읍니다. 그렇다고 솔로몬이 허무주의자나 염세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솔로몬은 전도서와 잠언을 통해서 말했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우리 젊은이들은 영안을 가지고 앞을 좀 더 내다보는 통찰력이 있어야겠읍니다. 전도서 12장 2절 – 7절을 보면 우리 인간들의 육체적 능력의 쇠퇴가 잘 기록되어 있읍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으므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은 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본문을 세 마디로 줄이면, 늙기 전에, 병들기 전에, 죽기 전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엊그제 장례를 하러 갔는데 묘지에서 일하는 분이 말하기를

"목사님 이 공동 묘지에 노인도 많이 오지만 젊은이도 많이 옵니다. 며칠 전에 한국 사람 집에 초상이 났는데 내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러느냐?"

"아버지가 돌아 가시면 그 곳에 누이실려고 묘지를 샀는데 스무네살된 아들이 자동차 사고가 나서 아버지가 들어갈 무덤에 자기가

대신 들어 갔으니 그 부모님들의 뜨거운 눈물을 볼 때 남의 일같지 않습니다."

죽음이란 늙은 사람만이 먼저 가는 길이 아닙니다. 아기 때, 청년 때,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늙기 전, 병들기 전, 죽기 전에 시간을 선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자기충실

시간을 선용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마음 속에 완성하라고 했는데 즉 다시 말하면 자기 충실입니다. 자기 충실!

우리 교회에서 저를 신학교에 보내어 훌러 신학교에서 한 코스를 마치고 다음 코스를 하는데 동부의 저명한 교수가 오셔서 가르치고 있읍니다. 그 곳에는 한 30여명의 학생이 있는데 나이가 한 사, 오육십 가까운 분들이 오셔서 공부하니 저의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오전 두 시간, 오후 두 시간에 남자 교수들이 가르치고 어느 때는 여자가 와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이름있는 그 교수는 그 두 시간을 가르치고 난 후 자기의 방으로 가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받아 쓰며 또 배우고 있읍니다. 그리고 물으면 대답하고 자기도 질문하곤 합니다. 또 식당에 가보니 어느 젊은 여자가 손으로 음식을 막 주어 먹습니다. 그녀의 테이블 밑에는 개가 한마리 있었읍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눈은 떴지만 앞을 볼수 없는 청명관(장님)이었읍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손으로 먹고, 공부하고, 개를 데리고 길을 안내 받아 학교에 다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중풍에 걸린 여자도 있었읍니다. 떨면서 걸어 다니는데 금방 넘어질 것 같고 불안해 보이는데 공부를 합니다. 저 사람들이 결혼을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나 자기 충실에 노력하는 것을 볼 때에 존경심이 듭니다. 또 도서관에서 보니 일찍 가지 아니하면 책을 얻을 길이 없읍니다. 그렇게 공부들을 하고 있읍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책을 보아야 합니다. 마음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육신의 양식은 먹으려 하지만 정신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 자기 충실을 위해서는 너무나도 소홀하지 않습니까?

어떤 집 뒷뜰에 꽃이 만발합니다. 앞에도 꽃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 집 가까이 집을 이사했는데 그 집에는 앞, 뒤에 꽃이 없고 아주 살풍경했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옆집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은 들에 가서 꽃을 뜯어다가 앞, 뒷뜰에 꽂아 놓았읍니다. 오후가 되어 햇빛이 쨍쨍 내리쬐니 한 시간 후에는 모두 고개를 숙이고 못쓰게 되었읍니다. 보기 흉하게 되었읍니다. 꺾은 꽃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사람입니다.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만 하는 사람 입니다. 희생없이, 열매를 찾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옆 집에는 꽃이 떨어지고 눈이 오는 추운 겨울이 와도 봄이 오면 꽃은 또 핍니다. 그러나 꺾어다 꽂은 그 집은 봄이 왔지만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옆 집에는 노력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청교도들의 신앙과 영국의 경험주의, 그리고 실용주의로 건설되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와서 그저 좋은 집과 좋은 차만 살려고 합니다. 올바른 신앙과 정신은 보이지 않고 돈만 생각하는 우리는 먼저 사람됨에서 자기 충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력전도

또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종교를 믿든, 종교생활도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불교를 믿었든, 기독교를 믿었든, 믿고 난 후에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은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이라고 생각했으면 남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것 저것 다 해 보았지만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은 과감히 끊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보니 내가 왜 진작 예수를 믿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런 체험은 남에게 전할 책임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책임감, 사명감을 배우고, 로마서 9장 3절에서 내가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더라도 내 골육이 구원 받기를 바란다는 간절한 심정을 배워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한사람이 한사람 이상 전도를 해야 합니다.

만약 15분 후에 내가 죽는다면 무엇을 하겠읍니까? 사과 나무 하나 심을까? 은행에 예치한 것을 다 찾을까?

지난 번 학교에 어떤 여자 교수가 와서 죽음에 대한 강의를 하고 난 후 둘씩 둘씩 마주 보고 오늘 당신들이 15분 후에 죽는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의논하고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은 "목욕을 하고 새옷을 입고 기도를 하면서 죽겠읍니다" 또 다른 학생은 "우리 신자들을 다 모아 놓고 God bless you! 내가 죽거든 내 몸을 병원에 가져 가 시험물로 쓰라고 하며 죽겠읍니다" 라고들 말했읍니다. 또 아이젠하워는 아내를 불러 놓고 "I love you"하고는 죽었답니다. 그러나 가장 인상적인 말이 여기 있읍니다. "최후에 15분 동안이라도 전도를 하고 죽겠읍니다" 그것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있는 바울의 말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말을 전하겠다"는 바울의 말입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15분 후에 내가 죽는다면 무엇을 하겠읍니까? 사과 나무 하나 심을까? 은행에 예치한 것을 다 찾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15분 후에 죽는다면 무엇을 하겠읍니까? 한 영혼이라도 건져서 하나님 앞에 데려가 그것이 나의 면류관이 된다면 그것이 가장 값있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것이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무언봉사

끝으로 무언 봉사입니다. 무언 봉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했읍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자체가 짠 맛을 냅니다. 그래서 맛이 없는 것을 맛있게 해주고 썩는 것을 방지하고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게 해 줍니다. 다음,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밝히 드러내야

합니다. 덮어서는 안됩니다. 등경 위에 놓아야 합니다. 산 위에, 등대에 켜 놓아야 합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는 희생이고, 하나는 행실입니다. 너희들이 소금과 같이 되라, 희생하라, 그리고 착한 행실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우리 성도가 할 것은 이것입니다. 가정, 직장, 교회에서 또 어디가서든지 남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하는 것이 우리 성도입니다.

제가 언젠가 간증했읍니다만 만주 봉천에서 유학할 때에 거기는 겨울이었읍니다. 영하 40도로 내려가는 곳입니다. 겨울에 화장실로 가면 수세식이 아니라서 산처럼 얼어 올라 왔읍니다. 선생이 누가 가서 치라하면 어느 학생도 가려고 하지 않읍니다. 여러 나라 학생이 있었지만 나는 한국인의 기백을 갖고 화장실에 가서 얼은 것을 깰 때에 그대로 나온 수수알이 코속으로 들어올 때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졸업하는데 몇천명 가운데 나를 부릅니다. 상장을 받았읍니다. 제가 대전에서 장교 후보생으로 훈련을 받을 때 모두가 외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취사반에 가서 국과 밥을 날라 배식해 놓고는 며칠 후에 전도를 하니 나를 본 모든 훈련병들이 "저 목사님은 말도 하고 실천도 한다"고들 했읍니다. 그러니 말에 품위가 있어서 믿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볼 때에 남이 하기 싫어 하는 것, 남이 안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진정 크리스챤임을 알았읍니다. 무언 봉사예요. 일은 조금하고 자랑은 침소봉대하면 옳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골로새서 4장 5절에 세월을 아끼라. 로마서 13장 12절에 때가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가 밤에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말했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도 건강을 주셨고 미국 땅에 오게 하셨고 기회를 주셨고 또 능력을 주신 이 때에, 아직 어둡기 전에, 늙기 전, 병들기 전에, 죽기 전에,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시간을 주셨는데 이 시간을 무의미하게 작년과 같이 적당히 보내시지 마시고 금년만은 이 시간을 내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완성을 위하고 이웃 사람의 도움을 위하며 또 자신의 충실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금년 일년 만은 값있게 세월을 보내시다가 금년 말에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를 많이 맺으시어 칭찬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2부
그리스도인의 삶

최선을 다하라
신자의 궁극적인 삶의 모델

다시 찾아 주시는 주님
성령 충만의 생활

거짓 신자와 참 신자
신자의 자아 확립

광야의 찬송
신자의 이상적 모델

예수를 잃은 요셉과 마리아
믿음을 다시 찾는 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섬깁시다
신자의 가정 생활

바울의 인생관
신앙적 인간론

최선을 다하라
(신자의 궁극적인 삶의 모델)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빌립보서 1장 10절–11절)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옥중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임박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오늘 봉독한 빌립보 1장 10절과 11절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즉 선을 행하여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선을 다하라'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몇 가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 합니다.

까만 색깔과 하얀 색깔을 함께 놓고 하얀 것이 어떤 것이냐고 물으면 누구나 얼른 분별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흰 색깔을 놓고 보다 흰 것이 어떤 것이냐고 질문할 때에는 얼른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악과 선을 놓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이냐고 질문할 적에는 그것도 우리가 얼른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놓고 어떤 것이 최선이고 어떤 것이 차선이냐고 물을 때에는 분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때에 보통 우리 성도들이 내가 주일에 교회 한 번 왔다 가면 됐지, 기도를 그 만큼 하면 됐지, 라고들 흔히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만치라는 그것으로 그친다면 그 사람은 발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최

선을 다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은 호수가 되지 말고 흐르는 냇가가 되어야 한다"고 어떤 이가 말했읍니다. 부단한 노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 같은 그렇게 훌륭한 종도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 가노라"고 했읍니다. 바울은 매사에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내가 오늘까지 신앙 생활하면서 최선을 다했던가 우리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읍니다. 올림픽 경기에는 각 종목마다 금메달은 꼭 하나 밖에 없읍니다. 그 금메달은 그 종목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 타게 됩니다. 우리 신앙 생활에도 금메달을 내가 타도 좋고, 타지 않아도 좋고 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내가 신앙 생활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영예로운 그 자리에 앉아 보겠다는 즉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책망받지 아니하고 칭찬받고 상금받겠다는 이런 선한 욕망을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신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걸 먼저 우리 최선을 다해서 바로 찾아야만 됩니다. 공자님께서도 "먼저 네 몸을 닦으라"고 했고 소크라테스도 "먼저 네 자신을 알라"고 했읍니다. 예수님은 "네가 먼저 거듭나라"고 말씀하셨읍니다.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했읍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로 찾기를 매우 노력한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일시적으로는 큰 실수를 범했지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읍니다.

이 문둥이는 정말 인간 이하의 사람으로 떨어진 것을 말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빛 앞에서 자기가 문둥이인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남을 시기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되지도 못하고 된 체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면, 영적인 문둥이라는 사실을 자각을 해야 합니다.

항상 그 사람은 남보다도 자기 자신을 찾는데 최선을 다 했던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자기를 먼저 찾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남을 더 보려고 합니다. 남을 보기 전에 눈을 크게 뜨고 내 마음 속을 먼저 깊히 바로 들여다 볼 줄 알아야 참 성도입니다. 그러나 보통 인간들이란 자기를 과장하려고 하고, 자기의 허물은 덮으려 하며 자기의 실수는 변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기의 잘못된 것은 남들이 용서해 주기를 바라지만 남의 허물은 보려고 하고 찾으려 하고 광고를 하려고 하고 그걸 미끼로 사람을 끌어 내리고 짓밟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의 모습이요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편지를 쓴 고린도전서 15장 8절과 9절을 보면 "나는 만삭이 못된 자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했으며 에베소서 3장 8절에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보다 더 작은 자"라고 말했고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고 말했읍니다.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로 찾은 사람입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겸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 사람은 자기 부족을 깨닫습니다. 위대한 분을 만난 사람은 자기가 작은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모세는 시내산 가시 덤불 속에서 자기가 문둥이인 것을 깨달았읍니다. 문둥병자에 대하여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옛날 유대 사회에서는 문둥병자는 완전히 버려진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는 동네로부

터 쫓겨납니다. 광야로 나가 살아야 하는 운명에 놓입니다. 짐승과 같이 삽니다. 공민권도 없읍니다.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문둥이는 정말 인간 이하의 사람으로 떨어진 것을 말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빛 앞에서 자기가 문둥이 인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기하는 사람도 문둥이라고 했읍니다. 미리암이 모세를 시기하다가 문둥이가 되었읍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문둥이라고 그랬읍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물질을 사랑하다가 문둥이가 되었읍니다. 교만한 사람도 문둥이라고 했읍니다. 웃시아 왕은 교만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드리는 것이 제사장 밖에 못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임금인데 왜 제사드리지 못하느냐고 하며 성전에 들어 가다가 문둥이가 됐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남을 시기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되지도 못하고 된 체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면, 영적인 문둥이라는 사실을 자각을 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성전 깊숙히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천사들을 보고, 자신이 입술이 더러운 자임을 깨달았읍니다. 내가 이 입술을 가지고 침소봉대했읍니다. 내가 이 입을 가지고 좋지 못한 말도 했읍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입을 가지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면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우면서도 이 입을 가지고 남을 헐뜯고, 거짓말하고, 모략하고, 중상하고, 좋지 못한 음담패설을 한다면 우리의 입술은 부정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라고 했읍니다. 자기를 발견한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 때에 "주님, 나는 아직도 혈기가 많습니다. 나는 형제들과 충돌을 잘 합니다. 주님 나는 맹세는 잘하지만 실천을 하지 못합니다. 나는 영적인 문제보다도 이 세상적인 문제, 현실 문제를 더 추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감당할 수 없읍니다. 나를 떠나

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아직까지도 믿기 전의 옛 성질, 혈기, 고집 등이 죽지 못했다면 아직까지도 우리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것은 지나 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고후 5:17) 말했으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갈 2:20)고 말했읍니다. 성도는 참아야 합니다. 양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참지 못하고 고집을 가지고 혈기를 부리고 충돌만 한다면 깊이 반성하고 새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소아시아 일곱 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두 곳만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나머지 다섯 교회는 고루고루 책망하셨읍니다. "에베소 교회야, 네가 첫사랑을 버렸구나. 버가모 교회야, 네가 돈을 사랑하는구나. 두아디라 교회야, 네가 향락을 좇아 가는구나. 사데 교회야, 이름뿐이로구나. 라오디아 교회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고 한심하구나"라고 꾸중하셨읍니다. 이 일곱 교회는 우리 개개인을 말하는 것이라고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미국에 와서 신앙 생활한다고 하지만 과연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칭찬을 해주실 것인가, 아니면 사랑이 식어졌구나, 첫사랑이 식어졌구나, 그 첫 열심, 그 충성, 그 봉사, 그 뜨거움, 어디다가 잃어 버렸는가 하고 묻지 않으시겠읍니까? 우리가 사랑 가운데 첫사랑을 잃어 버리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법적인 간음죄를 짓는 생활입니다. 허락된 간음죄입니다. 그만큼 첫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순수한 것입니다. "네가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구나, 돈만 따라가는구나, 돈만 아는구나. 돈을 위해서는 시간, 몸, 땀을 바치고 밤잠도 자지 않으면서, 그렇게 애쓰면서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는 얼마나 땀을 흘리고, 얼마나 시간을 바치고, 얼마나 몸으로 봉사하고 있느냐? 두아디라 교회야, 네가 이사벨을 좇았구나, 향락주의로 흘러 가는구나,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더 좋아하는구나. 사데 교회야,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구나,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열매는 없구나, 이름은 뭐니뭐니 하지만 의로운 열매, 아름다운 열매, 귀한 열매, 착한 열매,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없구나. 잎사귀는 무성한데, 즉 믿기는 오래 믿었다는데, 교회의 직분도 가졌다는데, 열매는 없구나, 간판뿐이로구나. 세례 교인이라는 간판뿐이로구나"라고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보시고 탄식하십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병폐가 있다는데 그 중의 하나는 무관심입니다. 하나는 무기력입니다. 하나는 무책임입니다.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외로운 사람, 실업당한 사람, 억눌린 사람, 병 걸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보겠다는 끓어 오르는 마음, 견딜 수 없는 마음, 용솟음치는 마음, 의욕에 불타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질 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 무슨 책임을 졌으면 그 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 안내위원, 헌금위원, 혹은 내가 무슨 다른 책임을 졌으면 그 책임을 내가 기필코 감당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훌러 신학교 심리학 교수님께 1부, 2부, 3부 예배의 설교를 부탁했읍니다. 그 분의 집이 타우샌드 오크에 있어 교회에 오기까지는 약 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1부 예배시간 (오전 7:30)에 제대로 맞추어 오실까 걱정했는데, 웬걸요 그 날 한 30분전에 두 부부가 교회에 들어 오셨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몇 시에 떠났길래 이렇게 일찍 오셨느냐고 물었읍니다. 그의 대답이 주일 아침에 집에서 출발하다가 혹 자동차가 잘못되거나 혹 고속도로가 막힌다면 1부 예배 시간에 늦을지도 몰라 어제 저녁에 집에서 나와 교회 가까이에 있는 모텔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왔다는 것이었읍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에 큰 감명을 받았읍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훌륭합니다. 책임을 수행하는 사람들임을 절감했읍니다. 우리 동양 선교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이 미주 이민 교회 가운데에는 헌금 위원, 안내 위원, 주차장 정리 위원, 등의 책임을 맡

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날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읍니다. 만일 나오지 못하면 오지 못한다고 전화를 해야 할텐데 전화도 없읍니다. 책임감이 너무 없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 빛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바로 찾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찾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먼저 바로 찾는 것이 최선의 생활이 그 첫번째입니다.

직분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분을 다하라"고 했읍니다. 네가 받은 직책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 직분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보면 이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 수 있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직이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이 직분은 어떤이에게 맡겨진다고 했읍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했읍니다. 주님이 나를 보실 때에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줄 때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나쁜 곳에 가고, 아무 음식이나 먹고, 나가서 손가락질을 받고, 교회에 일년에 한 번 오고, 교회에서 졸기만 하고, 헌금도 봉사도 아니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직분을 줍니까? 그래도 교회에서 볼 때에, "저 사람 참 모범적이다. 저 사람은 회개의 경험이 확실하다. 생활이 달라졌다. 저 사람은 참 충성스럽다"고 할 때에 교회가 그 사람에게 직분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직분을 받기 전에 열심히 일하다가 직분 받으면 더 열심히 일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직분 받고 나서 잘 나오지 않고, 열심도 없고, 직원회에 참석도 아니하고, 직원회 한다면 매사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버리는 식으로 직분을 이행하지 않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직분은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보셨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충성이 시종일관 되어야지, 용두사미가 되어서

야 되겠읍니까?

직분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졌읍니까? 골로새서 1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이룩하라고, 완수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음을 알 수 있읍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고 했읍니다. 우리는 이 직분이 교회의 종을 의미한다고 대개 생각합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두가 교회의 종입니 다. 주의 종이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는 '써번트' (servant) 이지만 희랍어 원문에는 '둘로스' (doulos) 입니다. 이 '둘로스' 라는 말에는 네 가지 뜻이 있읍니다. 첫째는 포기한다. 둘째는 '네' 만 있고 '아니오' 라는 것이었다. 세째는 맡은 일에 충실한다. 네째는 죽기까지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종으로 부린다고 생각할 때 그 종이 자기 주장을 하면 되겠읍니까? 종은 주인의 말만 들어야지요. 또 맡은 일에 충실해야죠. 죽으라면 죽는 것이 옛날의 노예요, 옛날의 종입니다.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과 동등되는 분이시지만, 동등된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 몸을 낮추사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했다고 한 빌립보서 2장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종이시기 때문에 "내뜻 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명령만 기다렸던 것입니다. 밤마다 기다렸읍니다. 그리고 맡은 일에 충성하였읍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읍니다.

사랑하는 제직 여러분, 여러분이 미국 생활에 다 바쁘고, 또 아직 자리를 다 잡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은 줄을 저도 이해합니다만은, 그러나 한 달에 한 번 있는 제직회에 여러 번 빠진 경험이 있는 제직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맡은 일에 충성하라는 것인데 여러분이 직분을 가지고 있고 이름은 직분이라면서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외면하고 안일하게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

꾼이라 할 수 있겠읍니까? 이것은 임 동선 자연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줄을 아시고 여러분이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신자의 의무 감당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했고,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시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예할지어다"고 말씀했읍니다. 이 말씀은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마지막 날 이와 같은 칭찬, 이와 같은 대접, 이와 같은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가정에서도 식구마다 자기 의무가 있읍니다. 남편의 의무, 아내의 의무,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의무, 자식들의 의무가 각각 있읍니다. 회사에서도 사장의 의무, 전무의 의무, 계장의 의무, 사원의 의무가 각각 있읍니다. 군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에도 국민의 의무가 있읍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천국 시민으로 그 의무가 있읍니다. 그 의무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 성도의 첫째 의무인 것을 알 수 있읍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치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고 말씀했읍니다. 우리가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즐

거움이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 모든 기업을 받는다고 했읍니다. 정말 이 미국 나라가 건국한 지 이백 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청교도들의 신앙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읍니다. 그들은 경건하게 예배를 봤읍니다. 그들은 엄격한 생활을 했읍니다. 그들은 십일조 생활을 했읍니다. 그들은 협동의 정신을 가졌읍니다. 그들은 감사하는 생활을 했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주일을 공일이라고 부릅니다.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오지 않고, 피곤해도 오지 않고, 손님이 와도 오지 않고, 애가 조금 감기 들어도 오지 않고, 무슨 좋은 것 있으면 거기 가고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참된 성도가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참 성도는 주일을 잘 지킵니다. 이 주일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양식을 얻는 날입니다. 마음 속의 탁한 공기를 맑은 공기로 갈아 넣는 날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하는 날입니다. 봉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노력하는 날입니다.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 성도가 첫째로 해야 하는 의무인 것입니다. 최선을 다 해야만 합니다.

둘째는 **성경을 애독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했읍니다. 우리가 배워야 확실한 일에 거할 수 있읍니다. 우리가 집안에서도 수도가 잘못되는 것을 고칠 줄 알아야 고장났을 때 고칠 수 있읍니다. 배워야 합니다. 자동차도 운전을 배워야지 움직일 수 있읍니다. 마찬가지로 신앙 생활 잘하려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는 자꾸 읽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라 했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가 이 성경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라 그랬읍니다.

우리가 거울은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봅니다. 머리 빗을 때 거울을 봅니다. 우리 여성들은 남자보다 더 거울을 많이 봅니다. 차타고 오다가도 핸드백에서 작은 거울을 보고, 어떤 때는 차 안에 달린 거울을 내려서 보고, 여러분, 이 성경은 신령한 거울입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얼굴 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열어 가지고 마음을 들여다 보라는 것입니다. 어디 마음에 점과 흠이 있나, 어디 마음에 뚫어진 구멍은 없는가 하고 마음을 보는 거울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말씀은 양식이라 했읍니다. 사람은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보통 하루에 세끼 육신의 양식을 먹은 것과 같이 우리는 신령한 양식을 매일매일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이 윤택해지고 강건해집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성경은 물이라했읍니다. 우리는 물을 마셔야 합니다. 이 성경은 물입니다. 양식만 먹어서는 안되고 그 다음에 물을 마셔야 합니다. 밥을 먹고 물을 마셔야 음식이 잘 내려가고 소화가 잘되는 것처럼 이 성경도 물과 같다 그랬읍니다.

시편 119편 103절을 보면 성경은 꿀과 같다고 그랬읍니다. 또 시편 42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라고 했읍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목 말라 헐떡일 정도라 했읍니다. 목말라 물을 찾는 사람이 헐떡이는 것처럼, 물을 찾는 짐승이 혀를 내밀고 헐떡이는 것처럼, 그렇게 주의 말씀을 헐떡이며 찾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은 신앙 생활을 잘합니다. 성경 많이 읽지 않고 신앙 생활 잘하는 사람, 제가 한 사람도 보지 못했읍니다.

세째로 **합심 기도 해야 합니다**. 기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개인의 부흥은 기도가 많을 때 일어났읍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기도 많이 할 때 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고 했읍니다. 여기에 기도에 대한 좋은 글이 있읍니다.

기도는 단단히 얽매인 영혼을 풀어 주고,
자유로이 영혼을 날을 수 있게 해 줍니다.
기도는 녹슬은 옥문을 열기도 하고,
흑암의 굴속에 찬란한 빛을 줍니다.
기도는 자신의 추함을 그대로 보게 하고,
거룩한 분과 교제하게 합니다.
기도는 깊은 홍해를 갈라 벽으로 삼게 하고,
높은 여리고를 쳐서 평지로 만듭니다.
기도는 바위를 갈라 샘이 터지게 하고,
땅을 갈라서 죄를 파묻기도 합니다.
기도는 앉은뱅이를 일으켜 경주자가 되게하고,
소경이 눈을 떠서 영혼을 보게 합니다.
기도는 피곤한 영혼에게 생기를 주고,
뻣뻣한 무릎을 꿇게 합니다.
기도는 나같은 죄인도 성도로 바꾸고,
할 수 없다를 할 수 있다로 바꿉니다.
기도는 천국문의 열쇠이며,
지옥문의 자물쇠입니다.
기도는 기도로만 배우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명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저자 미상—

저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철야 기도를 하는데 그전에는 그렇게 많이들 모이더니 근일에 와서는 그 수가 차차 줄어 갑니다. 여러분, 아마 전쟁이 터졌다고 해봅시다. 소련 잠수함이 저 앞 바다에서 미사일을 쿵쿵 쏘아 댄다면 아마 직장에도 회사도 가지 않고, 아마 모르긴 모르지만 모두들 예배당으로 많이 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와도 저 뒤에 앉지 않고 강대상 앞으로 올 것입니다. 아

마 강대상 위로 올라오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기에는 계시지 아니하고 뭐 여기에만 계시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 이리 올라올 거예요. 여러분, 매 맞기 전에 정신 차리고 기도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국 땅에 보내시고 빈 손 들고 온 우리를 축복하시어 이만큼 살게 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나 자신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저 조국을 위해서, 저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집에서 실컷 텔레비젼만 보고 잠만 쿨쿨 잡니까? 지금은 자다가 깨어 마땅히 기도할 때입니다. 최선을 다해 기도해야 되겠읍니다.

네째로 **예물을 봉헌해야 합니다.** 신명기 16장 10절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라고 했읍니다. 자식들이 성장하고, 결혼해서 출가하면, 부모에게 올 때 빈 손들고 아니 옵니다. 더러 어떤 때는 생선도 사가지고 오고 어떤 때는 뭐 좀 잡술 거라도 다른 것을 가져옵니다. 어머니 용돈도 가져옵니다. 그게 성장한 자식입니다. 그게 자녀의 도리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복을 주신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했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고 했읍니다. 이 말씀의 뜻은 네가 남에게 주면, 또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은 말로 되데 후히 되사고, 눌러서 흔들어서 그 다음에 안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집에 가니 박스 하나가 집에 있었읍니다. 보니 시애틀에 있는 공군 부대에 있을 때 알게 된 한 목사님이 보낸 박스이었읍니다. 뜯어 봤더니 시애틀 해변에서 뜯었다는 미역인데 한국 미역과 같지 않고 짧고 둥글둥굴한 미역이었읍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목사님, 저희 내외가 바닷가에 갔다가 미역이 있길래 뜯어 말려서 보내오니, 목사님 잡수세요"라고 적혀 있었

읍니다. 어떻게 마음이 감사한지요. 마침 그 집 따님이 얼마 전에 여기에 와서 결혼했는데 제가 꼭 가려고 했지만 그 날 교회의 무슨 일이 겹쳐 가지 못했읍니다. 더군다나 제가 뭘 좀 보내려다 보내지 못하고 다음에 때가 있으면 보내려고 하고 있었읍니다. 그 때 그 미역을 받고 보니 어떻게 얼굴이 뜨겁고 아주 마음이 안됐는지 그 자리에서 부조금을 넉넉치 못하지만 보냈읍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전화를 걸어, "하찮은 걸 보냈는데 이렇게 많은 부조금을 보내셨어요? 아마 미역 값보다 열 배는 더 되겠네요"라고 하는 것이었읍니다.

여러분, 정말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흔들어 주신다는 이 사실말입니다. 저는 기복 사상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복 받고 살려면 먼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좋은 것, 귀한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삼십 배, 육십 배, 백배, 천 배, 만 배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많이했읍니까? 이제 실천하십시요. 그러나 저는 근본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천지만물을 주시고, 독생자까지 주셨으니 이미 저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고 드려서 선교, 교육,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왜 전도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9장과 20절의 말씀처럼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전도가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했읍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전도는 사람들로 예수 믿어 축복을 받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읍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이것은 영적 추수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는 이것이 성도의 의무라고 했읍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것임을 알 수 있읍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

에게 화가 미친다고 했읍니다.

어떤 분이 저를 보고, "임목사, 환갑이 넘게 오늘까지 사는 동안 가장 중대한 사건이 무어냐?"고 물어 보면, 저는 서슴치 않고, "내가 예수를 알게 된 사실입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흔히 들리는 말이 오늘 우리 한국 교포들이 돈만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차만 안다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사치품, 좋은 가구만 사들인다고 하면서 미국 사람, 흑인들이 모두가 우습게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포들에게 고쳐야 할 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분수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읍니까? 그렇게 사치스럽게 사는 것보다 그런 돈 있으면 절약하고 좀 좋은데 써야 되지 않겠읍니까? 그 사람들의 생활을 고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읍니까? 예수가 그들 마음에 들어 가야 되지 않겠읍니까? 예수의 정신이 들어 가면 생활이 달라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직분 완수를 위한 능력을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신자로서 의무를 감당하기 위한 은혜받기에 최선을 다해서 남은 여생을 보람된 삶, 후회없는 삶으로 보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다시 찾아 주시는 주님

(성령 충만의 생활)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5절－17절)

베드로는 게네사렛 해변에 사는 어부였읍니다.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배와 처자와 집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읍니다. 삼년 동안 따라 다니면서 많은 교훈과 훈련을 받았으며 기사 이적도 보았고 신앙고백도 바로 했읍니다(마 16:16).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읍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필경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갈보리산 십자가 밑에 가 보지도 못했으며 또 선생님의 시체를 장사 드리지도 못했읍니다. 다만 관헌들이 자기를 잡아 죽일까 보아 예루살렘에서 으슥한 밤에 문을 걸어 닫고 불안과 공포와 초조 중에 떨고 있었읍니다. 그 때 예수님은 부활하시어 그 방안에 찾아 오셨읍니다. 실의와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었읍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부족을 개탄하면서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얻어 정말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하겠다고 다시 굳게 결심했읍니다.

팔 일 후 예수님은 그 방에 다시 찾아 오셨읍니다. 베드로는 재차 수제자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결심을 했읍니다. 그러나 인간은 조석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작심삼일, 그리고 다시 마음이 변한 베드로는 당장 육신 생활 문제에 봉착하여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기운 없는 목소리를 발하며 문 밖으로 나갔읍니다. 동생되는 다른 제자들도 형님이 가면 자기들도 가겠다고 뒤따라 나섰읍니다. 그것은 옛 고향에 돌아가 다시 배와 그물을 수리하여 바다에 나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날이 밝아 오는데도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읍니다. 몸은 춥고 배는 고프고 기분은 좋치 아니한 이 때에 언덕가에 인자하신 분이 나타나서 말했읍니다.

"너희가 고기를 잡았느냐"
"못 잡았읍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래서 던졌더니 그물을 올릴 수 없이 많이 잡혔읍니다. 이 때에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또 찾아오셨읍니다"라고 말했읍니다. 베드로는 배를 저어 언덕으로 나가 보았읍니다. 주님은 숯불에 고기와 떡을 구어 제자들로 먹게 했읍니다. 베드로가 정신없이 먹고 있을 때에 주님은 물으셨읍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양을 먹이라"

똑같은 말을 연거푸 세번 말씀했읍니다. 이 때 베드로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읍니다. 내가 주를 세 번 부인했고 부활의 주를 세 번 만나 보았는 데도 여기 와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으니 주께서 믿지 않으심이 당연 하시리라고 깨달았읍니다. 입장이 거북하니까 화제를 돌려 "주님, 요한은 장차 어떻게 되겠읍니까?"고 하셨읍니다. 이 때에 베드로는 흔연이 일어 났읍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흩어진 제자와 신도 백이십 명을 모아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금식을 하다가

성령이 강림하여 충만한 은혜를 받아 새사람이 되고 능력을 받아 하루에 삼천 명을 회개시키고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자가 낫고 계속 승리의 생활을 보내다가 마침내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박혀 순교하여 그 피는 교회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저는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찾아 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찾아 주시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았읍니다. 아브라함을, 모세를, 사무엘을, 사울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았읍니다.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라" 하였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죄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고 하였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세 가지 은총을 말합니다. 선행적 은총, 불가항력적 은총, 상승적 은총이 그것입니다. 오늘 이민 온 교포 신자들도 일찌기 부름을 받았고, 은혜의 체험도 믿으면서 그 때마다 감격하여 눈물도 흘리고 지사 충성을 맹세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신자들이 그 감격, 그 맹세를 저버리고 갈릴리 바다와 같은 세상에 다시 내려가 썩어질 것을 위해서 밤잠을 자지 못하며 뛰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또 찾아 오십니다. 이것이 끝없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다시 찾아줄때의 제자들의 형편

3년 전의 그 장소

제자들이 주님을 따른 지 3년이 되었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날 때에는 그 장소가 성전이나 감람산 혹은 사마리아나 딴 장소이어야 하지 않겠읍니까? 그런데 저들은 3년 전에 고기잡던 옛 그 장소에서 다시 주님을 만났읍니다.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여 3년이 되었다면 공부반이 달라야 하고, 군인이 입대한 지 3년이 되었으면 복무 장소가 달라야 합니다. 성경에는 3년 전의 그 장소에 있는 신자를 책

망하여 말하기를 "게으른 자리, 병든 자리, 공포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있는 자여 일어나라"고 준엄히 책망하고 있읍니다.

3년 전의 그 생활

제자들이 주님을 따른 지 3년이 되었다면 그들의 생활이 변화되어야 마땅합니다. 성경을 보든가, 기도하든가, 찬미를 하든가, 병을 고쳐 주든가, 봉사를 하다가 부활의 주를 만났어야 할 터이나 3년 전의 고기잡이를 하다가 주님을 또 만났읍니다. 이민 온 우리 신자들도 예수 믿은 지 3년이 지났다면 생활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마는 아직도 3년 전 믿지 않던 그 때의 생활을 여전히 하는 신자가 많이 있읍니다. 성경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찬송도 부르지 않고, 전도도 하지 못하고, 봉사도 하지 않고, 십일조도 하지 않고 술 담배 여전히 피우고, 거짓말, 이중생활, 교만, 사치, 허영, 시기, 질투, 미움, 욕설, 저주까지 하는 3년 전의 그 생활을 그냥 하는 소위 이름뿐인 신자를 많이 봅니다.

3년 전의 그 이름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3년 전의 옛 이름을 세 번이나 부르셨읍니다. 왜 베드로라고 부르시지 않고 옛 이름을 부르셨을까요? 이는 베드로가 교회 밖으로 나가 세상에서 세상 일을 하고 있으니 옛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면 이름이 변화되었읍니다. 아브람이 변하여 아브라함으로, 사래가 사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레위가 마태로, 사울이 바울로,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했읍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계열의 종이 있읍니다. 좋은 종과 나쁜 종입니다. 좋은 종은 신의 종, 주의 종, 선한 종 신실한 종, 큰 종, 의의 종, 순종의 종, 예수의 종, 유익한 종이라고 말하고 있읍니다. 나쁜 종은 악한 종, 게으른 종, 술의 종, 돈의 종, 죄의 종, 사람의 종, 마귀의 종, 불의의 종, 멸망의 종, 무익한 종이라고 말했읍니다. 만일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나를 무슨 종이라고 불러 주실 것인가를 우리는 손을 가슴에 얹고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찾아 주신 주님의 교훈

고기를 잡았느냐

다시 찾아 주님은 고기를 잡았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잡지 못했다고 대답할 때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명하셨읍니다. 순종하여 던지니 큰 고기 153마리를 잡았다고 말씀했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기를 잡았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즉 금년에 몇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양새끼는 목자가 낳지 않고 양이 낳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장사하여 이를 남기지 못하고 남은 한 량까지도 땅에 묻은 종은 크게 책망을 듣고 돈도 빼앗기고 어둔 곳에 내어 쫓겨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갊이 있으리라"했읍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양을 먹이라."

연거푸 세 번을 반복해서 물으셨읍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 물으심은 신용치 않으시는 증거입니다. 베드로는 주를 세번 부인한 자신, 부활의 주를 세 번 보고도 또 여기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양심에 크게 가책을 느꼈읍니다. 한없이 부끄러웠읍니다. 사랑에는 따라 감이 있읍니다. 젊은 남녀의 첫 사랑의 특징은 서로 사모하는 것입니다. 만나고자 합니다. 만나면 이야기가 많습니다. 헤어지기 싫어 합니다. 시간·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위한 수고라면 무엇이나 사양하지 않습니다. 그를 위해 변명하며 자랑합니다. 대신 죽어주기까지 하는 것이 첫 사랑의 특징입니다. 신자가 주님을 사랑하되 이렇게 이렇게 사랑하는 지를 같이 반성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상관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 자기 입장이 거북해지자 화제를 돌리기 위하여 요한을 가리키며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읍니까?"라고 물었읍니다. 그 때에 예수께서는 "네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읍니다. 오늘 날 교회 나오다가 나오지 아니하는 신자들에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 합니다. 목사 보기 싫어서 강단에서 돈 이야기 많이해서 그 아무개 보기 싫어서 등이라고 합니다. 후자인 인간 관계가 그 중에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신자는 사람을 바라보면 크게 낙심하고 심령에 손실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3절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고 말씀 했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 볼 때에는 바다 위를 걸었으나 바닷물을 바라 볼 때에는 바닷물에 빠졌읍니다(마 14:24-30).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불변의 구원의 촛점입니다.

이 교훈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

첫째 완전한 재헌신을 했읍니다. 베드로는 이 자리에서 굳게 재헌신을 결정했읍니다. 성신 충만을 받지 못한 과격한 베드로는 배를 부수고 그물을 찢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를 때에 소 한 겨리를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사르므로(왕상 19:21) 뒤의 미련을 제거하고 엘리야를 따른 것처럼 베드로도 완전 헌신을 위하여 뒤의 미련을 청산하기 위하여 배를 부수고 그물을 찢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려면 옛 습관을 완전히 부숴 버려야 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같이 세상 것을 분토같이 여기고 주님을 따라야만 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여"라고 말했읍니다.

둘째 열흘 간 기도 후 성령 충만을 받았읍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홀연히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흩어진 신자들을 다락방에 모아 백이십명이 10일간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았읍니다. 이것이 기독교 교회 탄생 기념일입니다. 여기서부터 복음 전파의 새로운 기원이 시작되었읍니다. 그렇게도 나약하고 비굴하던 그들이 초자연의 능력을 힘입어 강하고

우리가 한국에서 비자를 타러 미국 대사관에 들어 갈때 어떤 기도를 드렸읍니까? 김포 비행장에서 비행기에 몸을 싣고 뒤에 두고 가는 조국 강산을 내려다보며 무슨 기도를 드렸읍니까?

담대한 인물들이 되었읍니다.

세째 승리의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읍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는 전에는 실패했으나 그 후부터는 승승장구 승리의 생활을 보냈읍니다. 전도하며 하루에 3천 명을 구원시켰읍니다(행 2:41). 예루살렘 원수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담대히 말했읍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도 병자가 나음을 얻었읍니다(행 5:15-16). 최후에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박혀 끝까지 전도하다가 순교했읍니다. 오늘 교회의 발전은 그들의 순교의 피의 덕분인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받은 열두 제자들은 요한 사도 한사람만 제외하고는 모두가 본국과 이방에서 전도하다가 순교의 피를 흘렸읍니다. 최후 승리로 후회없는 생을 마쳤읍니다.

친애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한국에서 비자를 타러 미국 대사관에 들어 갈 때 어떤 기도를 드렸읍니까? 김포 비행장에서 비행기에 몸을 싣고 뒤에 두고 가는 조국 강산을 내려다보며 무슨 기도를 드렸읍니까? 많은 사람들이 청교도의 땅에 가면 진정으로 신앙 생활 잘하겠다고 하나님께 맹세했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미국에서 우리의 신앙 생활은 어떠합니까? 다시 고기잡이로 내려간 상태는 아닙니까? 3년 전의 그 자리, 그 생활, 그 이름은 아닙니까? 또 고기를 잡았읍니까? 주님을 사랑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더 많지는 않습니까? 사랑의 주님은 우리를 또 찾아 주셨읍니다. 우리도 베드로 같이 재헌신, 성령충만, 승리 생활로 남은 여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다 되여야만 하겠읍니다.

거짓 신자와 참 신자
(신자의 자아 확립)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 어미의 형제에게 이르되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칠십인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골육지친임을 생각하라고 어미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온 세겜 사람들의 귀에 고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말하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묘에서 은 칠십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유를 사서 자기를 좇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 아비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칠십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였으되 오직 여룹바알의 말째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 가서 세겜에 있는 기둥 상수리나무 아래서 아비멜렉으로 왕을 삼으니라 혹이 요담에게 그 일을 고하매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소리를 높이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가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하매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새 술을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사사기 9장 1절－15절)

여룹 바알(기드온 장군)은 주전1천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요, 장군이요, 구국 공신이요, 왕이었읍니다. 그러나 그도

인간인지라 자연수로 인해 죽고 말았읍니다. 그에게는 70명의 아들들이 있었읍니다. 물론 한 여자에게서 낳은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었읍니다. 이 사람은 세겜에서 데려 온 소실의 자식이었읍니다. 이 아비멜렉은 부왕이 별세하자 마음 속에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야심이 생겼읍니다. 그래서 외가집 세겜에 가서 모든 친족을 소집하여 말하기를, "여룹 바알의 아들 칠십인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의 골육지친임을 생각하라" (삿9 : 2)고 호소했읍니다. 그 때에 그들은 그 말에 일리가 있음을 생각하고 "바알브릿묘에서 은 칠십 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유를 사서 자기를 좇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 아비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칠십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였으되 오직 여룹바알의 말째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삿9 : 4-5) 고 했읍니다. 그래서 "세겜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 가서 세겜에 있는 기둥 상수리나무 아래서 아비멜렉으로 왕을 삼으니라" (삿9 : 6) 고 했읍니다. 그들은 여기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는 대관식을 큰 잔치를 베풀어 성대히 거행했읍니다.

바로 이 때에, 앞 산 그리심 산 꼭대기에서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울려 오고 있읍니다.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새술을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 삼았으니 너희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 행한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삿9: 7-16) 라고 준엄한 책망을 그들에게 엄숙히 말했읍니다. 그리고 요담은 도망가고 그 흥겹던 대관식 잔치는 깨지고 말았읍니다.

아비멜렉이 집권 3년에 가알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세겜 사람을 충동하여 크게 작당하여 아비멜렉을 대항하여 선전포고를 했읍니다. 상호 공방전이 날로 치열하여 정국은 혼란하고 백성은 빈곤에서 신음하게 되었읍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 성을 점령함으로 그 백성들은 성중에 있는 견고한 망대속으로 피신했읍니다. 아비멜렉은 망대의 문을 치며 그것을 불살라 백성을 태워 죽이려 했읍니다. 그가 문 가까이 갔을 때 한 여자가 맷돌 윗짝을 그의 머리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골이 깨어져 죽게 되었읍니다. 그는 부하를 불러,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가리켜 여인에게 죽었다 할까 하노라"라고 명령했읍니다. 그래서 소년이 찌르매 그가 곧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읍니다.

이사야 16장14절에 "품군은 정한 해와 같이 삼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찌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소용이 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라고 했읍니다. 아비멜렉이 포악하게 얻은 권좌는 3년으로 비참하게 종말을 맞게 되고 말았읍니다. 아비멜렉은 여우처럼 들어와서 사자처럼 다스린 후 개처럼 죽었읍니다. 69형제를 돌로 죽인 후 자기 머리에 왕관을 씌웠던 아비멜렉은 돌에 맞아 왕관과 머리가 깨져 멸망하고 말았읍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 6: 7) 는 말씀이 그대로 적중되었읍니다.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네 가지 나무는 상징적인 큰 뜻이 있습니다. 가시나무는 악한 아비멜렉을 의미하고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선한 요담을 의미한다고 보겠읍니다. 즉 거짓 신자와 참 신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가시나무 : 거짓 신자 아비멜렉(14절－15절)

첫째로 이 아비멜렉은 영웅주의자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나라의 임금이 되어 달라고 군중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옷을 벗어 깔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부르며 자기를 환영하며 열망했으나 한 마디에 거절하고 왕관대신 가시관을 쓰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셨읍니다. 예수님은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진다고 말씀했읍니다. 천사장 루시퍼는 높아질려고 보좌에 올라 가다가 떨어져 마귀가 되었읍니다. 이 아비멜렉은 누가 하라고 강권하는 사람도 없는데 자기가 임금이 되려고 모의하고 불순한 방법으로 왕이 되었으니 영웅주의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는 높고자 하는 자들이 많이 있읍니다. 무슨 장, 무슨 위원장, 대장 등이 되기를 바라면서 운동하는 자들은 아비멜렉과 같은 영웅주의자들입니다.

둘째로 이 아비멜렉은 인본주의자입니다. 예수님은 큰일이 있으면 반드시 사람을 찾아 가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 조용히 금식하며 밤낮 며칠이고 깊이 하나님과 의논하고 일을 시작했읍니다. 공생애에 나오실 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십자가를 지실 때에 금식도 하시고, 밤새도록 의논을 한 후 결정과 실천을 하셨읍니다. 모세도 큰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서 의논했읍니다. 기드온도, 엘리야도, 이사야도 그러했읍니다. 그러나 이 아비멜렉은 나라의 임금이 되겠다고 하는 자가 하나님보다 먼저 세겜의 자기 외가집 사람을 찾아 의논했으니 이는 인본주의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신본주의 종교이지 인본주의 종교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신자라 하면서 무슨 작고 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보다도 사람을 찾아 의논하고 작당하여 일을 처리하는 자들은 아비

오늘 교회 안에도 이웃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고독한 사람, 억눌린 사람, 가난한 농어촌 교역자, 외지 선교자 등을 위해서는 한 푼의 돈도 쓰지 않고 자기의 식구, 맘에 맞는 사람끼리만 어울려 오고 가며, 돌아다니며 먹고 마시며 하는 자들은 아비멜렉과 같은 향락주의자들임이 분명합니다.

멜렉과 같은 인본주의자들입니다.

세째로 이 아비멜렉은 황금만능주의자입니다. 예수님은 40 일을 굶으신 후 시장이 극도로 달했을 때에 마귀가 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유혹을 거절했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 4 : 4) 하시며 거절했읍니다. 즉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를 격파했읍니다. 예수님은 살아 생전에 가난하셨읍니다. 옷 두 벌이 없으시고, 세금낼 돈도 없으시고, 죽어 장사지낼 땅조차 없으신 청빈한 분이었읍니다. 그러나 이 아베멜렉은 세겜 사람들이 바알브릿 우상 전당에 바쳤던 은 칠십개를 정치 자금으로 얻어 난류의 무리를 사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애쓰다 마침내 야망을 이룬 황금 만능주의자입니다. 오늘 교회에도 지방회장(노회장) 이니, 총회장이니, 부회장이니, 총무자리니 하면서 자리를 쟁탈하기 위하여 많은 돈을 뿌리는 자들은 분명히 아비멜렉 족속임이 틀림없읍니다. 성직자가 어디서 무슨 돈이 그렇게도 많이 있어 뿌리는지 알 도리가 없읍니다. 오늘의 교회의 타락은 이런 자들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인가 합니다.

네째로 이 아베멜렉은 향락주의자입니다. 예수님은 땅위에서 33년 동안 생활하시는 중, 공생애의 3년을 마치시고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나라를 가시기 직전, 사랑하는 제자들을 예루살렘 그윽한 다락방에 모으시고 보리떡 한 덩이와 포도주 한 병을 가지고 송별의 잔치를 마치셨읍니다. 얼마나 검소하고 얼마나 적절한 잔치입니까? 그러나 이 아비멜렉은 수 많은 형제의 피를 흘리고 왕이 되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잔치를 베풀어 주지육림 속에서 대관식을 했으니 이는 향락주의자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헤롯의 향락의 잔치의 결과는 의로운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것이었읍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이웃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고독한 사람, 억눌린 사람,가난한 농어촌 교역자, 외지 선교자 등을 위해서는 한 푼의 돈도 쓰지 않고 자기와 식구, 맘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려 오고 가며,돌아 다니며 먹고 마시며 하는 자들은 아비멜렉과 같은 향락주의자들임이 분명합니다.

다섯째로 이 아비멜렉은 독재주의자입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막 10 : 45) 고 하시고, 말씀 그대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섬기다가 마침내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 주신 후 희생의 제물로 일생을 마치셨읍니다. 그러나 이 아비멜렉은 나무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렇치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라" (15절)고 공갈 협박을 했읍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유세를 부리는 사람, 창립 신자라 해서 권리 행사를 하려는 사람, 식구가 많다 해서 발언권을 강하게 가지려는 사람 등은 아비멜렉의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혹은 목사 중에도 자기가 교회를 세웠다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주하는 것도 이런 유의 사람입니다.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이 세 종류의 나무는 선한 요담을 상징하는 나무로서 참 신자의 모형입니다.

감람나무 (8절 – 9절)

감람나무는 기름을 짜는 나무입니다. 즉 감람나무 열매를 따서 큰 가마솥에 넣고 푹신푹신 삶아서 큰 자루에 담아, 그 자루 위에 큰 널판지와 돌을 얹어 놓고, 사람들이 올라 타고 내리 눌러 짜고 짜면, 거기서 기름이 나와 거기에 불을 붙혀 어둠을 환히 밝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람나무입니다. 공생애에 나가시기 전 40일 간 밤낮 금식하면서 짜고 짜서 성령 충만하여 세상에 빛으로 나타나셨읍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밤이 맞도록 짜고 짜서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를 촛대로 삼고 눈물과 땀과 피를 기름으로 삼아 불을 켤 때에 그 빛이 밝아 어둔 세상에 비침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영생의 길을 찾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한국 여주읍 교회에서 목회할 때 충북 금암 교회로 부흥 집회를 갔읍니다. 그 교회에서 사무하시는 박영재 목사님이 이러한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었읍니다. 박목사님의 둘째 아들 정훈이라는 아이가 나면서부터 벙어리가 되어 8살이 되도록 말을 전연 하지 못합니다. 그 해에 전도 집회 강사를 한 분 모셔 왔는데 이 분은 기도를 많이 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분이었읍니다. 그 분이 박목사님의 아들이 벙어리인 것을 보자 목사님께 이 교회 부흥 발전을 위해서 정훈이가 말하는 것이 선결 문제라 하면서 심방 전도를 그만 두고 이 아이가 말문이 열릴 때까지 교회에 들어가 같이 금식 기도를 하자고 요청했읍니다. 박목사님도 비장의 결심을 하고 교회에 들어가 기도하는데 한 밤 중에 하나님의 밝은 빛이 자기의 마음 속에 비치면서 새로운 많은 죄를 깨닫게 해 주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읍니다. "정훈이가 벙어리가 된 것은 네 죄값이다. 네가 일제 시대에 신앙의 절개를 지키느라고 일본 사람에게 굴하지 않고 청빈하게 산 것은 잘한 것이나, 네 아내가 정훈이를 배었을 때 여자의 생리는 별미를 먹고싶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인 너에게 남과 같이 돈을 벌어 오라고 했다. 그 때에 너는 위로와 사랑으로 부드럽게 대답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잘 먹는 것이 부럽거든 부자집으로 시집을 가라고 고함을 쳤다. 그 때에 정훈이가 벙어리가 된 것이니라" 박목사님은 이 똑똑한 음성을 듣고 엎드려 기도하며 머리를 마루 바닥에 쾅쾅 치면서 눈물로 세 가지를 통회 자복했다 합니다. 내가 남의 집 귀한 딸을 데려다가 잘 입히지도 못하고 먹이지도 못한 것에 대한 것과, 강단에 올라 서서는 온유와 겸손과 사랑을 외치면서 아내에게는 왜 내가 그렇게도 신경질을 부렸던가 하는 것

과, 내가 정훈이에게 때로는 너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혔으니 차라리 죽으라고 머리를 주먹으로 쥐어 박은 것들이 죄책이 되어 대성통곡하며 한참 동안 진정하게 회개를 했다 합니다. 그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제 일어나 집으로 가라"고 했읍니다. 이 똑똑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 옆에 있는 사택으로 들어갔읍니다. 아침이 밝아 오는 새벽, 방안도 훤해 가는 때에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벙어리 정훈이가 잠을 깨어 상반신을 일으키며, "아버지 어디 갔다 오세요?"라고 8년 동안 말을 전연 못하던 아이가 말을 하는 것이었읍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박영재 목사님의 하나님은 또한 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에는 회개하여 감람 기름을 짜듯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요15:7)

무화과나무(10절-11절)

무화과나무는 꽃이 없이도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무화과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문벌의 꽃도, 학벌꽃도 없으십니다. 30년 동안의 목수 생활 끝에 시장하시고, 목마르시고, 마지막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벌거 벗으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못 박혀 돌아가셨읍니다. 그의 일생에는 아름다운 꽃이 없는 생애이었읍니다. 그러나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많은 열매를 맺었읍니다. 120에서 3천, 5천에서 또 맺고 맺어 오늘에는 1억 이상의 열매가 맺혔읍니다.

옛날 한 나라의 임금이 백성들의 마음을 보려고 모든 가정에 꽃씨 한 봉지씩 주면서 심어 가꾸면 등수를 매겨 후한 상금을 주리라 약속했읍니다. 모든 집에는 꽃이 각양 각색으로 아름답게 되었으나 한 모자는 꽃을 가져갈 날이 다가 왔는데도 꽃이 전연 나오지 아니합니다. 어머니는 말하기를, "평생에 내가 죄가 많아서 꽃이 나오지 않는구나"라고 말할 때에 아들은 "아니요, 어머니 제가 불효해서 꽃이 나오지 않나 봅니다"라고 했답니다. 그 후 날짜가 되어 모든 사

람들이 꽃 단지를 들고 궁전 뜰에 가지고 진열을 했읍니다. 이 때에 임금이 나타나 각양의 꽃을 보면서도 전연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다가 맨 끄트머리에 외면당한 빈 흙 단지를 보고서야 만면에 희색이 가득하며, "야! 이 꽃이 참 아름답구나. 이 꽃 단지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모자는 떨면서 앞에 나갔읍니다. 왕은 그 모자의 손을 잡고 단상에 올라가, "여봐라, 내가 준 꽃씨는 펄펄 끓는 물에 찐 죽은 꽃씨니라. 내가 준 꽃씨를 심었다면 이런 빈 흙 단지 밖에는 가지고 올 수가 없을텐데 너희들은 상금이 탐나서 딴 꽃씨를 심어 아름다운 꽃을 들고 왔구나. 내가 원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꽃이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는 마음 속에 핀 꽃을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 모자에게 상금을 많이 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속 사람의 모습을 보십니다. 세상적인 문벌, 학벌, 명예, 지위, 권력, 물질의 화려한 꽃이 없더라도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회개의 열매(마3:8), 의의 열매(빌1:11), 선한 열매(약3:17), 아름다운 열매(아4:16), 귀한 열매(아7:13), 성령의 열매(갈5:22－23) 등입니다.

포도나무 (12**절** – 13**절**)

포도나무는 포도즙을 짜는 나무입니다. 유대 나라에서 포도즙을 짜려면, 무더운 여름철에 포도를 따서 큰 대통에 쏟아 붓고 뚜껑을 닫아 푹푹 썩힌 다음에 남녀들이 발을 씻고 절구꽹이를 가지고 들어가 시편 노래를 불러 가면서 짓밟으면 포도가 서로 부대껴 껍질이 터지면서 포도즙이 대통 아래 작게 뚫어 놓은 구멍으로 흘러 나와 그것을 모아 마시는 것입니다. 즉 이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이라는 큰 대통 속에 들어 오시어 33년 동안 살으시고 뭇사람에게 짓밟히어 마침내는 여섯 군데에 상처가 나서 거기로부터 피가 흘러나와 그 피를 우리가 마심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포도는 썩어 짓밟혀 터지지 않고는 결코 포도즙을 낼 수가 없읍니다. 이와 같이 참 신자는 잘 썩어야 하고 잘 짓밟혀야만 포도즙을 내어 남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청주에 김옥례 씨라는 분이 결혼하여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몇 해가 돼도 아이가 없어 매우 근심 중에 살고 있을 때에 청주 교회 여전도회원들의 가정 전도를 통해 교회에 출석하다가 큰 은혜를 받아 기쁨이 충만했읍니다. 남편은 돈도 벌지 않고 술과 노름만 하여 아내가 삯바느질을 하여 생계를 유지해 나갔읍니다. 하루는 교회 예배를 마치는데 여전도회의 광고가 있기를, 오늘 장날이니 여성들은 집에 갈 때에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라는 것이었읍니다. 그 분은 전도지 몇 장을 가지고 집에 오는 길에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지를 주며 전도했읍니다. 그러다가 한 남자에게 고개를 숙이고 얼굴과 시선을 바로 보지 못한 채 전도지를 주며,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하자, 그 사람이 말하기를, "오, 네가 예배당에 가지말라고 해도 왜 그렇게 열심으로 다니는가 했더니 연애 편지 써가지고 연애하러 다니는구나." 그는 술이 만취된 자기의 남편이었읍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중에 남편은 아내의 머리카락을 잡고 넘어뜨린 후 질질 끌고 집에 가서 장작으로 때리니 아내는 몸에 많은 상처를 입고 기절하여 숨이 멎었읍니다.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 몇분이 달려 가서 시체를 방 아랫목에 눕혀 놓고 밤새도록 열심으로 기도해 주었읍니다. 술이 깬 남편은 후회와 불안에 사로잡혔읍니다. 이제는 의식주도 문제이지만 더구나 살인죄를 지었으니 자기도 죽게 될 것을 생각하며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시체 옆에 앉아 있었읍니다. 새벽이 되자 죽었던 사람이 "푸-" 하는 가는 소리와 함께 "하나님, 내 남편을 회개 시킨 후에 나를 데려 가세요"라고 연거푸 세 번을 반복했읍니다. 그 때에 돌같은 마음의 소유자인 남편이 아내 머리 옆에 달려 오며, "용서하오, 나도 꼭 예수를 믿겠오"라고 했읍니다. 아내는 감았던 눈을 힘 없이 뜨며, "그래야 구원을 받지요" 기적으로 숨이 끊어지던 아내는 소생하고, 그 후 남편이 예수 믿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은 후, 여자는 성경학교를 나온 후 괴산 교회의 여전도사가 되고 남편은 집사가 되고 교회 사찰이 되어 충성했다고 합니다.

친애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짓 성도인 가시나무가 되지 말고, 참 성도인 감람나무가 되어 짜고 짜서 성령 충만하여 어둔 세상을 밝히기를 바라며, 무화과나무가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라며, 포도나무가 되어 은혜의 즙을 나누어 주어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고 마침내 순교의 피라도 사양치 않는 참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찬송
(신자의 이상적 모델)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 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신을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사도행전 8장 26절–40절)

예루살렘 남쪽에는 일망천리 가사 광야가 있읍니다. 이 광야는 집 한 채 없고 사람 하나 살지 않는 문자 그대로의 황막한 광야입니다. 있다면 열대 식물과 들짐승만이 있는 무의미한 광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서 환희에 넘치는 찬송 소리가 우렁차게 대지에 울려 퍼지고 있읍니다. 기독교는 이적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신·구약의 모든 이적의 배경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우연이라는 것은 없고, 오직 그 만한 이유가 있음으로써 이적이 나타났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이 광야에서 기쁜 찬송 소리가 들렸다함은

모범적 전도자 빌립과 모범적 신자 구스 내시가 서로 만나 예수를 전하여 구스 내시가 은혜를 받고 그가 기쁨에 넘쳐 부른 찬송 소리입니다.

모범적 전도자 빌립

첫째 계시를 받는 전도자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하였읍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8장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였읍니다. 이와 같이 빌립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종이었읍니다. 한 나라의 대사는 본국 정부의 왕이나 대통령의 훈령을 받아 그가 주재한 나라에 반영을 시키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전도자는 하나님의 전권대사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그 시대, 그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자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했읍니다.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와 그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쳤읍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나의 속한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라고 말했읍니다. 이 말씀은 로마로 가는 상선이 지중해상에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 십사일 간 먹지도 못하고 기진맥진하여 절망에 빠진 그들에게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배만 잃고 한 사람의 생명도 잃치 않을 것이라는 안심을 시킨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낮에는 전도하시고 병을 고치셨읍니다. 피곤한 몸이셨으나 밤에는 한적한 곳을 찾아나가 기도하시며 내일에 가야할 곳과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으셨읍니다. 참 좋은 때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또한 기도 중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주의 종은 이 말씀을 나가서 외쳐야 합니다. 그리하면 영혼들이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둘째 순종하는 전도자입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에 "일어나 가니라"고 했읍니다. 이 때의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하자 그 성안에 많

은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읍니다. 이 때에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라 하실 때에 빌립은 일언반구 아무런 이론이 없이 순종하여 떠났읍니다. 웬만하면 몇 가지 변명도 있을 뻔 합니다. "하나님 그곳은 광야입니다. 거기 누가 있다고 가라 하십니까?" 또 "내가 지금 놀고 있음이 아니라 전도하여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와 은혜를 받고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이것을 어쩌고 가라 하십니까?"라고 반문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오직 순종할 따름이었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였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의 것은 사람이건 짐승이건 전부를 죽이라 했는데도 기름진 가장 좋은 양과 소를 살려 가져와 책망을 받을 때에 제사에 쓸려고 살렸다고 변명할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120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20세 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잡아 번제를 드리라는 명령이 떨어지자 그는 아침 일찌기 일어나 그 독자를 데리고 사흘 길을 가서 산에 올라가 번제로 바쳤읍니다. 그 때에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시고 대신 나무에 걸린 양으로 번제케 했읍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큰 복을 받았읍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읍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죽기까지 복종 하는 것이 종입니다. 하나님이 가라하면 산골이나 섬이나 어디나 순종하여 가는 종이라야 가는 곳마다 영혼들에게 은혜를 끼칩니다.

세째 예수만 가르치는 종입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고 했읍니다. 빌립은 예수만 전하는 종이었읍니다. 종은 주인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란 말을 수없이 반복하여 말했읍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했읍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

여 살든, 죽든지 내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말했읍니다. 이는 로마의 법률과 희랍의 철학과 유대의 율법을 많이 아는 바울이 나는 다만 예수만 가르친다는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고 했읍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전도자는 누구든 복음의 핵심이 되시는 예수만 전해야 합니다. 왕이면서도 가난한 자, 영웅이면서도 어린이, 예언자이면서도 개혁자, 지배자이면서도 종, 혁명가이면서도 성자, 사색의 사람, 말씀의 사람, 행동의 사람, 나의 구주 예수만을 전하는 종이라야 영혼에 기쁨을 줄 수 있읍니다.

네째 죄를 가르치는 종입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이 구절은 King James Version이나 구역에는 있음. 그러나 한글 개역에는 빠짐.) 이 말씀은 구스 내시가 세례를 받겠다고 할 때에 빌립이 당신이 죄를 온전히 회개하면 세례를 받아도 가하다는 대답입니다. 주의 종은 먼저 죄를 가르쳐야 합니다. 선구자 세례 요한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막 1:15)고 했고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마 3:2)고 하셨읍니다. 베드로도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행 2:38)고 각각 죄를 지적하고 책망했읍니다. 바울도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행 24:25)고 말했읍니다. 이와 같이 전도자는 사람의 겉옷의 먼지를 털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 속의 영혼의 때를 털어주는 사람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전도자 웨슬레 목사는 "세 가지 준비를 항상 하고 다녀야 하는데, 설교 준비, 이사 준비, 죽음 준비다"라고 한 말은 참 전도자의 말입니다. 죄를 책망하고 가르치는 데서 회개가 있고, 거듭남이 있고, 성령 충만의 기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섯째 청렴한 전도자입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 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고 했읍니다. 즉, 빌립은 비록 넉넉치 못한 전도자이나 구차하게 내시에게 손을 내밀어 물질적인 요구라든가, 주소 성명을 받아 혹시나 후에 에디오피아에 가면 기억해 달라는 말이 전연 없읍니다. 깨끗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이성, 명예, 물질에 깨끗해야 합니다. 요셉은 이성에 깨끗했읍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 하리이까" 했읍니다. 바울은 명예에 깨끗했읍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무엘은 물질에 깨끗했읍니다. 사무엘상 12장 4절에 "그들이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뉘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 이들은 모두가 이성, 명예, 물질에 깨끗했음으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영혼에 기쁨을 주었읍니다. 빌립은 이와 같이 다섯 가지 귀한 자격을 가진 종이었읍니다.

모범적 신자 구스 내시

첫째 예배드리러 다니는 신자입니다. 구스 내시는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신자입니다. 왕복 거리가 만리길이 넘을 것입니 다. 옛날 교통도 불편할 때 마차를 타고 분원만리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신자입니다. 철인 듀륙하임은 "인간은 종교적 동물이다"고 했고, 윌리암 템풀은 "인간은 예배하는 동물이다"고 했읍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 함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데에 영장의 가치가 있읍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깨우치며,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영혼을 먹여 주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상상을 강화시키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게하며,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의지를 봉헌시키는 것입니다. 예배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했읍니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란 어

떤 것입니까? 주일성수, 시간엄수, 의복단정, 태도방정, 합심기도, 신령찬송, 정성헌금, 설교경청, 충성봉사 등이 신령한 예배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 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시편 기자는 읊었읍니다.

둘째 성경만 읽는 신자입니다. 사도행전 8장 28절에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구스 내시는 성경만 읽는 신자입니다. 주님의 나라, 성지로 예배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산천 경계를 구경하거나 날짐승, 들짐승 구경도 할 법한데, 일체를 중단하고, 오직 마차 위에서 성경을 읽으며 자기 나라에 돌아가고 있읍니다. 그 때의 성경은 오늘 성경과는 달리 양의 가죽에 쓴 두루마리로써 한 쪽 사람이 풀으면 한 쪽 사람이 감아야 하는 거추장스러운 성경이었읍니다. 영어를 터득하려면 영어 사전 세 개가 닳아 떨어져야 하고, 고등고시에 합격하려면 율법전서를 닳도록 읽어야 한다고 말하듯이 신앙 생활을 바로 하려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아 성경이 새 것과 같은 사람의 마음은 굴뚝과 같이 검다는 말은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성경말씀은 우리에게 영향력, 폭발력, 부흥력, 해부력, 중생력, 성결력, 인도력, 해방력, 방비력, 예술력, 현정력, 상상력, 자선력, 융화력, 전도력, 축복력, 찬송력, 구원력을 주는 책 중의 책입니다. 오늘 이민 생활에 부부싸움, 자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성경을 읽지 않는 데에 원인이 있읍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시험을 받으실 때에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째 겸손한 신자입니다. 사도행전 8장 31절에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라고 했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고 말씀했읍니다. 빌립이 가까이 가서 "당신이 읽는 성경을 깨닫느뇨?"라고 물을 때에 "나는 모르니 올라와 가르쳐 달라"고 했읍니다. 구스 내시는 참으로 겸손한 신자입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참 아는 것이요, 겸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고 했읍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려 함이니라"고 했읍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의 위인이 천하만민보다 심히 겸손한지라"(구역성경) 고 했으며 바울도 "나는 만삭이 못된 자라, 나는 가장 적은 자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읍니다. 모세나 바울은 교만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마는 자기를 낮추어 겸손했기 때문에 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들어 귀히 쓰임을 받았읍니다. 영국의 웨슬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세째도 겸손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다 합니다. 성경에서 일반 역사에서 넘어진 사람을 보면 자기 교만에서 실패했읍니다. 모든 성도는 하늘에서 땅에 오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뺨을 맞아도 말이 없으시고, 채찍에 맞고, 가시관 쓰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 속까지 내려가신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네째 회개하는 신자입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예수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구역성경)고 했읍니다. 구스 내시는 빌립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읍니다.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입니다. 공자는 "하늘에 죄를 얻으면 빌 곳이 없다"고 했읍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라고 말했읍니다. 성군 다윗왕은 일시적인 큰 범죄를 저질렀읍니다.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듣고, 왕이란 체면을 무릅쓰고 용상에서 굴러 떨어져 몸을 딩굴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함으로 용서와 축복을 받았읍니다. 그러나 반대로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의 책망을 받고도 회개치 않을 뿐더러, 요한의 목을 짜름으로 지옥에 갔읍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반석을 치니 반석이 깨지고 물이 쏟아져 나왔읍니다. 우리들 마음 속에 죄악의 반석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로 깨어져야만 기쁨의 찬송이 나

우리 모든 전도자는 빌립과 같이 계시를 받고 순종하는, 예수만 전하고, 죄를 지적, 청렴한 모범적 종이 되고, 모든 신자들은 구스 시내와 같이 예배 드리는, 성경보는, 겸손한, 회개하는, 성신충만한 성도되어,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여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라도 기쁨으로 찬송하며 힘차게 저 피안의 세계를 향하여 전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 것입니다.

다섯째 성신 받은 신자입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고 했읍니다. 여기, '흔연히'란 말씀은 샘 솟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사함과 동시에 곧 거듭남과 동시에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그는 기쁨이 충만하여 찬송을 부르며 고국으로 돌아 갔읍니다. 성경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다"(롬 8:9)고 했읍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주를 주로 알지 못합니다(고전 12:3). 분별력이 없읍니다(고전 2:14). 그리스도인의 특색이 없읍니다(갈 5:22－23). 담대하지 못합니다(요 18:17). 마지막 날에 버림을 받습니다(마 25:3－12). 그러므로 신자는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기독교를 일곱 시대로 구분하여 무죄 시대, 양심시대, 권세 시대, 허락 시대, 율법 시대, 은혜 시대, 천년 시대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입니다. 즉 성령 시대라는 말입니다. 구약을 성부시대요, 사복음은 성자시대, 사도행전부터 주님오실 때까지는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에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받는 방법은 말씀 충만, 간절 기도, 철저 회개입니다. 이렇게 하면 누구나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 성신받은 표입니다. 성령의 아홉가지 열매를 요약해서 온유, 겸손, 사랑, 절제가 있으면 분명히 성령받은 사람입니다.

친애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도의 물질 문

명으로 말미암아 고층건물, 고속도로, 풍부한 물자, 생활의 편리, 불야성을 이루고 있읍니다마는 영적으로 볼 때는 분명 황막한 광야입니다. 불신과 미움과 도덕과 살인이 가득차서 양육강식, 우승열패의 피비린내 나는 살풍경의 광야입니다. 우리 모든 전도자는 빌립과 같이 계시를 받고 순종하고, 예수만 전하고, 죄를 지적, 청렴한 모범적 종이 되고, 모든 신자들은 구스 내시와 같이 예배드리는, 성경보는, 겸손한, 회개하는, 성신충만한 성도되어,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여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라도 기쁨으로 찬송하며 힘차게 저 피안의 세계를 향하여 전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를 잃은 요셉과 마리아
(믿음을 다시 찾는 길)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열 두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좇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히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누가복음 2장 40절－51절)

믿음을 다시 찾는 길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들입니다. 요셉은 의인(마 1:19)이었고, 마리아는 인류 역사상 신앙이 제일 훌륭한 여자라고 봅니다. 그러기에 선택받아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고, 기르고, 가르쳤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이지만 한 때는 예수를 잃고야 말았읍니다. 예수께서 열 두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 유월절을 지키고 집으로 돌아가던 차에 하루 길을 걸어 해가 저물어 여관에 들어 예수를 찾으니 찾을 수가 없었읍니다. 잃어버렸읍니다. 어째서 잃었읍니까?

예수를 잃어버린 이유

첫째 분주해서 잃었읍니다. 오랫만에 유대 나라 서울 예루살렘에 가

오늘 이민온 교포들도 거대한 자본주의, 치열한 생존 경쟁, 대중과 기계, 분망한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를 잃어버리는 교인들이 날로 늘어만 갑니다.

니, 유월절에 전국에서 올라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아는 사람도 많이 만나고, 구경할 것도 많고, 사고 싶은 물건도 많고, 너무나 정신을 뺄만큼 복잡, 분주한 중에 아들을 잃고야 말았읍니다. 오늘 이민 온 교포들도 거대한 자본주의, 치열한 생존 경쟁, 대중과 기계, 분망한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를 잃어 버리는 교인들이 날로 늘어만 갑니다. 돈벌이에 바쁘고 시간 있으면 오락과 골프장 가기에 분주해서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이 많이 있읍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옥으로 끌고가는 방법 중 제일 고등 방법은 주일날 장사 잘되게 하는 방법이라 했읍니다.

둘째 육정으로 치우쳐 잃었읍니다. 이 때 요셉의 부부는 한참 젊은 시절입니다. 오랜만에 직업과 살림에 손을 떼고 또 많은 자녀들의 시선을 벗어나 단 둘만이 길을 걷는 낭만을 가졌읍니다. 두 사람만의 서로의 생각으로 예수가 따라 오는지는 관심 안에 없었읍니다. 그러므로 옛날 한국 초대교회 목사들은 토요일에 결혼식을 해 주지 않은 목사도 있었다 합니다. 토요일에 결혼한 부부는 이튿날 주일에 교회 빠지는 율이 많았기 때문이라 합니다. 오늘 미국 이민 온 가정 중에 육정에 치우쳐 부정에 빠지고, 연하의 미모에, 육정에 끌려 범죄와 가정파괴와 교회 출석을 중지하고 예수를 잃는 사람들이 날로 많아 갑니다. 성경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롬 8:6),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롬 8:13) 고 했읍니다. 육정으로 치우친 천하 영웅 삼손은 부끄러운 최후를 마쳤고, 육정을 이긴 청년 요셉은 천추에 빛나는 성도가 되었읍니다.

세째 사람을 믿다가 잃어 버렸읍니다. 누가복음 2장 44절 – 45절에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라고 말

씀하고 있읍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친척이나 아는 동리사람과 같이 따라오는 줄로만 알았읍니다. 즉 사람을 믿다가 예수를 잃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민 교민들도 구원의 촛점이 되고, 복음의 근원되신 예수를 믿지 않고, 은혜 많다는 사람, 성경 잘 가르친다는 사람, 방언, 예언한다는 사람, 병 고치는 신유 은사 받았다는 사람, 불의 사자, 능력의 사자라는 사람을 믿다가 예수 잃어 버리는 사람 많이 봅니다. 또 교회 안에서 인간 관계가 거북해서 예수 잃어 버리는 사람도 많이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자 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하심이니라"고 했고 또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찌어다"고 했으며.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했읍니다.

예수를 잃어버린 결과

첫째 근심이 생겼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신 예수를 잃어버린 요셉과 마리아는 심한 근심이 생겼읍니다. 생존에 대한 의심까지 품게 될 때에 더욱 큰 근심이 생겼읍니다. 어린 자식을 잃어본 경험이 있는 분이라야 이들의 심정을 더욱 잘 알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 여관에서 저녁밥도 먹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 찾으려고 그날 밤 거기서 잠도 자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자의 마음 속에서 예수가 떠나게 되면 첫째 생기는 증거는 마음의 걱정, 근심, 불안, 초조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 예수를 잃어 버린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근심이 사무쳤다고 말씀했고, 예수를 잃고 엠마오로 내려오는 두 제자에게도 근심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읍니다.(눅2:17). 오늘도 교회 나오고 신앙 생활한다 하면서도 마음 속에 근심, 걱정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 속에 예수를 잃은 사람입니다.

둘째 가던 길을 돌아섰읍니다. 예수를 잃은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 고향, 집을 향해 가다가 길을 돌이켜 반대 방향을 향해 갈 수 밖에

없었읍니다. 예수를 잃어 버리면 누구나 천국 향해 가던 발걸음이 정반대 방향을 향해 갈 수 밖에 없읍니다.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 보지 않고 애굽을 바라 보다가 광야에서 죽고야 말았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천국가는 길에서 돌아서고 말았읍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고 했고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읍니다.

세째 고생을 많이 했읍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밤에 자지도 못하고 예수를 찾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읍니다. 밤낮 삼일 동안 찾아 다니느라고 심한 고생을 했읍니다. 육체적 고생, 정신적 고생을 했읍니다. 신자가 예수님을 잃어 버리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 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말씀했읍니다. 베드로는 예수 없이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읍니다. 고생만 많이 했읍니다. 예수 없는 사업은 성공 같으나 실패요, 예수 있는 사업은 실패 같으나 성공입니다. 은혜를 놓친 신자가 다시 그은혜를 찾기까지는 많은 고생이 따릅니다. 파괴는 쉽고 건설은 힘듭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고 말씀했읍니다.

잃은 예수님을 찾았읍니다.

첫째, 예루살렘에 가서 찾았읍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35절에 바리새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읍니다. 우리가 만일 믿음을

잃었거나, 소망을 잃었거나, 사랑을 잃었거나, 기쁨, 열심, 충성을 잃었다면 다름아닌 성전을 찾아 올라가야 다시 찾을 수 있읍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하루에 성전에 9시, 12시, 오후 3시, 세 번 올라간 것 입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의 몸이지만 들창만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세번씩 기도 드렸읍니다(단 6:10). 믿음이 식어져 교회 가고 싶지 않은 그 때에 바로 힘을 내서 교회에 나와야 다시 믿음과 기쁨을 찾을 수 있읍니다.

둘째 삼일만에 찾았읍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눅 2:46) 요셉과 마리아가 잃은 예수를 예루살렘 온 성의 안팎을 찾아 다니다가 만나지 못하고, 성전 안에서 삼일만에 만났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조급을 버리고 인내와 지속성을 교훈합니다. 여리고 금성 철벽도 칠일만에 무너졌고(수 6:15~20),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도 10일만에 이루어졌읍니다. 만일 우리교회에서 특별 성회를 갖는다면 하루 저녁 참석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속 삼일을 계속적으로 나와야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교훈하고 있읍니다.

세째 성경 공부 하는 곳에서 찾았읍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했읍니다. 즉 요셉과 마리아는 잃은 예수를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삼일 만에 성전 안 성경 토론하는 곳에서 찾았읍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 생활에 성경 공부가 지극히 중요함을 교훈합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24절에 보면 사무엘이 라마 나욧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고, 느헤미아 8장 8절-9절에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할 때에 백성들이 듣고 큰 은혜를 받았으며, 사도행전 20장 7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밤중까지 강론했다고 말씀하고 있읍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경에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성경공부를 가르칠 때 꼭 참석하여 성경을 배워야 은혜를 받아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성경이나 기독교 역사 기록에 부흥은 성경을 배우다가 일어났다고 전해지고 있읍니다.

예수를 다시 찾은 결과

첫째 기쁨이 생겼읍니다. 우리가 소지품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때에도 기쁨이 있거든 하물며 사랑하는 아들이요, 구주 예수를 다시 찾은 기쁨은 비길 데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인간들은 기쁨을 지식, 돈, 이성, 오락, 여행, 권력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도다고 합니다.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과 부활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에 모실 때 참 기쁨이 있다고 교훈합니다. 삭개오, 수가성 여자, 바울, 어거스틴, 톨스토이 등은 예수를 만남으로만 참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둘째 통사정을 했읍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에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이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고 통사정을 했읍니다. 세상에서 산사람치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읍니까? 모든 사람은 작고 큰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읍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생자의 특권입니다. 송장에게는 문제가 없읍니다.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 자신부터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의 능력과 자연계를 정복하시며 마귀를 쫓으시고 죽는 자까지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했읍니다.

세째 고향을 향해 갔읍니다. 잃었던 예수를 다시 찾은 요셉과 마리아는 다시 고향길을 향해 기쁨으로 떠났읍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두 개의 고향이 있읍니다. 육신의 고향과 영혼의 고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오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했읍니다. 과연 우리 인생은 그 누구에게나 이 세상은 영원한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례자요, 나그네입니다. 누구나 언젠가 한번은 떠나야 할 곳입니다. 예수님을 찾은 사람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 저 천국을 향해 기쁨으로 찬미를

부르며 간다는 교훈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무덤만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요 또 하나는 절망선을 넘어 피안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가는 사람입니다.

친애하는 교우 여러분! 의인 요셉, 신앙의 여인 마리아도 때로는 예수님을 잃었다는 사실을 상기합시다. 예수가 마음에 없이도 교회에 다니고, 찬송도 부를 수 있읍니다. 자동차도 엔진이 꺼져도 휘발류가 떨어져도 얼마 동안은 달릴 수 있읍니다. 그러나 언덕은 올라가지 못합니다. 끝까지 가지는 못합니다. 예수 없는 사람은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천성까지 신앙의 달음질을 할 수 없읍니다. 우리도 미국 이민 고달픈 생활에 바쁘고, 육신에 매이고, 믿지 못할 것을 믿다가 예수를 잃어버렸읍니까? 믿음, 소망, 사랑, 기쁨, 열심을 잃었으면 다시 찾아야만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 성경 배우는 곳에서 예수님을 사흘만에 찾았듯이 우리도 성전에 모셔야 합니다.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깊이, 넓게, 그리고 바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잃은 믿음, 소망, 사랑, 기쁨, 열심을 다시 찾아 육과 세상과 마귀를 이기고 저 천성을 향하여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며 힘차게 달려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깁시다
(신자의 가정 생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몸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에베소서 5장 22절－33절)

오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봉독한 말씀을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섬깁시다"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 이전에 만들어 주신 복된 기관입니다. 교회가 생기기 이전, 국가가 생기기 이전에 가정이 존재했읍니다. 가정은 그 하루에 피로를 푸는 안식처이며, 또 내일의 사역에 새 힘을 얻는 장소이며, 작은 천국이기도 합니다. 가정이 건전할 때에 국가 사회도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게 됩니다. 가정은 이와같이 중요한 사회의 단위요 기초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서에도 가정의 중요성이 극히 강조되어 있읍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성경을 통해서 배우자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또 남편에게, 하나님이 무어라고 말씀하셨냐에 대해서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부는 서로 존중하라

첫째, 배우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고 하였읍니다. 부부는 한몸이라고 말씀했읍니다. 창세기 초두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간략하지만 명확하게 말씀했읍니다. 부모와 자녀간에는 촌수가 있다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러나 부부는 촌수가 있을 수 없는 한 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읍니다. 벗어도 부끄러움이 없는 사이라 했읍니다 (창 2:25). 그러므로 부부라는 것은 모든 문제를 받아 들일 수 있고 진정한 부부라면, 한몸이라면 의견 충돌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지만 어딘가 하나님이 보실 때 좋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돕는 배필인 하와를 지어서 짝을 만들어 부부로 가정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인간은 어느 년령에 도달하면 배우자를 찾아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상 구현을 하는 사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읍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어느 년령에 도달하면 배우자를 서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라고 하는 그 원칙에서 거의 남녀 동수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읍니다. 남자 숫자와 여자 숫자가 거의 비슷한 것이 인류 학자들의 통계 숫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1, 2차 대전에서 남자들이 많이 죽었읍니다 만은 그 후에 다시 많은 남자들이 출생했다는 사실과, 월남전, 한국전 후에 남자들의 생산률이 훨씬 많았다는 사실을 보면, 이것은 일남 일녀, 부부간의 가정을 이루는 원리가 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표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읍니다.

부부 생활에 있어서 가정이 원만하려면 첫째 부부의 생활이 원만하여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성경은 부부의 성생활이 원만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간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두가지 목적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하겠읍니다. 하나는 출

산을 위해서, 또 하나는 쾌락을 위해서라고 봅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오랜 전통에 의해서 이 부부 생활 하는 것을 죄악시하여 왔다는 그릇된 관념입니다. 우리 강단에서 이런 말하면 속화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가정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고, 옷을 입어야 사는 것처럼 부부관계라는 것은 없어서는 안되고 누구나 다 갖는 것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나 말하는 것을 거리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 강단에서는 이런 말을 하시는 목사님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잘못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의 길선주 목사님은 벌써 사오십 년 전에 여자들만 따로 모아 놓고 부부생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던 것을 보면 그 분은 선각자라고 볼 수 있읍니다. 오늘 미국의 많은 가정 불화와 많은 이혼이 부부 생활의 원만치 못한 것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통계 숫자를 통하여 우리가 보고 잘 알 수 있읍니다. 그러면 너무 이 부부 생활을 추잡하고 또 좋지 못한 것이라고 쉬쉬한다는 것은 부부로서 헤어지는 불행을 부모가 자식들에게 잘못 가르쳤고 교회가 잘못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5절에서 부부 관계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잘 말했읍니다. 거기에서 세 가지를 말했읍니다. 첫째 남녀간의 의무를 완수하라 남자된 의무, 여자된 의무를 잘 이행하라고 말했읍니다. 둘째, 남자는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하고 아내는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하고 남자가 주장해야 한다. 이 말에는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몸이면서 아내에게 속했고, 아내는 남편에게 속한 몸이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몸이라고 가르쳤읍니다. 그 다음, 서로 분방하지 말아라. 마귀가 틈 탈 것이니 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가지 교훈은 우리 가정 생활, 부부 생활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천구백 년 전에 잘 말씀한 교훈입니다. 이대로만 살면 원만하고 행복하고 명랑한 가정이 되겠읍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혼을 못합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어주신 짝을 사람이 임의로 나누지 못하는 사실을 알 수 있읍니다. 말라기 2장 15절에도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

시간이 갈수록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부부생활의 가정에 있어서 행복의 첫째 비결…

를 지으신 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했읍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에는 간음한 연고 이외에는 이혼할 수가 없다고 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 선지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리의 몸 파는 창녀와 결혼하라고 했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는 창녀와 결혼했읍니다. 이 여자가 과거에 가졌던 습관때문에 얼마 있으면 또 거리로 뛰쳐 나가서 좋지 못한 짓을 하여 임신을 하곤 했읍니다. 그러면 또 남편이 가서 돈을 주고 데려 왔읍니다. 이렇게 세 번이나 했읍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그녀를 끝까지 속량하여 아내로 데리고 살았읍니다. 또 자기의 자식은 아니지만 아내가 낳은 자식들을 자기의 자식처럼 길렀다는 사실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습니다. 마귀를 사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찾아 오십니다. 또 하나님의 자식으로 구원시키고마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쳤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실수하면 우린 서로 용서하여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읍니다.

부부지간은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남자가 자기의 권한을 주장하고 또 어떤곳에서는 여자가 자기의 권한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부부가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요 하나의 객체의 인격을 갖추었고 또 그 사람의 지위가 남자는 남자로서 중요한 위치이고 여자는 여자대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지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부부 생활의 가정에 있어서 행복의 첫째 비결이라고 바울 사도는 가르쳐 주고 있읍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둘째는 아내에게 대한 말씀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 하라고 했읍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의 아내의 존재는 남편과 아이들의 하나의 교량 역할이고 하나의 중대한 것을 연결시켜 주는 위치에 있는 것임을 알고 있읍니다. 제가 어렸을 때인데 식구가 많아서 부하지 못했읍니다. 저는 월사금도 내지 못하여 학교에서 쫓겨나곤 한 적도 있었읍니다. 그럴 때 저희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 돈이 없는 것을 뻔히 아는데 달라고 할 수도 없고 학교에서는 가져 오라고 하였읍니다. 이 때 저는 아버지께 말씀드리지 못하고 꼭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께 월사금을 받아 갔읍니다. 가정에서의 아내라는 위치는 남편과 자식과의 하나의 교량 역할과 연결을 해 주는 것이라고 보겠읍니다. 그 아내가 하나님의 명령의 복종에 의해서 살 때에 남편과 아들은 정상적인 사이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부정축재로 드러난 사람이 몇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내가 예수를 잘 믿고 신앙이 올바르다면 남편이 불의해서 갖고 오는 것 그것을 아내가 가만히 보고 있겠읍니까? 신앙이 있고 똑똑한 아내라면 따뜻하게 충고하여 받지 않았을 것이고 그 남편은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부정축재로 들어간 사람은 재산도 다 몰수되며 다시는 정계에 얼굴을 들고 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떤 지방 법원 판사인데 등기를 내려 오는 사람들에게 허가해 주는 판사입니다. 하루는 버스 노선을 허가해 달라는 신청 서류를 낸 사람이 있었는데 조사를 해 보고 언제 오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 그 날 저녁 귤 박스에 돈을 한 상자 넣어서 갖고 왔더랍니다. 가지고 돌아 가라고 했더니 또 한 박스 더 갖다 주겠노라고 했답니다. 이 판사는 또 거절했답니다.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이 그럴 수가 없다면서 당신의 사업이 정당하다면 신청 서류가 허락될 것이니 가서 기다리라고 했답니다. 이 사람 며칠 후에 왔을 때 서류에는 모두 도장이 찍혀져서 허가가 났다고 합니다. 그 때에 버스 노선 신청하러 왔던 사람들이 저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가 궁금해 알고 보니

모교회 장로였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화가 되어 신자가 되었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부정 축재의 남자가 나쁘지만 여자가 영적인 은혜를 받고 거듭나 내조의 역할을 잘 한다면 어떻게 남편이 그런 상태에 빠져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에, 부부 관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하고 부부 관계에 대해서는 먼저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는 "아내들아"라고 아내를 먼저 부릅니다. 비록 여성이 남자보다 생리적으로, 체질적으로 약하다고 하지만 제가 믿기로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여자는 그 가정에서 영적 주도권을 갖고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습니다. 6.25때 공산당이 많은 사람들을 쏘아 죽였는데 그 죽은 시체를 찾는데 남자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찾는데 비해 여자들은 샅샅이, 자세히 들여다 보고 만져보며 찾드랍니다. 여자의 사랑은 남자의 사랑보다 더 열렬하고 순진하고, 영적인 주도권은 여자에게, 또 그 가정의 제사장은 여자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에베소서 5장 22절과 24절, 두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것은 이조 오백 년 전 봉건 시대 우리 한국에서나 말하는 것이지 이 미국에서 어디 그럽니까 고 반문할 것입니다. 이 레이디 퍼스트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나보다 체질이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창도 열어주고 문도 열어주고 결상도 갖다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집안 식구들이 모두 모여 밥 먹으면서 여자가 한 숟갈 먼저 떠야 밥 먹습니까? 바울 사도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두 번씩이나 거듭 말한 이유는 여자들이 남자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은 여자가 남편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 그래야 가정의 조화가 이루어져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아이들에게 교훈이 되기 때문에 여자들이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못나서 복종이 아닙니다. 이 복종과

굴종은 아주 다른 겁니다. 굴종은 노예가 상전에게 굴종한다는 것이고 복종이라는 것은 골로새서 3장 18절의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는 말씀처럼 당연한 것 입니다. 주 안에서 복종하라고 했읍니다. 다시 말하면 옳은 일이라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즉 남편이 도둑질하는데 복종해야 하니 함께 도둑질하자고 합니까? 주 안에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9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 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했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복종까지 한 것처럼 바울 사도는 "아내들아 주안에서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가정의 조화를 이루고 평화를 지속시키려면 또 너희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산 교훈을 주려거든 복종하라"했읍니다. 미국의 탈선한 청소년들은 대개가 내주장만 하는 집 아이들이라 합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세번째로 자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순종을 가리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에베소서 6장 1절에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안에서 순종하라" 고 했읍니다. 오늘 자동차 사고를 내고 죽는 모든 젊은이들은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러한 일들이 절대로 없읍니다. 그러나 이 미국에 온 젊은 소년들이 부모들이 뭐라고 하면 부모를 멸시합니다. 영어도 모르고 미국 문화도 잘 모르면서 옛 한국 풍습과 권위 의식을 갖고 이야기한다고 외면하며 부모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오늘 모두 탈선을 합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절대로 탈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키에르케르가 믿기가 어려운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믿기가 어렵다고 말했읍니다. 마리화나와 같은

것은 아무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중독되는 마약을 먹으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죽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비록 대학을 나오지 못하고 학위는 없어도 인생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부모의 말씀에는 진리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순종하면 탈선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님께서 저에게 옛글을 가르쳐 준 것을 잊지 않고 있읍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의 말씀은 비록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그것이 진리입니다. "아이들아 주 안에서 부모들에게 순종하라"했읍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가르쳐라

네번째는 부모님에게 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사랑과 훈계를 갖고 가르치고 노하게 하지 말라고 했읍니다. 잠언 22장 6절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읍니다. 어렸을 때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읍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사람은 무엇이든지 심는대로 그대로 거두리라 하였읍니다. 어린이에게 좋은 말을 심어주면 언젠가는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포 2세들에 문제가 있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학교를 무단 결석하는 학생들이 있읍니다. 집에서는 학교간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학교를 중단합니다. 집에서 나가고 다른 주로 도망도 갑니다. 학교가면 자기 편에 들라고 합니다. 즉 갱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리화나보다 독한 P. C. S., Angel Dust,Yellow Pill, Rainbow같은 것은 먹기만 하면 중독되고 사람이 버리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보고 마약 피지 말아라 하고 권유만 하면 안 된답니다. 정말 부모님들이 마약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생겼으며 먹으면 어느 곳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알고 가르쳐 주어야 하는데 우리 부모님들 마약을 알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또 우리 부모님들 몇 가지의 마약 종류를 알고 계십니까? 그저 하지말라. 하지말라 만 하시는 거죠. 제가 공군 군목으로 있을 때 의무감실에서 공군 본부 강단에서 성병에 대한 것을 사진으로 진열해 놓고 한 번 보라고 해서 보았는데 너무나 엄청난 것들이어서

지금도 생각하면 구역질이 날 정도입니다. 부모님들은 마약의 결과를 보여주고 권고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저 하지말라고만 하면 자녀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아이들이 마약을 핍니까? 미국 생활의 이중 문화에서 오는 고충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잊기 위해서, 친구들의 권유 때문에, 호기심에서 한두 번 하던 것이 결국 거기에 빠져 들어갑니다. 다음에 도둑질 합니다. 부모님들이 용돈 잘 주지 않습니다. 한 달에 그저 5불 정도 줍니다. 그 돈 갖고 냉면 한 그릇 사먹으면 그치는데 돈 더 달라고 하면 돈도 벌지 못하면서 왜 그렇게 쓰기만 하느냐고 야단하면서 주지 않습니다. 많이 주어도 사고이지만 너무 적게 주어도 사고입니다.

다음 성적 문란입니다. 여러분, 미국 애들 열두 살짜리들이 탈선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열너댓 살짜리 아이들을 모아 반을 만들어 베비시터도 데려다 줄 수 없으니 자기들이 학교에 아이들을 데려가서 맡기고 자신들은 공부를 하고 난 후 데리고 갑니다. 이것이 오늘 미국의 실정인데 앞으로 우리 2, 3세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장담하지 못할 일입니다.

이 모든 원인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첫째 **부모의 과중한 기대**에서 이런 부작용이 난다는 것입니다. A만 받아와라. 하버드에 가야 한다. 변호사가 되어라, 의사가 되어라, 라고 하는 과중한 부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중에는 부모님들이 나에게 열심히 하라고 하시는 이유를 알고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도 있읍니다. 반면에 또 다른 아이들은 암만해도 A도 받지 못하고 좋은 학교도 가지 못할 것, 일찍 그만 두자고 포기하면서 잘못을 저지릅니다. 두번째는 **이중 문화의 갈등** 입니다. 나가면 미국식 풍습이고 들어오면 한국식인 이중 문화의 갈등입니다. 세째는 **부모님들의 미국 사회와 학교 생활의 지식의 부족**입니다. 학교의 운영에도 미국 사회의 어떤 것은 알지 못합니다. 영어 공부는 하지 않고 매일 한국 영화 틀어 놓고 그냥 시간이나 보내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왔으면 미국 사회의 학교에 대해서 알아 보려고 또 관심을 가져 봅시다. 그 다음 네째, **지나친 간섭** 입니다. 모든 것에 대하여 간섭하고 잘못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 부모님들은 일을 하고 와서는 아이들이 무엇을 물어보면 귀찮다고 하며 짜증을 내고 무관심하곤 합니다. 일방적으로만 이야기합니다. 이거, 저거 하라고만 하고 의문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제일 위험한 것은 '설마'라는 생각입니다. 설마 잘못될 수가 있을라구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다른 애들 다 나빠져도 내 자식만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문제가 있읍니다. 내 자식이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그 인격을 존중해야 합니다. 관심을 갖고, 참 사랑을 갖고 대해 주어야 합니다. 대화를 나누고, 인내를 갖고 말을 나누어야 합니다. 하루는 제가 저의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귀찮아서 "얘, 얘, 그만두자 하였더니," 우리애 하는 말이, "그러면 아버지와 저는 다시는 이야기하지 맙시다"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 역시 옛날식이니, "얘, 내가 잘못 생각했다.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라고 말했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 아이들에게서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 인내를 갖고, 일방적인 이야기보다는 잘 들을 수 있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해력이 있어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합니다. 즉, 의과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면 그에 대한 자료나 정보들 그리고 안내서나 책자 등을 갖다 주거나 관심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 기대는 가졌지만 거기에 맞추어서 뒷받침을 얼마나 해주고 있읍니까? 또 얼마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읍니까?

부모님들이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가정에서, 생활에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 어느 정도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아, 자녀들에게 사랑을 갖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훈하라는 것이지, 부모님께서 자식에 대하여 명령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들아 아내들을 사랑하라

다섯번째로, 남편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했읍니다. 여기에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어 자기의 몸을 찢어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신 것처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속죄를 완성했더니 거기서부터 사랑의 꽃이 피어 온 세계에 향기를 뿜는 것처럼, 오늘 가정에 싸우는 가정, 불행한 가정, 눈물을 흘리는 가정 있읍니까? 남자가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까지 가서 그의 육이 죽으면 가정에 새로운 꽃이 필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주심같이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고 했읍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에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하였읍니다. 한국 부인들은 결혼해서 고생 많이 합니다. 시부모 공경하고, 남편 위해서, 자식 위해서, 가정 위해서, 미국에 와서 맞벌이 하면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읍니까? 뭐 사치롭습니까? 특히 교회 다니시는 것이 뭐 사치스럽습니까? 또 그렇다고 먹기를 잘 합니까? 잠을 잘 잡니까? 그런 아내에게 사랑을 못해 주면서 왜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여 귀찮게 하는 것입니까? 아내에게 희생적 사랑을 하고 괴롭히지 말고 다음에 아내의 영적 행복을 돌아보라고 했읍니다. 아내가 예수를 잘 믿게 시간을 주면서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양보도 하게 해야 합니다. 아내의 영적 생활이 풍성할 때에 그 가정이 풍성한 은혜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읍니다. 아내가 은혜를 받아 신앙이 좋으면 가정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됩니다. 어떤이는 교회에 가도 한 달에 한 번만 가지 그렇게 자주 나가야만 구원받느냐고 야단합니다. 교회 가면 왜 그렇게 오래 있다가 와야 해, 저녁에도 가야 해, 성가대 해야만 구원 받나,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함께 술집에 가서 앉아야 합니까? 극장에 가서 있어야 합니까? 아내의 영적 생활의 편리를 봐 주라고 했읍니다. 다음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 모양 우리가 가정에서 원만한 가정 생활을 하려면 남자가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는 생활을 하면 가정의 평화가 옵니다. 이것이 성경의 남편에게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 가서 속죄를 완성했더니 거기서부터 사랑의 꽃이 피어 온 세계에 향기를 뿜는 것처럼, 오늘 가정에

싸우는 가정, 불행한 가정, 눈물을 흘리는 가정 있읍니까? 남자가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까지 가서 그의 육이 죽으면 가정에 새로운 꽃이 필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성도의 각 가정마다 집에 가면 예수님의 사진은 있는데 매일 싸우는 집이 있읍니다. 본국 서울에 어떤 의사 장로님이 계신데 이 분은 신앙이 좋아요. 이 분이 환자에게 무료로 봉사하여 주는 것을 보고 한 목사님께서 고마워서 예수님의 성화를 갖다 주면서 병원 사무실에 걸어 놓으라고 했읍니다. 그러나 그 분은 걸어 놓지 않았읍니다. 목사님께서 여쭈어 보니 장로님, "만약에 내가 그 성화를 걸어 놓고 화를 내거나 신경질을 부린다면 환자들이 예수 믿는 장로라는 사람이 저러냐고 비난하면 예수님 마음에 못 박는 것 같아 나의 침실에 걸어 놓았읍니다"고 말했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음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성령에 복종해서 가정을 이끈다면 우리 가정은 사철에 꽃이 피고 예수님을 모시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될 것을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건전하여야 사회가 건전하고, 사회가 건전하여야 세계 평화가 있읍니다. 국가의 기반은 가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들의 가정만이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 부부는 한몸이다,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식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는 참 사랑을 가지고 자녀들을 돌아보라, 남편은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어라, 이 말씀이 가정에서 그대로 실천되면 우리 모든 가정은 한국에서보다도, 지난 날보다도 더 행복한 가정이 되고 생활을 통해서 이웃에게 전도하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바울의 인생관
(신앙적 인간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로마서 7장 24절-25절)

저는 오늘 로마서 7장과 8장을 중심하여 '바울의 인생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인간이 비록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말했읍니다. 유물론을 제창한 맑스와 인간만능을 부르짖은 나폴레옹이나, 초인 철학을 말한 니이체 등은 인간의 절대 능력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거장 바울은 정반대로 인간이 범죄하여 죽을 수 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였읍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다섯가지로 말한 인생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읍니다.

죄악의 인생

바울은 첫째로 죄악의 인생을 말했읍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바울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고 말했읍니다. 인간의 시조 아담의 타락은 종자적 타락, 대표적 타락으로서 그의 후손이 된 인간들은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죄악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성군 다윗도 시편 51편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고 말했읍니다. 아무리 새 옷이라 해도 털면 먼지 나지 않는 옷이 없고 아무리 목욕하여 청결하다 해도 또 닦으면 때가 나오는 것처럼, 인생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악의 인생이라고 바울도, 어거스틴도, 파스칼도, 칼빈도 모두가 말하고 있읍니다.

자기의 이성이나 양심이나 영성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것에 노예가 되어 자유를 잃고 멸망을 향하여 끌려만 가는 가련한 모습들이 현대인들의 가진 모습들인 것입니다.

전쟁의 인생

둘째로 바울은 전쟁의 인생을 말했읍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서 바울은,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말했읍니다. 가인과 아벨의 싸움을 비롯해서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 수천년 동안 평화스러운 해는 오직 3백년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오늘날 지구상의 인류는 지금도 도처에서 싸우고 있읍니다. 본문의 전쟁은 자기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왕 양명은 "산중의 도적은 멸하기가 쉬워도 내 마음 속의 도적은 이기기가 힘들다"고 개탄했고, 파스칼은 "사랑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고 미워해야 할 자는 자기의 육체"라고 했읍니다. 자고로 모든 사람의 실패는 자기 자신의 육적 전쟁에 패한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즉 고라는 허영심, 아비멜렉은 권력, 사울은 시기심, 발람은 뇌물, 삼손은 이성, 유다는 물질때문에 패망했읍니다. 그러므로 잠언 16장 32절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노예의 인생

세째로 바울은 노예의 인생을 말했읍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바울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고 했읍니다. 노예는 사로잡히거나 팔리움을 당해 자기의 자유를 잃은 사람을 말합니다. 즉 자유의 상실입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돈의 노예, 지식의 노예, 과학의 노예, 권력의 노예, 술의 노예, 성의 노예가 되고 말았읍니다. 자기의 이성이나 양심이나 영성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것에 노예가 되어 자유를 잃고 멸망을 향하여 끌려만 가는 가련한 모습들이 현대인들이 가진 모습들인 것입니다.

고통의 인생

네째로 바울은 고통의 인생이라 했읍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고 했읍니다. 에덴의 낙원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막과 고해가 되고 말았읍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태어날 때 울고 세상 떠날 때 우는 존재가 되고 말았읍니다. 정말 세상은 눈물의 골짜기요, 땀의 황야요, 피로 물든 땅이 되었읍니다. 나폴레옹이 "오대양의 바다물은 오고 가는 사람들의 눈물이요, 육대주에 부는 바람은 오고 가는 사람들의 한숨 소리만 같구나"라고 말한 것은 의미가 심장한 것 같습니다. 날이 갈수록 지구상은 자유와 평화, 광명과 진리, 안전과 질서보다는 부조리와 모순, 질시와 반목, 혁명과 전쟁, 기근과 질병, 죄악과 고통의 도가니로 변하고 있읍니다.

죽음의 인생

다섯째로 바울은 죽음의 인생이라 말했읍니다. 로마서 7장 9절에서 바울은,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라고 했읍니다. 살기를 원하고 죽기를 원치 않는게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만민평등한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며 또 극히 비밀에 속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빈부귀천의 차별이 없읍니다. 산 사람에게는 그 누구에게나 찾아 오는 운명입니다. 또 언제 어떻게 죽을 것을 아는 사람도 없읍니다. 그 누구나 한 번 왔다가 한번 가는 죽음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상과 같이 인생을 죄악의 인생, 전쟁의 인생, 노예의 인생, 고통의 인생, 죽음의 인생이라고만 말하지 아니했읍니다. 이렇게 가련한 인생일지라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면, 큰 변화와 축복을 받는다고 말했읍니다. 즉 로마서 8장 33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악의 인생이 의로운 인생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전쟁의 인생이 화평의 인생이 되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 노예의 인생이 자유의 인생이 되고, 빌립보서 4장 4절

을 보면 고통의 인생이 희락의 인생이 되고, 고린도 전서 15장 55절을 보면 죽음의 인생이 영생의 인생이 된다고 말했읍니다.

친애하는 교포 여러분! 죄로 인하여 양심의 번민을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마음의 전쟁으로 화평을 찾지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악한 습관의 노예가 되어 참 자유를 상실하신 분이 계십니까? 고해와 같은 세파에서 참 기쁨을 찾지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죽음의 인생에서 허무와 절망에서 신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인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오늘 이 시간에 영접하십시요. 그리하면 그 분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즉 죄인을 의인으로, 전쟁을 평화로, 노예를 자유인으로, 고통을 기쁨으로, 죽음을 부활과 영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의 체험의 간증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의 공통된 신앙 고백입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바른 인생관을 갖고 바른 생활과 축복된 생활을 영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3부
새로운 개척

스스로 개척하라
이민 생활의 길

끝까지 굳게 잡아라
이민 성도의 삶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땅에 보내신 제2의 청교도
성공적 이민 생활의 요소

항상 이기리라
성공적 이민 생활

네가 형통하리라
믿음, 기도, 순종의 삶

너는 복의 기관이 될찌라
축복의 비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축복받는 비결

새마음, 새생활
새해

스스로 개척하라
(이민 생활의 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메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마가복음 1장 1절–8절)

개척자란 황무지를 개간하여 옥토를 만들어 씨 뿌리는 사람입니다. 이미 있는 곳에 조금 손을 더 대는 사람이 아니라 전연 백지에서 일을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또 좋은 환경과 넉넉한 여건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우 어려운 환경과 여건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개척자는 분명히 꿈의 사람이요, 행동의 사람이요, 의지의 사람이요, 새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의 위대한 구속 사업에 앞길을 닦은 개척자이었읍니다. 유대 땅에 선지자의 음성이 끊어진지 3백 년, 그 후 다시 등장한 선지자의 한 사람이며, 또한 기독교 최초의 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바로 보고 바른 말을 하고, 바로 증거하고, 바로 살다가 바로 죽은 사람입니다. 신념에 살다가 신념에 죽은 사람이요 비록 30대의 청년으로 죽었으나 인생을 가장 굵게 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여인이 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인물이라고 극구 칭찬했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위대한 선구자요 개척자인

세례 요한의 짧은 생애 속에서 그의 개척정신이 무엇임을 찾아서 우리도 미국 땅에 온 개척자인 사명을 다해야 하겠읍니다.

세례 요한의 개척 정신이란 어떤 것 입니까?

첫째로 의욕 정신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라고 했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개척자로서의 사명을 주어 세상에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절의 "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에서 "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는 세례 요한이 그의 사명 완수를 위하여 의욕에 넘치는 모습을 묘사한 말입니다. '의욕'이란 끓어 오르는 마음, 불타는 마음, 견딜 수 없는 마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과연 세례 요한은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광야에서 외쳤읍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켜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라. 하나님은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불에 던지우리라.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세리들아 정한 세 외에는 늑징하지 말라. 군인들아, 강포하지 말라. 정객들아, 백성의 고혈을 빨아 방탕하지 말라. 학자들아, 권력 앞에 아첨 하지 말라. 종교가들아, 하루살이는 갈라 먹고 낙타는 통채로 삼키느냐. 헤롯왕아, 제수를 아내로 삼아 난윤 생활을 하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하고 외쳤읍니다. 의욕에 불타 목이 터지도록 외치다가 옥에서 목이 짤려 고귀한 순교의 피를 뿌렸읍니다.

이 밖에도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서 의욕에 불탄 두 사람을 볼 수 있읍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했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찌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했읍니다. 이는 예레미야와 바울이 하나님 말씀 전파에 의욕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의욕이란 무감각한 환경에서 생명이 끓어 넘쳐 흐르는 상태를 말해 줍니다. 이 '의욕'은 대상이 있을 때에 생겨 납니다.

미국으로 이민 온 부모들이 열심히 일함은 자녀 교육과 집 한 칸 마련이라는 대상 때문이요,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함은 부모의 은공의 보답과 사계에 권위자가 되겠다는 대상때문이요. 운동 선수들의 땀 흘리며, 훈련함은 금메달의 대상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자기를 위한 것이거나 저속한 것이면 그 의욕은 강하지 못하며 난관에서 좌절되고 맙니다. 그 의욕의 대상이 하나님처럼 고상한 것이면 그 의욕은 강하고 아무 것도 그 의욕을 꺾을 수가 없읍니다. 세례 요한, 스데반, 야고보, 베드로, 바울들이 의욕이 강열했던 것은 그들의 대상이 하나님과 영혼들이었기 때문이었읍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서 많은 남녀 일꾼들이 그렇게도 의욕적으로 일하는 것은 그들의 대상이 인간이나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과 영혼이기에 그같이 강한 의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강한 의욕이 있으면 누구나 반드시 성공합니다. 발명가의 대왕 에디슨이 한 번은 무언가 한 가지를 발명하려고 일천 번을 실험했으나 목적 달성을 하지 못했을 때에 신문 기자 한 사람이 와서 일천 번이나 실험해도 실패했다는데 무엇때문에 아직도 그것을 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읍니다. 그 때 그는 "여보게 하지만 나는 여기서 더 위대한 진리를 하나 발견했네. 즉, 일천 번 가지고는 안된다는 것 말일세"라고 대답했읍니다. 그 후 그는 그것을 성공하고야 말았다고 합니다.

1849년 미국 서부에 금이 쏟아져 나올 때에 중부에서 청년 한 사람이 서부에 와서 광산을 사고 많은 투자를 했읍니다. 그런데 그만 금은 나오지 않고 빚만 점점 늘어가 마침내 빚쟁이들의 등쌀에 헐값으로 팔고야 말았답니다. 그러자 그 광산의 새 소유주가 1미터를 더 파니 누런 금이 나오기 시작하여 거기서 그 사람은 하루만에 큰 부자가 됐답니다. 1미터만 더 팠다면 분명히 성공할 것을 그만 거

기서 포기했으므로 그 노다지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후 금광 실패자는 큰 보험회사의 사원이 되어 보험을 팔 때에 고객이 사지 않겠다고 해도 "1미터만 더 파자, 또 1미터만 더 파자"하는 철학으로 마침내 광산에서 부자된 사람보다 더 큰 성공을 했다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대학을 갓 졸업한 주교 여선생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즉 "제가 좋아하는 주교 남자 선생이 있어 우리는 서로 좋아하여 결혼하려 하나 상대편 아버지가 극구 반대하니 어쩌면 좋겠읍니까?"라는 이야기였읍니다. 그러나 저는 대답하기를 1미터만 더 파라고 말했읍니다. 마침내 그들은 결혼하게 됐고 벌써 아들, 딸을 낳고 시아버지도 만족해 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읍니다.

시인 롱펠로우는 말하기를 "내가 아는 위인과 천재란 범인과 천재의 차이라기보다는 노력의 차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아는 그들은 남들이 잠잘 때에 정상에 올라 가려고 잠자지 않고 무던히 애쓴 사람들이다"고 말했읍니다. 낙수물 방울도 한 곳에 10년 동안 떨어지면 돌에도 구멍이 뚫린다 했고, 열심의 지렛대는 우주도 움직인다 했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 했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 했읍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읍니까? 강한 의욕만 가지면 반드시 멀지 않아 성취될 것을 확신합니다.

둘째로 길 닦는 정신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예비 하리라"고 했읍니다. 옛날 임금이 행차할 때에 선발대가 나가서 먼저 길을 닦아야 하듯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의 구령 사업의 앞길을 닦는 것이었읍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3장 4절~5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라고 말씀했읍니다. 황무지를 개간하여 농

사를 짓든지, 집을 지을 때에 먼저 해야 할 일은 길을 닦는 작업입니다. 사람이 다니고 차가 다니고, 소방차가 들어갈 길을 닦아야만 합니다. 길은 곧게, 넓게, 튼튼하게 닦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설계를 잘 해야 하고, 투자를 많이 해야하고, 공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좀 시간이 걸리고 고귀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영구적인 완전한 길을 닦아야 합니다. 나는 소아시아에서 2천년 전에 로마가 닦아 놓은 길을 보았읍니다. 히틀러의 세계 정복의 야망을 위한 독일의 길을 보았읍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넘어가는 알프스산의 길을 보았읍니다. 미 대륙 횡단의 훌륭한 길을 보았읍니다. 이 길들 모두가 넓고, 곧고, 튼튼하게 닦은 길들입니다. 이 길은 훌륭한 설계와 많은 투자와 오랜 시간에 걸려, 고귀한 희생의 피를 흘리며 닦아 놓은 대표적인 길들입니다.

1968년 미국에서는 한 달 사이에 두 지도자를 잃었읍니다. 이 두 사람이 다 대학도 나왔읍니다. 젊었고, 능력이 있고, 꿈이 있고, 인기가 있고, 젊은이들에게 영웅적 존재였고, 세계에 알려진 사람이고, 둘이 다 총에 맞아 죽었읍니다. 하나는 로버트 케네디이고, 또 하나는 마틴 루터 킹입니다. 유사점은 거의 비슷하나, 결과는 큰 차가 생겼읍니다. 케네디의 죽음은 슬픔의 반영도 크지 못했고 또 이렇다 할 만한 것을 남긴 것도 별로 없읍니다. 그러나 킹 목사의 죽음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에 슬픔을 안겨 주었고, 그가 죽음으로 인해서 오랫 동안 흑인들이 미국 국회에, "우리도 좋은 학교에 가게 해 달라. 좋은 직장을 달라. 좋은 지대에 주택을 살 수 있게 해 달라"는 3가지가 일사천리, 만장일치로 통과 되었읍니다. 즉, 킹 목사는 눈물과 땀과 피로 길을 뚫은 사람입니다. 오늘 미국 전역에 그를 기념하는 학교, 도서관, 체육관, 병원, 교회와 그의 이름으로 된 거리 이름이 많이 생겼읍니다. 그리고 1983년 10월 19일은 목사의 사랑과 평화의 업적을 인정, 흑인으로 처음인 그를 기념하여 미국 연방이 공휴일로 제정하게 되었읍니다. 우리 나라 축구 선수 차범근은 독일에 가서 길을 뚫은 사람이요. 김 상진 집사는 브라질에 가서 농사로 길을 뚫은 사람이요. 안 익태 선생은 음악으로 스페인

에 가서 길을 뚫은 사람이요. 김 영태는 아프리카 아이버리 코스트에 가서 태권도로 길을 뚫은 개척자들입니다.

미국에 '지진'이란 영화가 있읍니다. 가상 영화로서 로스 엔젤레스가 지진에 파멸하는 영화입니다. 그 때 한 공대 출신이 건축업을 하는데 고층 빌딩을 청부 맡아 짓고 있었읍니다. 그의 장인이 와서 "여보게, 돈을 벌려면 적당히 공사를 해야지, 그렇게 꼼꼼하게, 정직하게 하면 무슨 이윤이 남느냐"고 했읍니다. 사위는 대답 하기를 "이 건물은 내가 짓는 것이니 장인은 상관하지 마시라"고 하여 두 사람 사이는 서로 멀어졌읍니다. 그 후 큰 지진이 나서 모든 단층이나 고층 건물들이 무너질 때, 유독 사위가 지은 고층 건물은 워낙 공들여 지어졌기 때문에 끄덕없어, 장인이 벌벌 기어 그 집에 들어와 생명을 건졌다는 줄거리의 내용입니다. 미국 뉴욕 시의 엠파이어 빌딩은 102층의 마천루입니다. 땅에서 그 건물의 옥상까지 쳐다 보려면 허리를 세 번 꺾어야 합니다. 이런 거대한 건물이 강한 폭풍에도 끄덕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건물의 지반은, 그 밑바닥이 자연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광동 대 지진에 동경역만은 끄덕 없었읍니다. 그 이유는 불란서 기술자를 데려다가 돈을 많이 들여 지하 기초를 튼튼히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길을 닦고 있읍니까? 곧은 길입니까? 비뚤어진 길입니까?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튼튼한 길입니까? 위험한 길입니까? 유익된 길입니까? 무익한 길입니까? 축복의 길입니까? 저주의 길입니까? 밝은 길입니까? 어두운 길입니까? 생명의 길입니까? 사망의 길입니까?

우리 이민자들은 근시안을 버리고 거시적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앉고 서고, 움직이고, 말하고, 생활하는 전체는 길을 닦고 있다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일확천금의 꿈을 버리고 시간이 걸리고 고생이 심하다 해도 일거수일투족 성실히 길을 닦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했읍니다.

세째로 희생의 정신입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에 "요한은 약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고 말했읍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 제사장의 가문이요, 공부도 한 사람이요, 능력도 있는 사람으로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로마 사람들에 결탁을 했으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읍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개척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거처는 광야, 옷은 약대가죽,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이라 했으니 이는 의식주의 전적인 희생 정신을 말하고 있읍니다. 희생없는 결과가 어디 있읍니까? 1620년 미국에 건너온 102명의 청교도들은 농사꾼들이 아니고 외교관, 학자, 교수, 관리, 사업가, 군인, 의사, 평의원들이었읍니다. 그 때 그들의 집은 동굴, 오두막, 통나무집, 단간방, 움집, 방공호, 잔디떼집, 토담집이었으며, 의복은 짐승 가죽옷, 무명 옷, 무색 옷이었으며, 음식은 옥수수, 감자, 호박 야생 짐승, 오리, 산닭, 바다고기이었읍니다. 이들의 고귀한 희생 정신이 오늘의 부강한 미국을 건설하는데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이 넓은 미국 대륙의 땅 속에는 청교도들과 조상들의 땀방울과 눈물과 피가 젖어 있음을 발견할 줄 알아야 미국의 번영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한국 전쟁 후 한국 고급 관리 한 사람이 덴마크에 초청을 받아 시찰을 다닐 때 집집에 초대를 받아 가서 식탁을 보면 상복판에 중국된장 같이 맛이 시고 떫은 음식이 꼭 놓여 있기에 한 번은 물었다 합니다. "이것이 무슨 반찬입니까? 또 집집마다 꼭 이 반찬이 놓여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라고, 대답인즉, "우리 나라가 독일에게 옥토를 빼앗기고 사막과 습지만 남았을 때에 우리는 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찾자, 무기로 잃은 것을 괭이로 찾자, 피 흘리며 잃은 것을 땀으로 찾자는 목표를 세우고, 오늘의 낙토를 건설했읍니다. 그 때에 우리는 넉넉치 않아서 이 반찬 한 가지로 난국을 극복했읍니다. 그러나 우리 후손들이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때 조상들의 그 정신, 그 생활을 상기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먹든, 먹지 않든, 이 반찬을 상 위에 놓는다"는 것이었읍니다. 조상들의 희생이 오늘의 북구의 낙원을 건설했읍니다.

불란서 남쪽에 한 수전노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돈만 알기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안했고, 친척도 친구도 없고 오직 돈만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늙어 여름철에 병들어 죽었읍니다. 아무 조객도 없고, 아무도 송장을 치워 주지 안 했다 합니다. 그러나 시체 썩는 냄새 때문에 동리 사람들이 시체를 치우려고 들어 갔읍니다. 그 때 시체 옆에서 큰 자루를 발견했읍니다. 열어 보니 돈이 한 자루이고 거기에 편지 한장이 있었읍니다. 이런 내용이었읍니다. "친애하는 동리 사람들이여! 내가 어렸을 때에 이 지방에 심한 가뭄이 들어 농사도 폐농되고, 초목도, 짐승도, 사람도 많이 죽는 것을 보았소. 그 때 나는 결심했소. 돈을 벌어 저수지를 만들어야겠다고. 그 때부터 벌어 모은 돈을 두고 가니 이 돈으로 저수지를 만들어 두 번 다시 그 같은 비극이 이 땅에 없기를 바라오." 동리 사람들은 감격하여 그 돈으로 저수지를 만들어 그 땅에는 오늘까지 폐농이 없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했읍니다.

120년 전 아프리카의 개척자 리빙스톤이 청년의 몸으로 흑암 대륙에 뛰어 들어가 정글, 사자, 독사, 식인종, 질병 등과 싸우며 대륙 횡단의 길을 뚫고 전후 3회에 걸쳐 왕래하다가 그 땅에서 쓰러져 죽은 그의 희생이 아프리카에 문명과 복음의 횃불을 비춰 주었읍니다. 오늘 우리 이민 교포들도 개인주의, 이기주의, 배금주의, 안일주의, 향락주의, 사치와 허영을 버려야 하겠읍니다. 고급 주택, 고급 차, 고급 가구, 고급 장식품, 고급 음식, 고급 의복을 삼가야 하겠읍니다. 우리들 앞에 먼저 걸어간 개척자들의 희생 정신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의 후대를 위한 보이지 않는 희생의 거름이 되어야만 하겠읍니다.

네째로 미래의 정신입니다.

마가복음 1장 7절-8절에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메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고 했읍니다. 세례 요한은 구원의 완성이 장차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내일의 정신, 미래의 정신을 가졌읍니다. 개척자는 첫 순갈에 배 부를 수 없읍니다. 그 해에 부자가 될수도 없고, 한 해에 큰 목적 달성도 불가능합니다. 먼 장래를 내다 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삶을 과거, 현재, 미래로 관련하여 살아간다 할 때에 과거는 회상하고, 현재는 충실하고, 미래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문화인과 야만인의 차이는 야만인에게는 오늘만이 있고 내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인은 오늘도 있고 내일이 있음이 다른 것입니다.

미국에 사는 남미계통 사람들을 보면 그 날 벌어 그 날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매우 낭만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포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의식주를 절약하고, 희망중에 사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희망이 있으면 힘드는 줄을 모릅니다. 고난도 돌파합니다. 고난 중에도 기쁨이 있읍니다. 일에 정열을 가져 옵니다. 일에 능률이 오릅니다. 생활이 개선됩니다. 새로운 의욕이 생깁니다. 절망도 극복됩니다.

한 나라 왕이 시골길을 지나는데 밭에서 과실 나무를 심는 팔십이 넘는 백발 노인을 보고, "영감님, 그 나무를 심으면 언제 따 잡수시렵니까?"하고 물었읍니다. 그 노인은 "내 할아버지가 심은 것은 내가 따 먹고, 내가 심는 이 나무는 손자들이 따 먹겠지요"라고 태연히 대답했읍니다. 이는 분명히 미래의 정신의 표현입니다. 미켈란젤로가 큰 바위를 쪼고 있을 때에 지나가는 행인이, "당신 무엇을 하고 있는 것 입니까?"고 물었읍니다. 그는 "나는 여기에 한 천사를 자유롭게 하렵니다"라고 대답했읍니다. 얼마 후에 그는 그 바위에서 날개 단 천사의 조각을 쪼아 냈다 합니다.

로마의 베드로 성당은 120년을 걸려 완공됐읍니다. 미라노 성당은 300년 걸려서 완공됐읍니다. 박달 나무는 100년 가야 한번 꽃이 핀다 합니다. 우리 교포들은 시편 126편 5절-6절에 "눈물을 흘리며

이민 교포들은, 농부와 같이 봄을 기다리는 희망과, 새벽부터 어둘 때까지 논·밭에 나가 일하는 근면과, 아무리 배고파도 자연법칙을 따라 가을까지 기다리는 인내와, 씨는 심으면 반드시 싹이 나고 가을이면 반드시 추수한다는 확신의 네 가지 정신을 굳게 가져야 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의 말씀을 깊이 되새기면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즉, 이민 교포들은, 농부와 같이 봄을 기다리는 희망과, 새벽부터 어둘 때까지 논밭에 나가 일하는 근면과, 아무리 배고파도 자연법칙을 따라 가을까지 기다리는 인내와, 씨를 심으면 반드시 싹이 나고 가을이면 반드시 추수한다는 확신의 네 가지 정신을 굳게 가져야 합니다. 이민 생활에 희망, 근면, 인내,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오늘에는 땀과 눈물을 흘릴지라도 멀지 않아 분명히 추수의 기쁨의 날이 올것입니다.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아리랑 농장을 경영하는 김 상진 집사님은 그 곳에서 15년 이상 농사에 전력하여 성공한 교포입니다. 호박, 수박을 아름드리만큼 크게 길러 전국적으로 알려진 성공한 개척자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갔을 때에 그 분께서 "목사님! 이민의 성공은 3대째 가야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농사를 지어 보니, 큰 호박이나 수박이 어미순이나 자식순에서 열리지 않고 손자순에서만 열리기 때문입니다"라고 했읍니다. 동감임을 느꼈읍니다. 오늘 미국에 온 많은 민족들도 3대 이후에 결실한 큰 열매들입니다. 유대, 중국, 일본, 한국 이민의 자녀들 중에 큰 열매는 3대부터 맺히게 되었읍니다. 오늘 우리 교포의 많은 자녀들이 미국의 명문 대학에서 공부하며 좋은 성적을 유지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이민의 앞날은 매우 밝기만 합니다.

친애하는 교포들이여! 인류 역사는 세례 요한, 사도 바울과 같은 용감한 개척자들에 의해서 엮어졌고 진행, 발전되었고 또 계속

발전되고 있습니다. 정신사에 나타난 개척자들 중에 서양사에 공헌한 탈레스, 소크라테스, 데칼트, 칸트, 헤겔, 하이덱커 들을 생각하게 되며, 동양사에 있어서도 공자, 맹자, 장자, 주자. 등을 생각하게 됩니다. 종교분야에 있어서도 아브라함, 모세 석가, 마호멧 등이 한 때는 정신 이상자로 규탄과 핍박을 받았으나, 그들은 종교세계를 개척했읍니다. 세계 선교에 있어서도 빌립, 베드로, 요한은 유대에, 바울은 소아시와 구라파에, 도마는 인도에,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에, 윌리암 캐리는 인도에, 리빙스톤은 아프리카에 구원의 길을 개척해 놓았읍니다. 일반 역사에 있어서도, 현대 민주주의 개척자 룻소, 공산주의 개척자 맑스, 동서를 연결시킨 마르코 폴로, 서양 의학의 히포크라테스, 신대륙을 발견한 콜롬부스, 원자 시대를 발견한 오펜 하이머, 생의 외경을 발견한 슈바이처, 무저항주의의 간디, 민권의 길을 닦은 마틴 루터 킹 등은 위대한 개척자들입니다. 이들의 생애는 불타는 의욕과 확실한 미래의 소망과 땀과 눈물과 피와 고귀한 희생이었읍니다. 인류 문명의 발전은 이러한 용감한 개척자들에 의해서 꾸준히 발전해 왔읍니다. 이러한 개척자들의 수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강약과 행복이 좌우됩니다. 우리는 역사의 노예가 아니고 분명히 부름받은 새 역사의 창조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욕, 성실, 희생, 미래의 정신을 가지고 이민의 길, 복음의 길, 평화에 길, 재림의 길을 닦는 이 시대의 개척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수 17 : 16 하, 18 상)

끝까지 굳게 잡아라
(이민 성도의 삶)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강퍅케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사십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퍅케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예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퍅케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좇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사십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히브리서 3장 6절－19절)

히브리서 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던 생활을 묘사한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받았읍니다. 애굽에서 열가지 재앙이 내릴 때 이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 했으며, 광야에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았읍니다. 홍해를 갈라 육지같이 건넜으며, 배 고플 때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 먹었고, 고기를 먹고 싶을 때에는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져 먹었읍니다. 목이 마를 때에는 반석에서 물이 나와 물을 마셨읍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에 대하여 감사와 찬

송을 드렸읍니다.

그러나 40년 광야 생활을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말았읍니다. 그들은 지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과 지도자를 불신하고 불순종했으며, 우상을 만들어 거기에 절하고, 간음죄를 짓고, 애굽을 돌아 보다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읍니다. 그래서 애굽을 출발한 장정 60만 3천 3백 50명 중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 전부 죽어서 까마귀 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난지 8일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요, 온갖 기사와 이적을 친히 보고 체험한 사람들인데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읍니까?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을 보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는 이들은 히브리서 3장 6절, 14절의 "끝까지 굳게 잡아라"는 말씀을 꼭 명심해야 하겠읍니다. 운동 경기에서는 출발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순간이 더욱 중요한 것과 같이 신앙 생활에서도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잘 믿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목적지를 변경한다든가 도중하차한다든가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이민 성도들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자리 잡고 살기 위하여 너무나 분주한 생활과 과로의 생활을 하고 있읍니다. 그 모두가 직업을 잡으려, 돈을 잡으려, 지위를 잡으려 피곤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읍니다. 물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먼저이거나, 근본적이거나, 가치가 있거나, 영원한 것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먼저 잡으려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먼저 굳게 잡으라고 교훈하고 있읍니까? 신구약성경은 우리가 먼저 세가지를 굳게 잡으라고 교훈하고 있읍니다.

뱀 꼬리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4장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읍니다. 이스라엘의 사상가이며

애국자인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어, "너는 애굽에 가서 바로 왕의 학정에서 신음하는 네 백성을 해방시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 가라"고 말씀하셨읍니다. 모세는,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라고 거절했읍니다. 하나님께서, "왜, 못하느냐?"라고 다시 말씀했을때 모세는, "바로 왕으로 말하면 일국의 대왕으로서 군병과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나는 일개 평범한 사람일 뿐 더러 가진 무기도 전혀 없읍니다"라고 또 다시 거절했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네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모세가 그 가진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되어 모세를 물려고 했읍니다. 모세가 겁을 먹고 무서워 도망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뱀 꼬리를 굳게 잡으라"고 명령했읍니다. 모세는 무섭고 징그러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과 믿는 마음으로 뱀 꼬리를 굳게 잡았더니 그뱀이 변하여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읍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가 애굽으로 가지고 가서 열 가지 재앙을 베풀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홍해 바다를 갈라 백성으로 하여금 건너게 하고,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오게 하여 백성이 그것을 마시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 그 민족을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읍니다.

이 뱀은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환난과 고통과 시험과 역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뱀이 나타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인류에게 죄와 고통과 죽음을 가져다 주었읍니다. 밥상에 둘러 앉아 식사를 하고 있는 우리 집안에 뱀이 들어 온다면 온 식구가 놀라 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뱀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뱀이 나타났다고 해서 겁만 내고 떨고 도망칠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과 사랑으로 이 뱀 꼬리를 굳게 잡으면 이것이 변하여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것이라는 교훈입니다.

옛날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를 믿는 스데반을 물어 죽이고,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하여 다메섹으로 도망치는 믿는 사람들을 물어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하여 쫓아가고 있었읍니다. 이러한 사울을 예

수님께서 보실 때 분명히 독사요, 무서운 뱀과 같은 존재임에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뱀을 보고 무섭다고 도망가지도 아니하셨고 돌이나 몽둥이로 때려 잡지도 아니하셨읍니다. 도리어 믿음과 사랑으로 사울이라는 뱀꼬리를 굳게 잡았을 때 그 뱀이 변하여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가 되어 소아시아와 구라파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시켰고 많은 교회를 세웠으며 또 신약성경의 절반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일찌기 한국 평양에 이 기풍이라는 불량 청년이 있었읍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의 박해 선봉자로서 교회를 부수고, 교회에 불을 지르고 선교사를 돌로 쳐서 죽이려 하던 무서운 뱀과 같은 존재이었읍니다. 마포 삼열 선교사가 이 사람이 던진 돌에 맞아 얼굴이 깨지고, 피를 흘리면서도 그를 용서하여 믿음과 사랑으로 꼭 잡았읍니다. 이때 이 청년이 크게 감화를 받아 예수를 믿고 신학을 공부한 후 목사가 되어 초대 제주도 선교사가 되었으며 당대에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가 되어 놀라운 역사를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일평생을 살아 나가려면 하루에도 낮이 있고 밤이 있으며 일년에도 봄이 있고 겨울이 있듯이,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으며,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으며, 풍년이 들 때도 있고 흉년이 들 때도 있으며, 좋은 때도 있고 어려운 때도 있지 않겠읍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절망만 하지 말고 그 환난, 고통, 시험, 역경을 믿음과 순종과 사랑으로 꼭 잡읍시다. 꼭 잡으면 뱀이 변하여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듯 이 모든 역경이 변하여 은혜와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겨울에는 집집마다 감기가 찾아 옵니다. 감기가 또 찾아 왔다고 해서 감기걸린 사람을 문 밖에다 세워 놓고 실랑이를 밤새껏 한다면 어떻게 되겠읍니까? 감기 걸린 사람은 더 무서운 감기에 시달릴 것입니다. 그러나 감기를 환영하여 안방으로 모시고 사랑으로 대접을 잘하면 그 이튿날 그 감기는 대접 잘 받았다고 하며 떠나지 않겠읍니까? 또 이런 얘기가 있읍니다. 미국의 큰 백화점에서 한 점원을

고용했는데 너무나 졸기를 잘해서 주인은 이 점원을 해고시키려 했읍니다. 그러나 주인은 이 사람을 잘 이용할 곳이 없겠는가 생각을 하다가 때는 겨울인데 오바 파는 부서에 보내기로 했읍니다. 주인은 점원에게 좋은 오바를 입혀 놓고, "자네 소원이 졸고 자는 것 같은데! 내가 허락할 것이니 이 외투를 입고 이 의자에 앉아서 맘껏 졸고 잠을 자게. 월급은 다름없이 주겠네"라고 했읍니다. 이 점원의 일은 외투를 입고 의자에 앉아서 조는 일이었읍니다. 겨울 외투를 사기 위해서 오는 손님들에게 담당 점원은 이렇게 말했읍니다. "이 오바는 알라스카에서 나는 수달피 오바인데 입으면 참 따뜻합니다. 여기 앉아 자는 이 사람을 보십시오. 얼마나 따뜻한지 이 사람 깨어날 줄 모릅니다. 어떻습니까?"그래서 그 해에는 외투가 많이 팔려 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쉽게 근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 고난의 의미를 잘 해석하고 그 고난을 지혜롭게 잘 처리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정신적, 도덕적, 영적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큰 복을 주시려 할 때에 그냥 거저 주시지 않고 먼저 어려운 환난과 고통과 시험과 역경을 던져 주어 우리를 시험하신 후 우리가 여기에 합격하면 큰 축복을 내려 주신다는 사실이 참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나이 1백20에 20살쯤 되는 독자 이삭을 잡아 바치라는 시험이 있지 아니했읍니까?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애매한 누명을 쓰고 2년 동안 옥중살이하는 시험이 있지 아니했읍니까? 욥이란 사람도 그렇게 의인이었지만 파산, 자녀몰살, 무서운 질병의 시험을 받지 않았읍니까? 그러나 저들은 이 뱀과 같은 무서운 환난, 고통, 시험, 역경을 믿음과 순종과 사랑으로 꼭 잡음으로 그 뱀이 변하여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듯 도리어 그것 때문에 큰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활이 있었고, 가시관을 쓰심으로 면류관을 쓰시게 되었으며 무덤에 내려 가심으로 보좌에 올라가 앉

으시게 되었읍니다. 질병, 실패, 환난, 고통, 역경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며, 하늘의 지혜를 얻게 하며, 신앙의 연단과 인격의 정화를 얻게 하며, 영원을 향해 고개를 들게 하는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회라고 말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시험을 시련으로, 시련을 연단으로, 연단을 축복으로, 축복을 사명으로 승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천사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고 했읍니다. 이것은 기도하며 문제를 해결하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이삭의 쌍태 중 둘째 아들입니다. 태중에서 나올 때부터 먼저 나오고자 하는 야심이 많았읍니다. 형 에서는 밖에 나가 사냥하기를 즐겨했고 동생 야곱은 집안에서 조용하게 있기를 좋아했읍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머니에게 잘 보였던 것입니다. 성격으로 말하면 형은 우둔했고 동생은 약삭빨랐읍니다. 그래서 형이 배 고팠을 때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의 기업을 쉽게 빼앗았읍니다. 또 아버지의 눈이 어두운 것을 이용하여 어머니와 공모하여 형의 축복을 가로챘읍니다. 격분한 형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어머니의 권유로 야곱은 화란 땅으로 멀리 피신했읍니다. 거기서 야곱은 20년 동안 힘든 노동을 했읍니다.

그러나 야곱은 벧엘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창 28 : 10-15)으로 크게 세 가지를 성공했읍니다. 마음에 드는 라헬과 결혼하여 결혼에 성공했으며 아들 열하나를 낳아 자녀에 성공했으며, 많은 재산을 모아 재물에 성공했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야곱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했읍니다(창 31 : 3). 그래서 야곱은 처자와 많은 재물을 가지고 금의환향 길에 올라 이제 거의 고향땅에 다 오게 되었읍니다. 이제 강 하나만 건너면 되는데 그 강 이름은 얍복강입니다. 야곱은 이 얍복에 와서 큰 고민을 했읍니다. 20년 전에 지었던 죄악의 위협, 보응의 공포, 양심의 번민 등이 생겼읍니다. 야곱은 도저히 도강할 수 없는 심경에 도달하여 처자와 종들과 재산을 전부

먼저 강을 건너 보내고 홀로 얍복 강변에 주저앉아 하나님께 기도 드렸읍니다.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나 밤새도록 씨름을 했읍니다. 천사가 이기지 못함으로 야곱의 환도 뼈를 쳐서 위골을 시켰지만 야곱이 놓치지 아니함으로 날이 새려 할 때에 야곱에게 "나로 가게" 하라고 말했읍니다. 야곱은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했읍니다. 그 사람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읍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말은 간사한 놈, 꼬부라진 놈, 거짓말한 놈, 빼앗은 놈, 도적놈이란 뜻이 포함된 이름입니다. 천사가 그의 솔직 정직한 것을 보고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고 했읍니다.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황태자라는 말입니다. 오늘 유대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이라 하는 것은 여기에서부터 나온 말입니다. 그러므로 유대 민족은 아브라함을 만국민의 조상으로 여기고, 야곱은 자기 민족의 조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관보다 야곱의 관을 더 크게 만들어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축복을 받고서야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용기를 얻게 되어 얍복 강을 건너가 형을 만났읍니다. 죽을 줄만 알고 공포에 사로 잡혔었으나 형이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반겨 주었읍니다. 야곱은 반가이 아버지를 만나 뵙게되고 처가살이로 먹고 살기에 바빠 무너졌던 제단을 비로소 다시 쌓고 깊은 영적 생활에 잠기게 되었읍니다.

즉 이 천사를 굳게 잡으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신앙 생활에 있어서 크고 작고간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문제 해결을 받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야곱의 기도는 모범적 기도입니다. 모든것을 강 건너로 건네 보냈으니 헌신적 기도입니다. 자기 홀로만 남아 기도하는 단독적 기도입니다. 내 이름은 야곱이라고 고백하는 자복의 기도입니다. 환두뼈가 부러져도 놓치지 아니하는 결사적 기도입니다. 어느 신자이든지 야곱과 같은 이런 기도를 드리면 응답받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읍니다.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상이 군인 출신의 임 승효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분은 두다리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다닙니다. 이분이 병원에서 자살을 기도하다가 상이군인 출신의 소경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고 중생하고 헌신하여 신학 공부를 하여 목사가 되었읍니다. 상이 군인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공군본부 뒤에 공터를 사 교회를 지으려고 기독교 실업가들을 찾아 다녔지만 목적을 이루지 못했읍니다. 그래서 용문산 골짜기와 경기도 광주 산골짜기에 들어가 수 주일을 금식 결사 기도를 했읍니다. 결국 대통령과 국방부 원호국장의 도움을 받게 된 것이 신문에 나고 이에 자극을 받아 기독 실업인들이 자진 원조를 해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읍니다. 그 후 임승효 목사님은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세계 기드온 연차 총회에 10분간 간증 강사로 초빙을 받았읍니다. 그의 간증이 끝난 후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크게 감동을 받아 한국의 상이 군인 전도를 위하여 헌금하자는 동의 재청에 즉석에서 64만불이 모이게 되었읍니다. 더구나 은행에 예금된 돈이 있으니 백만불을 채워 주자고 하여 36만불을 더하여 백만불을 얻어가게 되었읍니다. 그는 이 간증을 또 우리 교회에서 했읍니다. 기도는 이와같이 이적을 가져오게 합니다.

여기에 저자 미상의 기도에 대한 유명한 시가 있읍니다.

기도는 단단히 얽매인 영혼을 풀어주고 자유 얻은 영혼을 날 수 있게 합니다.

기도는 녹슬은 옥문을 열기도 하고 흑암의 굴속에 찬란한 빛을 줍니다.

기도는 자신의 추함을 그대로 보게 하고 거룩한 분과 교제하게 합니다.

기도는 깊은 홍해를 갈라 벽으로 삼게 하고 높은 여리고를 쳐서 평지가 되게 합니다.

기도는 바위를 갈라 샘으로 터지게 하고 땅을 갈라서 죄를 파묻기도 합니다.

기도는 앉은뱅이를 일으켜 경주자가 되게 하고 소경의 눈을 떠서

영원을 보게 합니다.

기도는 피곤한 영혼에게 생기를 주고 뻣뻣한 무릎을 꿇게 합니다.

기도는 나같은 죄인도 성도로 바꾸고 할 수 없다를 할 수 있다로 바꾸게 합니다.

기도는 천국문의 열쇠요 지옥문의 자물쇠입니다.

기도는 기도로만 배우는 하나님의 서명입니다.

예수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고 했읍니다. 예수를 굳게 잡아야 영혼의 구원, 생활의 구원, 육신의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와 율법과 세상과 마귀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물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에게 자기도 물위로 걸어오게 해달라고 애원했읍니다. 주께서 허락하심으로 물위로 몇 발자욱 걸어 가다가 바람과 풍랑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져갔읍니다. 나를 건져 달라고 주께 부르짖을 때 예수께서손을 내미심으로 베드로는 예수를 굳게 잡아 배에 올라가 살아서 피안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읍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망망한 고해입니다. 설상가상 정치적, 사상적, 경제적, 도덕적, 신앙적 거센 바람이 불어 큰 풍파가 일고 작은 우리의 신앙의 조각배는 크게 흔들려 파선 직전에 있읍니다. 이 때에 우리는 내 건강, 내 지식, 내 재물, 내 명예, 내 친구, 내 그 무엇을 잡는다해도 우리는 살 길이 없읍니다. 오직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시며 자연계를 정복하시는 예수, 인생의 진실한 안내자요, 항해의 선장되시는 예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만을 굳게 잡아야 영혼과 생활과 육신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시몬이 예수를 잡아 베드로가 되고, 레위가 예수를 잡아 마태가 되고, 사울이 예수를 잡아 바울이 되고, 창녀가 예수를 잡아 숙녀

"내 나이 86, 오늘까지 예수님이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시지 아니했는데, 내 나이에 살면 얼마나 살려고 예수님을 모른다 하리요"

가 되고, 강도가 예수를 잡아 영생을 얻었읍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를 잡은 가나안 여인은 흉악한 마귀에 들린 딸을 살렸고, 문둥이는 예수를 잡아 영과 육이 살았고, 소경 바디매오는 예수를 잡아 매달려서 깨끗함을 얻었읍니다. 5세기의 탕자 어거스틴도 예수를 잡아 성자가 되었고, 한국 기독교 초기에 신천의 불량아 김 익두도 예수를 잡아 큰 부흥사가 되지 않았읍니까? 백두산에서 찍은 나무를 뗏목으로 만들어 내려올 때에 때로는 급류와 작은 폭포같은 격랑을 만나게 됩니다. 뗏목이 물속으로 들어 간다고 해도 뗏목을 놓치지 말고 꼭 잡고 있으면 잠시 후 뗏목이 다시 물위로 나와 사는 것과 같이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를 끝까지 굳게 잡아야 바로 살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초기 서머나의 유명한 감독 폴리캅이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죄목으로 이교도에게 잡히어 무수한 고문을 받고 마지막 장작더미 위에서 불태워 죽기 직전, 불을 붙이는 형리가 이렇게 말했읍니다. "여보 영감,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한마디만 하면 살텐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시요?" 폴리캅이 대답하기를, "내 나이 86, 오늘까지 예수님이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시지 아니했는데, 내 나이에 살면 얼마나 살려고 예수님을 모른다 하리요" 또 형리가 말하기를 "여보 영감, 여기에 불을 붙이면 이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시요?" 이 폴리캅은 "자네는 지옥불이 얼마나 더 뜨거운지 아오?" 라고 하면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끝까지 붙들었던 사람들은 지금도 천국에서 살고 있지만 예수를 붙들지 않았던 사람들은 영벌의 곳에서 지금도 신음하고 있읍니다.

이민 생활에 건강도, 가정도, 물질도, 재물도 필요합니다. 그러

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영혼입니다. 천하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인성과 신성을 가진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친애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과 순종으로 끝까지 굳게 잡아 젖과 꿀이 흐르는 안식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나와, 광야라는 교회에서 가나안이라는 천국을 향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 뱀꼬리를 굳게 잡아 환난과 고통이 변하여 은혜와 축복이 되고 천사를 굳게 잡아 문제 해결, 소원 성취를 바라며, 예수를 굳게 잡아 영혼, 생활, 육신의 구원을 성취하는 슬기롭고도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땅에 보내신 제2의 청교도
(성공적 이민 생활의 요소)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산 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훼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 1장 1절－7절)

하나님이 크신 경륜 가운데 우리는 20세기의 가나안 땅인 미국에 와서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있읍니다. 이 축복의 땅에 와서도 어떤 사람은 실패와 고독, 고통과 눈물을 짓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공과 기쁨, 행복과 감사의 생활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 이민 교포들은 꿈을 가지고 새 땅에 왔으니 꼭 성공해서, 이 땅에 온 삶에 의미를 주며 행복한 생활을 해야 하며, 또 이 새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도 공헌하는 가치있는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몇가지 일이 있읍니다.

미국은 20세기의 가나안 복지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약속된 가나안 땅은 토지가 비옥하여 농사와 목축이 잘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읍니

다. 그러나 오늘의 가나안 땅은 미국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동남 아시아, 남태평양, 남미, 구라파, 아프리카, 공산 국가의 땅들을 다녀 보았읍니다마는 미국같이 비옥한 땅은 아직 보지를 못했읍니다. 미국은 토지가 광대하고 비옥하며, 기후가 좋고, 우량도 족하여 농사가 잘 되고, 목축도 잘 되며, 지하 자원과 수산 자원이 풍부하고, 언론, 집회, 종교, 결사, 행진의 자유가 있고, 인권이 보장 되고 노동이 신성시되고, 기회가 많아 능력만 있으면 생활이 보장되고, 사회 복지가 잘 되어 있고, 교육은 의무화 되고, 세계 인종이 다같이 사는 합중국으로서 한국 사람으로 외국에 가서 살 바에는 제일 살기 좋은 20세기 가나안 복지입니다.

미국 땅에 온 각 민족의 연대

제일 먼저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1620년에 미국 땅에 건너 왔읍니다. 다음으로 불란서인들이 1630년에 미국으로 왔읍니다. 유대인들도 비교적 일찌기 미국 땅에 왔는데, 스페인계의 유대인들은 1654년에, 독일계 유대인들은 1840년에, 동구라파 유대인들은 1888년에 각각 미국 땅에 발을 디뎠읍니다. 아이리쉬인들은 1790년에 폴랜드인들은 1850년에, 중국인들도 1850년에, 일본인들은 1861년에, 이태리인들은 1880년에, 희랍인들은 1900년에, 프에토리코인들은 1900년에, 그리고 한국인들은 1903년에 각각 미국 땅으로 건너 왔던 것입니다.

미국은 1492년 콜롬버스의 일행에 의해서 발견되었고 그 일행 중에 유대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미국에서 유대인들이 크게 자리를 잡은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이민 역사는 300년이 넘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민족들과 원인 분석

미국에 이민 온 영·불 민족을 제외하고 성공한 소수 민족은 두 민족으로서 일본 민족과 유대 민족을 들고 있읍니다.

첫째, 일본 민족의 성공 요소는, 가족주의(Family)와 공동생활(Community)과 민족적 결속(Nation Solidarity)이라고 하며, 둘째,

세월이 흘러 풍습과 감정이 다르지만 고국에 남아 있는 형제에 대한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대 민족의 성공 요소는 여호와의 유일신 종교(계명 준수 의식 철저), 강한 선민 의식(자부심, 자존심, 자신력), 철저한 교육(조기 교육, 두뇌 교육), 민족적 단결(상부 상조 정신 철저)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두 소수 민족으로 하여금 오늘 미국에서 성공하게 한 것입니다. 이들은 오늘 미국에서 정치, 교육, 경제면에서도 확고한 기반을 닦고 있으며 그들의 영향력은 결코 과소 평가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읍니다.

한국 이민들이 성공하려면

주체의식

느헤미야 1장 2절에 "남아 있는 유대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나라 장관의 요직에 앉은 출세한 고관으로서 부귀를 누리는 호강한 몸이었읍니다. 그렇다고 그는 결코 노예 생활하는 자기 동족과 형제들을 관심 밖에 두거나 멸시치 않았읍니다. 뿐만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그들과 같은 혈족 관계를 부끄러워 하지도 않았읍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모국을 떠나 이국 페르시아 나라에 와서 오랜 세월이 흘러 풍습과 감정이 다르지만 고국에 남아 있는 형제에 대한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았읍니다. 이것이 민족혼이요, 얼이요, 주체의식이라고 말하겠읍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포로의 몸으로 바벨론에 잡혀온 다니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세 번씩 기도했다 하며,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모세가 나이 사십이 되매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고 했읍니다. 저들은 모두가 그 당시 강대국에 가서 살았으나 주체 의식을 견지하고 살았읍니다.

오늘 미국에 온 우리 교포들의 자녀 교육에 있어서 세 가지 교육형을 보게 됩니다. 첫째 전통주의입니다. 이는 극단적 보수주의 교

육으로서 미국 교육보다 한국식 교육에 더욱 치중하는 교육입니다. 이는 매우 좁은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가 동화주의 입니다. 일명 채택주의, 병합주의, 모방주의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완전히 한국 것은 잊어 버리고 미국 것만 배워 미국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교육의 결과는 변두리 인간 밖에는 만들 수가 없읍니다. 세째는 이중 문화입니다. 이는 쌍문화 교육, 복합 문화 교육이라고도 말합니다. 즉, 한국과 미국 두 나라 것을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스위스에서는 스위스어, 독일어, 불란서어, 영어 등 5개국 말을 해야 배운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지난 날 선풍적 인기를 얻은 '뿌리'라는 영화의 주 내용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족보의 근원이 분명치 않은 부족은 자유에 대한 투지도, 세계관 수립도, 가치관의 확립도,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읍니다. 하바드 대학 호레스 캘렌 교수는 "사람이 흔히 옷을 갈아 입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와 철학과 국적은 바꿀 수 있다. 심지어 종교와 아내까지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자기의 조상은 바꿀 수 없다"고 말했으며, 고인이 된 아놀드 토인비는 "오늘까지 세계를 움직인 민족은 세 가지 특징을 견지하는데 굳센 단결력, 정직과 근면, 고유문화의 견지"라고 했읍니다.

높은 교육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있을 때에도 고관에 관직을 가졌으며 느헤미야 5장 14절에 보면 그는 유대 땅 총독에 임명되었읍니다. 이와 같이 느헤미야는 높은 교육을 받은 실력이 있는 인정 받은 사람입니다. 미국 안에 유대인들은 높은 교육을 받은 실력이 있는 인정 받은 사람입니다. 미국 안에 유대인들은 높은 교육을 받아 정치가, 학자, 과학자, 의사, 변호사, 예술가, 경제인 등 기라성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유대인들은 학사나 석사 정도면 인생의 낙제생으로 간주한다 합니다. 물론 인간 교육이 기술 교육만이라고는 말할 수 없읍니다. 인간 교육이 궁극적 교육입니다. 룻소는 "참된 교육은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는 데 있다"라고 말했읍니다. 한국 이민들이 이민에 성공하려면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더욱 깊은

관심과 애정과 시간을 투자해서 책임지고 교육에 더욱 힘을 써야 하겠읍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은 바쁘고, 돈 벌어야 하고, 그러므로 무관심, 무애정, 무대화, 무책임 속에서 아이들이 순간적 실수라든가, 점차적 과오로 말미암아 그릇된 길을 가는 학생들이 날로 격증해 가고 있읍니다. 즉, 학생들 가운데 학교 가지 아니하고, 집을 나가고, 갱단에 가입하고, 술, 담배, 마약, 성 문란, 임신, 절도, 자살 등의 불행한 일들이 점차 늘어만 가고 있읍니다. 이를 선도하기 위해서 물론 학교, 교회가 있읍니다마는 가장 근본적인 교육 장소는 가정이고, 책임자는 각 부모들입니다. 자녀들과 현실 사회, 특히 미국을 이해하고 인내와 사랑과 확신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높은 교육을 시켜야만 합니다.

강한 신앙

느헤미야 4장을 보면 예루살렘 재건에 있어서 이웃 원수들의 방해가 대단했읍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신앙을 가지고 동요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재건 준공을 완료했읍니다. 이 때 느헤미야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 일을 방해하는 원수들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라는 확고 부동한 신앙이 있었읍니다. 과연, 신앙은 좌절감을 극복하고, 희망과 용기를 주며 생존의 의미와 가치를 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앙으로 홍해를 건너고, 여호수아, 갈렙은 신앙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한 것을 생각할 때에 강한 신앙은 위대한 역사를 창조합니다. 카라이엘은 "위대한 신앙을 가진 국민은 위대한 국가를 건설한다"고 했고 아인슈타인은 "나의 생애를 통하여 연구할 때에 여러 가지 고난에 부딪혀도 실망치 않은 것은 오직 신앙의 덕분이다"라고 말했읍니다. 신앙의 눈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좋은 면을 보게 되며, 가능성을 보게 되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됨으로 보다 더 강하고 아름답고 풍요한 생활과 또 승리를 거둘 수 있읍니다.

상호 협동

느헤미야 4장 15절 이하를 보면 예루살렘 재건을 위하여 모두가 일치 단결, 상호 협력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정치가인 느헤미야와 종교 지도자인 에스라의 협력의 미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온 방백과 백성들의 협력을 봅니다. 그들은 재건과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소를 버리고 대를 위하여 단결, 협동했읍니다.

지금으로부터 이백 년 전 미국 열 세개의 주가 연합하여 붉고 흰 열세 줄에 푸른 바탕에 흰별 열세 개를 놓아 미국 최초 성조기를 만들어 올릴 때에, 미국인은 양털을 골라서, 이태리인은 곱게 다듬어서, 스위스인은 실을 뽑고, 토이기인은 물감을 들이고, 벨기에인은 짜서, 독일인은 잘 말려서, 스코틀랜드인은 재단하고, 불란서인은 규격을 재고, 영국인은 바느질하고, 아이리쉬인은 끈을 달고, 폴랜드인은 다림질해서, 인디아인이 국기를 올렸다 합니다. 여기에 합중국의 정신이 드러나고 있읍니다. 저들은 다양성 속에서 조화와 통일을 찾았읍니다. 미국인은 세계 인종의 시장이지만, 자유 방종하는 것 같으나 일단 국가 유사시에는 성조기 밑에서 하나가 되기에 계속 발전하는 강한 나라입니다.

친애하는 교포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꿈을 가지고 이민 왔읍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어 보낸 이민들입니다. 결단코 정치적 도피나, 공산주의가 무서워서가 아니고, 사회적 불안 때문에 도망온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이민을 보내시고, 요셉을 애굽으로 노예 신분으로 이민을 보내시고,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느헤미야, 에스더는 페르시아로 이민 보내신 데에는 하나님의 크신 경륜이 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20세기 가나안에 와서 사는 우리들도 이민의 성공자 느헤미야와 같이 주체 의식, 높은 교육, 상호 협동 등으로 기반을 공고히 닦을 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조국을 위해서도 크게 기여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제2의 청교도임을 자각하고 이 사명 완수를 위해 다같이 힘을 모아 전진해야만 합니다.

항상 이기리라
(성공적 이민 생활)

"볼찌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찌어다"(요한계시록 3장 20절-22절)

사람은 경주를 하든지 또는 전쟁을 하든지 이겨야만 합니다. 이번에 이곳 로스엔젤레스에서 올림픽이 개최되었는데, 저는 그 진행을 텔레비젼을 통하여 보았읍니다. 경기에 우승한 선수는 높은 시상대 위에 올리워지고, 그 나라 국기가 올리워지고, 그 나라의 국가가 연주되며, 선수의 목에는 금메달이 걸려지며, 또 꽃다발이 그에게 안겨지며, 그 선수 중 어떤 사람은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남자나 여자를 가릴 것없이 눈물을 흘리고 껑충껑충 뛰는 것이었읍니다. 또 어떤 나라는 듣자니까 금메달을 타면 그 선수에게 집을 한 채 사준다고 하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상금을 많이 주는 등 대단하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 민국에도 금메달을 딴 사람은 일생 동안 한 달에 120만원 가량을 연금으로 받게 된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경기에 우승한 사람에게는 많은 상급이 부여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앙 생활은 신령한 경기요, 신령한 싸움이라고 했읍니다. 이 신앙생활에도 승리한 사람에게는 많은 상급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일곱 번이나 약속했읍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고 했고, 2장 11절에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했으며, 2장 17절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리라"고 했으며, 2장 26절에는"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또 3장 5절에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라고 했으며, 3장 12절에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고 했고, 마지막으로 3장 21절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운동에도 이겨야 하고 전쟁에도 이겨야 하는 것처럼, 이 신령한 경기, 신령한 싸움인 신앙 생활에도 이겨야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읍니까? 성경은 이기는 비결을 몇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에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고 말씀했읍니다. 믿음으로 승리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무엘상 17장에 이 조그마한 군인도 아닌 목동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일선에 나가서 싸우는 형님들을 위문하고 오라고 먹을 음식을 가지고 전쟁터를 찾아 갔을 때에 이스라엘 그 군병들이 벌벌 떨고 있읍니다. 이유인즉,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 왔는데 블레셋 장군은 골리앗이라는 대장인데너무나도 키가 크고 몸집이 퉁퉁하고 기운이 장사고, 칼과 창과 단창이 있고 "너희들 가운데 나와 맞붙어 싸울 사람을 내 보내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를 때 감히 그 위엄 앞에 한 사람도 나갈 사람이 없었읍니다. 그 때에 다윗이 그것을 보고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 개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한다고 내가 나가겠다고 했을 때 "네가 나이도 어리고, 갑옷도 없고, 무기도 없는데 어떻게 나가느냐"고 했읍니다. "아닙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양을 치는 가운데 이 물돌매로 사자도 잡고 곰도 잡고 그 힘센 사자도 잡았는데 저 까짓거 하나 내가 못 잡겠읍니까?"하며 나섰읍니다. 그래서 이 물돌매를 가지고 나갈 때, 그 골리앗 대장이 보면서 "내가 개인줄 아느냐? 막대기와 돌팔매를 가지고 오게"하며 화를 냈읍니다. 그 때에 다윗이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오지만 나는 내가 믿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고 하면서 돌을 물매에다 넣어 돌린

다음에 던졌더니 그 머리에 가서 박혀 그만 쓰러지자 이 다윗이 쫓아가서 대장의 칼을 뽑아 목을 베어 칼로 그 얼굴을 찍어 높이 들 때 적군은 혼비 백산해서 다 도망쳐 나라의 위기를 구원했읍니다. 소년 다윗은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오늘도 3백만 밖에 되지 아니하는 소수 민족인 이스라엘이 그 주변의 2억이 넘는 아랍국의 연합군과 싸워 승리했다는 것은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같이 하시는 하나님, 이 신앙을 가지고 이겼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천재 음악가 모짜르트로 하여금 승리하게 했읍니다. 그가 25살에 비엔나에 가 너무나 생활이 어려워서 끼니를 때로는 굶고 추운 겨울이지만 난로 불도 피우지 못하고 벌벌 떨 때에 그 인쇄하는 상인이 와 당신이 현대 모든 사람들 모두가 좋아하는 현대 감각에 맞는 이 대중적인 곡을 만들어서 주면 내가 인쇄해서 당신에게 돈을 넉넉히 주겠다고 제의했읍니다. 그러나 모짜르트는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속된 것을 만들 수가 없다고 거절했읍니다. 신앙으로 기도를 하면서 영감을 받아 작곡한 것이 오늘에도 그의 음악을 듣는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리고 큰 감동과 은혜를 끼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300 년 동안 내려오는 천주교를 개혁했다는 젊은 루터의 힘이, 독립 전쟁에 대영제국을 굴복시켰다는 워싱톤의 힘이, 이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노예를 해방시킨 링컨의 힘이, 주 기철 목사님이 일제와 더불어 싸워서 승리했다는 힘이, 마르틴 루터 킹이 인권 해방을 성취했던 힘이 어디에서 나왔읍니까? 나라의 국력입니까? 무기입니까? 오직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이와 같이 승리를 거두어 위대한 새 인류 역사를 장식했다는 사실을 볼 때 신앙으로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보나 또 우리가 일반 역사를 보나 똑똑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승리 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19절에 보면 유대나라 제 12대 왕 히스기야 왕 때 북쪽 강국 앗수르 나라의 산헤립 왕이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침공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읍니다. 그리고 항복을 강요했읍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과 유대군인들은 절대로 항복하지 아니합니다. 그 때에 마지막으로 산헤립 왕이 아주 모독적인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했읍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보니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는 언사로 항복을 강요하는 것이었읍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들어가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에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신 하나님을 훼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줄 알리이다" 하고 기도했읍니다. 모욕적인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그것을 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날 저녁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앗수르 군대 18만 5천명을 다 송장으로 만들었어요. 나머지 몇 사람은 혼비 백산해서 다 자기 나라로 도망치고 말았읍니다.

우리가 현대에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참 이해가 안가는 얘기 같습니다. 그러나 6·25 동란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읍니다. 주일 아침에 공산군들이 넘어 왔을 때 미국에서 유엔 총회를 열게 되었읍니다. 그 때 마침 소련 대표가 중공 가입을 시도하다가 몇 나라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고 그만 어디를 가 버렸읍니다. 그래서 안전 보장 이사회가 모였을 때 소련 대표가 거기에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결이 되어서 유엔군이 참전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소련 대표가 나와서 거부권을 행사했다면 지금 우리 한국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부산만 남았을 때 우리 모든 남한에 있는 교직자나 모든 성도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 할 때에 맥아더 장군을 인천으로 보내 가지고 거기서부터 차단을 시켜 공산군을 다 쫓아 버렸다는 사실은 기도의 힘이란 것

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실히 체험하게 합니다.

기도란 것은 발전소의 전력을 끌어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희집 앞에 풀잔디가 조금 있고 그 뒤에 가면 나무에 자꾸 곁가지가 붙여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운동 삼아서 한 달에 한 번씩 깎는데, 한 번은 풀을 깎다가 전기줄 하나가 끊어졌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붙이는데, 긁어 가지고 붙이다 보니까 가는 머리카락 같은 노란 줄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것이 거의 바스라지고 끊어져 한 열 댓줄인가 스무줄 있는 데서 세 가닥을 붙여 해 보니까 여전히 힘이 와 풀도 깎아지고 나무도 뚝뚝 잘라지는 것을 보았읍니다. 거기서 하나 깨달았어요. 이 적은 세 가닥의 줄만 이것이 올바로 연결만 된다면 발전소의 위대한 힘을 끌어 올 수가 있는 것 같이 우리의 기도가 유창하나 못하나 우리 기도가 또한 오래 하나 적게 하나 참된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만 맺고 있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저는 체험했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야곱이 얍복강에서 승리한 것은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한 것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에게도 광야의 기도, 겟세마네의 기도, 갈보리의 기도가 승리를 가져 왔읍니다.

선으로 승리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시편 34편 14절에 보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르라", 전도서 3장 12절에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아모스 5장 14절에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요한삼서 1장 11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 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 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뵈옵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찌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고 했읍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이 세상은 아주 약고, 억세고, 남 속이고,

영악하며 악한 사람이 빨리 돈 벌어 성공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것은 잠깐 있다가 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아비멜렉이란 자는 사사 기드온 장군이 죽은 후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형제 70인을 반석에 돌로 때려 죽였읍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는데 결국 여자가 던진 맷돌에 맞아 죽었읍니다.

그가 돌로 자기 형제를 때려 죽였기 때문에 자기도 마지막 여자의 돌에 맞아 죽었읍니다. 사울은 자기의 왕위를 보존해 주고 국가의 위기를 건져낸 다윗을 시기해 백방으로 죽이려고 하다가 마지막 자기가 비참하게 죽고 말았읍니다. 하만은 모르드개와 그 백성을 죽이려고 장대를 만들어 놓았다가 자기가 만든 장대에 자기가 죽고 말았읍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써 악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동물도 아주 포악한 동물은 사람이 보기만 하면 죽입니다. 독사도 죽여요, 늑대도 죽여요, 호랑이도 미국같은 데는 동물 애호법이 있기 때문에 죽이지 않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보기만 하면 죽여요. 그러나 착한 동물, 부드럽고 유순한 동물, 비둘기 같은 것은 그렇게 죽이지 않습니다. 양 같은 것도 그렇게 죽이지 않으며, 소 같은 것도 그렇게 죽이지 않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사람은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져 죽습니다. 여러분이 미국에서 보면 어떤 학생들 중 아주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교회 잘 다니고 공부 잘 하는 아이들은 지금도 살아서 돌아 다니지만, 부모 말도 듣지 않고 교회도 다니지 않고 학교도 다니지 않고 권총같은 것 만들어 가지고, 망원경 가지고 한쪽에서 보며 도둑질하다가, 한 탕, 두 탕, 다섯 탕 하다가 그 돈 가지고 스포츠카 사고 나이트 클럽 가고 술 먹고 마약 피고 나쁜 짓 하다가, 그 돈 때문에 서로 치고 박고 권총으로 쏘아서 죽이고, 차에다 놓고 불 살라 죽이고 하니 악한 자는 망하는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틀러가 그렇게 악한 짓 하더니 독일이 망했읍니다. 일본 동조가 그렇게 나쁘더니 일본이 망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선으로써 악을 이기라는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장발잔이 성직자의 집에 들어가 은촛대를 훔쳐 가지고 나가다가

경찰에게 붙잡혀 경찰이 성직자의 집에 장발잔을 끌고 들어 왔을 때 성직자는, "저 사람이 훔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준 것입니다." 경관은 가 버리고 그 사람은 거기에서 감동을 받아 회개한 후 훌륭한 파리의 시장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다고 악과 더불어 타협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이 미국 생활에서 최소한 10불, 20불은 가지고 다니라는 말을 흔히 듣습니다. 그것은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 피우지 않고 주사를 맞지 않으면 미치고 죽으니까 돈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있는 10불, 20불 주어야 이 생명이 괜찮지, 없어서 주지 않으면 돈 주기 싫어 주지 않는 줄 알고 그냥 쏘든지 치든지 찌르든지 하여 피해를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준비해 가지고 다니세요. 단 1불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비상금으로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또 좋지 않은 사람들이 가방을 달라거든 얼른 주고 예수 믿으라고 한 마디 하는 것이 낫지요. 뺏기지 않으려 하다가 얻어 맞아 앰블런스 타고 병원에 들어가 살아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잘못되면 생명에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선으로써 악을 이겨야 합니다. 그러면 악과 더불어 타협하라는 말입니까? 악을 조장하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다만 지혜롭게 적극적인 방법으로 선으로써 그를 감동시키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선으로써 그 사람을 구원하라는 말씀입니다. 선우 집사님 내외분들이 흑인들의 동네에서 가게 할 때 입니다. 주위 불량배들이 하도 도둑질 하고 밤에는 문 뜯고 들어와서 가져 가고 손님오면 칼을 들이대고 가방을 빼앗곤 했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오는 것만 보면 증오심이 불일 듯 했읍니다. 그러나 기도했더니 "너 그 애들에게 불쌍한 마음을 가졌느냐?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 보아라"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많이 회개하고 그 사람들이 들어 올 때는 먼저 "Hello, Welcome, What can I do for you ?"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더니만 그 때부터 애들이 감화를 받아 그런 잘못된 행세를 아주 하지 안할 뿐만 아니라 그 가게를 지켜 주어서 거기서 돈을 많이 벌었읍니다. 집을 샀어요. 자

동차를 샀어요. 지금도 계속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으로써 악을 이기라고 그랬읍니다.

십자가로 승리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 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 하셨느니라" 했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읍니다. 우리가 얼른 볼 적에 십자가는 수치의 십자가요, 능욕의 십자가요, 고통의 십자가요, 실패의 십자가 같습니다. 강도 틈에 벌거 벗고 죽은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흘이 지나니까 부활의 십자가가 됐읍니다. 영광의 십자가가 됐읍니다. 전진한 십자가가 됐읍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를 승화시킴으로 십자가로 이겼읍니다. 주후 312년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적군이 침입해 들어와서 수도가 위험을 받게 될 때 전쟁에 준비해서 싸우러 나가기 전날 밤 잠을 자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 십자가 깃발을 주면서 이것 가지고 나가서 싸워 이기라고 그랬읍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깬 다음에 십자가 깃발을 만들어 가지고 나가서 싸울 때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300년 동안 그렇게도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었으며 드디어는 국교로 선포하였읍니다. 십자가로 승리했기 때문에 이와같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잘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 토마스 아켐피스는, "성공적이고 승리적인 삶을 원하면 십자가를 간직하시오. 그리하면 그 십자가가 그대를 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했읍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덴의 뱀이 마귀였읍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뱀, 사탄, 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이성을 가지고 옵니다. 또 장년들에게는 명예, 권력, 지위를 가지고 옵니다. 또 노인들에게는 물질을 가지고 옵니다. 이 마귀가 입을 벌리고 우리를 유혹하러 올 때에 십자가가 없으면 꿀떡 삼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은 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우린 아무리 믿음도 있고 기도도 있고 선을 행하고 십자가를 진다 하더라도 이길 수가 없읍니다. 마지막은 주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 주셔야만 이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아무리 입을 크게 벌린다 하더라도 삼킬 수 없읍니다. 십자가가 목구멍에 걸립니다. 삼킬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진 사람만이 모든 마귀의 세력과 온갖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승리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했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약하고 미련하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보통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했읍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고 했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25 동란에 17개국의 유엔군이 와서 우리 한국을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우리 한국에 지금 주권이 있겠읍니까? 저도 여기 설 수가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7개국의 유엔군이 와서 많은 물질과 젊은이의 피를 뿌려 가면서 우리 한국을 도와 주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지금도 살아 있고 우리도 여기 와서 이와 같이 사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우린 아무리 믿음도 있고 기도도 있고 선을 행하고 십자가를 진다 하더라도 이길 수가 없읍니다. 마지막은 주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 주셔야만 이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번 미국에서 열린 올림픽에서 미국 건국 이래 역사상으로 처음 미국에서 여자가 체조 경기에 금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16살 먹은 아이였읍니다. 물론 이 학생이 천부적인 소질

도 있었고 피눈물 나는 노력, 훈련도 거듭했겠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공산국가에서 망명해 온 명 코치가 이 학생을 참 끊임없이 전심 전력 지도했기 때문에 그의 도움을 받아서 이 어린 학생이 영예의 금메달을 이 번에 따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 승리하는 사람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올림픽 선수가 될 수 없을지 모릅니다. 환갑 지난 사람은 포기해야지요. 젊은 사람들은 희망이 있겠지만 오늘 여기에는 희망있는 사람은 없겠읍니다. 수영선수는 벌써 난 지 몇 달부터 물 속에다 집어 넣고 훈련시켜야만 됩니다. 이젠 미안하지만 여기 앉은 분은 올림픽 선수 될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올림픽은 나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은 따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 혹 전쟁에 우리나라 국력이 약해서 혹 지는 때가 있을는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가 한가지, 신령한 싸움, 신령한 경주에는 꼭 이겨야만 된다는 것을 오늘 명심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올림픽에서 우승한 사람은 사람이 주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받지만 그러나 신령한 경기에 신령한 싸움을 싸워 이긴 사람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썩지 아니하는 금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줄 것이니 여러분은 이 신령한 싸움, 신령한 경기에 이기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기도와, 선과,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육신과 세상과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가서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아 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형통하리라
(믿음, 기도, 순종의 삶)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의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대로 다 지켜 행하라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1절－9절)

오늘 봉독한 말씀에 형통이란 단어가 두 번 나타나는데 이 말씀을 근거해서 '네가 형통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 성도님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생을 살아나가는데 있어서 형통하는 생활을 원하고 있읍니다. 즉,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가 얽히지 아니하고 매듭이 맺혀지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풀려지고 순조롭고 형통하고 축복 받는 행복한 생활을 원하는 것은 인간의 공통적 심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형통의 생활을 보내려면 내 육체가 건강하고 공부를 많이하면 되겠지. 내가 돈이 많으면 돈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될수 있으니까 되겠지. 내가 기술이 있으면 되겠지. 내가 어떤 권력을 갖든지 또 권력

잡은 사람을 내가 가까이 알면 형통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그것은 부분적인 형통이고 완전한 형통은 못됩니다. 막상 어려운 문제가 유한한 인간의 극한 상황에 부닥쳤을 때에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어려운 문제가 내 건강, 지식, 돈, 기술, 권력 가지고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127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숫군의 경성함이 허사로다"고 말했읍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 주셔야만 우리가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같이 하시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을 형통케 하시느냐? 저는 제한된 시간에 세 가지로 생각하겠읍니다.

모든 일에 큰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

첫째로, 모든 일에 큰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들은 그저 좋은 때는 믿고 유익한 때는 믿습니다. 편안한 때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에 부딪힐 때는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 마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정말 참 뿌리까지 흔들릴 때가 있읍니다. 그리고 냉정히 우리가 한 번 분석해 보면 오늘까지 신앙 생활 해오면서 정말 믿었다는 것 보다도 불신앙적 신앙 생활이 더 많았다는 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참 믿음, 큰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언제나 같이 하시고 형통의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찾아 봅니다.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

민수기 13장 25절로 33절까지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모세가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할 때에 열 두 지파에서 족장 하나씩 불러 열두 사람을 둘씩 짝을 지어 가나안 땅을 탐정해 오라고 보냈는데, 똑같은 것을 가서 보고 온 사람들이 열 사람은 아주 절망적이며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두 사람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보고를 드렸읍

니다. 그러면 그 열 사람은 똑같은 걸 봤는데 왜 절망적인 보고를 했을까요?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 그 땅의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그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들은 대장부와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으니 우리가 능히 올라 가서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민 13:28,31,33). 이와 같은 아주 절망적인 보고를 했읍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 앞에서 백성에게 안돈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곧 올라 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민 13:30)고 말했읍니다. 민수기 14장 7절로 9절을 보면은,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 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하지 말라" 너무나도 똑 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상반된 판단과 상반된 보고를 했읍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었고 하나님의 그 진실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불변성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희망적인 보고를 했읍니다만은 그 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읍니다.

분명히 성경에 말했읍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니라" 어디로 가든지 너희들과 내가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이 말을 믿지를 않았읍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출애굽기 33장 3절에는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리라." 출애굽기 23장 30절에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말씀을 믿었지만 나머지 열 사람은 반신 반의

그러나 할 수 있다는 참 신앙을 가지고 움직인 여호수아, 갈렙은 동경하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하고 그 땅에서 여장을 풀어 놓고 새로운 창업을 시작해서 새 나라를 건설하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했습니다.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위대한 가정, 위대한 교회, 위대한 민족, 위대한 역사를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비관적인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저 가나안 일곱 족속이 강하다 하더라도 그들만 못하겠읍니까? 인간은 그들에게 상대할 능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있겠읍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같이 하시고 역사하신다면 불가능이 있겠읍니까? 저들이 강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와 같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이 메뚜기와 같은 존재가 아니겠읍니까? 성벽이 아무리 높고 튼튼하다 하더라도 이 성이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가 있겠읍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았고, 불신앙에서 보는 눈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견지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못한다고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고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보고를 했읍니다. 있는것 같지만 없는 것이 인간이고 없는 것 같지만 있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은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서 까마귀 밥이 되고 말았읍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는 참 신앙을 가지고 움직인 여호수아, 갈렙은 동경하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하고 그 땅에서 여장을 풀어 놓고 새로운 창업을 시작해서 새 나라를 건설하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했읍니다. "의인은 사자와 같이 강하다"고 성경에는 말했읍니다. 그들의 그 목적이 뚜렷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 갈렙은 강하고 담대하여 가나안을 쳐서 정복했던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은 위대한 국가를 건설한다고 말했읍니다.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위대한 가정, 위대한 교회, 위대한 민족, 위대한 역사를 건설할 수가 있읍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3장 14절로 17절에서 믿음으로 요단강 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그 모든 백성이 건너 갔던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진군할 때 첫째 장애물은 요단강입니다. 그 때는 보리 농사 추수 때요, 더운 때가 되어서 저 레바논의 많은 백년설이 녹아져서 물이 흘러 내려오기 때문에 양쪽 뚝이 넘치도록 강물이 흘려 내렸읍니다. 그 때에 이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시켜서 법궤를 메고 요단강 물을 믿음으로 발을 디뎌 놓았읍니다. 이 때에 강물이 멈추어졌다고 말했읍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강물 복판에서 백성들이 건너갈 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다 건너간 후에 하나님의 그 은총을 기념하기 위해서 열두 지파의 열두 돌을 그 강물에다가 기념비로 세웠다고 했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의심합니다. 이것은 초자연의 역사였읍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성과 과학의 힘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내 이 이성, 내 이 두뇌를 가지고 여기에 들어가서 이것이 맞으면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하고 여기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부정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교만이라고 볼 수가 있읍니다. 우리 인간이 아는 것이 많으냐, 모르는 것이 많으냐, 할 때 많이 배운 사람은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다고 하는 것이 모든 철인, 모든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겸손한 고백입니다. 오늘 원자 내부의 합착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모릅니다. 우주선은 어디서부터 발합니까? 모릅니다. 성운이라고 불리워지는 저 집단의 비상한 속도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모릅니다. 또 아버지, 어머니의 그 작은 정란 두 개가 완전한 유기체가 되어 가지고 나오는 것, 그것은 의학계에서도 아직 그 신비를 모릅니다. 인간의 기억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직도 찾지를 못합니다. 우주의 신비는 아직도 벗겨야 할 너울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태양도 멈춘다고 그랬읍니다. 믿음으로 이 요단강 물을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발을 들여 놓을 때 물이 갈라지고 길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에서 21절을 보면 믿음으로 여리고 금성 철벽

이 무너졌읍니다. 저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저 뒤에는 산이 있고 이 쪽엔 그 사해 바다가 있고 그 길목 거기 성 하나가 있는 그것을 뚫고 지나가야 하는데 그 성은 여리고 성, 아주 튼튼한 요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일곱에다가 법궤를 메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씩 돌아라. 엿새를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이레날은 일곱 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처음에는 말하지 않다가 마지막엔 나팔을 크게 불고 모두가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읍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적에는 그 때는 대포나 탱크나 비행기가 없으니까, 사닥다리를 만들고 기어 올라가고 활과 창을 가지고 싸워서 점령해야지 그 튼튼한 성을 어떻게 법궤를 메고 빙빙 돈다고 그것이 되겠읍니까? 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요단강 갈라지는 것도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이제 제사장 일곱이 그 법궤를 메고 아침에 일어나서 한 바퀴 돌았읍니다. 엿새를 돌았읍니다. 아무 일도 없읍니다. 그랬더니 그 성에서 모든 군인들과 그 원수들이 조롱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레되는 날 일곱 바퀴 돌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말씀한대로 나팔 소리를 내고 소리를 크게 지를 때에 눈이 녹아서 폭싹 주저 앉듯 성이 주저 앉아서 그들은 그 성을 점령했다고 했읍니다. 여기에 소리를 크게 질렀다는 것은 모두가 열심으로 기도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읍니다.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저 좌절하고 낙심하며 체념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그 모든 문제가 무너지고 우리 앞에 길이 열린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백 살이고 부인 사라가 아흔 살인데도 그 소생이 없었읍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 아브라함에게 "명년 이맘때쯤 되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 그대로 받아 들이고 믿었으나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그 말을 듣자 웃었다고 했읍니다. "우리 영감이 백 살이고, 늙었고, 내가 나이 아흔 살이고 벌써 경수가 끊어진 지가 몇

십 년이 됐는데 무슨 어린애가 있느냐"사라는 속으로 웃었읍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벌써 하나님은 그 웃는것까지도 아시고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것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했읍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자 얼마 후에 사라에게 태기가 있어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읍니다. 아브라함이 "나는 믿습니다"하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형통의 축복을 주었읍니다. 요 며칠전에 저 벨기에에서 한 여자가 한꺼번에 아들 하나, 딸 다섯, 모두 여섯을 낳았읍니다. 우리 보통 생각에는, 아마 옛날 할아버지에게, 또는 시골 할아버지에게, "저 서양에서 젊은 여자가 아들 하나, 딸 다섯, 모두 여섯을 한 번에 낳았읍니다"고 하면, "얘, 돼지 새끼 낳는 건줄 아느냐"고 그랬을 거예요. 그들은 지금 살아서 모두가 건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 밖의 일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한 은혜를 주셔서 귀한 아들, 순종의 이삭이 선물로 태어났고, 그 자손 가운데 야곱이 태어났고, 다윗이 태어났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만민을 구원하는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의 축복을 주시는 증거입니다.

열심으로 기도하는 사람

두번째는 열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왜 열심이라는 글자를 붙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많습니다. 기도하다 "아버지 감-사(하품하며)합니다." 하다가는 한 얘기 또 합니다. 그러다가 "아이구,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중언부언을 합니까?"라고 취소합니다. 다시 하지요. 여러분,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있고, 잠꼬대 기도가 있고, 수사적 기도, 이교적 기도, 영웅적 기도, 장명적 기도 여러가지 기도가 있는데 참 기도는 생사 문제를 앞에 놓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간절한 기도, 즉 야곱의 얍복강의 기도가 참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갈멜 산에서 바알 신을 대항하여 450대 1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 안에서 120 문도가 원수로 첩첩 둘러쌓인 그 복판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생사

를 결판하는 기도입니다. 그 때에 하나님이 같이 하셨읍니다. 그래서 형통했읍니다. 우리들도 요새 기도할 때 좀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 시고 응답해 주실텐데 그렇게 간절히 못합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한 70여명이 철야 기도 하는데 어떤 김집사님이 이렇게 간증했읍니다. 그가 6.25 때 공산당에게 잡혀 갔을 때, 넷이 가던 사람중 셋은 칼에 목이 잘려져서 죽었는데 자기는 칼이 목을 탁 쳤지만 동맥 양쪽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뼈속까지 목이 건들건들하는데 그 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봐달라고요. 그 후 살아나서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이예요. 여러분 급할 때의 기도는 수사가 필요없읍니다. 물에 빠져 내려가는 사람이 그저 외마디 소리에 "사람 살려 주시오" 그저 한 마디 외치면 되요. 물에 빠져 가는 사람이 "세월이 빨라 엄동 설한 지나가고 꽃 피는 양춘 계절 돌아와 아지랑이 잔잔하고 나비는 춤을 추고 새는 노래하는 데 나를 좀 건져 달라"고 누가 그럴 사람이 있읍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땐 수사가 필요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높고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 필요없읍니다. 그저 "하나님 큰일 났읍니다. 나 살려 주시오" 이것이 간절한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에 대한 여러가지 정의가 있는데 킴펠은 말하기를, "기도는 어두운데서 하나님을 보는 거울이다" 고 했읍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봅니다. 이사야가 기도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모양입니다. 또 존슨은 "전기의 소켓을 꼽는 것과 같다"고 했읍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이 밝아집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옵니다. 또한 토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보고를 여는 열쇠"라고 그랬읍니다. 또 스미스는 "기도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전능자의 손을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했읍니다. 칼빈은 "기도는 복음에 들어 있는 보물을 캐내는 것"이라고 했읍니다. 기도는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과 전도 하는 것, 기도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

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끝마쳤고, 그러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가셨읍니다. 열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의 축복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읍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듣고 너를 만나주마라고 했읍니다. 여호수아 1장 17절에 보면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했읍니다. 이것은 여호수아를 따르는 선량한 군중들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들어갈 때에 너무나 원수가 많고 6년 동안 여러 번 전쟁하다가 실패하여 인간인지라 낙심하여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이렇게 낙망 가운데 빠졌을 때, 여호수아에게 와서 한 말입니다. "모세와 같이 하시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라며 간절하게 기도를 해 주었읍니다. 그 기도가 결국 이 사람에게 힘을 주고 그 기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원동력이 된 것 모양, 기도의 힘이란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모세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는 열 가지 재앙을 베풀었읍니다. 그는 홍해 바다를 갈랐읍니다. 그는 반석에서 물을 내기도 했읍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왔읍니까? 모세의 지식에서 왔읍니까? 모세의 경험에서 왔읍니까? 성경에 보면 그는 40일씩 두 번 금식 기도를 했어요. 출애굽기 24장 18절에 보니, "그는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고 했읍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다 고 했읍니다. 모세가 이런 결사적인 기도를 했기 때문에 큰 능력을 받아서 홍해 바다도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했던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 더불어 전쟁할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읍니다. 훌과 아론이 모세의 팔을 붙잡고 돌로 바쳐 놓으니까 하루 종일 전쟁에서 이겼다는

데 이것은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끊임 없이 많이 하면 여러분들도 육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이단을 이기지만 많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모교회는 인천 송현 교회인데 거기에는 지하실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 지하실에는 일 년 열두 달 여름에나 봄에나 가을에나 엄동 설한에도 몇십 명이 항상 엎드려 기도합니다. 언제든지 밤중에 들어가면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교회가 지금 장년이 이천 명 이상 모이는 큰 부흥을 한 것을 지금 보고 있읍니다. 또 지금 미국의 큰 교회에는 기도하는 방이 있읍니다. 일 년 열두 달 시간적으로 이십사 시간 동안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가서 낮에나 밤에나 기도하고 있읍니다. 기도실에는 불이 켜져 있읍니다. 파란 불이 항상 켜져 있는데 그것은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거기 기도의 모든 제목을 전부 적어 가지고 그걸 붙잡고 기도를 하고 있읍니다. 대학생선교회 (C. C. C.) 본부에 가서 채플 지하실에 가보면 일 년 열두 달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실이 있읍니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 축복받는 것은 연중 매일 새벽 기도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철야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만큼 축복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큰 형통과 축복을 받으려면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철야 기도를 지난 번에 가졌는데요. 간증이 그렇게도 은혜스러웠어요. 참석한 사람들은 우리만 은혜 받는게 너무 아깝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읍니다. 저는 미국에서 조금 살았기 때문에 억지로 여러분들에게 철야 기도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마가복음 9장 29절), 한 아버지가 사귀병 들린 아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 말하기를 "할 수 있으시면 이 아이좀 고쳐 주십시오"라고 애원했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꾸중하셨읍니다. 그래 그 아버지가 황급히 "제가 믿습니다" 했더니

아들의 병이 깨끗이 고침 받았읍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방에 들어 왔는데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읍니다. 뭐라고 물었읍니까? "우리는 어찌 이렇게 능히 귀신을 쫓아 내지 못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기도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막 9:29)고 말씀했읍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내쫓고 영혼을 구원하고 이런 일할 수 있다 그랬읍니다.

제가 사천에서 종군 목사로 일할 때 제 동기동창인 김 영봉 목사께서 시무하는 통영 성결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읍니다. 그 때에 한 여자가 사귀병이 들렸는데 이 마귀병이 발동하면 남자들 몇 명도 못 당합니다. 어디서 그렇게 기운이 나는지 모르겠읍니다. 이 교회 김 목사가 나더러 "나는 기도해도 저 마귀를 쫓아 내지 못하니 임 목사가 좀 쫓아 내라"고 합니다. 그 때에 나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하고 먼저 둘이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힘을 얻어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 냈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생사를 결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를 꼭 들어줄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세번째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형통하는 축복을 줍니다. 여호수아 1장 11절을 보면,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삼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하시는 땅을 얻게 하여 들어 가게 할 것이라"했읍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을 거느리고 저 가나안을 들어 가거라. 네가 밟는 땅은 내가 네게 주리라"하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사흘 후에는 떠날테니까 양식 준비하고 모두 준비하라고 백성에게 한 말입니다. 순종입니다. 또 여호수아 1장 18절에,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모든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라고 했읍니다. 이스라엘의 선량한 군중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

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순종하겠읍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는 가나안 정복, 새 나라 건설, 자손 만대 영광이라는 대전제를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겠다는 각오의 표시입니다. 만약 불순종하는 사람은 우리가 죽이겠다고까지 했읍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 하던 자에게가 아니냐?"라고 했읍니다. 안식이란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나안 땅에 못들어 가게 했읍니까? 순종치 아니하던 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우리가 짐승을 먹여도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그 짐승은 사랑 받습니다, 그러나 말듣지 않으면 도수장에 끌고가 잡아 죽이지요. 아이들 보고도 부모님이 '야, 너 나이가 아직도 어린데 담배, 술, 그거해롭다. 너 공부 열심히 해라. 괜히 나가서 늦게 들어오지 말고"라고 할 때에 그 말씀을 잘 들어야 그 아이가 좋은 성적 가지고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업도 갖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이 사회에서 고생 안 하고 살 뿐만 아니라 한 번만 왔다가는 인생길에서 정말 보람을 느끼고 삽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모 말 듣지 않고, 나쁜 짓만 하면 결국은 그 사람도 망하고 맙니다.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 목사, 장로, 권사님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더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성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확실히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즘 모두 순종들 잘 안하는 것 같아요. 부흥회 때도 와서 좀 은혜 받으라면 그저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합니다. 미국 와서 자유를 누리러 왔는데 누가 나를 간섭할까 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제가 이번에 서울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분들이 저를 마포 쪽에 새로 지은 큰 호텔에 유숙시켜 주었읍니다. 들어가니 이발소, 싸우나탕, 양식부, 일식부, 또 한식부 잘해 놓았읍니다. 굉장해요. 그런데 그 사장이 젊은 사람이예요. 그 사장이 서교동 교회 집사라고 그래요. 그래 너무 반가왔읍니다.

여기 원 용학 장로님도 계시고, 노 수정 장로님, 강 영구 장로님 다 그 교회 출신들인데 그 집사님이 노 수정 장로님의 안부를 묻는 거예요. 가시거든 노 수정 장로님께 안부를 전해 달라고 해요. 노 영자 집사님이랑 연애하다 결혼한 것을 장로님이 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 와서 노 수정 장로님께 그랬죠. 그 아무개 젊은 사람이 집사인데 빌딩 가지고 또 집 짓고 굉장하더라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요. 제 친구인데요. 그 아이 형님이 있읍니다. 그 형은 공부도 하지 않고, 돈도 막쓰고 부모 말 잘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돌아 가실 때 재산을 형에게 주지 않고 동생에게 주었답니다" 하더군요.

여러분! 부모 말 순종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옵니다.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읍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그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고 했읍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어딘지도 모르고 가 보지도 않았고 들러 보지도 않은 막막한 곳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서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 갔읍니다. 또 아브라함이 백 살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 제단에 잡아서 제사를 지내라고 했읍니다. 이것은 언약상으로 못할 짓입니다. 네 자손이 번성하리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또 부자지간의 윤리로도 못할 짓입니다. 어떻게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을 잡아 죽일 수 있겠읍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흘 길을 걸어가서 그 제단에 쌓고 꽁꽁 묶어 칼로 목을 찌르려고 하는 순간이었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독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 너는 아들을 죽이지 말라. 저기 나무가지에 양이 걸려 있느니라" 하셨읍니다. 그것을 갖다 제사를 지냈더니 무슨 복을 받았나 보세요.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에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

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 하였음이니라"고 말씀했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아들이 죽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서 만민을 구원하는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 같이 순종은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

여러분,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서 소아시아로 가려고 한 것을 하나님께서 가지 못하게 하셨고 구라파로 가라고 명령하셨읍니다. 그는 순종했기 때문에 위대한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읍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을 보면 아랍 나라의 군대장관이 문둥병에 걸려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 왔읍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오지도 아니한 채, "요단강에 일곱 번 들어갔다 나오면 깨끗하리라"는 말만 종에게 전했읍니다. 그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읍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 계집종 아이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고쳐 주시려는지 누가 아느냐고, 들어 가는 것이 뭐가 그리 어려우냐고 했읍니다. 여기까지 왔다가 한 번 들어가 보라고 간청했읍니다. 그래서 어린 여자 아이의 말이지만 순종하여 들어 갔다가 나오니까 깨끗함을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읍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이 잔치집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읍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포도주를 만들어 주라고 간청했읍니다. 예수께서 하인에게, "바깥 돌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그리고 떠다 주어라"고 했읍니다. 그에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했읍니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하는데 하나도 못 잡았읍니다. 날이 밝아 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 했읍니다. 고기는 대개 밤에 많이 잡히는데, 그러나 잡히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순종했읍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지 못하였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눅 5:5)하며 내렸더니 고기가 그 배가 가라 앉도록 잡혔다고 했읍니다. 순종하였기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복 많이 받지 못 한 것은, 지난 날 우리가 순종한다고는 하였지만, 내 감정, 내 고집, 내 경험, 내 주관, 내 철학, 내 정욕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이민 생활에 아직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엉크러지고 우리 앞을 가로막는 답답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돈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 찾아 가지 마세요. 참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시하는 그대로만 순종해 나가면 모든 문제가 풀릴 것이고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너는 복의 기관이 될찌라

(축복의 비결)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찌라"(창세기 12장 1절－2절)

"너는 복의 근원이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찌기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후에 이 약속이 성취되어 인류 역사상 제일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으며 제일 성공한 사람이 되었읍니다. 과연 그 자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문자 그대로의 '복의 기관' 이 되었읍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많은 축복을 받았으며 가장 멋있게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는 일생 동안 건강하게 살았으며 부부가 함께 백년 이상을 해로했고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거부이었으며 그 당시 방백으로 명예와 지위가 있었읍니다. 그 자손 중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복의 기관이 되었고, 그 자손들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이 번식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약속대로 오늘의 유대인, 아랍 족속들, 전세계의 기독교인, 천주교인, 회교도들은 전부가 육과 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만국민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는 과연 만국민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을 받았읍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같은 큰 축복을 받았읍니까?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결과의 배후에는 언제나 반드시 응분한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이같은 큰 축복을 받은 것은 몇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유일신의 신앙을 가졌읍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인데, 그 곳은 달숭배의 중심지일 뿐만이 아니라, 우상이 많아 그 주민들 모두가 우상 숭배자들이었읍니다. 미개한 지방의 사람일수록 미신을 많이 섬기는 것과 같이 지금으로부터 수천년 전에 사는 사람들이니 가히 측량할 수 있읍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자일 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꾼이었읍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시대, 이러한 지방, 이러한 가정 환경 속에서도 결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국가의 흥망 성쇠와 개인의 생사 화복을 홀로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분만을 믿고 경배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일은 매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 전부가 우상을 믿고 섬기는데 유독 아브라함 혼자서 그것도 젊은 사람이 그들이 믿지 않는 하나님을 단 혼자서 믿으며 살아 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비난과 핍박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시험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겼읍니다.

그는 절대 순종했읍니다.

창세기 12장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읍니다. 그 지시할 땅이란 남방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이 때 아브라함은 지체없이 큰 결단을 내려 오랫동안 정든 선조의 땅, 고향 땅을 뚝 떠났읍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 누구에게 이야기조차 들어 보지 못한 미지의 땅을 향해 떠나는 모험을 감수했읍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수양의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한다 했읍니다. 첫째 아담은 불순종해서 죄와 죽음을 가져다 주었으나 둘째 아담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의와 영생을 가져다 주었읍니다. 우리는 항상 양심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님의 감동 감화에 순종해야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읍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읍니다. 종교상으로나 부자의 의리상으로나, 네 자식의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같이 번식하겠다는 언약상으로나, 이 독자를 잡아 바친다는 것은 도저히 못할 일이었읍니다.

그는 제단을 쌓는 신앙을 가졌읍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 곳에 제단을 쌓았고, 8절에는 벧엘 동편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며, 13장 4절에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고 했고, 13장 18절에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고 기록되어 있읍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든지 그 곳에서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읍니다. 오늘 미국을 가리켜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나라라고 말합니다. 과연 미국은 세계에서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미국인의 조상들이 1620년 대서양을 배를 타고 두달 만에 건너와서 배에서 새 땅에 뛰어 내리자마자 땅에 엎드려 기도하고, 제일 먼저 지은 것이 교회이고 다음이 학교이며 그 다음이 자기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희생적 신앙을 가졌읍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결혼해서 나이 백살이 되어도 자식이 전혀 없었읍니다. 부인은 아흔 살이었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했읍니다. 언약대로 아들을 낳았읍니다. 이 아들이 20세쯤 되었읍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려 가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잡아 바치라"고 명령했읍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또 꿈이 아닌가도 생각했읍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읍니다. 종교상으로나, 부자의 의리상으로나, 네 자식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같이 번식하겠다는 언약상으로나, 이 독자를 잡아 바친다는 것은 도

저히 못할 일이었읍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 아브라함은 즉시 결심을 했읍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달라고 하시는데 백 살에 주신 하나님은 또 주시겠지라는 믿음이 생겼읍니다. 그 이튿날 아침 일찌기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삼일 길을 가서 산꼭대기에 제단을 쌓고 아들을 묶어 누이고 칼을 들어 찌르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읍니다. 하나님께서 "칼을 멈추라 네가 네 자식보다 나를 더 두려워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씀했읍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 여러분들도 이 아브라함과 같이 유일신의 신앙, 순종하는 신앙, 제단 쌓는 신앙, 희생적 신앙을 가지시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한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여러분들도 받아서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오늘의 복의 기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축복받는 비결)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네 목전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찌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찌어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에 윤택하게 하리라 네 재물과 제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잠언 3장 1절 -10절)

사람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축복받는 생활을 바라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축복받는 방법을 몰라서 축복된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허다하고, 또 그와 반대로 그 방법을 알아서 축복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축복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봉독한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속에 잘 기록되어 있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장수의 축복을 받습니다.

잠언 3장 1절과 2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고 말씀했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고 말씀했읍니다. 또 잠언 10장 2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년세는 짧아지느니라"고 말씀했읍니다. 사람

마다 일찍 죽지 않고, 오래 살려고 원하며,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먹지 말라는 음식, 마시지 말라하는 음료, 가지 말라는 곳, 하지 말라는 것들을 삼가 지키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인삼, 녹용과 다른 보약을 먹지 않더라도 장수의 축복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인자와 진리로 살면 귀중히 여김을 받게됩니다.

잠언 3장 3절과 4절을 보면, "인자와 진리로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읍니다. 여기 '인자와 진리'라는 말씀의 뜻은 경건한 삶, 성실한 삶, 선행의 삶, 충실한 삶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삶을 떠나지 말고, 목에 매고, 마음판에 새겨서, 매일 매일 살아가는 사람은 어느 곳에서 산다 해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산에 나무가 많으나, 곧은 나무를 먼저 베어 집을 짓고, 개울가에 돌이 많으나, 네모가 반듯한 돌을 먼저 가져다가 주춧돌을 삼듯이, 사람이 많은 가운데서도 인자와 진리로 사는 사람을 먼저 발탁하여 귀중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긴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세째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앞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했읍니다. 우리 인간은 길가는 나그네입니다. 기나긴 여행을 하는 순례자입니다. 밤은 깊고, 어두어 길을 잃고, 지척을 분별치 못하고 방황하는, 목자 잃은 어린양 같은 가련한 신세가 오늘 물질과학 문명 속에서 인생의 삶의 바른 방향감각을 잃고 헤매이는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에게 진정한 인생길의 안내자가 시급히 필요로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핵무기로

무장된 지구상의 인류의 공동 운명이며 공동 과제인 것입니다. 이제는 인간과 물질, 과학만으로는 오늘의 세계 극한 상황의 위기에서 벗어날 길을 찾을 수 없는 시한점에 우리가 도달했다고 보겠읍니다. 이러한 시국이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면 옛날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들의 앞길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네째로 악을 떠나면 몸이 건강할 것입니다.

잠언 3장 7절과 8절을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찌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찌어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고 했읍니다. 오늘의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은, 전부는 아닐찌라도 선택적으로 말해서 대부분의 병은, 하나님을 떠나서 악에 빠져 살기 때문입니다. 즉 불신앙, 불경건, 부절제의 생활에서 오는 병이라고 봅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병도 있읍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의심, 염려, 미움, 시기, 불안, 조급, 불경건에서 발생되는 병이 적지 않음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유명한 의사는 환자를 먼저 정신적, 심리적 진단을 한다고 합니다. 또 장수자인 신앙가 죠지 물러는 자기의 장수의 비결은 성경 말씀을 의뢰하는 데 있다고 말했읍니다. 모름지기 사람마다 악을 떠나 깨끗한 생활, 부절제한 생활을 떠나 절제있는 생활, 죄를 짓고 양심의 번민과 고통의 생활을 떠나, 의롭고 기쁘고 평안한 생활을 하면 모든 질병에서 해방을 받고 건강한 육체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5장 26절에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고 말씀했고, 이사야 40장 31절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십시오. 장수의 축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사십시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십시오. 앞길을 선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십시오. 건강하실 것입니다. 제물을 선한 일에 쓰십시오. 더 큰 축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고 말씀했읍니다.

끝으로 재물을 드리면 창고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잠언3장9절과10절에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말씀했읍니다. 갈라디아서6장7절에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했고,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말했으며, 또 다른 곳에는 "심는 자에게 종자를 주신다"고 말씀했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좋은 일에 쓰면 하나님께서 대신 몇 갑절로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벨은 첫 열매를 바침으로 큰 축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십일조를 드림으로 역사상 가장 큰 영육간의 축복을 받았으며, 야곱도 귀한 것을 드림으로 귀한 축복을 받았다고 했읍니다. 성경에는 하늘과 땅도, 육신과 영혼도, 모두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소유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읍니다. 한 소년이 보리떡 다섯 덩이와 물고기 두 마리를 예수님께 드릴 때 큰 이적이 나타나 5천명이 배불리 먹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았듯이, 우리의 것을 주께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되이 드릴때 큰 이적이 나타나고, 또 내게 큰 축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칼은 써야 빛이 나고, 물은 퍼내야 새 물이 고이고, 밀알은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영원히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친애하는 교포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십시오, 장수의 축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사십시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십시오, 앞길을 선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십시오, 건강하실 것입니다. 재물을 선한 일에 쓰십시오, 더 큰 축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넘치는 축복이 더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4부
절기설교

새마음, 새생활
새해

부활의 증인이 되라
부활절

이상적 가정이란?
가정의 달

어린이와 예수님
어린이주일

위대하신 어머니
어머니 주일

해방의 복음
광복절

가장 위대한 책 성경
성서주일

임마누엘 하나님
성탄주일

새마음, 새생활
(새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2절 – 24절)

오늘은 새해 첫날, 첫 주일입니다. 어젯밤에 당회원들은 7시부터 모여서 작년도 살림을 검토하고 8시 30분부터 제직회가 모여서 또한 살림을 검토하고 9시부터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모여서 1년 동안 걸어온 것을 회고하면서 잘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잘못한 것은 반성을 하며, 회개하며 또한 몇 분들의 은혜에 넘친 간증을 듣다가 0시에 사, 오백 명이 촛불을 들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첫예배를 드렸읍니다. 새해 첫 발걸음을 내어 딛는 오늘 아침이었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첫해, 첫 주일이기 때문에 '새마음, 새생활'이란 제목을 갖고 몇 가지를 생각하며 신령한 첫 출발을 하려 합니다.

우리는 오늘 새벽 첫 예배를 드리면서 신년도 기원 일곱 가지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읍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충만, 가정마다 평화 있게 하여 주시며, 교회마다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고, 교포 사회가 명랑케 하여 주시오며, 조국의 번영과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미국 사회가 청교도의 정신으로 환원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계의 평화와 공존이 이루어지게 해 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읍니다. 이것 금년도의 기도 목표로 삼고 출발했읍니다.

금년에는 특별한 새해라고 생각됩니다. 작년에는 12월 25일이 꼭 주일이 되어서 성탄절을 뜻 깊게 지냈는데 올해에는 정월 초하루가

또 주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정월 초하루는 믿는 성도들에게는 뜻 깊은 역사적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정월 초하루에 멈추었다"고 쓰여 있고,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세운 날이 정월 초하루입니다. 역대하 29장 17절에 보면 성전을 정결케 한 날도 정월 초하루, 에스라 7장 9절을 보면 바벨론에서 종노릇하다 해방을 받은 날도 정월 초하루, 에스라 10장 17절을 보면 세상과 더불어 인연을 끊어 버린 날도 정월 초하루, 에스겔 29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날도 정월 초하루, 에스겔 4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 거족적으로 큰 제사를 지낸 날도 정월 초하루입니다. 위와 같이 보면 정월 초하루는 기독교와 더불어 뜻 깊은 의미를 가진 역사적인 날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볼 수가 있읍니다.

우리 한국에도 보면 정월 초하루를 손 꼽아 기다리며 고향에도 가며, 목욕 정결하고, 새 옷을 입고 제사를 지내고, 어른들께 세배를 하며, 나이도 한살 더 먹고, 철이 더 들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볼 것이 있읍니다. 목욕을 하고, 새 옷을 갈아 입고, 또 떡국을 먹는 것 등은 기독교 신앙에 비추어 볼 때 깊은 의미가 있읍니다. 여기 목욕한다는 것은 반성을 하고 통회를 하는 것이며,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읍니다. 새 옷을 갈아 입었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고 거듭났다, 신생했다, 의롭다는 이름을 받았다, 그리스도를 옷 입는 듯하는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낸다 함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며 예배를 드리며 찬송을 부른다, 예물을 바친다는 뜻입니다. 떡국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다, 설교를 한다, 신령한 양식을 먹는다, 성신에 감화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한살을 더 먹었다는 것은 신앙의 연륜이 하나 더한다, 은혜의 체험을 하나 더한다는 것이며 헌신의 각오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전통적인 풍습을 기독교의 신앙 생활과 한 번 비교하면서 뜻을 찾아 볼 수 있읍니다.

제가 미주에서 나오는 신문들의 주일의 종교란에 하와이나 나성의 목사님들께서 무슨 설교를 하시나 훑어 보니 절대 다수의 목사

님들의 설교가 '새해', '새 마음', '새 사람', '새 생활'이란 제목으로 거의 통일이 되었읍니다. 정말 새 것이라는 것은 언제나 신선한 것을 의미합니다. 새 것이란 것은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저희집 이야기를 해서 안되었읍니다만 저희 집사람이 가끔 핀잔겸, 장난겸,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도 목사라면서 50줄이 훨씬 넘었소만, 새 것은 몹시도 좋아 하시네"라고 합니다. 제가 몰래 새 양말, 새 내의, 새 넥타이 등을 사용하면 우리 집사람은 언제 알았는지 새 것을 무척도 좋아 하시네 합니다. 새 것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읍니까. 새 신, 새 옷, 새 차, 새 텔레비젼, 새 신부, 새 신랑 등, 새 것이라는 것은 참 좋습니다. 때 묻지 않은 것, 이 신년 첫 주일에 새 마음, 새 생활을 금년 일년 동안 영위해 보자는 의미에서 세 가지 생활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배우는 생활

첫째, 배우는 생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했읍니다. 나를 배우라는 것은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신, 사상, 생활, 가치 기준, 인생의 방향은 어떤 것이며 또 예수님의 죽으심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등등,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크리스챤의 생활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이 인문학, 자연 과학을 배우러 나오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배우러 나오는 것입니다. 배운다는 것도 귀한 것입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읍니다. 그래서 졸업이란 말은 시작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애굽 사람 하나와 불란서 사람 하나를 싸움시키면 백번 애굽 사람이 이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 천 명과 불란서 사람 천 명을 싸움을 시키면 불란서 사람이 이긴답니다. 그건 무슨 이유이냐면 배운 사람은 그만큼 협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배운 사람은 힘을 뭉칠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요, 무지가 죄라고 말했읍니다. 오늘 희랍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자그마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읍니다. 전 세계의 대학 도서관에 희랍 철인들과 위대한 학자들에 관한 책이 없는 도서관이 없읍니다. 정말 배운다

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오늘 미국에서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철이 들면 부모가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해도 머리를 싸매고 도서관에서 늦도록 밤잠을 자지 않고 공부하는 것은 "내가 배우지 아니하면 이다음에 고생한다, 배워야 고생하지 않는다"고 깨닫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말했읍니다. 배운 사람이 깊이 믿습니다. 뿌리가 깊이 박혀야 바람이 불어도 장마가 나도 그 나무가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깊이 배운 사람이 깊은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읍니다. 깊이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박 태선처럼 망하고, 문 선명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여호와 증인 따라가다 부부 싸움하고, 가정 파탄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다니엘이,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이 배웠으며 어거스틴이 얼마나 위대한 학자입니까? 마틴 루터가, 요한 웨슬레가 얼마나 위대한 학자입니까? 요즘 제가 웨슬레 전기를 보니 웨슬레는 매일 성경 연구, 히브리어 연구, 헬라어 연구, 웅변학 연구, 설교학 연구, 철학 연구, 윤리학 연구, 등을 매일매일 계속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큰 그릇은 만성한다고 했읍니다. 화살이 뒤로 많이 물러서야만 멀리 간다는 것을 뜻하듯이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각 주일 학교의 교육을 성실히 하고, 제직 훈련을 강화하며 주말 학교를 실시해서 어린이들에게 우리 한국어와 역사를 가르치며, 평신도의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도록 하겠다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금년도 교육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의 교육적 목표는 궁극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마음 속에 이룩해서 이 시대적인 사명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전달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교육의 근본 목표인 줄 압니다.

미국 생활은 쫓기는 생활이고 피곤하며, 경쟁이 심합니다. 우리

는 이민 역사가 짧습니다. 우리는 자본도 많지 않고 기술도 부족하며, 국제 무대에서 수 많은 나라 사람들과 더불어 대자본 속에서 경쟁하자니 매우 피곤하며 시간이 없읍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누가복음 10장 39절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마리아인과 같이 금년 일년 열심히 배워서 육신도 건강하고 자녀 교육도 잘 시키고 직장 생활에도 형통하고 사업에서도 성공해서 돈을 벌고 또 학업에도 발전이 있어 영적인 윤택이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영혼에 건강이 없다면 우리 미국 생활에 행복을 찾을 길이 없읍니다. 그런고로 금년에는 첫째로 우리는 겸손히 주의 발 앞에 엎드려 배우는 생활을 영위해야 하겠읍니다.

실천적 생활

둘째로는 실천적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생활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유명한 학자 한 사람이 있읍니다. 그가 지은 시도, 기행문도, 신문의 논설도 많습니다. 그 사람이 지은 책도 많이 있읍니다. 대학과 3군 사관학교에 초빙을 받아 강연도 많이 합니다. 훌륭한 학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가까이 잘 아는 사람은 어딘지 모르게 마음 아파합니다. 그가 본부인을 버리고 친구의 아내를 빼앗아 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마다 그에게 옥에 티가 묻었다고 합니다. 말도 잘 해야 되겠지만 생활이 좋아야 하고, 글도 좋아야 하겠지만, 생활이 좋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내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자와 같고 만일 내 말을 듣고도 행치 않는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자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읍니다. 모래 위나 반석 위나 집 짓는 것은 같습니다. 얼른 보기에는 똑 같으나 깊이 생각해 보면 다릅니다. 모래 위에 짓는 것은 쉽고 자본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속히 짓습니다. 성경에 보니 비가 오고 장마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차이가 쉽게 드러난다고 했읍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냥 떠내려 갑니다. 그냥 부숴집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것은 부숴지지도 아니하고, 넘어 지지도 아니하고, 떠내려 가지도

않는다 했읍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가르치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실천, 도덕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가르쳤다면 책임을 지고, 배웠다면 실천을 해야 합니다.

레위기 11장 9절과 10절 그리고 13절을 보면 짐승 가운데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과 새김질하지 아니하는 동물은 먹지 말라고 했읍니다. 굽이 갈라졌다 함은 구별된 생활을 말하며 새김질한다는것은 소가 먹고 나서 끄집어 내서는 또 새김질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화를 잘 시킨다는 말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얼굴이 다르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생활이 좀 달라야 하겠읍니다. 교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남 중상하지 말고, 좀 우리가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읍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자꾸 씹어서 새김질하여 내 뼈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여 생의 원동력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읍니까? 또 물고기 가운데 비늘 있는 것은 먹고 비늘 없는 것은 먹지 말라 했읍니다. 뱀장어, 미꾸라지와 같은 것은 유대 사람은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궁창 속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늘 비뚤비뚤하게 갑니다. 그러나 이 비늘 있는 것은 맑은 물을 먹고 똑바로 갑니다. 잉어와 같은 것은 폭포수의 물줄기를 따라 올라가고 연어도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은 곧은생활, 깨끗한, 직선적인 생활, 올라가는 생활, 즉 우리 성도들의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 5장 16절에 보면 "너희들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했읍니다. 우리는 "저 사람은 참 크리스찬이야"하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옛날 안디옥 교회의 신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받았다고 했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다섯자에 사람은 5분지 1입니다. 그러나 5분지 4만은 예수를 닮았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100%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78 년도에는 우리의 생활이 실천의 생활로 옮겨져야 하겠는데 가정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사회 생활에 제일 필요한 것은 이웃 사랑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돕고,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못지 아니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에서 성경을 규칙적으로 몇 절이라도 좋으니 읽어야 합니다. 항시 밥을 먹는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먹는 것처럼 영혼을 위해서는 성경을 매일 한 절, 한 장이라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 제단도 쌓고, 가정에서 천국을 이루는 화목 단결이 필요하고 교회 생활에는 주일을 잘 지켜야 하고 성경 공부 시간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 남 침례 교회(Southern Baptist Church)가 부흥되는 것은 주일 학교, 성경 학교를 잘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회가자고 할 때에 예배 보러 가자고 말하지 아니하고, "오늘 어느 선생 주일 학교 반에 갑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보는 시간에는 빠지면서 주일 학교, 성경 공부 시간에는 꼭 참석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각자 맡은 것에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사회 생활에 제일 필요한 것은 이웃 사랑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돕고,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못지 아니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보면 어떤 청년들은 남들이 하지 안하는 것을 맡아놓고 합니다. 냄새나는 화장실을 청소합니다. 한국에서 대학 나오고, 미국에서 석사 학위를 공부하고, 한 달에 몇만 불씩 받는 청년들이 냄새나는 화장실을 돈도 받지 않고 닦고 있읍니다. 우리 믿는 신자들이 큰 감화를 받는다고 합니다. 옳습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든지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내가 하는 솔선수범-이러한 실천 생활을 해야 하겠읍니다.

오늘 아침 제가 촛대를 쥐고서 가만히 다시 한 번 생각했읍니다.

언제나 생각하는 바이지만 다시 생각해 보았읍니다. 초가 타고 녹아서 물방울 같이 뚝뚝 떨어져 그 자체가 없어져 갈수록 빛은 더 환하게 비추는 것을 볼 때 우리들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나라는 것이 희생되어 갈 때 어두운 세상은 밝아질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했읍니다. "이몸을 아끼고, 내가 왜 손해보며 내가 뭣 때문에 그럴거냐, 남들이 나를 뭐라고 보기에 내가 이만큼 배우고 이만한 직위를 가진 사람인데 그런짓을 왜 해?"하는 이들이 있읍니다. 아닙니다. 초는 자체가 녹아져야 빛을 발하는 것 아닙니까?

선교하는 생활

세번째로는 선교 생활, 전도 생활입니다. 제가 공군에 있을 때, 백령도에 종교 집회 부흥 강연하러 갔다가 김 원철 장로님께서 지으신 교회가 소청도에 있다면서 가자고 하시길래 갔읍니다. 그 교회는 파도가 일면 하얀 돌이 올라오는 것을 실어다 일본의 사기 공장에 파는 소청도의 광산에 세운 교회입니다. "여기로 낚시가면 삼치 등 많이 잡겠는데, 우리 낚시 갑시다"해서 낚시를 갔읍니다. 갔더니 삼치가 뛰어 오르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 시간이 지나고 세 시간이 지나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읍니다. 마지막에는 낚시 납동까지 잘라 먹고 그냥 세 시간 만에 빈 낚시대를 들고 돌아온 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사람 낚으러 왔다가 삼치 낚으러 가서 세 시간 동안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낚시도 망가지고, 납동도 잃어버렸읍니다." 지금도 후회가 됩니다. 고개 넘어 가면 동네가 있는데 전도는 하지 못하고 기껏한다는 것이 삼치 잡으러 갔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마 4:19)고 말씀하셨으며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행 1:8)고 말씀하셨읍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세계적인 여러 가지 문제는 경제, 영토 문제라고 하지만 경제 문제는 국제 문제요, 국제 문제는 인간 문제요, 인간 문제는 교육 문제요, 교육 문제는 윤리 문제요,

윤리 문제는 종교 문제요, 종교 문제는 참 계시 종교 문제라고 하듯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어 거듭나서 새 사람, 새 생활을 보낸다면 이 사회가 더 명랑해지고 살기 좋은 사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선교하는 것입니다. 숯불은 불이 붙어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처럼 교회는 전도할 때, 선교할 때만이 교회 존립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천당 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전도, 선교하는 교회, 초대 교회처럼 사람마다 전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배우고, 실천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금년에는 국내, 국외 선교 또 제3국 선교를 하여야겠읍니다. 국내 선교는 홈 미션(Home Mission)이라고 하지요. 본 교회 목사님 다섯 분이 다섯 구역으로 나누어서, 오 목사님께서는 남쪽, 박 목사님은 동쪽, 이 목사님은 북쪽, 허 목사님은 서쪽, 저는 중앙을 각각 맡아서 일일 목회를 할 것입니다. 심방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어느 신도들은, "목사님 저희 집에 오세요"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사니 보여주기 위해서, 또 다른 신도는, "목사님 이 다음에 오세요" 합니다. 왜냐하면, 자, 연속극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럴 때는 목사도 가지 않습니다. 하여간 금년에는 여러분이 언제든지 오라고 하면` 다섯 목사들이 미국에서 하는 말로 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전화도 해 주시고 개인 전도도 하고, 클럽 전도도 해야 합니다. 클럽 전도는 훈련을 시킨 후, 식당을 열어 놓고 식사를 하고, 주일 오후에도 심방하며, 전도하고, 주중 저녁에도 훈련하며 기도한 후 전도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국내 전도입니다.

다음, 모국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되는 첫날부터 들어온 헌금 모두로 몇달 동안 한국 교회를 도왔던 사실을 시작해서 7년 동안 조금씩 한국의 농·어촌 교회 43개를 돕고 자전거와 송아지를 사보내고 했읍니다.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물론 다소 선교 정책이 바뀔 수는 있지만 외지 선교를 하는 것은 끊지 아니할 것입니

다. 이제 금년도에는 제가 9, 10월 두달 동안 선교사로 한국을 방문하여 모국 선교하려고 기도 중에 있으니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미국에 와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는 여유가 있는 나라가 아닙니까? 조금만 절약해서 모국을 돕고 영혼을 건진다면 진정 이곳에서 어떠한 노동과 사업을 하여도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제3국 선교라는 것은 외국 선교를 말합니다.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남미, 인도, 아프리카로 선교 자금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인연을 맺었다가 이 다음에 휴가가실 때 우리가 선교비 보내는 곳에 가서

함께 예배를 본다면 인도에서, 아프리카에서, 또 남미에서 그 얼마나 보람된 일입니까? 오늘 미국이 잘산다는 것은 독일, 불란서, 영국 사람들은 타국을 착취하는 나라이지만 미국은 도와주는 나라로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했읍니다. 우리 동양 선교 교회는 결단코 자화 자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만한 마음에서도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몇 가지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군들을 많이 보내주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입은 교회입니다. 이 시대에 큰 사명을 지닌 교회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1978년도는 교회, 온 성도들이 겸손한 마음을 갖고 배우는 78년도, 한 사람이 금년 말까지 한 사람씩 인도해서 학습을 받게 하는 전도하는 일년, 한 가정이 인도, 아프리카, 남미 혹은 한국의 약한 교회 한 교회씩 부담하고 선교하는 78년도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미국생활에 가장 의미를 느끼고 가장 슬기롭고 가장 복된 78년도가 되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라
(부활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 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러라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 손으로 높이 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도행전 5장 17절－32절)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 설립의 기초가 되었읍니다. 제자들의 능력의 원천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의 핵심이 되었읍니다. 부

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땅위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허락한 성령을 기다리라. 몇날이 못되서 불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이 권능을 얻고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읍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명령을 충실히 지켜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인 원수가 들끓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다락방에 들어가서 열흘 동안 합심해서 금식기도 하다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읍니다. 그 때에 두 가지 사실이 나타났읍니다. 첫째로는 완전한 인격적 변화가 그들에게 나타났읍니다. 다음으로는 그렇게 비겁하던 제자들이 능력을 얻어서 담대히 나아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읍니다.

우리가 부활 주일을 두 주일 전에 지냈읍니다. 모든 행사는 행사로만 그친다면 무의미합니다. 행사의 내용, 행사에 흐르는 생명을 오늘 미국 이민 생활에, 우리 현실에 어떻게 조화를 시키느냐, 여기에 행사의 의미가 있읍니다. 우리가 부활 주일을, "예수 다시 사셨네, 무덤에서 일어 나셨네"하며 찬송만 부르고 그 외의 여러 가지 행사로만 그친다면 이것은 시간의 낭비요, 정력의 낭비요, 물질의 낭비 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부활의 증인된 이들과 같이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이 될 때에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왔다가는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증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으며, 또 어떻게 증거했는가 생각해 보겠읍니다.

이 부활의 증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첫째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났던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었읍니다. 정통교리를 자랑하는 바리새인들도 아니고, 지식이 있다고 말하는 사두개 교인도 아니었읍니다. 성경 학자라고 말하는 서기관들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며, 권력있는 사람도 아니었읍니다. 아주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 어부나, 농부나, 목수나, 노동자들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또한 무명의 여인들이었읍니다. 미련한 서민층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마태는 세리입니다. 도마는 목수입니다. 또 500 문도가 만났다는 그 가운데는 보통 서민들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서민들로부터 시작해서 서민들을 통해서 서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오늘 이천 년 기독교의 찬란한 금자탑을 쌓아 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목수입니다. 노동자입니다. 열두 제자들이 다 서민들입니다. 이 기독교의 출발은 서민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말구유간에서 태어나고, 피난 가고, 목수였고, 헐벗고, 굶주리고, 죽었고, 남의 무덤에 묻히었으니 기독교는 서민의 종교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두번째 **이들은 확실히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읍니다.** 자리를 같이 하고 대화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어 먹은 부활의 목격의 증인들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들은 유언비어를 듣고 말하는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들은 자격이 없읍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이, 똑똑히 본 사람이 확실히 아는 사람이 곧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본 교회 당회와 제직,성도들이 저를 이번에 동남 아시아에 보내 주셨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 그런 나라를 방문하지 않았을 때 제 나름대로 책을 보고 어떤 때 영화, 뉴스를 보고, 그러리라 생각했는데 직접 가 보고 나서 과연 백문이 불여일견(百聞而不如一見)이라고 백번 들은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읍니다. 시드니의 음악당이 어떻고, 뉴질랜드가 어떤 나라고, 자카르타가, 방글라데쉬의 데카가, 인도의 델리가, 대만이 어떻고, 직접 보고 나서야 다녀온 곳은 이제는 제가 자신있게 얘기 할 수가 있읍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했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말했읍니다. 사도행전 22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을 했읍니다. 이 제자들이나 초대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친히 목격한 산 증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

우리 기독교는 체험적인 종교입니다. 관념만 가지고는, 추측만 가지고는, 알지 못합니다. 체험을 해야 신앙 고백을 바로 할수 있고 체험있는 사람의 신앙고백이라야 남의 마음을 감동하고 움직일 수가 있읍니다.

디로 가든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체험적인 종교입니다. 관념만 가지고는, 추측만 가지고는, 알지 못합니다. 체험을 해야 신앙 고백을 바로 할 수 있고 체험있는 사람의 신앙고백이라야 남의 마음을 감동하고 움직일 수가 있읍니다.

세번째 **이들은 결단있는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들이 고기 잡으러도 가고 흩어지기도 하고 고향으로도 내려가기도 하는, 전부가 다 흔들리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등지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재헌신을 하는 결단을 하였읍니다. 베드로도 그물을 버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제는 능력을 얻었읍니다. 구약에 보면 엘리사란 사람은 엘리야를 따를 때 소를 잡아서 동네 사람 대접하고 쟁기를 불로 사르고, 그 선생을 따랐다고 했는데 이것은 미련없이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완전히 재결단과 재헌신을 했읍니다. 사람이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새로운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모험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이것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면 하기가 힘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대로 바울과 같은 사람도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완전히 180 도 방향 전환을 했읍니다.

이번에 제가 휴스톤에 가서 이 상훈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분은 서울 대학과 대학원을 나왔읍니다. 머리가 좋아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대로 조교로 일하다가 교수로 16년 동안 서울 대학교 교수로 있는 중에 부활의 체험을 했읍니다. 이 다음에 그 좋은 길을,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 하는 그 길을 끊어 버리고 지금 목사가 되어서 조그만 교회를 섬기는 것을 봤읍니다. 하와이에 계

신 김 정구 목사님은 과거에 건국 대학교의 교수로 계시던 분인데 모든 사람들이 이 직책을 버리지 말라고 했지만 부활의 신앙을 체험한 다음에 그 좋은 교수의 직을 버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조그만 교회를 받들고 있읍니다. 이 부활의 체험을 한 사람들에게는 결단이 한 번은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은 부활의 체험을 어떻게 증거했읍니까?

이들은 부활의 체험을 어떻게 증거했는가?

첫째, 말로써 증인이 되었읍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로라" 고 했읍니다. 베드로가 입으로 증거했읍니다. 또 사도행전 25장 19절에 보면, "예수라 하는 이의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할 뿐이라"고 했읍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담대히 증거했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자랑하게 됩니다. 고마운 사람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광고를 하게 됩니다. 내가 그 분에게 많은 사랑의 빚을 졌으면 그 분은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녀들을 기르는 가운데 자녀가 머리가 좋아서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잘하면, 부모님들이 저에게 와서 우리 애가 이번에 반에서 1등을 했읍니다, 전교에서 1등을 했읍니다,특기 부문에서 상을 탔읍니다, 장학금을 탔읍니다, 하며 만날 때마다 자기 집의 자녀들을 그렇게 자랑하고 광고합니다. 이것은 조금도 잘못될 것이 없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귀하신 분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나를 살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바로 알 때 우리는 입을 가지고 하루종일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읍니다. 사도 바울은 희랍의 철학과 문학과 예술, 로마의 정치와 법률과 경제와 군사, 이스라엘 나라의 율법과 동양의 종교를 다 배운 사람이지만 그의 자랑은 십자가 뿐이라고 했읍니다. 구속의 은총에 감격해서 자기 입으로는 다른 말할 여유도 없이 십자가만 자랑한 바울을 생각

할 때에 부활의 신앙의 체험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입을 가지고 가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입을 가지고 다른 것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입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도 해야 하고, 찬송도 해야 하지만,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좋아하든지 안하든지 귀를 열든지 막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째로 부활의 증인들이 해야 하는 명령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말하기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도 없이 어찌 들으리요"라고 했읍니다.

저도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골에서 국민학교 다닐 때 저하고 한 반에 있던 예배당 다니는 한 여자가 예수를 자꾸 말해 주었고, 그 다음에 우리 형님과 형수님이 예수를 말해 주었읍니다. 그래도 믿지 않았어요. 제가 한번 평양에 갔다 나오는데 그 기차간 안에서 젊은 청년이 나에게 예수를 말했던 것조차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공산당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내일 아침이면 죽는다는 그 전날 밤, 생의 애착과 미련을 가지고 고요히 생각할 때에 그런 말이 내 마음에 떠올랐읍니다. 예수라는 분은 원수도 사랑하는구나, 예수님은 다른 사람때문에 대신 자기가 죽은 사람이로구나, 그런데 오늘 정치하는 사람들은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그러는가,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마귀요, 선을 선으로 갚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요,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 같이 나는 죽음을 앞에 놓고 생의 애착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었읍니다. 교회도 잘 다니지 않던 제가 무릎 꿇고, 생후 처음으로 무릎 꿇고 겸손히, 간절히 기도드렸읍니다.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날 살려 주십시요. 그러면 내가 우리 형님과 같이 공부하여 영국의 웨슬레 형제가 영국의 부패를 건진 것 같이 우리 조국을 건지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읍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죽지 않는다, 안심하라, 나의 일군이 될 것이다"라는 음성을 들려 주

었읍니다. 그 후부터 마음의 평안을 얻었고 기적적으로 그 이북 땅에서 살아나서 남한에 와 신학을 공부하여 목사가 되었읍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의 체험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입을 가지고 열심히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우리의 의와 영원한 생명을 위해 다시 살았다고 전파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는 짖어야 한다고 했읍니다. 짖지 못하는 개는 무용지물입니다. 우리 성도를 좀 과하게 표현한 것 같지만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은 짖지 않는 개와 같다고 성경에 표현했읍니다. 이 입이 있는 이상 기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이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마음 속에서 싹이 돋아서 결실할 줄 믿습니다.

둘째, 이들은 생활로 증거했읍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 다음에는 완전히 인격의 변화와 아울러 생활의 변화를 가져왔읍니다. 생활의 변화는 목적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의 생의 목적은 땅에 있었읍니다. 자기에게 있었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본 다음에는 **생의 목적이 그리스도로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영원을 향해서 목적이 바뀌어졌읍니다. 우리가 이 목적을 바꾸어 놓으면 주인도 바뀌어지고 그 모든 중심도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 나오는 많은 분들 가운데 교회는 나오면서도, 예수는 믿으면서도, 생의 목적이 아직 변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읍니다. 옛날에 돈 사랑하던 것, 사치하던 것, 먹고 마시던 것, 세상의 허영 좋아하던 것, 그걸 그대로 가지고 나오면서 거기다가 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달라고 하는 목적은 변치 아니하고, 그저 무당집에 다니다가, 절간에 다니다가, 우상 섬기다가 그대로 와서 여기다가 복좀 더 붙여 달라고 하는 이 목적이 여전하면서, 방법만 달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기독교의 회개라는 것은 180도 방향 전환입니다. 이 집이 낡은 집이었으면 이것은 완전히 부

쉬버리고, 새 집을 지어야 참된 신앙이지, 옛날 낡은 집에다가, 불교적인, 유교적인, 무당적인 집에다가, 기독교를 조금 덧붙이는 것, 그것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완전히 목적이 변해야 합니다.

제가 젊어서 목사 때에 동래 온천에서 목회를 할 때입니다. 제 친구 목사 하나가 충청도 부여에서 연못 가운데 좋은 건물 하나를 예배당으로 사가지고서 거기서 예배를 보는데 전도하라고 그래서 전도하러 갔읍니다. 첫날 저녁에 보니 뒤에 명주 저고리, 치마, 목도리, 두루마기를 입고 얼굴이 아주 잘 생긴 여자 하나가 거기 와서 앉아 있었읍니다. 얼른 보니 서울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 분이 설교를 듣는데 어떻게 듣느냐 하면 도사리고 목을 갸우뚱하고 앉아서는 듣습니다. 이틀 날은 꼿꼿이 하고 듣습니다. 사흘째는 손을 놓고 듣습니다. 나흘째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들고 듣습니다. 다섯째 날 저녁에는 철야 기도했읍니다. 성령이 역사하니 밤에 모두 가슴을 찢고 머리카락을 뜯고 마루 바닥을 때리면서 죄를 회개하고 데굴데굴 구르는데 새벽녘이 조금 못되어 이 여자가 나갑니다. 그러더니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더니 낮 11시 예배에 목침을 하나 싸들고 왔읍니다.

"이것이 뭡니까?"

"제가 이번에 고향에 내려왔다가 심심해서 교회에서 무슨 집회가 있어서 왔었는데 들어 보니 전부가 나보고 하는 말이었읍니다. 제가 어제 밤에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제 나름대로 회개하고 새벽녘에 어딜 갔느냐 하면 아버지 산소에 가서, 시골 깜깜한 산에 가서, 잔디를 뜯으면서 아버지는 지금 영혼이 어디에 가 계십니까? 예수 믿지 않고 돌아 가셨으니 영혼이 어디 계십니까 하고 울부짖었어요."

"그런데 이 뭉치는 무엇이지요?"

"예, 제가 서울에서 화장품 사고 옷 사입고, 놀러 다니고, 춤 추고, 이렇게 하려고 돈 모아 두었던 건데, 어젯밤 그런 짓 다시 안 하기로 결심했고 예수만 믿기로 결심했읍니다. 이 돈으로 이 교회에 종각이 없다고 하니 기념으로 종각 하나 해 주십시요."

이 여자는 목적이 변했읍니다. 그 여자는 한국의 상당한 문벌있

는 집안 딸이었읍니다. 그 언니의 남편은 대사요, 장관이고, 동생의 남편은 국회 의원인데 그 여자는 모든 세상것 끊고 지금은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가 되었읍니다. 예수의 부활을 만나 본 사람은 목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울역에 가서 목포를 가려고 하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목포로 가는 기차를 똑바로 올라 타야지 바쁘고, 짐이 많고, 피곤하고, 더 가기 귀찮다고 기차머리가 남쪽으로만 향했다고 아무거나 올라 타면 인천도 갈 수 있읍니다. 부산도, 춘천도, 경주로도 갈 수 있읍니다. 아무리 바쁘지만 똑바로 기차를 올라 타야만 자기의 목적지에 가는 것 같이 천하의 다른 이름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예수를 붙들어야만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들의 **가치가 변화되었읍니다.** 그들은 예수님 부활 전까지 땅에 대한, 물질에 대한, 명예 권력에 대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일을 가지고 가치 기준으로 삼았읍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유대 나라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서 독립시킨다면 유대나라 왕이 된다면, 장관이나 한자리를 할까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높으냐의 문제로 싸움했다는 것을 성경에서도 보게 됩니다.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가치 기준을 이 땅의 물질에다가, 명예에다가, 세상에다가, 보는 것에다가 두었읍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부터는 그 가치 기준을 영원한 것에 두었읍니다. 하나님께 향한 것에 두었읍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에 두었읍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두었읍니다. 그 가치가 달라졌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가치를 볼 때에 아주 잘 생기고 옷 잘 입고 큰 집, 좋은 차 탄 사람, 그 사람이 가치 있다고 봅니까? 그것은 외형적인 가치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목수입니다. 노동자입니다. 돈도, 옷도, 집도, 땅도없는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집도 없는 사람입니다. 인도의 간디도 가난하고 얼굴도 못생겼다고 했읍니다. 또 미국의 마르틴 루터 킹도 물질적인 것은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가치는 외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큰 집을 볼 때에 집이 귀합니까? 집 속에 있는

사람이 귀합니까? 인간의 정신, 사상, 인격, 신앙, 생활, 이것이 인간을 보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만 바로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조금 받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은혜 받은 줄 아냐 하면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출세좀 해서 좋은 집, 좋은 살림살이 해 놓고 이름도 떨쳐 보고 살아 보겠다는 그런 꿈을 가진 사람인데 예수 믿고 나서 그런 것은 지금 하나도 꿈에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가지만 생각합니다. 나도 베드로나 바울과 같이 성령 충만히 받아서 남은 여생 얼마나 살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사람답게 깨끗이 살다가 갔으면 하는 이 한 가지 욕망 밖에 없는 것 보니 나도 은혜를 조금 받아 가치 기준이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돈이 별로 없어도 마음이 편해요. 전부가 우리 아버지 것이니 그래서 비행기를 타도 나는 그 비행기 삯을 줄 때 나는 이것 비행기 삯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비행기, 내 비행기를 가지고 이렇게 애쓰니까 수고 값으로 주는거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릅니다.

또 **이들의 의식구조가 변화되었읍니다.** 사람이 변화되게 될 때 그 생각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동도 생활도 변화됩니다. 이 제자들의 의식구조는 습관이 변화되고 생활이 변화되고 마지막 운명이 변화되었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은 까닭에 좋지 못한 것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오락장 가지도 않죠. 이것 습관이 변화된 것입니다. 생활이 달라졌읍니다. 어디 가든지 들어 가면 묵도하고 음식먹을 때 기도하고 잘 때 기도하고, 이렇게 생활이 달라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미쳤다고 했고 사도행전에 보면 베스도라는 총독이 바울에게 미쳤다고 했읍니다. 예수에게 미쳤으니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경찰서에 신사참배 하지 안한다고 붙잡혀 가서 고문당하는데 일본 형사가 탁 때리면 "주여", 또 발길로 툭 차면 "주여", 또 때리면 "주여" 했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고 형

사가 물으니까 내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에서부터 발뒤꿈치까지 꽉 찼기 때문에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가 터져 나와, "주여 한다" 하더랍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생의 목적이 변경되고 가치 기준이 달라지고 우리의 의식구조가 달라졌으면 급할 때, "주여"라고 할 뿐일 것입니다. 이건 신앙있는 사람이고, 반면에 그저 믿는다고 하면서도 급하면, "아이구 어머니"하면 이것은 아직도 조금 멀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꿈을 꾸어도 예수 꿈을 꾸고 교회 꿈을 꾸는 사람이라야 크리스챤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딸 하나 두었습니다. 그래서 잘 길렀습니다. 투자 많이 했습니다. 정성껏 사랑으로 길렀습니다. 출가를 보내놓고 일년 만에 친정에 왔는데 딸이 그렇게 의식구조가 바뀌어질 줄은 몰랐답니다. 모든 생각하는 것이 친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 오빠, 동생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가 다 시집만 생각합니다. 엄마가 주면 조금 더 달라 그러고 주지 않는 것도 가져 가려고 하는데 그 어머니는 자기도 과거에 그랬으니까 이해가 가지만 아버지는 이거 처음 보는 거니까 딸 낳으면 섭섭하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가정에 시집을 가 거기에 소속이 되면 완전히 의식구조가 바뀌어 집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정말 교회에 그리스도 품에 깊숙히 들어 왔다면 그리스도에 소속이 됐다면 그리스도의 생각만 가지고 꿈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꾸고 그리스도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세번째 피로 증거했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원문에 보면 순교자라는 말과 의미가 거의 같습니다. 순교할 만한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라야 증인 노릇할 수 있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을 때리고 가방 뺏고, 소리치니까 총을 쏘아서 병원에 들어 가든가 또는 세상을 떠났다고 할 때 다른 한국 사람이 이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분명히 현장을 봤기 때문에 재판소에서 증인으로 나오라고 했는데 나가지 않습니다. 증인으로 나갔다가 보복을 당할까봐 싫어합니다. 죽

을 각오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여기 나오신 어른들, 살려고 예수 믿으러 나왔는 데 죽으라고 그러면 죽을 각오 됐읍니까? "죽으면 살리라" 이것이 역설의 진리입니다. 밀알이 떨어져 썩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박혀 피흘려 순교했읍니다. 안드레는 알미니아에서 톱으로 켜서 피흘려 순교했읍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성문 바깥에서 칼에 목이 잘려 순교했읍니다. 빌립은 부르기아에서 나무에 때려 맞아 순교했읍니다. 바돌로매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했읍니다.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칼에 목이 잘려 순교했읍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높은 성벽에서 떨어뜨려서 몸이 찢어져 순교했읍니다. 다대오도 돌에 맞아서 순교했읍니다. 시므온은 파사에서 톱에 켜서 순교했읍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목잘려 피흘려 순교했읍니다. 우리 한국에 1866년 영국의 젊은 토마스 목사가 복음을 가지고 대동강을 올라 오다가 순교했읍니다. 오늘 복음이 여기 우리들 손에 들어오기 까지는 편안히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도와 많은 성도들의 순교가 있었읍니다. 피의 문화를 통해서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태국에 가니 기독교 역사가 170년이 가깝게 된다는 데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은 기독교 100년 역사지만 왜 그렇게 급성장하는 것입니까? 순교자의 피는 교회 발전의 거름이라고 했는데 태국에는 순교한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순교자가 수십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는 것 같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당돌한 제의를 합니다. 동양 선교 교회 성도들이여, 값 없이 무두셀라와 같이 오래 살다가 개죽음 하지말고 스데반이나 세례 요한과 같이 짧게 살아도 죄와 더불어 타협하지 않고, 이단과 더불어 피흘려 싸우다가 주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는 인류의 가장 위험한 시기에 봉착해 살고 있읍니다. 인구는 증가됩니다. 사람은 점점 많아지고 또

이 인류의 운명이 화약고에 올라 앉았는데 무엇으로써 인류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이를 극복할수 있겠읍니까? 정치의 힘이나 과학의 힘, 물질의 힘을 가지고 안됩니다. 오직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 대신에 내가 죽는 그리스도의 정신만이 오늘 인류를 구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줄 믿습니다.

죽는 율이 적어져서 인구는 자연 증가됩니다. 인구는 지금 수 없이 늘어나고 식량은 모자라고 과학은 발달되고 핵무기가 터지면 지구가 잿가루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날 정치와 사상은 극렬로 대립되고 도덕은 부패하고 영계는 속화되어 이 인류의 운명이 화약고에 올라 앉았는데 무엇으로써 인류에게 희망을 보여 줄 수 있고 이를 극복할 수 있겠읍니까? 정치의 힘이나 과학의 힘, 물질의 힘을 가지고는 안됩니다. 오직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 대신에 내가 죽어 주는 그리스도의 정신만이 오늘 인류를 구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절 행사를 지내고 나서 우리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고난 받은 것 같이 우리도 그들의 고난에 동참을 해야 합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온 선교사의 말을 들으면 선교사도 하루 한 때 먹는다고 합니다. 대만에서 온 젊은 목사의 말을 들으면, 선교비를 보낸다는 한국 교회에서 보내지 않기 때문에, 현지 선교사는 어떤 날은 빵 하나 먹고 참으로 굶어가며 선교한다는 말을 들을 때 저는 제 마음에 다시 결심한 것이 있읍니다. 우리가 부한 나라에 와서 얼마든지 먹고 싶은 것 먹을 수 있다고 다 먹지 마시고 이런 고난 속에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먹는 것을 아껴서라도 그것을 구제의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성도라야 이것이 부활을 체험한 성도가 아닐까요? 또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내것, 네것 없이 물건 갖다가 필요에 따라서 없는 사람, 과부, 나그네와 병든 사람 도와 주었읍니다. 이게 참 성도입니다. 이것이 참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의 생활이었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고마운 것은 이번에 휴스톤에 가 거기에서 그 중공 갔다 온 슬라이드를 보여 주었더니 어떤 젊으신 여 신자 한 분이 와서, "난 그 슬라이드를 보고 마음 가운데 큰 충격을 받고 그에 큰 은혜를 받았읍니다. 저렇게 어렵게 사는줄 나는 몰랐읍니다. 나는 미국에 와서 너무나 흥청대고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배부르고 너무나 잘 먹었읍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줄여서 중공 선교하겠읍니다. 우선 라디오 하나 제가 바치겠읍니다"하는 것이었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체험적 신앙을 가지셨거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과 동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고 정말 같이 먹고 사는 사랑의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 이 목숨이 붙어 있고 목이 쉬지 않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성도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영혼을 구원하고 세계 평화의 한 모퉁이를 담당하는 자랑스러운 동양 선교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적 가정이란?
(가정의달)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 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손으로 솜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 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되며 그는 베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고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사례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잠언 31장 10절 – 31절)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이상적 가정'이라는 제독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전세계 가정들이 많은 흔들림을 받고 있고, 날이 갈수록 어느 나라나 이혼율이 나날이 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 이민 교포들의 실태만 보더라도, 나성 영사관에서 집계한 것을 보면 81년도에 315가정이 이혼을 했읍니다. 82년도에는 6개월 밖에 안됐는데도 311가정이 이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년을 채우면 600 가정 이상이 이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작년도의 통계

는 아직 나오지 아니했읍니다만, 작년에도 6-700 가정이 이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읍니다. 미국에 와서 파괴되는 가정들이 나날이 많아진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참으로 마음아프기 짝이 없읍니다. 이민의 그 햇수로 보면 3년 이내가 60%이고, 30살부터 40살 사이가 20%를 차지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혼한 사람들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제일 많은 원인이 성격차이, 둘째가 능력의 부족, 세째가 경제적인 결핍, 네째가 환경의 부조화, 다섯째가 남녀의 부정, 여섯째가 욕망의 거부, 일곱째는 권태와 착각, 여덟째는 주위의 인간관계, 아홉째가 상호간의 갈등이라고 말을 했읍니다. 이거 하나하나 그 살을 붙여서 설명하자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다 말을 하지 못합니다 만은 특별히 주위의 인간관계를 좋은 사람과 맺고 있는 사람은 이혼율이 적다는 것에 유의하게 됩니다. 신앙적인 사람, 인격적인 사람, 좋은 사람을 친구로 삼으면, 부부의 불화가 있을 때, 그들이 긍정적으로, 건설적으로,창조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대화를 나누어 깨어지지 않도록 권면하고 이끌고 도와주는데, 좋지 못한 친구를 만나면 깨어지지 않을 가정까지 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현대 가정의 이런 모든 비극은 몇 가지 과오에서 오는 것입니다. 첫째는 결혼을 단순한 계약관계로만 알고, 결혼 신고서에 싸인만 하면 다 된 것으로 생각하는 과오입니다.

두번째는, 결혼이란 것을 사사로운 사건인 줄만 생각하는 과오입니다. 내가 하는 문제니까, 내가 이혼하는데 누가 상관있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혼이란 것은 개인 문제이면서도 가문의 문제요, 하나님께 관계되는 문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결혼에 있어서 자기 극복이나, 자기 생활은 꼭 필요합니다. 자기의 감정을 죽이고, 자기를 희생할 때 결혼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읍니다. 이럴 때 긍정적인 때가 있읍니다. 그것은 이혼이 좋아서가 아니라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속아 결혼했다든지, 너무너무 성격이 좋지 못했다든지, 사람을 때리고 사람을 병들게 하고, 사람을 죽이는 경지까지 몰고 갔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나가서 여기저기 많은 여자를 두고, 좋지 못한 생활을 하는 그런 때 부득이 헤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죄라고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도 없지 않아 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혼은 인기를 끄는 행사가 아닙니다. 부러워할 만한 것도 아닙니다. 한 번의 이혼은 두번 세번 네번의 이혼의 가능성을 말하여 주기 때문입니다. 무지한 어린이들에게 비극을 안겨다 주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가장 신선한 사건인 결혼에 실패한 기록을 후대들에게 남겨주는 비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혼하지 않는 것이 성서적이고 바람직한 일인 것입니다.

체스텃트는 말하길 "나는 행복한 가정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꼭 맞는 사람들은 아니었다"고 말했읍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그들이 배운 것이 다릅니다. 그들의 자라난 환경이 다릅니다. 경험이 다릅니다. 사고가 다릅니다.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통일을 가지는 것이 결혼이 아니겠읍니까?

가정이라는 것은 어린이들의 요람입니다. 가정은 사회 질서의 근본 기능이요, 식구의 안식처요, 인격도야의 공장이요, 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만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할 수 없읍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가정도 교회로 알고, 성전으로 알 때, 가정에서 어떻게 싸울 수가 있고, 가정에서 어떻게 헤어질 수가 있겠읍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 이상적인 가정을 동경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것이 이상적 가정이겠읍니까?

일하는 가정

첫째로 일하는 가정입니다. 일하는 가정이 이상적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잠언 31장 13절에 보면,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라고 그랬읍니다. 이것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리고 밤 늦게까지 집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일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식주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심리를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도덕 생활을 위해

서 일해야 합니다. 신앙 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붓대만 가지고 놀리는 도회지 사람이 건강합니까? 저 거리에서 막노동하는 사람, 시골에서 노동하는 사람들, 땀흘리는 사람이 건강합니까? 노동하는 사람, 일 많이 하는 사람이 더욱 건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한다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입니다. 또한 심리상으로도 유익한 것입니다. 사람이 일감이 없을 때 그보다 더 답답한 것은 없읍니다.

첫째 일이 있으면 기쁨이 있읍니다. 삶의 보람을 느낍니다. 일하면 댓가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먹을 게 있읍니다. 일하지 아니하면 돈이 없고, 배가 고프면 심리적으로 쓸데 없는 비굴한 생각도 자꾸 하게 됩니다. 내가 능력이 없는가, 못생겼는가, 나는 사회의 낙오자인가?"라고 하며 원망도 합니다. "왜 누가 날 돌보지 않나? 왜 나에게 좀 앞길을 열어 주고 일감도 주지 않는가?" 합니다. 쓸데 없는 아주 비굴한 생각도 듭니다. 길을 가다가도 누가 혹시나 돈지갑 떨어뜨린 게 없을까 하고 두리번 거립니다.

둘째로 일하는 것은 도덕상으로도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짓습니까? 시간이 있고 돈이 있지만 일 없는 사람이 죄짓습니다. 미국도 요새 부자들과 좋은 전문직 가진 유한 마담들이 죄를 많이 짓고 있다고 합니다. 남편이 일하러 나가면 낮에 좋지 못한 장소에가서 죄를 짓니다. 우리 한국도, 월남에 가서, 중동에 가서, 애쓰고 돈 보냈는데 집에서는 돈과 시간이 있으니까, 죄 많이 짓고 가정 파괴 하는 일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서양 속담에, "평안 하는 것이 마귀공장"이라고 했읍니다. 죽을래야 죽을 시간이 없어 바쁘게 일하면, 죄 지을 시간이 없어집니다. 다윗이 목동생활에 큰 들판에서 잠을 잘 때나 양을 칠 때나, 군인생활에, 그 풍찬 노숙, 그 화살과, 그 말할 수 없이 피 비린내 나는 전쟁을 할 때에는 죄짓지 않았지만, 성공하여 임금이 된 후에는 밤새도록 파티를 열고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죄를 지었다는 것은 일을 하면 도덕상으로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다

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요즘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핫독 가게에서, 그로서리 마켓에서 일하는데 몇몇 아이들은 일하지 아니하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털어먹곤 합니다. 일하지 아니하면 도덕상으로도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째로 일을 하면 신앙적으로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읍니다. 도덕상에 있어서나 신앙 생활이나 유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여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는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이 있읍니다. 정복하기 위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라 했읍니다. 농사하라, 땀흘려 일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때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이 풍성했었읍니다. 일하지 안해도 먹을 게 있었지만 땀흘려 노동하고, 일하고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읍니다. 창세기 3장 19절엔 타락한 이후,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13절에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게 명한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라 했읍니다. 그 하루는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 하루는 주님의 날입니다. 엿새 동안은 부지런히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사업을 하고, 또 육체적으로도 휴식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성전에 오신 것입니다. 시편 128편2절에 보면, "네가 네 손이 수고한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읍니다. 요한복음 5장17절에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친히 목수 노릇을 하면서 집을 짓고, 쟁기를 깎아 맞추는 노동을 하셨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는 바울사도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라고 말했읍니다. 잠언 10장4절에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고 했읍니다.

동양 성현 말씀에도 "소부는 부지런함에 있고, 대부는 하늘에서 난 것이라" 그랬읍니다. 큰 부자야 하늘에서 만드는 것이지만 작은 부자는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면 일한 대로 댓가를 받는 곳이 미국 사회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 전체가 우리 인간들은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그 댓가를 받고 살아야 한다고,즉 일하고 노동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동양 사상에는 "농, 공, 상"을 아주 천시했읍니다. 농사짓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공업하는 사람은 아주 천대꾸러기, 나쁘게 말하면, 쌍 사람인 줄 알았읍니다. 그리고 일하지 않고, 그저 풍월이나 읽고, 시조나 읊고, 활이나 쏘고 기생들하고 술이나 먹고,노래나 하는 이런 문인은 아주 훌륭하다고 해서 선비라고 했읍니다. 그래서 노동은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것이고, 팔자가 사나운 것이고, 반면에 놀고 평안히 먹는 사람이 아주 팔자 좋은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알았읍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효하는 것은, 부모님께 일시키지 아니하고 평안하게 해드리는 것, 그게 효인줄 알았고, 훌륭한 남편이란 그저 자기가 벌어다가 집에 식모도 두고, 유모도 두고, 침모도 두고, 많은 남녀 종들을 두고, 그저 여자는 물 한 방울 묻히지 아니하게 하고 자기의 노리개 감으로만 알고, 자기 하나만 사랑하면, 훌륭한 남편이요, 그 여자는 행복한 여자인 줄 알았읍니다.

이 결과가 우리 한국에 지금 무엇을 가져다 준줄 압니까? 그만치 뒤떨어진 민족을 만들고 말았읍니다. 경제적으로도 뒤떨어졌고, 문화적으로도 뒤떨어졌읍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에 가니 어떤 기자가 절 보고 "오래간만에 한국 나오셨는데, 한국이 많이 발전한 것에 대하여 목사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라고 물었읍니다. 그래서 "도로들을 보니 오솔길 엿가락 늘여 놓은것 같고 집들은 모두 작고 튼튼하지 못하여 모두가 다 옹색하고 답답합니다"라고 그랬더니,좀 못마땅히 여기는 것 같았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 나라를 사랑하는 까닭에 이것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좀더 꿈을 가지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라고 덧붙였읍니다. 사실 한국이 지금 발전했다지만, 선진 국가에 비하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남자들하고 악수해서, 그 손이 막 장작개비 같을 때는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이 사람은 땀을 많이 흘리고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우러러 쳐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이 미국을 따라가려면 아마 적어도 30년은 걸려야 돼요. 그러나 30년 동안 미국은 잠자고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을 해야 합니다. 저는 남자들하고 악수해서, 그 손이 막 장작개비 같을 때는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이 사람은 땀을 많이 흘리고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우러러 쳐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하세요.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땀 흘리고, 먹고 살라고 하식며,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시고, 바울도 일했읍니다. 땀을 흘리는 곳에 건설이 있읍니다. 온 식구가 각자 맡은 분야에서 일하면, 그 집은 밥상에 둘러 앉을 때 밥맛도 있고, 소화도 잘되고, 잠도 잘오고, 그 가정의 가난은 물러가고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두번째 대화를 나누는 가정

두번째, 이상적 가정이란 대화를 나누는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여인은 남편과 이야기하며, 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종들과도 대화를 나누었읍니다. 룻기 2장과 3장을 보면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만나기만 하면 오순도순, 밤을 새어 얘기하는 아름다운 대화의 장면이 나옵니다.

현대는 대화가 단절된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 심리는 나면서부터 반항적으로 되고, 어디 가나 인정이 메마르고, 기계문명이 인간성을 말살시키고, 인간 목적 의식이 결여되고, 노인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부모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쁘고, 피곤하고, 부모와 자녀간에는 언어의 장벽과, 가치관의 차이 등으로 말미암아 대화가 끊어진 세대입니다. 미국의 사라이 여사는, "가정은 마치 빙산과 같다"고 말했읍니다. 빙산이란 것은 물위로 나온 얼음 덩어리는 작지만 밑으로 더 많은 얼음 덩치를 갖고 있는 것처럼, 오늘의 가

정을 볼 때, 그만하면 괜찮은 가정 같으나 나타나지 아니하는 그 이면 속에서, 큰 문제들을 많이 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영국의 저명한 인권 운동가는 말하기를, "오늘 여성들은 교회와의 바른 관계, 부엌 식탁에서의 바른 관계, 어린이와의 대화가 필요한 세대에 살고 있다"라고 강조했읍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말고 서로 대화하세요. 부엌에서, 식탁에서 가족식구들이 모이는 대로 대화해야 합니다. 음식을 먹으면서도, 좀 얘기를 나누고, 또 어린이와 더불어서도 얘기를 나누어야 하겠읍니다. 사람은 대화하는 동물입니다.

어떤 한국에 중년 부인 하나가 결혼해서, 여러 해 살았지만, 남편이 잘 말을 안하기 때문에 날이 갈수로 마음에 갈등이 생겼읍니다. "왜 남편은 말을 안할까, 나하고 결혼한 것을 후회하나, 과거에 교제하던 여자가 있나, 지금도 뒷구멍으로 거기를 다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어느날 이 남자가 병으로 입원하게 되었읍니다. 아내는 정성껏 간호했읍니다. 그런데 아내가 잠깐 어디 갔다 온다고 하면 그때 남편은, "어디가지 말고 당신 내 옆에 좀 꼭 붙어 있어"라고 하더랍니다. 그 말 한 마디가 과거의 모든 상상을 깨끗이 없앴다면서 행복하다는 고백을 하였읍니다. 그 여자가 "여보, 가지말고 여기 붙어 있어"라는 한 마디에 몇십 년 동안의 숙지가 풀어지고 행복했다면, 말하는게 얼마나 밑천이 들고 에너지가 빠지기에 말 않겠읍니까? 우리는 서로간의 대화를 지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화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 번은 집에서 텔리비젼을 한 번 돌렸더니 영화 하나가 나오는데, 아주 인상깊은 영화이었읍니다. 한 남자가 본 부인과 이혼을 하고 다른 여자하고 삽니다. 본 부인한테서 난 십대의 딸이 뉴욕에 사는데 아버지를 볼려고 로스엔젤레스로 왔읍니다. 여기에 와 보니까 아버지가 다른 여자하고 삽니다. 또 거기서 다른 애도 낳았읍니다. 그런데 이 딸이 매일 같이 술 먹고, 담배피고 마약 피고, 남자와 더불어 문란

한 짓을 합니다. 전화를 여기저기 걸고 남자가 그 여자를 집에 데리고 왔다가 바로 집 앞 자동차 안에서 나쁜 짓을 태연하게 하곤 합니다. 이것을 보는 아버지가 잠을 자지 않으며 붙잡고 이야기 합니다. "야, 이제는 그만 두어야지, 너 그렇게 해 보아야 거기에 참 행복이 있느냐? 넌 아직 젊었으니 공부를 해야지 않느냐? 너 그만한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래도 딸은 듣지 않습니다. 며칠을 매일 밤 눈물로 호소했읍니다. 이 결과로 드디어 딸이 마지막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 하고 끌어 안고 서로 울며, "네, 아버지, 이제 뉴욕으로 가서 다시 공부할께요" 했읍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여비를 주니 돈 받지 않겠다 그래요. 그런데 그 딸이 화장실 들어간 다음에 그 어머니가 가방에 돈을 집어 넣어주는 장면이 인상깊었읍니다. 요새 어떤 한국 이민 가정은, 애들이 마약 피고 그 다음에 남자 친구하고 놀고 자동차 안에서 나쁜 짓 하는 것 봤으면, "나가라! 나가라! 나가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하며 이렇게 호통만 칩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그것이 그 애의 책임 뿐인가, 부모에겐 책임이 없는가? 한번 깊이 생각할 일입니다. 정말 눈물로, 애정으로, 이해로, 관용으로, 용서로, 사랑으로 대화하고 끝까지 참아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온 전문직업을 공부한 사람 하나가 국가 시험을 보다가 떨어졌읍니다. 낙심이 되어 가지고, "난 이제 공부를 포기한다고" 했지요, 하지만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주 "한 번만 더 시험을 보도록 해라" 그저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었읍니다. 그 다음에 시험봐서 합격이 됐읍니다. 대화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화를 할 수 있는 부부, 대화할 수 있는 부모는 훌륭한 부부요, 자격있는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원천으로 삼는 가정

세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원천으로 삼는 가정이 이상적 가정입니다. 잠언 31장 30절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했읍니다.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만 많이하면 무엇합니까? 인물만 잘 생기면 무엇합니까? 기술만 좋으면 무엇합니까? 돈만 많이 벌면 무엇합니까? 내적인 아름다움이 있어야 됩니다. 내적인 충실이 있어야 됩니다. 즉 이 여자는 신앙으로 가득찬,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곱고,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고 그렇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숫군의 경성함이 허사로다"고 말했고,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을 힘의 원천, 생의 원천, 삶의 기초로 삼는 사람의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말입니다. 이 미국에 이혼율이 격증하고 있읍니다. 세 가정에 한 가정이 이혼합니다. 지금은 두 가정에 하나꼴이 되어가고 있읍니다. 그러나 매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나오는 가정은 57세대에 이혼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또 매주일 교회에 나올 뿐만 아니라, 매일 집에서 간단하게 가정 예배 보는 집은 500 세대 중에 이혼한 가정이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깨어지지 아니하기를 바라거든 주일 빠지지 마십시오. 신앙 생활 잘 하십시오. 오늘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방임합니다. 내버려 둡니다. 자유를 줍니다. 시간이 가고 커지면 사람이 되겠지 하지만 그렇게 하다가 세속에 물들면 어떻게 합니까? 함정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독초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그 때는 시간이 늦은 것입니다. 순간적 실수는 일생 동안 회복할 길이 없읍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은 자녀의 잘못보다도 부모들이 정신적인, 신앙적인, 그들에게 가르쳐 줄만한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 생각할 때 부모의 책임이 큰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화가 벤쟈민 웨스트는 어렸을 때에, 어머니 아버지

나는 요람에서부터 성경으로 물들어졌으며, 경험과, 실제적 종교의 환경에 잠겨 있었음을 감사한다. 내가 오랜 세대를 통하여 저축된 헌신과 희생적 사랑과 영적 지혜와 믿음의 위대한 유산 안에서 출생할 수 있있던 것은 특별한 은혜이다.

가 밖으로 나갔읍니다. 자기 동생 셋이 있는데, 보니까 물감통이 여러 개가 있읍니다. 그래서 그 물감을 가지고, 종이에 그림을 그립니다. 동생의 초상화를 그리다가 그 물감을 바꿀 때는 아무데나 확 물감을 뿌리고는 다른 물감으로 바꾸곤 했읍니다. 어머니가 어디 갔다 오니까 방바닥, 벽이 전부 물감 천지입니다. 어머니가 말을 하지 않고 하얀 종이를 갖고 와 거기에다 "왜, 왜, 왜?"라고 써서 벽에다 딱 붙혀 놓았읍니다. 이 벤자민 웨스트의 어머니가 나무라지는 않고 벽에다가, "왜 이렇게 했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그는 어머니에게 가서," "동생의 초상화를 그리다 보니까 엄마, 내가 이렇게 됐어"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끌어안고 볼에다 입을 맞춰주면서 "알았다" 그리고 그걸로 끝이었읍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훌륭한 화가가 되어 고백하기를, "내가 오늘 이렇게 성공한 것은 어머님의 신앙 때문이었다. 어머니의 사랑, 어머님의 격려가 나를 오늘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했읍니다. 신앙적인 어머니, 아버지의 뒷받침이라는 것이 훌륭한 인물을 길러냅니다.

저 유명한 루퍼슨 죤슨은 이렇게 간증했읍니다. "나는 신령한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나를 키워준 내 고향집을 먼저 감사한다. 거룩한 것을 현저히 접촉할 수 있는 가정이었다. 나는 요람에서부터 성경으로 물들어졌으며, 경험과 실제적 종교의 환경에 잠겨 있었음을 감사한다. 내가 오랜 세대를 통하여 저축된 헌신과 희생적 사랑과 영적 지혜와 믿음의 위대한 유산 안에서 출생할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할 은혜이다. 내가 이 세상에 출생하기 이전부터, 나를 위하여 준비해 둔 조상들의 영적 유산에 대하여 무엇으로도 다 감사할 수 없다. 그들은 내가 젊었을 때 영적 분위기를 산출해 주었다. 나는

보이지 않는 광대한 유산을 상속 받았다. 나는 이것을 아무 다른것과 바꿀 수 없다"고 그는 말을 했읍니다.

영적인 유산,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서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자라난 사람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하여 그것을 마지막 때 간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원천으로, 힘의 원천으로 삼는 가정은 이상적 가정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일하는 가정, 대화를 하는 가정, 하나님을 삶의 원천의 힘으로 삼는 가정이 되어서, 보다 더 행복한 가정을 건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회에 유익을 끼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어린이와 예수님
(어린이 주일)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히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마가복음 10장 13절－16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혹은 꽃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그 유래를 보면 1856년 미국 동부 메사츄셋 주 첼 시의 제일 유니버살리티 교회의 레오나드 목사님이 어린이에게 크리스챤의 생활 훈련을 시키고 부모님들에게는 어떻게 어린이를 교육 훈련시킬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해 6월 둘째 주일을 지정하여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 후 뉴욕 부루크린의 리챠드 스토아 목사가 또 6월에 어린이 주일을 정해 강대에 꽃과 리봉을 꼽고 작은 성경에 이름 생년월일 및 유아세례인을 기록하여 목사님의 서명과 함께 어린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읍니다. 그 후 1870년 역시 메사추셋 주 로엘루크 시에서 조합 교회 목사님이 어린이를 위해 '샤론의 장미' 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예배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가 어린이 주일로 발전되어 이제는 5월 첫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었읍니다. 이런 뜻 깊은 날 여러분들과 함께 '어린이와 예수님' 이란 제목으로 본문에 비추어 어린이를 통해 우리가 배울 것과 그들을 어떻게 교육·훈련하며 사랑할 것인가를 배우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상 어린이를 가장 사랑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여러 나라에서, 단체에서, 어린이를 위한 행사를 갖는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어린이를 사랑하셨읍니까?

예수님은 어린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셨읍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고 했읍니다. 즉 예수님은 누구든지 어린 아이를 함부로 취급해 어린 영혼에 상처를 입히면 차라리 깊은 바다에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심으로 어린이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셨읍니다. 자신의 십자가 고난을 보고 우는 여인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의 성취이며, 사명이며 인류 구원의 길이므로 부활과 승천을 예견하시고 나를 위하여 울지 말 것을 말씀하셨읍니다. 도리어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읍니다.

보다 잘살 것을 위해, 자녀 교육을 위해 한국을 떠나 오신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여, 자녀를 위해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장래를 위해 얼마나 염려하면서 계획하고 노력하는 가를 볼 때 아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읍니다. 오늘날 많은 자녀들이 학대를 받고 있읍니다. 미국이 인권을 중시하고 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어린이의 인권 유린이 얼마나 많이 행해지고 있읍니까? 일전에 제가 다이제스트 지를 보니 이혼 당한 가정의 자녀들의 형편에 대한 기사가 있어 살펴 보았읍니다. 의붓 부모를 가진 한 살부터 열여덟 살까지의 아이들이 1천 백만 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숫자의 어린이가 오늘도 거리에서 그늘진 곳에서 울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네 자녀를 위해 울라"하신 말씀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의 한인 교포 사회에서도 이혼 사례가 늘고 있읍니다.

인간에게는 열가지 본능적인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신뢰감, 안전, 사랑, 탐구, 활동, 새 경험, 성취, 자기를 드러내려는 마음, 인정, 소유 등입니다. 이것은 인종에 관계없이 기독교 신앙의 유무에 관계없이 공통되는 본능입니다. 신뢰감, 이것은 불신의 시대에서 남

을 믿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안전, 이것은 우리가 군사적, 사회적 위험 속에 살고 있음을 말해 줍니다. 사랑, 참 사랑이 결핍 되었읍니다. 탐구, 이것은 깊이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활동, 즉 움직이고자 합니다. 새 경험, 우리는 모두 새로운 경험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성취, 이것은 꿈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나타내고자 함,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인정, 인정받고 싶습니다. 부모에게, 사회에서, 교회에서 인정받으려 합니다. 소유욕, 이것은 좀 더 나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것을 말해 줍니다. 자기를 드러내고자 함과 인정 받고자 하는 욕망은 관심을 가져 달라는 자신에게 집약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이에게도 깊은 관심을 가지셨읍니다. 제가 지난 주 미시간 주에 있는 디트로이트의 한 교회에 갔을 때입니다. 3백 명 등록 교인 중 주일 예배에 참석한 장년이 약 2백 명, 주일학교 어린이가 2백 50 명이랍니다. 헌데 등록 교인 3백 명 중 의사, 치과의사, 철학 박사 학위 받은 사람이 모두 합쳐 110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굉장한 인테리들입니다. 허나 그것보다는 교회 대지가 20 에이커랍니다. 또 35만 불 주고 새 교회를 지었으며 약 40만 불 들여 교육관을 지을 계획이랍니다. 또 노인 아파트를 지을 계획도 세우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제가 부러웠던 것은 넓은 대지였으며 새 교육관 건립 계획이었읍니다. 그 중에서도 어린이들을 위해 교육관을 짓는 것은 교회 외에는 누가 할 수 있겠읍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를 누구나 영접하셨읍니다.

본문에 "예수께서 보시고 분히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막 10:14) 고 하셨읍니다. 유대관습상 어린이 한 돐에 랍비에게 축복받기를 원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꾸짖었읍니다. 십자가를 질 비장한 마음에 있는 스승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 생각하였겠지요. 예를 들어 미국에 이민 온 한 부친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제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읍니다. 헌데 그 때 어린아이들이 와서 철 없는 부탁을 하면 그 어머니는 무어라 하시겠읍니까? 역시 꾸짖을 겁니다. 허나 예수님은 분히 여기시며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여 금하지 말라 하였읍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유대나라는 어린이를 많이 차별하였읍니다. 공중 집회의 참석도 허락되지 않았읍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까지는 성령 역사나 일반 역사를 볼 때에 어린이는 멸시 천대 받았읍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 22절에 보면 애굽의 바로왕은 이스라엘의 많은 남자 아이를 학살했고 또 마태복음 2장 16절에는 헤롯왕이 베들레헴의 남자 아이들을 학살했읍니다. 예레미야 19장 5절에는 바알 산당에 자기 아들을 번제로 불살랐으며, 열왕기하 16장 3절 –4절에는 몰록 우상에게 아이를 불살라 죽였읍니다.

열왕기하 6장 29절에는 아람 군대에 포위를 당하여 양식이 바닥난 사마리아 성안에서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 삶아 먹었으며 옛날 스파르타 나라에서는 출생한 어린이가 허약하면 장래 국가에 무용지물이라고 하여 잡아 죽였읍니다. 옛 불교에서도 어린이를 시공물로 드린 적이 있고, 유교에서는 어린이는 말상대가 되지 못한다고 단정을 했고 유대교에서는 12살 이전에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으며 그래서 숫자에도 넣지를 않았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병약한 아이도 더욱 따뜻이 영접하시었읍니다. 부잣집, 권세있는 집의 자식만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라”고 말씀했읍니다. 위대한 지도자는 어린이가 따라야 합니다. 지도자는 어린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장래의 소망이요, 내일의 역사를 짊어질 사람들이기에 어린이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를 누구나 사랑하셨읍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건적인 사랑은 아닙니다. 어린이를 일명 꽃이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꽃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꽃은 아름답습니다. 향기롭습니다.

깨끗합니다. 평화롭습니다. 웃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는 꽃과 같이 깨끗합니다. 어린이의 눈동자는 맑습니다. 권력 · 질투 · 시기 ·이기, 모든 것이 없이 깨끗합니다. 금강산 맑은 물에 세수하던 강도가 그 깨끗함에 반해서 회개하였다는 것처럼 어린이의 눈은 깨끗합니다. 어린이는 아름답습니다. 화장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이 있읍니다. 평화스럽습니다. 웃습니다. 어른들처럼 무뚝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때 묻지 않은 깨끗한, 미소가 넘치는 아름다운, 평화스런 이 아이들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중 앞에서 어린이들을 칭찬하셨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 것이니라" (막 10:14) 고 말씀 했읍니다. 사람이 공중 앞에서 칭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을 세월이 지나서 칭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산 사람 칭찬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어린이를 칭찬하셨읍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에게 배울 것이 네 가지가 있읍니다. 첫째, 어린아이는 절대로 부모를 신뢰 (의지) 합니다. 둘째, 어린아이는 절대로 부모를 순종합니다. 셋째, 어린아이는 쉽게 화해하고 용서 합니다. 넷째, 어린아이는 쉽게 서로를 사랑 합니다. 신뢰 · 순종 · 화해 · 사랑. 이것을 우리가 어린이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우리도 전지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순종합니다. 불평없이 주는대로 받아먹고, 주는대로 입고, 시키는대로 합니다. 우리도 사무엘같이 순종해야 합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했으니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해야겠읍니다. 어린아이는 쉽게 용서합니다. 우리는 부부간에도 용서하지 않을 때가 있읍니다. 우리도 화해하고 용서할 줄 압시다. 또 어린아이는 어린이들끼리 쉽게 사귀고 사랑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들도 어린이들을 통해 신뢰심과 순종하는 마음과 용서와 사랑하는 마음을 배워야겠읍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를 끌어 안고 축복하셨읍니다.

성경 본문에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만져주기만을 기대하였읍니다. 헌데 예수님은 아이들을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 하셨읍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니"라고 했읍니다. 또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사 40:11) 고 말했읍니다. 예수님이 어린이를 끌어안고 축복했읍니다. 이삭이 장자 에서를 저주하고 야곱을 축복했읍니다. 축복은 축복을 가져옵니다.

서울 안국동에 윤씨 가문의 할아버지들은 어린이들에게 손에 침을 발라가며 축복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윤 치호 · 윤 보선 · 윤 일선 등 인물들이 그 가문에서 많이 배출 되었읍니다. 제 어릴 적에 무식한 어른들이 "야, 빌어먹을 놈아, 개새끼야, 이 급살을 맞아라. 염병을 맞아라"고 아이들에게 말했읍니다. 그래서 그런지 소련서 빌어먹고, 미국서 빌어먹고, 38선이란 뼉다귀 놓고 남북으로 갈려 으르렁 거리는 개처럼 싸우고, 급살을 맞으라니 소련 · 미국 폭탄들에 급살 맞고, 염병 맞으라니 홍콩 감기 등 인프랜자 감기가 와 염병을 앓고 이렇지 않습니까?

서울에 윤 판석 장로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 분 말씀이 "저는 욕을 하면 속이 상해도 이 부자가 될 놈아! 장군이 될 놈아! 박사가 될 놈아! 대통령이 될 놈아! 합니다"고 했읍니다. 이왕 욕할 바에 이렇게 해 보세요. 애들도 하하 웃을 겁니다. 저도 이제 육순을 바라봅니다. 어렵고 외로울 때마다 김 응조 목사님이 제 손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이 성봉 목사님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변 홍규 목사님, 이 명직 목사님들이 기도 하시고 축복하신 것들이 내게서 떠나지 않을 것을 믿고 용기 백배하곤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목사님들 · 장로님들의 축복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여야 합니다. 모세의 어머니, 사무엘의 어머니의 기도가 큰 인물을 만들었읍니다. 야곱처럼 끈질기게 축복을 빼앗으려 해야 합니다.

미국에 와있는 우리 교포 어린이들은 가치관의 차이, 문화와 풍속의 차이, 모든 불만때문에 고독합니다. 아이들에게 좀 더 시간을 할애하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에 와있는 우리 교포 어린이들은 가치관의 차이, 문화와 풍속의 차이, 모든 불만때문에 고독합니다. 아이들에게 좀 더 시간을 할애하십시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백지와 같은 어린이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종교 교육을 통해 예수님의 형상을 심어 줄 때 그들은 훌륭한 인격자로 키워질 것을 믿습니다. 위인들에게는 분명히 앞에서 끌어주는 훌륭한 아버지와 헌신적으로 뒤에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읍니다. 무작정 훌륭한 대학 진학을 요구해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치원도 다니지 못하셨읍니다. 엄청난 부담감과 열등의식이 어린이의 자살까지도 유발할 수 있읍니다.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십시오. 인간의 가치가 물질, 명예, 권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마음에 품고 하루 하루를 진실되게 살아 가는데 있다고 봅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라서 오늘만 어린이를 위하실 생각 말고 세상 끝날까지 어린이에 대해 재인식하시고 깊이 관심과 영접·사랑·칭찬·축복을 하여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보낸 아들·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길러 하나님께 바치는 귀한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하십시다.

어린이 주일을 당하여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셨음과 누구라도 참 마음으로 영접함과 진정한 마음으로 어린이들을 뜨겁게 사랑하심과 어린이들의 장점을 발견하시고 어린이들의 좋은 점을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어린이들을 친히 팔에 안고 축복하신 사실을 이 시간에 배웠읍니다. 오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어린이들은 내 자식이 아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업을 하라고 보낸 하나님의 자식이며, 다만 우리는 이 자식을 길러 보관하는 사명을 가졌음을 저희들이 분명히 아오니, 사랑하는 동양 선교 교회 모든 어린이의 부모들이 오늘 예수님과 같은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과 영접과 사랑과 칭찬과 축복을 소유한 부모님들이 되어서 저 부모님들, 저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 시대의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합당한 인물들로 다 돼서 하나님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일하는 역군들이 이 부모님들과 이 가정을 통해서 벌떼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위대하신 어머니

(어머니 주일)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 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삯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음이라 하였더라"(출애굽기 2장 1절－10절)

오늘 어머니 주일을 당하여 봉독한 말씀을 근거해서 '위대하신 어머니' 라는 제목으로 피차에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어머니 주일의 유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어머님의 그 수고와 그 사랑과 그 희생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통된 것입니다. 어머니 주일이 제일 먼저 시작된 것은 기록에 보면, 영국과 유고슬라비아에서 몇 교회가 주일날 어머니 주일을 갖게 되면서부터 입니다. 그리고 1872년 6월 2일 미국 동부 메사추셋 주 보스톤에 사는 줄리아 월드 오호라는 사람이 어머니날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쓰기 시작하게 됐읍니다. 1887년 켄터키의 학교 교사로 있는 메리 파웰 쎄쓴 씨가 어머니날 행사를 가졌다고 하는 기록이 있읍니다. 1904년에 인디아나 주에 있는 프랭크라는 사람도 어머니날을 가지고 행사를 가졌다는 기록이 있읍니다.

그 후 3년, 즉 1907년에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의 안나 째비스라는 어린 소녀가 갑자기 어머니를 잃게 되었읍니다. 이 어린 소녀가 어머니를 잃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앞이 캄캄하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겠나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1년을 지나고 어머님 돌아 가신지 1주기를 맞이해서 비록 어머니는 돌아 가셨지만, 자기가 자식으로서 주일에 어머니께서 살아 생전에 좋아하시던 카네이션 한다발을 안고 목사님께 찾아가, "오늘이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신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평소에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던 이 꽃을 교회 모든 어머니들 가슴에다 하나씩 달아 드리고 목사님께서 우리 어머님을 위해서 추도 예배를 드려 주세요"라고 했읍니다. 여기서부터 어머니 주일이 본격화 되어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됐읍니다. 그래서 이 어린 소녀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선창하고 이 사실에 대하여 미국의 여러 교회가 교파와 교리를 초월하여 이 뜻에 찬동을 해 5월 둘째 주일날을 어머니 주일로 지켰읍니다. 그 후 1930년 미국 윌슨 대통령이 어머니 주일을 5월 둘째 주일로 지킨다고 자신이 서명하고 국회에 제출해서 그것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기에 그 주일이 어머니 주일로 제정이 되어 오늘날까지 해마다 지켜지는 것입니다.

제가 해마다 어머니 주일이 되면 어머니들의 그 노고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어머니를 많이 칭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낳으시느라고 수고하시고, 기르느라고 수고하시고, 가르치느라고 수고하시는 어머니의 수고를 눈감고 생각해 볼 때 그 은공을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는가고 설교하곤 했읍니다. 어머니 주일만 되면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렸고 또한 많은 교우들이 눈물 흘린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각도를 좀 달리해서 우리 어머니 가운데 보통 어머니가 있고 좀 더 훌륭한 어머니랄까, 이상적 어머니랄까요, 위대하신 어머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름지기 모든 어머니들은 기왕이면 보통 어머니, 평범한 어머니만 되지 말고 좀 더 자식들에게 유익을 주는 훌륭한 어머니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모든 어머니의 가슴 속에, 또한 앞으로 어머니가 될 사람들 가슴마다 다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신 어머니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은 어머니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해서 이 위대하신 어머니 한 분을 구약성경 가운데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어머니 요게벳

이 분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그 이름은 성경에 많이 알려지지 아니 했읍니다. 이것은 마치 집을 볼 때 외면으로 보이는 기왓장이나 석가래는 모든 사람에게 잘 보여지고, 그 집 전체를 떠 받들고 있는 대들보는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음과 같고, 가을철에 무르익은 과일을 칭찬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 과실을 맺게 한 땅속에 보이지 않는 거름 한 줌을 칭찬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음과 같습니다. 위대한 모세, 이 모세야말로 선지자의 한 사람이요, 약소 민족 해방의 선구자 중 하나요, 도덕의 표준이 되고 인생 행로의 지침이 되는 십계명을 받은 사람, 유일신 종교를 창설한 사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경을 기록한 저자로 주일 학교 아이들이라도 다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이 위대한 인물을 눈물로 길러 냈던 위대하신 어머니, 요게벳의 이름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가운데도 모르는 사람이 허다한 걸 볼 때 더 부인이 위대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자기는 뒷전에서 아무런 빛도 없이 이 위대한 인물을 묵묵히 길러 그 민족, 그 시대, 인류, 하나님을 위해서 육성해 바친 이 위대한 어머니, 제가 여러 설교집을 봐도 이 요게벳에 대한 설교를 쓴 사람은 여태껏 찾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요게벳은 정말 위대한 어머니이십니다. 왜 위대하냐 하면 이 분은 자식을 낳아서, 길러서, 먹여서, 가르치는데만 그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참 현명한 어머니이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슬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모든 일에 침착하고 멀리 내다보는 현명한 어머니이라는 것입니다. 우둔한 어머니가 아닙니다. 미련한 어머니가 아닙니다. 돌과 같은 어머니가 아닙니다. 사려가 깊은 현명한 어머니입니다.

그때로 말하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

간지 430년이 되던 때이었읍니다. 70명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60만이라는 장정으로 불어나게 되고 노인들과 여자들과 어린이까지 합하면 200만이 넘는 큰 인구로 증가되었읍니다. 당시 임금인 바로는 공포심을 가졌읍니다. 기우심을 가졌읍니다. 이제는 이들이 오히려 애굽의 주인이 되고 우리들이 오히려 이 사람들의 종이 될까 하는 기우심, 그것이 공포심으로 화해 지난 날 이스라엘의 조상되는 요셉이 자기 나라를 건졌던 그 은공을 져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읍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무거운 세금을 그들에게 부과했읍니다. 그것 가지고도 안되니까 나면서부터 어린이들을 노예로 삼았읍니다. 노예들이란 자유롭게 결혼할 수도 없고 어린애를 그리 많이 낳을 수도 없는 부자유스러운, 동물적인 인간이 아닙니까? 바로가 그 국고성을 짓기 위해서 노임을 주지 않고 채찍으로 때려가며 과중한 노동을 시켜 육체적인 건강을 방해하고, 선천적으로 받은 각종 자질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정신력을 파괴시키고, 이제 또는 병합정책을 써서 애굽화 시키려고 했고, 다시 말해 히브리 나라의 문화와 종교를 말살시키려 했고, 또는 유일신 종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고, 마지막에는 모든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자가 어린 아이를 낳을 때 여자를 낳으면 살려두고 남자애를 낳으면 모조리 잡아 죽이라"고 엄령을 내렸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돌아보시는 까닭에 산파들이 어린애들을 죽이지 않았읍니다. 그때 바로 왕이 "왜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죽이지 않느냐"고 위협했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하는 애굽 산파지만 "우리가 가기 전에 히브리 여자들은 건강해서 이미 어린애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일 수가 없었읍니다"고 했읍니다. 그 때 임금이 다시 명령을 내리기를 "모든 애굽 사람들아, 이스라엘 집집마다 다니면서 갓난 아이는 저 나일강에다 띄워 죽이라"고 하였읍니다. 많은 집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올 때 애굽천지가 울음바다가 되었읍니다. 그것은 애굽 사람의 울음이 아니었읍니다. 참 정든 고국을 떠나 이역만리 타국에 와서 사는 이 외롭고 고통스런 노예생활에서 설상가상 어린 아들을 다 잡아다가 나일강에다 집어 던져 악어밥을 만들게 하는 그것을 보는 이스라엘 여인들의 통곡소리였읍니다.

그 때에 요게벳이 세번째 어린아이를 낳게 됐읍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요게벳의 첫째는 딸인데 이름은 미리암입니다. 그 다음 첫째 아들은 아론입니다. 세번째 낳은 이 어린 아이가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자식을 낳고 보니 얼굴이 잘 생겼읍니다. 아주 준수합니다. 울음소리가 우렁찹니다. 이 어머니, 아버지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읍니다. 이 아이를 내어 줄 수가 없었읍니다. 이 어머니는 깊은 골방에다 이 어린아이를 감추어 젖을 먹여가며, 기도하면서 길렀읍니다. 석달 동안을 그렇게 기르니 처음에는 우아, 우아, 작은 소리로 울더니 석달 기르고 나니 어린애 울음소리가 어떻게도 크던지 이 울음소리를 도저히 막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생각했읍니다. 필경 탄로나면 잔인한 사람들이 와서 잡아다가 저 강에다 집어던져 고기밥을 만들 것이니 차라리 마음 아프지만 이 어린 것을 갈대로 둥우리를 엮어 역청과 진액(나무액)을 칠해 역청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여기 담아 나일강에 띄워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를 가지고 바구니를 만들어 안팎을 물새지 않도록 칠해 어린 석달된 아기를 안고 강으로 나갔읍니다. 이렇게 하는 모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다리가 무거웠겠읍니까?

요게벳은 강에 가서 흘러가는 그 나일강에 띄워 버리기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갈대밭에 이 어린 것을 놓고 기도하며 망을 보고 있읍니다. 그 때 바로의 공주, 외동딸인 공주가 목욕하러 강에 와서 시녀들을 먼 데 두고 갈대밭 속에 들어가 목욕을 하려는데 그 앞에 웬 둥우리가 하나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시녀들을 불러 저게 이상하니 가져오라 해서 열어보니 잘 생긴 아이가 울어 대는 것이었읍니다. 어머님의 품을 떠난 그 어린 아기의 울음은 정말 너무나도 애절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간절할 것입니다. 이 공주는 마음에 감동이 되었읍니다. 이 감정이 풍부한 여성의 마음속에 뉘집 아기인지 모르지만 어머님의 품을 떠나 이 상자에 있는 그 애를 볼 때, 인물도 잘 생겼지만, 그 울음 소리에 이 여인의 마음이 끌렸읍니다. 그러나 시녀의 아기가 히브리 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살려줄 아이가 못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주의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해 그 아이를

자기 아이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읍니다. 그 때 망보던 어머니는 딸에게 "딸아 좇아가서 유모를 구하지 않겠느냐고 물어봐라" 고 했읍니다. "유모를 원치 않습니까?" "유모가 어디 있느냐?" "내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민족인 히브리 사람 유모를 하나 구해 드리겠읍니까?" 그래 유모를 데리고 갔읍니다. 그때에 그 바로의 딸이 무어라고 말했읍니까?"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날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삯을 주리라" 어머니는 시침 뚝 떼고 그 복받치는 슬프고도 기쁜 감정을 억제하고 굳은 의지를 가지고 남의 아기인 척하고 집에 와서 젖을 먹이고 자라나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 갔읍니다. 약속대로 궁중으로 데려다 주는 그 어머니, 얼마나 위대한 어머니입니까? 만일 이 모세의 어머니가 이 어린 아이를 석달 동안 감추지 않았던들, 강에 그저 정처없이 흘려 띄워 보냈던들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전복되면 고기밥이 되어 죽었을 것이고 유모로 그가 뛰어 들어가지 않았던들, 도에 넘치는 애정을 주어 산모임이 발각 되었던들, 잘못 되었을는지도 모릅니다. 또 마지막 약속을 어기고 그 어린 것을 바로의 궁중으로 들여 보내지 않았던들, 모세라는 인물은 일찌기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게벳은 이렇게 사려깊고 애정깊고 이렇게 의지적인 현명한 어머니이었읍니다. 다른 아이들이 다 잡혀 죽는 위기 속에서도 모세를 살린 현명한 어머니입니다.

현명하지 못한 어머니

오늘 우리 이 사회에는 현명치 못한 어머니들이 좀 계시고 현명한 어머니들이 계시고, 두가지 종류의 어머니가 계십니다. 현명치 못한 어머니라는 것은 부정적인 어머니입니다. 사려가 없는 어머니입니다. 교양이 부족한 어머니입니다. 덕이 없는 어머니입니다. 인격적이 되지 못하는 어머니입니다.

첫째는 현명치 못한 어머니는 **편애하는 어머니**입니다. 딸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는 어머니 둘째, 세째보다 맏아들만 더 사랑하는 어머니, 공부 잘하는 자녀만 사랑하고 공부 못하는 자녀는 미워하는 어머니입니다.

두번째 **자기 생애의 욕망을 어린애에게 채우려는 어머니는** 현명치 못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피아니스트가 되려다 되지 못했으면 내 딸에게 피아니스트를 강요해서 내 만족을 충족시키려는 어머니, 내가 의사가 되려했는데 내가 되지 못했으니 내 아들이나 의사 삼아 보려고 재능도, 취미도 없는데 강제로 보내는 어머니 등은 현명치 못한 어머니입니다.

세번째는 **지나치게 어린애에게 기대를 갖는 어머니.** 이것도 현명치 못한 어머니입니다. 일류 학교만 가야 한다는 에이, 학점만 받아 와야 한다는, 무얼 하든지 1등을 해야 한다는 식의 어머니입니다. 일본의 동조(도오죠오)의 아버지가 육군 사관학교를 나왔는데 아들 동조도 육군 사관학교를 다녀왔읍니다. 그 때 아버지가 매일 "이 놈아, 공부를 하려면 항상 1등을 해라. 남자가 뭐든지 1등을 해야 돼" 하고 채찍질을 했읍니다. 그래서 동조가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육군 사관학교 다닐 때 몇째 했나 하고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 아버지 성적을 제쳐보니 1등을 하기는 했는데, 꼴찌로 1등을 했더랍니다. 자녀들에게 지나친 기대를 강요한다면 이 자녀에게 불안과 공포와 좌절과 자포 자기, 마지막에는 큰 해독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네번째 **지나치게 교훈적이고 많은 제한을 주는 어머니는** 현명치 못합니다. 너무나 엄격합니다. 간섭이 많습니다. 제한되게 합니다. "야야, 밥 먹을 때 그만 쩝쩝거려!", "여기 미국이야, 왜 그렇게 많이 먹어?", "왜 그렇게 조금 먹어?" "아이고 좀 떠들지 마라!" "텔레비젼 좀 꺼라" "손님 왔다 조용히 해라" 여러분 제가 그 전에도 말했지만 제가, 혹은 우리 목사님들이 심방갔을 때 애들이 텔레비젼 볼 때 "야야야! 텔레비젼 끄고 들어가라"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러면 그 아이들은 "그 목사 새끼 오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애들에게 지나치게 교훈과 제한을 하시면 어린 아이들은 허약하게 되고 신경 과민을 갖고 용기를 상실하게 됩니다. 아니면 반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어린이들은 다른사람은 뭐라고 할찌 모르나 막 뛰고 쿵쿵 뛰고 별장난 다해도 이 위에서만 하

지 않고 본당에서만 하지 않으면 저든 모르는 척하고 또 봐도 가만 두고 오히려 웃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랄 때 할아버지가 말아라, 해라, 하며 종아리에 매를 때렸기 때문입니다. 그 때 생각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자기 감정대로 어린아이를 대하는 어머니**는 현명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애정을 못받고, 직장에 가서 조금 섭섭함을 당하고, 미국생활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 화풀이를 어린이에게 한다면 이것은 지성적이 못 됩니다. 이것은 의지적이 못 됩니다. 이것은 신앙적이 못 됩니다. 이런 어머니는 현명치 못한 어머닙니다. 그러나 현명한 어머니란 어떤 어머니입니까?

현명한 어머니

첫째 **가정 전체의 화목을 도모하는 어머니**는 현명한 어머니입니다. 가정평화의 열쇠는 남자보다 여자가 가졌단 말을 많이 여성들이 합니다. 남자가 좀 뭐라고 하든지 여자가 애교를 떨어 보세요. 좀 더 친절해 보세요. 좀 더 상대방을 이해해 보세요. 왜 애기 아빠가 오늘 저렇게 기분나쁘게 하고 들어오는가? 왜 오늘 밤에 저렇게 속상해하는가? 여러분 연구를 해 보세요. 물론 남자의 책임도 있읍니다. 제가 이전에 부흥회 갔더니 모두 나와서 "목사님 솔직하시군요. 목사님 그점이 좋습니다" 하더군요. 그러니 한번 집 얘기를 합시다. 목사도 신이 아닌데 가령 우리 내외가 예를 들어 "여보 손님을 대접해야 되겠는데 집에서 할까?" 우리 집 사람은 "여보, 너무 피곤하고 시간도 없고 하니 우리 나가서 대접합시다"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떤때는 갑론을박 하다가 조금 제가 말을 잘못해서 우리 아내가 기분이 나쁠 때 이렇게 말해도 듣지 않고 저렇게 말해도 듣지 않고 그럴 땐 정말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저 한번 끌어 안고, "여보!"하면 그저 웃고 풀어지지요. 그 얘길 이번 디트로이트에 갔을 때 했더니만 아주 솔직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가정 평화는 남자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여자가 책임이 더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싸우는 걸 한번도 보지 못했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는 것은 꼭 한번 봤는데 어머니가 쇠죽 쑤러 가시다

가 그 바가지를 아버지에게 던지는 것, 그것 한번 보고는 다른 건 한번도 보지 못했읍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도 옆길로 가지 아니하고 나쁜 친구에게 끌려가지 아니하고 곧장 가정으로 달려오는 것입니다.

둘째 **자기반성을 하는 어머니**입니다. 자녀에게 명령을 할 때, 자녀에게 나무랄 때 먼저 자기를 반성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 명령을 할 때 내가 어렸을 때 저런 명령을 받으면 내가 감당했던가, 자녀가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고 도덕적으로 조금 실수를 했을 때 나는 어릴 때 어떻게 했던가 하는 것을 자기가 반성하고 자녀에게 명령하고 나무라기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번째 **자율적인 인간이 되도록 키우는 어머니**입니다. 다시 말하면 책임감 있는 자녀를 기르는 이 어머니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적게 말해서 미국 사람들은 아이가 엎어져 그저 으앙 울면 일어나라고 합니다. 이리 오라고 합니다. "네가 할 수 있어. 뭐 울어? 코피도 나지 않는데, 어서 이리 와 이리 와"이럽니다. 그러나 한국사람은 아이가 "앙-"하면 하던 것도 집어 던지고 헐레벌떡 달려가 "어이구, 어이구" 하며 이마도 짚어보고,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떱니까? 자율적인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자녀를 길러 주어야 한다 이겁니다.

네번째 **어린이를 높여주고 칭찬할 줄 아는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기대하고 있는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가령 제가 아무게에게 기대를 가지고 큰 기대를 걸면, 그 사람은 목사님이 나에게 이러한 기대를 가졌는데 내가 좀더 노력을 해서 그 기대에 부응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노력하지만, 목사가 전연 기대하지 않을 때 "흥, 나에게 기대가 없는데 네까짓게 할 필요가 뭐야?"합니다.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가대 지휘자에게 큰 기대를 갖습니다. 우리 성가대원에게 큰 기대를 갖습니다. 목사님들께 큰 기대를 갖습니다. 우리 교

회 젊은 목사님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저는 큰 기대를 갖습니다.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5남매가 있으면 제일 정신적으로 박약하고 육체적으로 박약한 아이를 더 칭찬하고 사랑해 주어야만 하는 게 아닙니까? "야 잘했다. 너도 이것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해 주고, 사랑해 주는 어머니라야 합니다.

다섯째 **대화를 계속하는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대화라는 것은 사랑의 표시입니다. 여러분이 미국 생활에 누구하고 제일 많이 대화를 합니까? 그래도 부부지간일 겁니다. 연애하는 사람들, 그 남녀간의 그 사람들, 그 연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제가 보니까요 뭐 전화를 들고 세시간 내지 네시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전화를 아주 끊어 버렸읍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끊으면 됩니까? 여러분, 이 대화라는 것은 사랑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여러분이 돈이나 열심히 벌어 좋은 학교 보내고 학비나 두둑하게 보내면 그것으로 자식교육 다한 줄 압니까? 천만에요. 오늘 여러분들 자식 맡기고 사람 만들어 달라고 할 학교가 제대로 있읍니까? 저 한국 얘긴 안합니다. 미국 보세요.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여 선생을 강간하지요? 대학에서 교수가 예쁜 학생 있으면 "여학생, 이리 오너라. 내가 에이 학점 줄 테니까" 그리고 동침하지요. 자식을 참되게 기르는 보장은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걸 여러분이 뼈저리게 느끼셔야만 됩니다.

사상의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는 현명한 어머니일 뿐 아니라 사상의 어머니입니다. 사도행전7장23절에 보면 모세의 나이 사십이 되어가매 마음에 사상이 발하여"라고 했읍니다. 이것은 모세 자신의 사상이 발동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머니 젖꼭지에서 젖을 빨며, 어머니의 품안에서 자고 깨며 기저귀를 갈며 어머니가 항상 기도하실 때 "너는 애굽의 자녀가 아니다. 너는 히브리 자녀다. 너는 바로의 피가 섞인 사람이 아니다. 너는 아브라함의 피가 섞인 사람이다"라는 선민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으니 이것이 사상 곧 얼입니다.

의식, 다시 말하면 히브리 민족 사상을 깊이 넣어준 어머니인 까닭에 생겨진 사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혼을 집어 넣어준 것이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심리적인, 육체적인, 현세적인, 형이학적인 그런 어머니가 아니고 정말 얼을 집어 넣어준 주체 의식을 집어 넣어준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11장24절－26절을 한번 찾아 보십시다.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줄을 쳐놓고 특히 젊은이는 이 말씀을 암송해야 할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모세의 사상을 발견할 수 있읍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장차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바로는 아들도 없읍니다. 딱 하나뿐인 외동딸의 아들인데 그대로 있으면 애굽 나라의 왕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애굽은 세계 문명 국가입니다. 일등 국가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으니 이것이 사상 곧 얼입니다.

일제시대 여운형씨가 서울에서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날 저녁에 죽을 끓여 먹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한국 고등계 형사, 일본 제국주의 앞잡이가 오더니 "선생님!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십니까? 선생님이 마음만 조금 돌이키면 일본 나라에서 귀한 직분을 받으시고 참 잘 사실텐데 왜 이렇게 선생님 고집을 부리십니까?" 고 유혹했읍니다. 그럴 때 여운형씨는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부인

보고 하는 말이 "여보, 나가서 저사람 목마른 것 같으니 뜨물 한 그릇 떠줘서 보내시오"하며 쫓았다는 얘기가 있읍니다.

사람은 얼이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임을 거절해 버리고 애굽에서 어제까지도 귀한 존재가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는 민족의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로 굴러 떨어져 그 모든 노예와 같이 진탕에서 흙을 이기면서 채찍을 맞으며 마지막에는 옥에 갇히면서 마지막에는 애굽을 떠나 광야로 건너가는 운명을 택하게 되었읍니다. 이것은 모세가 사상의 사람, 얼이 있는 사람, 주체성이 있는 사람이란 것을 우리에게 역력히 보여줍니다. 이것은 일석일조에 된 것이 아닙니다. 유대 사람들은 자녀를 낳아 어느 나라에 가서 살든지 그 자녀들에게 가정에서부터 유구한 역사를 가르치고, 문화적인 전통을 가르치고, 위대한 조상들의 업적을 가르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핏속에 그 얼이 있을 수 밖에 없읍니다. 머리속에 꽉 차있는 것이 선민의식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정신인 것입니다.

1967년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 미국의 큰 도시의 비행장 대합실에는 많은 유대 젊은 청년들이 줄을 지어 비행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읍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조국이 위기에 빠졌으니 내 미국 시민으로 여기 안전만 위해 있을 것이 아니라 내 조상의 나라에 가서 싸워야겠다는 것이었읍니다. 세계가 한번 다시 보았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저녁을 먹을 때 아이들을 많이 교육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한번은 아이들 보고 "여우란 놈이 고기를 먹고 싶으니까 저 바닷가에 가 언덕에서 고기를 불러내어 고기님 이리 와서 우리와 같이 삽시다. 거기 있으면 어부가 와서 잡아가고 큰 고기가 잡아먹기 쉬우니까 여기 와서 나와 함께 삽시다라고 하니 고기가 의논하고 오겠다고 하며 들어갔읍니다. 한참 있다가 나오더니만 여태까지 이 물속에서 편안히 살았는데 고맙긴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그냥 살으렵니다 하며 들어가 버렸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묻기를 "만약 그 고기가 여우 말을 믿

고 땅으로 올라 왔더라면 어떻게 될 뻔 했지?" "죽었죠" "옳다. 너희는 어디를 가든지 유대 사람이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우리 한국 민족이 미국에 와서 인종 차별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배타주의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한국 사람이 되고 그 후에 미국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타 바바라에 대학 교수 한 분이 누명을 쓰고 갇혀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우리 교회에서 천 불, 변호사비를 보내지 않았읍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 어린애 돐이 되서 제가 예배보러 갔더니만, 그 형님이 산타 바바라의 대학에서 가르치고 계시며 곧 박사 학위를 얻게 되는데, 제가 물어봤읍니다. 그 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냐고요. 그랬더니 "나도 그 분과 교제가 없기 때문에 사실 죄가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과 자신만이 알겁니다" 했읍니다. 그러면서 그 분이 하는 말이, "좀 마음 아픈 얘기지만 목사님, 그 분이 미국에 와서 공부를 많이 해서 미국 여자와 결혼하여 미국 시민이 되어 산타 바바라에 왔지만, 한국 사람과 전연 접촉도 않고 심지어 교회도 나가지 않았읍니다. 문제가 나니까 교회에서도 나 그 사람 잘 모른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 누구 하나 와서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합니다. 그러나 이 나성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저 새크라맨토에서 한국 교회와 많은 한국 사람들이 재정을 후원하고 재판하는데 참석해서 그저 응원해 주고 지금엔 그 사람이 뼈저리게 "난 미국 사람이 아니로구나. 한국 사람이구나" 라고 느꼈다고 말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랑스런 코리안, 그리고 훌륭한 미국 시민, 그리고 훌륭한 국제적 시민입니다. 이 얼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는 신앙의 어머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모세를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믿음으로 석달 동안을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하지 아니했다"고 했읍니다. 믿

음으로 모세를 석달 동안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숨겨 두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믿음의 여성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것은 약한 사람에게 신념 용기를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찌라도 해받음을 두려워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23 : 4) 고 했읍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받은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어린 디모데를 칭찬한 것입니다. "디모데야, 넌 믿음의 사람이로구나. 너는 많은 사람에게 모범적인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너를 존경하는 구나. 너를 사랑하는구나. 너를 믿어 주는구나. 그것은 네가 믿음이 있는 까닭이라. 그 믿음은 네 외할머니와 네 어머니 속에 있더니 너에게도 있구나"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믿음은 어느 정도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버지에 그 자식, 그 나무에 그 열매란 말이 있잖습니까? 여러분, 유대 사람 격언 가운데, "당신 자식을 하루를 먹이려면 고기 한마리를 주어라. 그리고 일생을 먹고 살게 하려면 고기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라 " 고 했읍니다. 근본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자식을 하루 먹여 살리려면 생선 한 마리를 주면 되고 일생을 먹고 살게 하려면 매일 생선을 주지 말고 생선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에서 여러분이 자녀 교육에 성공하시려면 하바드, 휴스턴, 미시간, 예일, 또 칼텍, 엠아이티에 자녀들을 보내야만 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예수를 바로 믿고 참 사람되는 것을 가르쳐 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훌륭한 어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계시지만 그 중에 한 분을 잠시 여기서 소개합니다. 이 분의 남편은 한국 불교의 거두입니다. 지도자입니다. 한국 불교 대학에 유명한 책임을 진 어떤 분입니다. 그 어머니는 불교 연구를 많이 했읍니다. 아주 불교에

대한 경서를 많이 압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몇 해 전부터 마음에 고민이 생겼읍니다. "내가 이제 세상 떠날 날이 가까왔는데 불교를 믿어보니 신관이 분명치 않구나. 속죄관이 분명치 않구나. 내세관이 분명치 않구나. 그러니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먼저 올바른 종교를 믿어 내 문제도 해결하고 내 자손들에게 올바른 유산 하나 주어야겠다"며 예수를 믿게 되었읍니다. 그리하여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서 기쁘니까 전도해서 아들, 딸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읍니다. 그 분들이 지금 믿은 지가 얼마 안되지마는 불교에서 도를 닦던 분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진리를 바로 깨닫고, 불교에 정성을 바쳤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도 정성을 바치고, 아들, 딸들이 집사가 되고 어머니도 집사가 되고 이제는 권사가 되었읍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낳아서 먹이고, 기르고, 가르쳐서, 돈 버는 것만 가르치면 그저 보통 어머니 밖에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서, 영생의 진리를 깨닫게 해서, 이 변치 않는 값진 영원한 유산을 주는 것만이 참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 유산만이 영원불변한 값진 유산일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 어머니들이여, 오늘 이 시간에 모세의 어머니와 같이 현명하신 어머니, 사상적인 어머니, 신앙적인 어머니가 되고, 그리고 오늘 모든 자녀들은 어머니께 대하여 모세와 같이 순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체력과 지력과 덕력과 영력을 연마하고 충실을 기해 시대가 요구하는 일꾼으로서, 모세가 애굽을 위해서도 일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도 일하고, 인류를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처럼, 여러 젊으신 분들은 어머니에게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내적인, 외적인 충실을 기해서 저 두고온 조국과 민족, 그리고 오늘 우리 몸 담은 이 미국과 인류와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공헌하심으로 하나님과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 드리는 여러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방의 복음
(광복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니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마태복음(11장 2절 –5절)

오늘 1985년 8월15일은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과 중국 대륙에서 손을 들고 돌아간지 40년이 되는 기념의 뜻 깊은 날입니다. 감격의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방을 받은 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적 해방, 정치적 자유를 얻은 것뿐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근본적으로 꼭 받아야 할 몇가지 해방은 아직도 완전히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정치적 해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몇가지 해방, 자유를 더 받아 누려야 하겠읍니다.

첫째로 죄에서 해방을 받아야 하겠읍니다.

에베소서 2장1절에 보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말했으며,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말했으며,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삯은 사망이라"고 말했읍니다. 오늘의 인간 자신들의 고난, 부부의 불화, 자녀들의 반항과 탈선, 사회적인 혼란, 세계적인 불안과 긴장 등은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기인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 누구나를 막론하고 먼저 이 죄의 사슬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어야만 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평안도, 기쁨도, 의로움도, 용기도, 축복도, 행복도 결코 있을 수 없읍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오직 수치와 불안과 초조와 슬픔과 어둠과 실패와 저주와 죽음만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죄에서 해방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받는 유일

한 길은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일뿐입니다.

둘째로 율법에서 해방을 받아야 합니다.

율법이란 히브리어의 '토라'를 번역한 말인데 이 말은 '지적한다', '지시한다'라는 어근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인간들의 경건한 생활을 규정한 하나님의 명령과 규율입니다. 가장 오래고 또 가장 중요한 율법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내려 주신 십계명입니다. 그 외에도 자지간 세부에 걸친 계명이 도합 무려 6백13가지나 됩니다. 이 6백13가지의 하나님의 명하시는 계율이 율법인데, 타락한 연약한 인간으로서는 그 누구나 도저히 이 엄중하고도 많은 율법을 지켜 행할 수가 없읍니다. 인간들은 이 율법의 멍에를 메고, 고민과 고통과 죽음을 당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율법학자인 사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고 깊은 탄식을 했읍니다. 인간은 양심적 동물로서, 그 누구나 자기가 과오를 범하면, 외부의 고발과 죄책이 없다 해도, 양심의 고통을 가지게 됩니다. 이 율법의 고통의 멍에에서 해방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과 또 그의 사랑을 본받아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5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 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라고 말씀했읍니다. 또 로마서 10장 4절에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고 말씀했고,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고 말씀했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셨읍니다. 사랑은 이를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세째로 악한 세상에서 해방을 받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으니"라고 말씀했읍니다. 이 세상은 실로 음란하고, 불의하고, 패역한 세상입니다. 구약 미가 7장 2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패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의 악한 사욕을 발하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숫군들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네 입의 문을 지킬찌어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라고 개탄했읍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훼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라고 했읍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세대가 되면, 이 세상에는 개인주의, 유물주의, 자본주의, 인본주의, 무도덕주의, 독재주의, 향락주의, 세속주의가 판을 치게 되는 음란하고 불의하고, 패역한 세대가 된다고 지탄하는 것입니다.

물오리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몸에 물이 한 방울도 묻지 않는 것은 온 몸에 기름이 흐르는 까닭입니다. 또 홍수의 흙탕물이 강에 범람하여 흘러가도 생명이 있는 고기는 그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내적 충만을 이룬 사람은 이 죄악의 홍수가 범람하여 모두가 멸망을 향해 행진하는 가운데서라도 저 의로운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올라간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죽는 것보다도 살기를 원합니다. 살되 오래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죽음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습니까?

는 것입니다.

네째로 마귀에게서 해방을 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라고 했읍니다.

천상에서 쫓김을 당한 마귀는 에덴동산에 나타나서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고, 지금도 아담의 후손들을 범죄케하며 자기의 백성으로 만들어 자기의 나라를 확장하기에 급급합니다. 이 세상에는 상대성 원리가 분명하듯, 참 하나님이 계신 반면에 마귀가 실존합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고 또 지상 생활에서 많은 마귀와 싸우셨읍니다. 마귀는 우선 무서운 사자와 같이 나타나고, 또 때로는 천사의 탈을 쓰고도 나타납니다. 이 마귀는 파괴와 죽이는 역할 밖에는 하지 않는 악한 존재입니다. 이 악하고 교묘하고 잔인한 마귀에게서 해방받는 길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믿고 내세우는 것 밖에는 없읍니다.

다섯째로 죽음에서 해방을 받아야 합니다.

동양 성현은 "만났던 사람은 한 번 헤어지고, 산 사람은 한번 죽는다"라고 말했으며, 서양 철인은 "인간은 유한하고 죽고 심판을 받는 존재이다"라고 말했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했읍니다. 사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느냐만이 다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과연 죽음이란 절대적이고, 보편적이고, 극비밀에 속하고, 선후도 없는 것입니다. 철인 카알라일은 "사람이 산다는 것은 죽음을 전제하고 사는 것이다"라고 말했읍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죽는 것보다도 살기를 원합니다. 살되 오래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죽음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읍니까? 그것은 오직 죽음을 이기신 생명과 부활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만 인간은 죽음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죽음을 이긴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사망에 대한 개선가를 불렀읍니다.

친애하는 교포 여러분! 이 감격적인 해방의 날을 맞이하여 일제로부터의 정치적 해방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른 길이요, 진리의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어, 여러분들께서는 죄에서, 율법에서, 악한 세상에서, 마귀에서, 죽음에서 해방을 받아 진정한 자유, 영원한 자유를 받아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위대한 책, 성경
(성서주일)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디모데후서 3장 15절-17절)

매년 12월 둘째주일은 성서 주일입니다. 오늘은 성경의 가치성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사실은 성경 두 곳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관이 분명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다방면으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성경 내용의 보편타당성입니다. 성경은 시대와 인종과 성별과 계급과 노약의 구별없이 보편적 진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세째, 중심 사상의 통일성입니다. 구약은 26사람이 천오백 년에 걸쳐, 신약은 8사람이 백년에 걸쳐 썼습니다. 그들의 직업, 성격, 배경, 장소은 각각 다르지만 성경 66권의 중심 사상은 메시야 사상으로 통일되었습니다. 네째, 예언성취의 확실성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개인, 가정, 지방, 민족, 인류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단 하나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은 예수 재림뿐입니다. 다섯째, 영원 존속과 발전성입니

다. 성경은 모든 시대마다 또는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마다 핍박을 받아 빼앗기고, 불태워졌으나, 현재는 천 7백여 방언으로 번역되었으며, 지금도 계속 번역되어지고 있읍니다. 여섯째, 위대한 감화력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마다 큰 감화를 받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과연 성경은 보통 책이 아닌 살아 계신 하나님의 특수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이 역사에 끼친 영향

성경이 언어와 문학에 끼친 영향은 지대합니다. 천사, 마귀, 낙원, 만나, 안식일, 목자, 사망 등은 성경에서 나온 낱말입니다. 15 세기의 독일 루터의 성경 번역은 독일어의 통일과 독일어 문법의 기준과 독일 문학에 크게 기여했읍니다. 영국의 제임스 왕 성경 번역도 영국민의 언어와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읍니다. 유명한 어거스틴의 '참회록', 단테의 '신곡', 유고의 '무정', 토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등의 명작 등은 모두가 성경에서 영향을 받은 것들입니다. 또한 유명한 브라우닝, 테니슨, 하이네 등의 성시도 성경에서 영향을 받은 것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경이 미술과 음악에 끼친 영향도 지대합니다. 영화에 있어서도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노아 홍수', '다윗과 밧세바', '삼손과 데릴라', '십계명', '성의', '벤허' 등의 대작들도 모두가 성경을 주제로 한 작품들입니다. 음악에 있어서도 바하의 '고난', 헨델의 '메시야', 모짜르트의 '위령곡', 베토벤의 '장엄미사', 멘델스죤의 '엘리야' 등이 성경에서 나온 음악들입니다. 예술에 있어서도 시각 예술, 상징, 그림, 조각, 착색 유리, 금수단, 금속 등이 모두가 성경에서 입은 영향들입니다. 문예부흥 때의 거장 도나넬로, 마사치오,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 등은 모두가 기독교 예술가들입니다. 건축에 있어서도 로마의 베드로 성당, 밀라노 대성당, 영국의 바울교회, 불란서의 노틀담 사원 등도 성경을 통한 건축들입니다.

성경이 개인생활에 끼친 영향

가정에 있어서는 일부일처의 혼인 제도, 여권 존중, 아동 보호,

성경은 가장 오래된 책이지만 또 항상 새로운 책입니다. 성경에는 진리가 무궁무진합니다. 인류가 아직도 찾아내지 못한 진리가 허다합니다. 오늘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고 제일 많이 읽히는 책입니다.

이혼 방지, 화목한 가정을 이룩하게 했읍니다. 교육에 있어서는 미국에 있어서 하버드 대학을 위시한 명문대학이 교회에서부터 출발했고 한국에도 많은 남녀 중 고등학교와 대학이 기독교에서부터 시작했읍니다. 봉사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병원, Y.M.C.A.,Y.W.C.A., 적십자사, 구세군, 노인 복지, 빈민 구제, 고아 사업, 양로원, 신체 장애 아동, 정신 박약 아동 기관 등이 전부가 성경 원리에서 영향을 받은 기관들입니다. 법률에게 끼친 영향도 큽니다. 오늘의 로마법을 위시하여 여러 나라의 법이 성경 구약 신명기에서 많이 인용해서 제정되었음을 모두가 인정합니다. 정치에 있어서도 만민 평등, 노예 해방, 자유 애호, 인권 옹호 등도 성서에서 우러 나오는 원리요 받은 영향입니다. 경제에 있어서 성경은 물질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간이 물질에 대한 가치 관념을 그릇되게 가질 때에 잘못이라 지적할 따름입니다. 정당하게 벌어서 정당하게 쓰라고 성경은 교훈합니다. 물질을 신격화, 우상화하는 것을 금하고 있읍니다. 물질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인간은 하나님의 물질을 위탁받은 청지기의 직분이라고 교훈합니다. 성경은 주종 관계의 현저한 격차, 착취, 부정, 낭비, 인색들을 비난하고 근로, 절약, 공동 분배, 상부 상조, 상호 번영을 강력히 권장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이 세상의 어떤 책보다도 인류사에 끼친 창조적, 구속적, 평화적, 발전적 영향이 큰 책이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성경은 가장 오래된 책이지만 또 항상 새로운 책입니다. 성경에는 진리가 무궁무진합니다. 인류가 아직도 찾아내지 못한 진리가 허다합니다. 오늘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

는 책이고 제일 많이 읽히는 책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사회 문제, 인류 문제 등이 복잡 심각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 데 기인합니다. 혹 읽는다해도 그 진리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해했다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오늘 봉독한 디모데후서 3장 15절－17절에 보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가르치는데 유익하고, 과실을 발견하는데 유익하고 바르게 하는데 유익하며, 이웃 봉사하는데 힘을 주는 참 가치있는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읍니다. 미국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창조 이래에 인류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다"고 말했읍니다. 영국 국민은 단 한 권의 책을 읽는 국민이라고 했으며 그 책은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읍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세상에는 책이 단 한권뿐이라고 하며 성경을 지적했읍니다. 불란서 군인들은 전쟁에 나아갈 때에 배낭에 꼭 성경책을 넣어 간다고 합니다. 맥아더 장군은 전쟁 중에 아무리 바빠도 꼭 성경 한장씩은 읽고 잤다고 합니다.

과연 성경은	어리석은 자에게는	지혜를 주고,
	고독한 자에게는	위로를 주고,
	절망자에게는	희망을 주고,
	약한 자에게는	용기를 주고,
	눌리운 자에게는	자유를 주고,
	죽는 자에게는	영원히 살수 있는 길을 알리는 책입니다.

실로 이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건강과 지혜와 인격과 영력을 더하게 하여 주십니다.

친애하는 교포 여러분! 건강을 원하십니까! 가정 화평, 자녀 성공, 사업 번영, 승리 생활, 영원한 생명을 원하십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계 1:3).

임마누엘 하나님
(성탄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 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의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으매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마태복음 1장 18절 - 25절)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또 인류 역사상 가장 크게 기쁜 날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탄생하신 날입니다. 구주 성탄절이라고 말하는 날이 곧 오늘입니다. 한 나라의 황태자가 태어나면 그 나라 사람만 기뻐합니다. 그러나 오늘 전 세계가 이렇게 축하 하는 것은, 이 분이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주가 되시기 때문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이름을 짓습니다. 제 이름은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름을 지어 주셨다고 얘길 들었읍니다. 제 사남매는 제가 기도하다가 이름을 각각 지어 주었읍니다. 어제 오전 12시에 저희 둘째 딸애가 아들을 하나님께로부터 허락 받았읍니다. 절 보고 이름을 지어 달라고 그러기에 제가 잠깐 기도하다가 제 영어 이름이 '바울'이기 때문에, 영어 이름을 지어 달라고 하기에 '디모데'라고 지어 주었읍니다. 막내 며느리가 그 얘기를 듣고 있더니만 "아버님

저도 명년 오월달 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해산할텐데 이름 하나 지어 주세요"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지금 약속해 놨읍니다. 누구든지 어린애를 낳으면 이름을 짓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누가 지었읍니까? 그 할아버지가 지은 것도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가 지은 것도 아니고 어떤 유명한 성경학자나 또 제사장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도, 보통 사람은 낳고 나서 이름을 짓든가, 아니면 조금 몇 달 전에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7백년 전에 이미 지었읍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하고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읍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의 이름은 큰 의미가 없는것 같아요. 죠지 워싱턴이니, 아브라함 링컨이니, 제퍼슨이나, 마틴 루터 킹이니, 잭슨, 스미스, 등등 이름이 별로 큰 의미가 없는데 반해 한국 사람들의 이름에는 의미가 있읍니다. 대개 한국 사람은 복을 좋아하기 때문에, 복남이, 복동이, 복순이, 복돌이 등 복 자를 많이 씁니다. 유대 사람들도 이름에 큰 뜻이 있어요. '아브라함'이란 이름은 만국민의 아버지란 뜻이고, '모세'란 이름은 물에서 건져낸 사람이란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아들을 낳거든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 '임마누엘'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들이 보통 큰 사람, 이름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들과 항상 함께 있으면 그것은 마음이 참 기쁜일입니다. 서울에 나이 많으신 차명숙 권사님이 계신데, 과거에 간호원으로 일제 때 연애하다 실패해 상해에 가 국제 무대에서 활동하던 여자이었읍니다. 그가 회개하고 예수 믿은 후 권사님으로 백발이 다 되었읍니다. 제가 서울 갔더니, 저를 붙잡고, "목사님하고 함께 있을 때 이렇게 기쁠 적에야 우리가 천당가서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얼마나 기쁠까요?" 하더군요. 그 말이 지금도 저에게 잊혀지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이렇게 기쁜데, 부부가 떨어졌다가 만나면 그렇게 기쁜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저 우리와 함께 가만히 앉아 계십니까? 앞만 바라보고 있는 부처 모양 그냥 앉아 계십니까? 저 공자님의 석상 모양 가만히 팔장을 끼고 가만히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자식을 낳기만 하고 그냥 놔두는 부모는 하나도 없읍니다. 일단 자식을 낳았으면, 그 자식을 위해서 온갖 사랑, 온갖 봉사, 온갖 정성, 온갖 희생을 다하는 것입니다. 기저귀 갈고,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려 눕히고, 젖을 먹이고, 조금 커지면 단단한 것 먹이고, 옷 해 주고, 그 다음에는 학교 보내고, 학비 주고 용돈 주고 잘 키워서 잘 가르쳐서 사람을 만들어 잘 사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부모님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도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갈림길 많은 세상에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첫번째의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했읍니다. 또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 내가 함께 하느니라'고 말씀했읍니다. 또 예레미야 1장 8절에 보면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 하리라"고 말씀했읍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말씀이 성경에 나타나는데, 이 첫번째에 말한 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칠 때에 하나님이 한 번 나타나서 "너는 애굽에 가서 너희 백성을 바로의 학정으로부터 건져 해방하여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때 모세는 하지 못한다고 그랬읍니다. "왜 못하느냐?" "내가 군인이 있읍니까? 무기가 있읍니까? 또 나는 입이 둔해서 말도 잘 할줄 모르는데 어떻게 대국의 바로의

학정에서 우리 백성을 어떻게 내가 해방해서 끌고, 가나안으로 갈 수 있읍니까?" 못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같이 하시므로 열 가지 재앙을 베풀었읍니다.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갈랐읍니다. 그 백성을 해방시켜서 광야로 끌고 나왔읍니다.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줘서 인도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역사를 완성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네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했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향하여 가다가 요단강 동편에 와서 가나안을 멀리 쳐다보면서 그만 거기에서 죽었읍니다. 이 위대한 지도자를 잃어버린 백성들은 실망이 대단하였지만, 모세를 따르던 여호수아를 제 이의 영도자로 삼았읍니다. 여호수아가 그 대권을 받아 가나안을 쳐들어 가려고 할 때에 너무나도 그 앞길이 암담했읍니다. 물론 자기는 열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으로 40일 동안 가서 돌아보고 와 아주 긍정적인, 적극적인 보고를 한 사람이지만, 막상 책임을 지고 보니 그 앞의 장애물을 생각할 때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읍니다. 이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했읍니다. 여기서 힘을 얻어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쳐들어가서 6년 동안을 정복하고 46년 만에 고달픈 광야 생활의 무거운 짐을 벗어 놓고 새로운 나라의 주춧돌을 세워 놓았읍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했읍니다.

여기서 예레미야 1장에 있는 말씀은 예레미야가 처음으로 어렸을 때 선지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내 백성에게 내 말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때 예레미야가 여기 1장 6절에 보니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니이다"라 했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태중에 있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러니 너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셨읍니다. 이 말을 믿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회개의 복음을 전할 때,

그의 말은 사람들의 귀에 거슬렸습니다. 사람마다 좋은 말은 마음에 거슬립니다. 뭐 이리 저리 구경하고, 책, 영화, 이런 것은 좋아하지만, "회개하시오 당신, 당신 첩 생활 버리시오. 당신 주정 끊으시오" 이런 것은 다 옳은 줄 알면서도 싫어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람들이 옷에 묻은 때를 털어주면 고맙다 하지만 마음의 때를 털어주면 제까짓것 무엇이 잘나서 저 따위 소리를 해. 대개 다 이러거든요. 이 바른말 하니까 예레미야에게 핍박이 오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므로 예레미야는 담대히 위대한 업적을 자기 조국에 남겨 놓았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서 옳은 길로 인도하고 너의 하고자 하는 일을 도와 준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풍족히 채워 주십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지만 자식을 낳아 그 아이가 필요한 것을 다 주는 것이 부모님입니다. 제가 이제 60이 되고 애들도 다 이제는 공부를 마치고 결혼을 해서 직업들을 가져 제 밥벌이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다지 애들에게 주지를 않고 오히려 받아 쓰는 형편이지만, 그 전까지야, 그래도 우리 내외가 그저 무엇이든지 공급해 줬읍니다. 추울 때는 따뜻한 옷, 더울 때는 시원한 옷, 그 다음에 국수도 주고, 밥도 주고, 그 아이들, 공부하는 것 모든 것을 다 대줬읍니다. 부족한 부모라도 자식을 낳아 자식이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주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같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필요한 것 다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고, 네가 이 광야의 두루 행함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함께 하였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고 했읍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그 백성을 데리고 나올 때에, 장정만 60만 3천 5백 50명이라 했읍니다. 그러나 거기에다 노

인들, 여자들, 아이들까지 합하면 2백만이 훨씬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올 때에 양식을 좀 갖고 나왔지만, 광야는 사막입니다. 거긴 농사 지을 땅이 아닙니다. 거긴 목축할 땅도 아닙니다. 그 시내 광야를 40년 동안 헤맬 때에 양식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 먹었습니다. 먹어보니까 아주 고소하다고 했습니다. 만나란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게 무엇이냐?' 그 뜻입니다. 먹어보니 이상하게 괜찮단 말에요. 만나가 떨어져 먹고, 그 다음에 고기좀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떨어 뜨려서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목이 마르다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물을 마셔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이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시므로 그 망망한 그 풀 한포기 없는, 어떤 때는 그 쨍쨍 끓는 가마솥과 같은 사막에서 40년 동안 부족한 것 없이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에 "그리한즉 고기를 에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시몬이란 사람(베드로의 전 이름이 시몬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벳세다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니, 배를 좀 빌려달라고 그래요. 배를 빌려 드렸습니다. 배에 올라 타시더니, 그 뚝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너희는 고기를 잡았느냐?" "잡지 못했읍니다" "그물을 저 깊은 곳에 던져봐라" 그 깊은 곳에 던졌읍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던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생님, 천국 복음은 당신이 권위가 있지만, 이 고기잡는 것은 내가 더 잘하는데요. 내가 여기서 났읍니다. 우리 조상들로부터 이것 대대로 고기잡는 사람들인데 선생님이 뭐, 나사렛 청년이 이렇게 갈릴리 바다에 와서 고기잡는 것을 말합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점잖은 사람이 말씀하시니 그물을 던졌더니만, 어떻게 그물에 고기가 많은지, 여기 성경에 보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라 했읍니다. 자기 배에 채워 넣어도 안되니까 다른 배까지 가라앉도록 채웠읍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 말에 순종했더니, 풍성히 잡았다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셔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계셔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예수님이 없고 돈만 있고, 지식만 있고 감투만 있다면 아마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마음 속에, 가정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풍족히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했읍니다. 이것은 다윗이 백발이 되어 이제는 하늘 나라에 갈 날이 가까왔을 때 자기의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목동 생활의 고생, 군인 생활의 여러 번 죽을 뻔한 것, 정치 생활의 험난한 그 생활한 것을 뒤돌아볼 때 너무나도 파란곡절 많은 생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채워 주신 것을 시로 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축복해주셔서, 나에게는 의식주 모든 것이 풍족하다고 간증한 것입니다. 저는 19년 전에 미국에 올 때에 가방 하나만 가지고 왔는데, 요새 집에 가서 안팎을 보면 없는 것 없이 부족함이 없읍니다. 지난 번에 로마에 가서 내 딴에는 열심히 부흥회를 했더니, 어떤 부인 하나가 그 좋은 실로 쉐타를 하나 짜서 줬읍니다. 입어보니 아주 좋은 실인데, 아주 풍성풍성해요. 그런데 또 비행장에 오니 그 신자들 중 학생들이 쉐타를 하나 목사님 사드린다고 그러면서 가져 왔읍니다. 그 후 독일에서 제가 집회를 하는데, 독일에 있는 감리교 목사님이 아주 가난해요. 그래서 로스엔젤레스에서는 이 쉐타 뭐 필요 없지. 더우니까요, “목사님 나 미국 가면 이것 필요 없읍니다. 이것 로마에서 받은 건데 목사님 입으세요.” 하며 둘다 드렸읍니다. 그리고 크레브란 곳에서 지난 번에 부흥회를 했더니 어떤이가 큼지막한 보따리를 가지고 왔읍니다. 집에 가서 풀어보니 정 철훈 씨의 형님이 큰 가게를 하는데 남방 셔츠 열 장이 있읍니다. 내가 두 개 줬더니 열 개가 생겼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여 너에게 평안을 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0장 42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고 했읍니다. 다윗은 정말 목동입니다. 골리앗 대장을 죽인 사람입니다. 마땅히 나라에서 정말 받들어야 할 사람인데, 사울 왕이 시기 합니다. 왜 시기하는고 하니 사람들이 다윗을 더 높이 추앙을 하기 때문입니다. 시기라는게 무서운 것입니다. 너무 유명해지면 그것도 위험합니다. 그럴 때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자동적으로 임금될 사람이, 이 다윗을 어떻게 하든지 보호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위기를 피하게 하려고 자주 일러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같이 하시므로 하나님의 평안이 너에게 같이 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단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단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다윗이 자기보다 나으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는 내가 왕 되는 것보다는 네가 왕 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죽마고우의 우정입니다. 이게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냥 끌어 내리고, 짓밟고, 터칠려고 하는 것보다는, 나보다 나은 사람을 앞서 보겠다는 것보다 오히려 그를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정신입니다.

역대상 22장 18장을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강을 주지 아니 하셨느냐"고 했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함께 하신다, 사면에게 평강을 준다"고 하셨으니 이것은 "솔로몬아, 네 사방 주위에 원수 나라가 많지만, 나라에 평안을 줄 것이다. 네 마음이 더 평안해질 것이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평화의 왕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 했지만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치 아니하고, 평화의 왕 솔로몬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해서 성전 지은 것처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같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마음이 평안하고 나라가 평안했읍니다. 하나님이 같이 할 때에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러므로 시편 127편 1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숫군의 경성함이 허사로다"고 말씀했읍니다. 하나님이 같이 할 때에만 마음이 평안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 했지요. 제가 이북에서 1946년 공산당들이 남한의 스파이로 몰아 내일 잡아 죽인다 할 때에 밤새도록 기도했읍니다. 하나님 한 번 살려 주면 제가 당신의 일꾼이 되겠다고 목숨을 걸고 기도 했읍니다. 우리 형님은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날보고 예수 믿고 같이 일 하자고 그랬는데, 제가 거부하고 그렇게 다니다가 그만 공산당에게 내일 아침이면 죽게 되었읍니다. 생에 대한 미련과 애착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일가 친척 찾다가 마지막에 처음으로 교회도 다녀보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절 살려 달라고, 제가 살면 영국의 요한 웨슬레 형제와 같이, 우리 형님과 함께 신학을 공부해서 한국을 위해서 계몽과 전도를 하겠다고 간절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음성 세 마디를 들었어요. "안심하라, 죽지 않는다, 내 일꾼이 될 것이다"하시는 것이었읍니다. 어떻게 평안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같이 하실 때 평안함이 있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 가신다니까, 제자들은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어려움 때문에 불안해졌읍니다. 선생님이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하고 말입니다. 그 때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했고,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고 했읍니다. 또 계속하여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도다"하셨읍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는 예수님은 부활하여 그 다락에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안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읍니다. 이것도 큰 소리로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랄지 모르니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마 잔잔한 목소리로 "평안

이 평안은 풍랑 위에서도 뱃머리에서 코를 골고 자는 평안이요. 옥 중에서 매를 맞고 양발에 쇠고랑을 차고서도 찬송하는 평안이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어 가면서도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는 평안인 것입니다.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 아기가 절벽 끝에서 놀고 있읍니다. 한 발자욱만 잘못 디디면 떨어져 즉사하려는 위기에 서 있읍니다. 그 어떻게 해야 살려 내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지혜를 써야 합니다. 그런 때는 어머니가, 지혜를 써가며 무슨 장난감 하나 같은 것 가지고 조용히 불러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큰 소리로 "애야!"라고 부르면 아기는 오히려 놀라 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같은 것 하지도 말아라, 평안할지어다"하셨읍니다.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순간적 평안입니다. 찰나적 평안입니다. 가정성이 있는 평안입니다. 이것은 위험한 평안입니다. 그러나 돈 있는 사람, 평안하지 않습니다. 큰 집에 사는 사람, 평안하지 않습니다. 높은 감투 쓴 사람, 평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이 평안은 하나님이 같이 있을 때, 이 평안은 풍랑 위에서도 뱃머리에서 코를 골고 자는 평안이요, 옥중에서 매를 맞고 양발에 쇠고랑을 차고서도 찬송하는 평안이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어 가면서도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는 평안인 것입니다.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임마누엘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너희들이 어딜 가든지 보호하마, 어떤 원수와 마주 더불어 싸울 때에도 승리케 하마," 즉 보호와 승리를 의미한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찌니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 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했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것은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장자의 기업을 빼앗아 형이 죽이려 할 때, 어머니의 "하란 땅으로 도망 갔다가 네 형의 노가 풀리면 오라"는 말씀을 듣고 하란 땅으로 가는 광야 길에서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주신 말씀입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네가 다시 돌아 올 때까지, 너와 같이 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가서 20년 동안 머슴 생활 해가면서, 객지에서 고생 많이 한 끝에, 그는 세 가지의 성공을 했읍니다. 결혼의 성공, 자녀의 성공, 물질의 성공입니다. 거기다가 그리운 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읍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겠다는 것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그리고 승리케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하리라"하셨읍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7년 동안 와서 괴롭혔읍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산으로 피해 성을 쌓고, 땅굴에다 집을 짓고 살았읍니다. 그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 사람이라면 벌벌 떨었읍니다. 마치 일제 때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이라면 벌벌 떨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어려서 저 자라날 때에, 아버지, 어머니가 제가 울기만 하면, "일본 사람 온다. 순사 온다" 하면 울음을 그쳤다 합니다. 그 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미디안 사람이라면, 모두가 벌벌 떨었읍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한다"고 하셨읍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단지 300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군대를 다 무찔렀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은 "우리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고도 남게 한다"고 하셨읍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할 때 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온갖 어려움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온갖 원수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같이 계십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한 번 부모와도 부부지간에도 자식간에라도 떨어질 날이 있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편 27편 10절에 "네 부모는 너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너를 영접한다"고 하셨읍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같이 계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볼찌어다 세상 끝 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항상 같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읍니다. 앞으로 몇 십년 후에는 지금 설교하고 있는 임 동선 목사를 볼려고 해도 절대로 보지 못할겁니다. 벌써 무덤도 사 놨으니까요. 우리는 헤어집니다. 떨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있읍니다. TO THE END, EVERLASTING.

여러분 또 이 세상 끝 날까지만 아니예요. 요한복음 17장 24절을 보니까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라고 했읍니다. 이것 무슨 말씀입니까? 내 사랑하는 내 택한 백성들이 내가 가는 아버지 나라에 저들도 와서 나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을 영원히 보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원했읍니다. 하늘 나라에 가서 같이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이별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같이 살 것이라"고 말씀했읍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님이 강도보고 "네가 오늘 나와

같이 가서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읍니다. 영원히 같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인도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영원히 같이 계시겠다는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 앞에 갈래길이 많지만, 옳은 길로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필요 한것 다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을 주실 것이고, 위험 속에도 보호하실 것이고, 어떤 마귀와 싸움에도 이기게 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상 끝 날까지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까지 가서 영원히 계속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임마누엘의 탄생을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 하시고 축하 하시고, 이 임마누엘의 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제든지 함께 하신다, 어디든지 같이 하신다, 어떤 환경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이 신앙을 갖고 소신껏 살아,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땅과 하늘 나라에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땅끝까지 이르러 가난한 자에게
(가나)

나는 런던 비행장에서 아프리카행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아프리카에 다녀온 사람이 나에게 조언해 주었던 말들을 되새겨 보았다. 그의 조언은 이러했다.

●아프리카는 외화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쓸만큼 교환하라. 쓰다 남은 돈은 다시 바꾸어 주지 않는다. ●치안 상태가 불안하므로 현찰보다는 여행자 수표를 쓰거나 비자, 매스터카드를 쓰라. ●출입국시 공항 세관원들이 일부러 짐 검사를 까다롭게 하고 고의적으로 늑장을 부리니 필요에 따라서 5불, 10불, 20불을 팁으로 준비하라. ●말라리아와 풍토병이 많으니 세 가지 예방주사를 맞을 것. 또 말라리아 약을 지참하여 매주 규칙적으로 복용하고 귀국 후에도 3주간 복용하라. ●숙소는 가장 좋은 곳에 들어야 모기, 음식, 도난 방지에 좋으며 밤 늦게는 다니지 말 것. 또한 밤늦게 혼자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라. ●아프리카에는 북한 대사관이 어디나 있으므로 택시를 탈때는 반드시 「사우스 코리아 대사관」이라 미리 말하라. 북의 대사관이 먼저 그 곳에 와 있기 때문에 그냥 「코리아 대사관」이라고 하면 북한 대사관으로 간다는 것이다.

고마운 충고가 약간 불안감을 주었다. 그러나 마태복음 11장 5절에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 기록이 있고, 사도행전에는 1장 8절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 생각나 더욱 가고자 하는 마음이 불붙었다.

가나에 도착했다. 비행기에서 내리려니까 비행기에서 내리는 트랩이 없었다. 얼마 후에 긴 목재 사다리로 여행객들은 내렸다. 비행기에서 내려 장내를 살펴보니 비행기는 단 한대였다. 내가 타고 온 비행기는 연병장같은 마당 한가운데 웅크리고 있었다.

걸어서 세관으로 들어갔다. 모든 것이 초라하게 보였다. 세관 관리는 여행자들에게 지참금을 다 내어 놓으라고 한다. 나도 예외는 아니었다. 내 돈 중에서 20불짜리 하나를 자기 주머니에다 넣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돌려 주었다. 후진국 아프리카의 추태라고 볼까 낭만이라고 볼까 어쨌든 나는 예비 상식이 있었으니 그런가 보다고 생각하면서 공항을 빠져 나갔다. 열대성 기후가 내 몸에 부딪히고 있었다.

짐을 들어주겠다는 사람들이 벌떼와 같이 달려 들었다. 가나 세관에서는 짐짝을 들어다 주는 사람에게는 세관검사가 없었으며 자기 혼자 들고 나오는 사람은 세관검사를 받아야 하는 곳이었다. 나는 세관검사 없이 빠져 나왔다. 짐을 든 사람이 택시를 타고 호텔까지 안내해 주었다. 가나에서는 일류호텔이라는 컨티넨탈 호텔에 목욕물이 나오지 않고 화장실 물도 나오지 않았으며 시설도 좋지 않았다. 미국의 4류 호텔과도 같았다. 나는 약간을 가나 화폐로 교환했다. 그리고 한국대사관에 가려고 택시를 잡으려고 했다. 그러나 택시를 잡기가 힘이 들었다. 호텔 측에 문의한 즉 휘발유 사정이 나빠서 택시가 잘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이다. 1주 동안은 밤낮 기다려야 4 갤런의 휘발유를 주유소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한국대사관에 갔을 때 대사 내외가 반가이 맞아 주었다. 대사의 부인은 독일사람이었다. 그 곳 대사관에는 부영사 내외가, 통신과장 내외가 기독교신자였다. 목사가 아프리카 가나에 방문하니 더욱 반가이 맞아 주었다.

나는 5일간 가정집회를 가졌다. 해변가에 있는 테마 원주민 교회에서도 설교할 수 있었다. 교인은 150명 정도였다. 그들은 한국인 목사의 설교에 귀를 기울였다. 예배가 끝났을 때는 몹시도 반겨 주었다. 생면부지의 사람들이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친교할 수 있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였다. 찬송가를 열광적으로 부르며 일어나 춤을 추고 돌아갔다.

가나는 사회주의 국가로서 문화 수준이 아프리카에서는 높은 편이다. 가나의 수도는 아크라(Accra)이다. 청년들을 유학시키고 있는데 주로 공산국으로 보내고 있다. 북한 5백명, 쿠바 6백명, 리비아 4백명, 불가리아 4백명, 기타국 등으로 보내고 있다.

가나 수도 아크라에는 남과 북의 대사관이 있다. 남한의 대사관에는 대사를 비롯 전 공관원이 부인과 가족들을 대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은 대사부인 1명뿐이고 다른 공관원과 부인과 가족이 없었다. 사우스 코리아 대사관은 운전수를 채용하되 현지 주민을 기용하나 북은 꼭 이북에서 데려오며 북의 대사의 행동을 기록 감시한다고 한다.

과거의 가나는 아프리카에서는 문화적으로도 높은 수준으로 생활수준도 좋았다고 한다. 그런데 사회주의 혁명이 있는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사람을 학살하고 사유재산을 박탈했다. 그로 인해서 부자와 지식인들이 망명의 길을 떠났다. 그러므로 오늘의 가나는 크게 후퇴하고 있다.

실례를 들면 세수비누도 살 수 없고, 성냥도 없을 정도이다. 한국인은 수도 아크라에 20명이 살고 있으며 테마에는 어업 종사자들이 2백명 가량 살고 있다.

교포 중에는 사업에 성공하여 가나국의 유지로서 명성을 쌓은 사람도 있다. 김 복남씨. 김씨는 15년 동안 가나에서 어업에 종사했다. 게으른 가나 어업 종사자와 행동을 같이 했으나 2배, 3배의 수획고를 올렸다. 그는 돈을 벌게 되었다. 그는 어업으로 번 돈을 웅크려 쥐고만 있지 않았다. 의료사업에 헌납을 했고 체육, 교육, 구제, 사회단체, 양로원 등 가장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었다.

코리언 김 복남씨는 가나에서 인기있는 인물로 등장했다. 가나 축구 대표단이 외국을 가서 운동시합을 할 때도 전 경비를 김 복남씨가 희사하기도 했다. 그가 외국에 갈 일이 생겨 공항에 나가게 되면

그 나라 장관들이 인사를 하러 나올 정도이다. 너무나 머나먼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민에 성공하여 살아가는 코리언을 볼 때 내 마음이 뿌듯했다. 우리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도 이 사회에 공헌하여「코리아」,「코리아」가 미국 사람들의 입에서 나왔으면 싶다.

현재 큰 어선이 14척 있으며 어선 창고도 가지고 있다. 그가 그곳에서 만든「새마을 농장」에서는 야채, 쌀 등이 현재 재배되고 있다. 2백만불이나 투자한 보람의 사업이다. 게을러서 잘 살지 못하는 가나민에게 성공의 본보기를 보여준 훌륭한 행동이었으며 모범이 되었다.

김씨뿐 아니라 2백여 명의 한국인들이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자기 맡은 일에 충성을 하고 있다. 해외에 나가 있는 민간 외교관들의 장한 코리언 모습들이다. 미국에서도, 세계 각지에서도 제2, 제3의 김복남씨가 나올 것을 기대한다.

'백인의 무덤' 에서 사도행전을 읽으며
(아이보리코스트)

내가 다음 떠날 예정지는 나이제리아였다. 아이보리 코스트는 내 계획에는 없는 방문국이었다. 그런데 나이제리아로 부터 온 한국상사 대표들과 가나 대사관 직원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꼭 가지 않으면 안될 일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나이제리아만은 중단하고 딴 곳으로 떠나라는 권유였다. 가나 대사관 직원과 상사 대표들이 말하는 나이제리아 치안상태는 다음과 같았다.

●어떤 여행자가 가방에 1백만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 그런데 세관직원이 검사를 해야겠다고 하면서 가방을 가지고 사무실로 갔다. 시간이 흘러도 세관원은 나타나지 않았다. 세관원은 외국 여행자의 돈을 가로채고 줄행랑을 놓은 것이었다. 이처럼 불신의 사회가 바로 나이제리아라고 한다.

●시내 택시를 타고 들어가는데 고의적으로 차의 발동을 꺼놓고 손님에게 차가 고장이 났으니 내려서 밀어 달라고 애원한다. 손님이 내려서 밀 때 차 발동을 시켜 가지고 손님을 놔두고 차에 실은 짐만 가지고 뛴다는 것이다.

●차 사고로 사람이 길에서 치어 죽으면 일반인이나 경관이나 그 누구 하나가 치어 죽은 사람을 돌보지 않고 있으며 수많은 차가 그 시체를 넘어 다녀서 가루가 되어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들도 그 곳 원주민 사원이나 공관원들의 보호를 받아야만 왕래한다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는 나이제리아 행을 포기했다. 그래서 아이보리 코스트로 여행의 기수를 돌렸다. 아이보리 코스트는 불란서 식민지였었다. 또 친미국적이었다. 비자 없이도 48시간 체류할 수 있다고 한다.

가나 비행장을 나올 때는 돈을 달라고 하였다. 들어갈 때는 자기가 소지품 검사를 한다고 하면서 여행자의 가방에서 자기 마음대로 돈을 가지더니 나올 때는 그런대로 신사(?)에 가까운 태도였다. 나는 공항직원에게 할 수 없이 돈을 주었다.

50분 동안 비행을 하니 아이보리 코스트의 아비장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나는 비자 없이 그 곳으로 갔다. 공항 관리인은 나에게 비자가 없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고 잘라 말하는 것이다. 구내 대합실에서 쉬고 내일 아침 8시 구내 경찰서장이 오면 문의하라고 한다. 이 나라는 불란서 식민지였기 때문에 불어 아니고는 통용되는 말이 없었다. 나는 곤경을 치르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구내 대합실에서 하룻밤을 새울 수 밖에 없었다. 아비장은 아프리카 모기 중에서도 가장 독한 모기가 있어서 한번 물리면 위험하다는 예비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눈을 붙일 수가 더욱 없었다. 지난날 불란서 사람들이 이 나라에 와서 모기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아이보리 코스트는 「백인의 무덤」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다. 또 근래 일본 대사도 두 분이나 모기로 죽었다고 한다. 대합실에는 모기가 굉장히 많았다. 사람을 물려고 덤벼드는 것이다 하룻밤을 모기와 싸우면서 뜬 눈으로 지샜다. 나는 성경을 펴서 사도행전을 읽으며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고생을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침 8시 30분에 서장이 왔다고 하기에 서장실로 찾아 갔더니 한국인 한분을 만날 수 있었다. 그분의 이름은 김 영태씨로서 태권도 사범이며 그가 이 곳에 온 지는 15년이 되었다고 한다. 김 영태씨는 아이보리 코스트에서는 유명한 분이었다.

그는 사관학교, 경찰서, 헌병대,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쳐 주는 사범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찾아간 서장도 김 영태 사범의 제자였었다. 김 선생의 말 한 마디로 무사히 통과하여 시내로 나갈 수 있었다. 나는 시내에 가서 호텔에 투숙했다. 김 사범의 말에 의하면 자기가 가르친 제자 중 13명이 현직 장관이라고 한다. 이 분은 아이보리 코스트의 올림픽 실행위원을 시켜 서울 올림픽 유치에도 공헌한 분이었다.

그 분이야말로 관직과 보수가 없는 훌륭한 민간 대사였다. 아이보리 코스트는 교포가 60명 가량이 되며 세대수는 22세대가 그 곳에서 생활하며 살고 있다.

아프리카에는 한인들의 분포가 공관원, 나라에서 파견한 의사, 은행, 상사, 어부(바다가 있는 나라에만 어부가 있었다), 아비장에는 교회가 없었고 기도처만 있었다. 치과 의사인 닥터 리댁에서 모임을 가지고 있었다. 장로가 한 분, 집사 몇 명과 성도들이 약 20명 가량 되었다. 그 곳에서 하룻밤 특별집회를 가졌다. 성도 하나하나가 다 은혜를 받고 좋아했다.

아비장은 현대도시로서 아름다왔고 아프리카의 파리로 불려지고 있었다. GNP는 1천 3백 불이며 대학출신 공무원은 3백 불의 월급이고 우수한 학생은 대학까지 장학금으로 무료로 공부를 시켜 주었다. 그 중에서 40%는 구미지역으로 다시 유학을 보내 주었다. 의사는 5백 불 급여에 가옥과 자동차가 제공되고 있으며 대학 교수는 9백 불까지 월급을 받고 있었다. 이 곳 사람들은 불란서인들에게 우호적이며 의사 중 80%가 불란서 의사였다. 불란서 의사들은 봉급의 80%는 불란서 본국에서 받았으며 아이보리 코스트는 20% 정도 지급되었다. 인구는 6백만 명이며 장관이 36명이나 되었다. 아프리카에는 장관이 많은 것이 특색이다. 그 이유인즉 여러 부족에서 대표 하나씩을 뽑다보니 자연히 장관 자리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부족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그 부족 장관을 파견하여 문제 해결을 한다고 한다.

아이보리 코스트에는 여름방학이 4개월간이며 그 때는 모든 사업과 상업이 거의 정지 상태가 된다. 이들은 피서를 위해 외국으로 떠나기 때문이다.

이 곳에는 한국산 자동차를 볼 수가 있다. 현대 자동차에서 만든 포니(Pony)가 판을 치고 있다. 참 기쁜 일이었다. 한국 식당에는 김회장 부인이 경영하는 단 하나의 한국 식당이 있는데 이름은 서울식당이었다. 이 서울식당에는 한국인, 불란서인, 원주민, 각국 관광객들이 즐겨 찾아오고 있다.

짧은 이틀이지만 김 회장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참 뜻을 일깨워 주었다. 이 곳 검은 사람들은 색깔이 검을수록 미인이며 튀기는 괄시를 받고 있다. 더러운 피가 섞였다고 자기네들끼리 멸시를 하는 것이었다.

‘랑바네’ 에서 슈바이처 정신의 영상을 보듯
(가봉)

가봉의 리브리 비행장에는 교포들이 나를 마중 나와 깜짝 놀랐다. 대사관에 근무하는 김 집사 내외, 상사 지사에 근무하는 집사와 성도들이었다.

나는 여기에 4백 명 정도의 한국인들이 살고 있음을 알았다. 상사 지사나 개인업을 하고 있는 동포가 약 1백 명이고 기타 3백 명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부들이었다.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에는 더욱 기쁨이 있었다. 우리 한국이 이민 정책에 더욱 활기를 띠어 많은 국민이 해외에 이주하여 세계를 우리의 무대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더욱 간절했다.

가봉에 계신 윤 억섭 대사 내외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침례교 집사님이었다. 이 곳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 쌍용회사가 지은 건물에 교회가 입주하고 있었다.

신자들은 40명 정도이고 주일 학교와 한글 학교도 있었다. 그 곳 신자들이 묻기를, “목사님, 어떻게 이곳을 오셨읍니까? 우리들은 목사님이라고는 처음 만나뵙게 됩니다. 여기는 목사님이 없어서 본국으로부터 목사님들의 설교 녹음 테이프로 매주일 예배를 보고 있읍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목사를 만난 것이 그렇게 기쁜 모양이다. 그리고 그들은 나에게 부흥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나는 다음 목적지인 케냐로 갈 비행기를 좀 알아봐 달라고 했다. 그러나 “10일 이내에는 케냐로 가는 비행기가 없으니 아예 10일간 부흥회를 부탁합니다”하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새벽, 낮, 밤 등 하루 세번씩 집회를 해달라고 했다. 이들이 얼마나 목이 말랐으랴 생각하니 안스럽기만 하였다. 목자없이

유리하는 양떼에게 복음을 전할 일꾼이 없겠느냐? 나는 집회를 수락했다.

12시부터 3시간 쉬니까 오후 집회 시간이 된다. 시간 시간마다 지칠줄 모르는 힘을 주었다. 간절히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그들, 언제 다시 목사님의 설교를 직접 들어볼지 모를 그들이기에 꼭 이번 집회에 은혜 받아야겠다는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진리가 그들의 마음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깊으신 그리고 넓으신 사랑이 강물처럼 천사처럼 빛나는 그들의 눈동자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뿍 담겨져 있었다.

윤 대사 내외는 한국의 대표자로서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뿐만 아니라 가봉에 와 있는 교포들의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그들을 돌보아 주고 특히 신앙으로 선도하여 모든 한국 교포들로부터 신임과 존경을 받고 있었다.

한인 교포들은 상사 지사의 직원도 적지 않지만 개인 영업을 하는 이도 많았다. 주로 보석상, 잡화상, 이발소, 카메라, 라디오 등 장사를 하고 있으며 장사도 잘되고 있어서 재미도 있다고 한다.

그 곳에는 중공의 농업 지도자들이 많이 와 있다. 이 중공 사람들이 주로 한국 상점에 와서 거래를 많이 하고 있다. 적도 남하에 있으니 동양 사람들이라 그리웠던 모양이다. 어쨌든 중공 사람들은 한국인 상점의 고객이 되고 있었다. 한국 사람들이 그들을 잘 도와주기도 해 한국인과 중공인과의 친선은 아프리카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있었다.

부흥 집회를 하는 사이 즐거운 여행을 하게 되었다. 랑바네(Lanbane)에 3일간 가게 된 것이다. 인류의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는 슈바이쳐 박사가 평생을 바친 곳이다.

랑바네는 원래 콩고에 속해 있었다. 제 2차 세계 대전 후 불란서에서 아프리카 불령을 쪼개 원주민에게 반환할 때 콩고에서 가봉으로 편입시켰다.

가봉 수도에서 약 한 시간 동안 날아가니 랑바네에 도착할 수 있었다. 포장도 없는 원시적 비행장이었다. 이 곳은 황토색의 원시적 마을이다. 이 곳에 있는「오고이」강은 물이 넘쳐 흘러 가고 있었다. 유유히 흐르는 오고이 강물을 한참 동안 바라보면서 슈바이쳐 박사의 생활을 영상에서 보듯 느낄 수 있었다.

랑바네는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다. 그러나 슈바이쳐 박사가 생존했을 때 보다는 그 수가 적어졌다고 한다. 택시를 타고 30분 가량 달려가니 슈바이쳐 박사의 병원이 나온다. 병원 밖에는 나환자들의 수용소가 무수히 있다. 나는 병원 안으로 들어갔다. 슈바이쳐 박사가 이 곳에 처음 도착해서 원주민에게 병을 고쳐 주고 약을 주는 댓가로 나무와 교환해서 그 나무를 손수 켜서 병원과 사택을 지은 건물이 있다. 제법 긴 건물이었으나 판자집이었다. 이 방안에는 수술실, 약국, 입원실, 슈바이쳐 박사의 거실, 박물관, 간호원 숙소, 식당 등이 있었다. 바로 숙소와 병원 사이에 슈바이쳐 박사 내외의 무덤과 그와 같이 평생을 일하던 간호원들의 무덤이 있었다. 슈바이쳐 박사는 무엇이나 공짜라는 인식을 미개한 주민들에게 주지 않기 위하여 치료비를 꼭 나무로 받았던 것이다.

여기에는 슈바이쳐 박사와 같이 왔던 90세가 된 노간호원이 아직도 생존하고 있었다. 이 곳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산 증인으로서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고 있었다.

좀 더 높은 지대의 구역에는 현대식 건물로 된 병원과 병동이 있었다. 이 건물은 제네바에 있는 세계 의료 기구 후원회에서 슈바이쳐 박사의 정신을 추앙하고 그를 기념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모금운동을 펴서 걷어진 돈으로 세워진 정성이 깃든 건물이었다. 이 곳에서는 세계 각처에서 슈바이쳐 박사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그 정신을 보존코자 자진 봉사자로 온 많은 의사와 간호원들이 일하고 있다.

슈바이쳐 박사는 신학자요, 윤리학자요, 철학자요, 음악가요, 파이프 올갠 연주자요, 대학교수요, 저술가요, 의사로서 현대문명의

최고봉의 사람으로서 어느 나라에서나 최고의 대접을 받아가며 일할 수 있는 분이건만 백인들의 속죄를 위하여 그의 젊은 시절을 아프리카 적도 남하의 밀림 지대에 깊숙이 들어가 20세기의 문명을 등지고 온갖 고난을 감수하면서 그의 일생을 흑인들을 위하여 계몽하고 치료하며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암흑의 땅 그 곳에서 봉사하다가 그 곳에서 죽어 그 땅에 묻혔다.

오늘날 과학 문명이 비인간화로 전락되고 핵무기의 발달로 인류가 생존의 위협을 받는 이 때 슈바이처 박사의 생의 외경과 초월적인 인류애의 희생 정신이 더욱 아쉽기만 하다.

'게으른 땅'에 구령사업을 펼치고
(케냐)

10일 동안의 체류 중 정이 든 가봉의 교포들과 헤어지는 아쉬움이 컸다.

나는 기체 내에서 밖을 바라 보았다. 그러나 야밤이라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 내 시야에는 어두움이 가득하였다. 다시 찾아 오지 못할 최후의 이별같은 것을 느꼈다. 사도 바울의 머나먼 여행을 생각하면서 나의 사명감을 다시 일깨웠다. 시간이 제공되고 장소가 허락되는 모든 곳에서 힘있게 천국 복음을 전하자! 이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색에 잠겨 있을 때 내가 탄 비행기는 착륙 준비를 하라는 방송이 나왔다. 40분만에 카메룬 두알라(Douala) 공항에 온 것이다.

두알라 공항에서 수속을 마치고 케냐로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공항 대합실에 앉아 있는 나에게 백인 여자가 묻지도 않는 나에게 가방 조심하라고 일러 주었다. 그 말을 듣고 앞과 옆의 여행자들을 주의하여 보니 짐을 손으로 붙잡고 있는 사람, 짐에다 발을 걸치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권총과 기관단총으로 무장한 괴한이 날뛰는 곳이라고 생각되었다.

이 두알라는 2백만 명이나 살고 있는 도시이며 불령에 있었으므로 영어는 불통되고 있었다.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불안한 분위기였다. 비행기를 빨리 갈아 타지 않으면 기약이 없이 무수히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의 종이 불안하다고 느껴지는 역경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우리 주님이 주셨기 때문이다. 전도자는 언제나 괴로움 속에서도 평안을 찾기 마련이다.

이윽고 나는 비행기 속에 몸을 실었다. 날이 밝기 시작하더니 빅토리아 폭포가 있는 곳을 지나친다. 새벽 5시 10분이 지나서 케냐 국제공항 나이로비(Nairobi) 에 안착했다. 나는 아프리카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횡단하고 있었다. 동서의 시차는 2시간이었다.

장로교에서 파송나가 있는 임 종표 선교사가 반가이 맞아 주었다. 그 곳에는 한인 교포가 경영하는 호텔이 있었다. 나는 그 오아시스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아프리카에서는 단 하나 밖에 없는 교포 경영 호텔이었다.

9월 18일에 도착하니 그 날이 주일날 아침이었다. 쉬지도 못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갔다. 이곳에는 공관 직원, 상사 직원, 회사 직원 등이 출석하고 있으며 약 40명이 교회에 출석하였다. 이 곳에는 한인 교포가 1백 명 정도 살고 있었다. 우리 교우들과 같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친교 시간을 가졌다. 핫덕과 수박 그리고 다과 등이 나왔다. 반갑고 즐거운 대화가 오갔다.

케냐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선교에 나서고 있다. 내가 시무하고 있는 동양 선교 교회 한 부일 집사님의 딸 한 미경 양이 선교사로 이 곳에서 일하고 있다. 한 양은 미국에서 수학한 열심있는 분이다. 서울 이화대학 출신들이 선교 훈련을 받아 가지고 외로운 땅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 이대 사대 출신의 송 영은, 약대 출신의 박 양미, 남자로서는 최 재신 선교사도 있었다. 또 화란에서 온 처녀 선교사는 화·영·독·불·이·케냐 등 6개 국어에 능통했으며 남녀 선교사들은 케냐 말을 배워서 그 나라 말로 선교하며 노래도 부르며 찬송도 불러 가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원주민들의 박수갈채는 끊일 줄 몰랐다. 이 곳에 있는 젊은 선교사들은 1백 불정도면 생활비가 된다고 한다. 숙소는 그 곳에서 주기 때문이다.

나는 예배를 마친 후 임 선교사 집으로 갔다. 그 곳에서는 사무실이 있었다. 나를 사무실에 앉혀 놓고 한참 동안 밖에서 떠드는 소리가 났다. 시간이 흘러서야 임 선교사와 일행이 들어왔다. 뱀을 잡기 위해서 시간이 흘렀던 것이다.

몇 달 사이에 7마리의 뱀을 잡았다는 것이다. 뱀의 시련이 있었다. 나는 아프리카 대륙 횡단을 20세기의 문명 이기를 이용하여 하루밤 사이에 횡단하였지만은 1백 30년 전 리빙스톤은 혈혈단신으로 맹수, 독사, 모기, 식인종, 정글을 헤쳐 가며 두번씩이나 아프리카의 동서·남북의 횡단을 생각하면 그의 꿈, 그의 용기, 그의 지혜, 그의 사명감에 대한 충실성에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탄을 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영국 국민의 개척 정신, 모험 정신, 해외 진출이 오늘도 호주, 뉴질랜드, 카나다, 홍콩, 포크랜드 등에 아직도 대영 제국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식민지 정책은 반대이지만….

"자연의 악조건을 극복하고자 하는 굳은 의지를 가진 국민만이 뻗어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한 아놀드 토인비의 말이 기억된다.

케냐의 소도 나이로비는 1천 7백 미터의 고지에 세워진 도시이다. 이 곳은 땅도 좋고 기후도 좋아 식물과 수목이 청청하고 꽃이 만발하고 꿀도 많고 동물도 많다.

이곳에 있는 한국 식당에 가서 주인이 심어서 가꾼 배추, 무우, 고추, 파, 시금치 등으로 만든 배추김치, 깍두기, 동치미, 총각김치, 파장아찌, 무우나물, 콩나물을 먹을 때 신기하고도 감개무량했다. 나는 식당 주인에게 비료를 주느냐고 물었다. 그는 말하기를 워낙 땅이 비옥하여 비료가 필요없다는 것이다. 사실 땅 좋고 기후 좋으니 작물이 잘 자랄 수 있었다. 수확도 퍽 좋았다. 나는 원주민들에게 농사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었더니 또 대답하기를 그들은 워낙 게을러서 놀고 먹는 것이 그들의 생태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미개인은 먹고 춤추고 노는 쾌락에만 생의 의미를 두지만 문화인은 삶의 의무와 가치를 찾는데 차이가 있다. 미개인은 삶에 있어서 오늘과 현실에만 집착하지만 문화인은 삶의 깊이와 미래를 지향하고 있다.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하여 아프리카는 저주받은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임을 발견하게 되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프리카는 사막과 정글과 동물과 식인종이 사는 곳으로 오인과 착각하기 쉬운데 아프리카는 그렇게 비옥하고 식물이 무성하며 농사가 잘 되는 곳이다. 물론 아프리카 북부 사막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아프리카의 각국 수도는 20세기 서구 도시의 건물과 거의 동일하여 고층 건물, 엘레베이터, 각국 각종별 식당, 내부 시설이 완벽하고 자동차도 많고 사람들도 남자는 넥타이를 매고 구두를 신고 다니며 여자들은 숙녀복, 뾰족구두, 시계, 화장품, 향수도 뿌리고 다닌다. 각국 수도에는 국내, 국외 사람들을 상대하는 창녀들도 있다고 한다.

케냐에는 인도인이 1백만명 정도 살고 있으며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다. 지난날 영국이 케냐를 통치할 때에 인적 자원의 부족으로 똑똑한 인도 청년들을 데려다가 교육과 훈련을 시켜 영국인을 대신해서 그 곳에 파견했었다. 그들은 케냐를 통치하였다. 세계 제2차 대전이 종결된 후 영국인은 떠나고 인도인들은 계속 남아서 살고 있으며 상권을 쥐고 있다. 그러므로 인도 사람들은 케냐에서 제일의 부유층을 이루고 있다.

우리 한국은 그 곳에서 열을 올려 일을 하고 있다. 케냐에는 관광을 제외하고 현대 건설, 대우, 선경, 파라다이스 등이 외화 획득을 위해 나와있다. 진출해 있다.

현지에 있는 임 선교사가 내게 말하기를 케냐의 명승지와 동물을 구경하시겠읍니까? 아니면 이디오피아로 꼭 가셔야겠읍니까? 하고 묻는다. 나는 그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온 목적은 관광이 아니고 영혼을 말하기 위한 구령 사업이며 선교가 목적이기에 이디오피아 쪽을 택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아프리카에 그리도 많은 각종 동물과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해변과 건물들과 명승지는 보지 못하고 말았다.

붉은 깃발의 나라
(이디오피아)

이디오피아는 아프리카 동부에 위치하고 있다. 홍해를 접하여 북쪽 방향으로 뻗어 있고 불란서 영역과 근접한 아파스와 아이사스 그리고 소말리아 공화국과 케냐 공화국에 가까이 있다. 인구는 1천 3백만 명 정도이고 수도에는 1백 6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 곳에 한인 교포는 13세대 약 30 명 정도가 생활하고 있다. 크기는 47만 2천 스케어마일이고 텍사스 주, 오클로호마 주 또 뉴멕시코 주 3개 주를 통합한 크기만 하다. 남북한 합친 한국의 약 12배 정도이다.

이디오피아에는 나무가 울창하다. 그래서 동물들이 너무 많아 골치를 앓게 되었다. 급기야 동물들을 없애는 묘안이 나왔다. 나무를 전부 베어 버리면 동물들이 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었다. 산을 빨갛게 만들었다. 물론 동물들은 없어졌으나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우기에는 수해가 있다. 이들은 자기들이 행한 것이 어리석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나는 평소에 이 이디오피아를 한 번 방문했으면 했다. 이 나라는 신구약성경에 나오는 나라였기 때문이다. 구약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 때에 스바 여왕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솔로몬을 방문했다는 여왕이 바로 이 이디오피아 여왕이었다. 또 신약성경에서도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나는 간다게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갔다는 기록이 있다. 나는 더욱 관심이 깊었다. 이렇게 머나먼 거리에서 온갖 고생을 하며 예배하러 갔던 것을 생각하니 감개무량하였다.

이디오피아는 현재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케냐 한국 대사관

에서 미리 이디오피아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하여 출영 나오도록 되어 있었다. 내가 비행장에 내렸을 때는 연락받고 나온 영사님과 또 한국에서 오신 박 장로님과 여러분들이 맞아 주었다.

내가 비행장에 내리자 첫눈에 띠는 인상은 붉은 깃발이었다. 유리창과 벽과 큰 간판이 그림을 달고 있었다. 공산당 망치와 낫자루,그리고 맑스, 엥겔스, 레닌의 크고 작은 초상화들이 온 거리에 깔려 있었다. 그때 나는 모스크바에 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켰다. 오랜 왕정의 집권으로 부정부패가 극심하여 뜻있는 장교들이 혁명을 일으켜 왕을 죽이고 새 정부를 수립하였다. 정부 수립 후 미국의 원조를 요청했으나 즉시 호응해 주지 않았을 때 인접국 소말리아에서 쳐들어 오고 서북부에 있는 한 부족이 독립을 선언하고 혁명군을 향해 진격하기 때문에 생존과 정권 유지를 위해 소련에 손을 벌렸다. 소련은 즉시 군대와 다량의 무기를 지원함으로 이디오피아는 사회주의로 변모한 것이다. 원래 젊은 군인들은 사회주의에 깊이 물들었던 것은 아니라고 한다. 사회주의로 변모된 이디오피아는 왕정 시대보다도 사회적인 불안과, 경제적인 빈곤 등이 더 몸에 배인 것 같다. 이디오피아인들은 20년은 후퇴되었다고 하며 사회주의를 증오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8백여 명의 소련군이 수도에 주둔하고 있다. 중공이 가난하다고 하지만 중공은 이디오피아에 비하면 부자의 나라이다. 필자가 보고 느낀 이디오피아는 아프리카 방문 국가 중에서도 제일 가난하고 비참했다. 왕정 시대는 비록 부패했다 하더라도 불란서, 영국, 미국, 이태리 아이스크림은 언제나 사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돈을 주고도 살 길이 없다고 한다.

아프리카 여행 중 내가 느낀 것 중 하나는 가는 곳마다 한국 의사들이 있는 현상이다. 이디오피아에도 한국 정부가 파견한 3명의 의사가 있었다. 이들은 10여 년 동안 의료 사업에 종사하면서 현지 주민에게 봉사하고 있었다. 이들 의사들의 친절한 행동과 봉사는 민간외교에 선봉이 되고 있었다. 또 이곳에는 수도시설 기술자, 농업 기술자, 수산 기술자, 과학 기술자, 건설 기술자들이 있으며 이들도 놀라운 환영을 받고 있어서 한민족의 얼을 심고 있었다.

이 곳에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은 북한과 남한을 비교해 볼 때 남한은 일본과 같이 발전된 나라로 보고 있다. 북한은 비교도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디오피아 수도에는 한인 교회가 없었다. 그러나 이 곳 이디오피아에서는 사회주의라 하지만은 새로운 선교사는 받지 않으나 기왕에 있던 분들은 그대로 묵인하고 있었다.

이디오피아에 있는 동안 너무나 더워서 고생을 했다. 수도는 2천 5백미터 고지의 도시라 나는 숨이 막힐듯 허덕였다. 음식도 맞지 않았다. 잠자리도 불편했으며 몸에는 열이 올랐고 밤새도록 기침을 하다보니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이었다. 나는 은근히 걱정을 하였다. 혹시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았나? 모기에 몇 번 물린 일이 생각났다. 이틀밤을 지내는 동안 무척이나 애썼고 고통스러웠다. 내가 가나에 있을 때 나이제리아에서 온 건설 책임자인 백 선생이 "목사님! 아프리카에서는 모기를 조심하십시오. 우리 회사 건설 공장에서 모기에 물려서 일주일만에 세상을 떠난 한국 청년이 있읍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다니시다가 열이 오르고 머리가 아프시면 지체없이 병원을 찾아 가세요. 그것이 제일 긴요합니다"라고 하던 말이 머리에 번개같이 스쳐간다. 혹시 말라리아가 아닌가? 몸은 계속 아팠고 기침은 끊일 줄을 몰랐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를 드렸다. 아픔은 사라지고 평온을 되찾았다.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다.

이디오피아에는 앞으로 선교사를 보낼려면 교사, 의사, 전문 기술자들의 기능직 선교사를 보내야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선교정책은 인도나 버마나 말레이지아나 중공과 파키스탄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수도 시설 기술자로 온 박 정근 장로님 댁에서 예배를 보았다. 은혜의 시간이었다. 나는 도심지를 벗어나 농촌으로 가서 농가를 방문했다. 농가 집안의 내부 생활이 너무나 비참하였다. 집이라야 방 한 칸 크기를 흙으로 둥글게 쌓아 올려 지었고 장판이나 침대는 없었고 맨 땅에 사람이 자는 곳은 벽 밑을 돌아가며 한 자 높이에 두뼘의 넓이로 돋구어 놓았고 그 위에 짐승 가죽이나 천을 깔고 거기서 자고 있으며 그 방안에 소, 양, 닭들이 같이 자고 있었다. 원시인의 생활을 면하지 않았다고 본다.

내가 병으로 앓았을 때 나는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여 유언이라도 남겨야 할 필요성을 느껴 갖고간 성경 백지 공간에 유언 몇 가지를 썼다. 그리고 하나님께 생사의 모든 것을 맡겼다.

그 다음 날은 몸이 다시 회복세를 보였다. 그리하여 계속 여행을 하게 되었고 로마에 와서 신자들이 병원을 안내하여 진찰을 하고 약을 복용하면서 건강을 회복케 되었다. 이 짧은 병을 통해서 지난날의 아프리카 선교사들과 오늘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남녀 선교사들에 대하여 깊은 경의와 사의를 표하게 되었다.

나는 로마에 가기 위해서 다시 케냐로 나왔다. 내가 나올 때 이디오피아 한국 대사관에 근무하던 영사 한 분이 동행케 되었다. 그는 2년의 임기를 마치고 타지역으로 전출되는 중이었다. "오늘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시기 때문에 제 날 제 시간에 떠나가게 되나 봅니다." 그는 기분이 좋아서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곳 비행기 사정이 좋지 않아서 제 날 제 시간에 비행 시간을 맞추기가 매우 힘든 곳이었다. 너무나 고지라서 날이 나빠도 안 오고 구름이나 바람이 불어도 비행기는 잘오지 않았다.

이디오피아의 의사 유 민철 장로와 박 정근 장로에게 힘 있게 신앙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그 곳에 있는 교인들에게 목자대신 수고하라고 당부했다. 그들은 앞으로 그 곳에 교역자를 같이 모시고 있기를 원하고 있었다.

복음이 가는 곳에 평화가!

나는 아프리카 선교 여행을 통하여 대략 네 가지 점에 대하여 결론을 얻었다.

무지

아프리카 제국은 일반적으로 90%가 문맹인이다. 특히 기성세대는 자기의 생년월일도 모르는 사람이 허다하다. 예를 들면 병원에 찾아 온 환자에게 의사가 묻기를 "당신 나이가 몇살이오?" "한 스물살쯤 됩니다" 의사가 다시 말하기를 "무슨 말이요 당신은 50세도 넘었겠는데?" 그러니까 이 환자는 대답하기를 "아마 그쯤 되었나봅니다" 하더라는 에피소드가 있다.

심지어 기독교 장로나 목사 중에도 부인을 둘 셋을 거느리고 살면서도 죄의식을 못느끼고 있다. 이것은 그들의 오랜 전통과 습성에서 온 것이라고 본다. 이들은 남녀간 13세쯤 되면 결혼을 한다. 14세, 15세 정도가 되면 부모가 되고 국민학교 다니는 아이 중에도 애기를 난 학생이 있다. 20세쯤 되면 자녀가 4, 5명 정도가 된다.

이곳 사람들의 결혼관은 너무나 자유스럽다. 어디에서나 언제라도 피차 마음에 들면 즉시 결혼할 수 있고 결혼 후 또 마음에 안 들거나 좋아하는 상대가 생기면 언제라도 쉽게 헤어진다. 그러므로 대개의 가정에 있어서 5, 6명의 자녀가 있으며 아버지가 거의 다르다고 한다. 또한 아버지 얼굴도 못보고 이름도 모르는 애들이 태반이다.

케냐에 있는 맛사위 부족은 현대 문명을 증오하며 외면하고 살고 있다. 예를 들면 수도물은 약을 탓다고 절대로 마시지 않고 소 발자국에 고인 더러운 물을 즐겁게 마시며 또 동네에서 남자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보면 낮에 그 집 앞에 창을 꽂아 놓으면 밖에 나아갔던 그 여자의 남편은 자기 집에 들어갈 수 없고 외인 남자가 자고 나갈 때 창을 뽑고 간 후에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

빈곤

대도시에 사는 소수의 특수층만이 비교적 생활의 여유와 안정이 있고 도심지를 벗어난 대다수의 주민들은 가난하다. 그들은 전기도 라디오도 전화도 수도도 집주소도 없다. 집은 원두막이며 소 외양간과 같이 사람과 동물이 함께 기거하고 가구도 없고 침실도 없고 갈아 입을 옷의 여유도 없다.

인류의 문명의 기원은 전쟁, 기근, 질병, 지진, 홍수 등의 역경이 거듭되는 상황 속에서 문화와 문명이 발달되었으며 천연의 혜택을 받은 안일한 환경 속에서는 진취적인 문화나 문명의 발달을 볼 수가 없다.

독재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는 남미의 여러 나라들과 같이 군사 독재 국가들이 많다. 어떤 나라는 한 사람이 18년 이상 20년 가깝게 집권하고 족벌정치와 일당정치를 하는 나라가 많다. 인구는 적은데도 장관은 30명에서 40명 선에 육박한다.

고관들은 최고급 주택에 살고 있으며 월급은 수만 달러씩 받고 있으며 부인들을 6, 7명씩 거느리고 각국에 별장을 두고 자녀들은 구미에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 막대한 돈을 들여 유학시키고 있다. 자동차는 7, 8대씩 가지고 있으며 주로 구미제품들이다. 종들도 10여명씩 거느리고 산다. 이 곳에는 언론의 자유, 인권,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도 없다.

좌경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가 이미 좌경화되었고 다른 나라들도 점점 붉은 색으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무지와 나태와 가난과 독

재와 부패 또한 빈부의 격차에서 오는 필연적인 발생 현상으로 본다.

이러한 시점에서 아프리카의 구제의 길은 하나가 있다. 그것은 오직 복음뿐이다.

무지를 계몽하는 것도 복음이다. 복음이 가는 곳에 미신 타파, 여권 존중, 아동 보호, 노예 해방, 문맹 퇴치가 있기 때문이다.

빈곤 타파도 복음 밖에 없다. 복음은 노동 신성을 가르쳐 주고 있다.

독재의 추방도 복음뿐이다. 아브라함 링컨이 말한 바와 같이 국민에 의한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 국민의 정부는 지구상에서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 말은 실로 복음에서 배운 정치철학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치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자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 않는 자가 백성을 사랑한 예가 우리 인류 역사에 없다. 성경은 자유와 인권의 존중과 정의의 필승을 교시하고 있다.

스스로 개척하라
1985년 11월 20일 인쇄
1985년 12월 1일 발행
지은이 • 임 동 선
펴낸이 • 박 연 서
펴낸곳 • 양 서 각
등록 • 1959. 12. 5.(11 - 14)
151. 남서울 우체국 사서함 10호
312 - 5451 ~ 4 · 883 - 9393
값 4,000원